

제2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신문기사집

〈2000. 11. 30 ~ 12. 2〉



통 일 부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동안 3차례의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2차례에 걸친 생사·주소확인, 1차례의 서신교환을 실시하여

- 남과 북 모두 3,600여명의 가족과 친척이 상봉하였으며 10,000여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일대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에 대해 참고자료로 남기고자 제1·2·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관련 국내 신문기사를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권 : 제1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8.15-18)

II 권 :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11.30-12.2)

III 권 :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2.26-28)

기사집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편집하였습니다.

첫째, 시간대별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일자, 조·석간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신문기사는 10개 종합지와 4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하여, 편집순서는 스트레이트, 스케치, 해설 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문기사가 많은 날은 신문사별(가나다 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기사집이 남북관계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 3.

통일부 인도지원국

일 반 기 사

2차 이산가족 교원방문 일정 (11.30~12.2, 서울-평양)



서울 (왼쪽) 평양 (오른쪽)

서울	평양
<p>11.30</p> <p>오전 12시 • 서울 김포공항 도착</p> <p>오전 2시 • 숙소 롯데월드호텔 도착, 오찬 ('리세느' 뷔페식당)</p> <p>오전 4시 • 단체상봉 (센트럴시티 매표니업룸) -6시</p> <p>오전 7시 • 점심식 민적 총재 주최 환영 만찬(센트럴시티 매표니업룸) -10시</p> <p>오전 10시 • 1차 개별상봉(호텔 객실)</p> <p>오전 12시 • 가족 공동오찬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룸) -1시30분</p> <p>오전 1시30분 • 2차 개별상봉(호텔 객실)</p> <p>오전 4시 • 침관(롯데월드 민속관)</p> <p>오전 6시30분 • 박재규 통일부장관 주최 환송만찬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룸) -10시</p> <p>오전 10시 • 호텔 주차장 가족환송행사</p> <p>오전 12시 • 평양으로 귀향</p>	<p>11.30</p> <p>오전 10시 • 평양 순안공항 도착</p> <p>오전 11시 • 숙소 고려호텔 도착, 오찬</p> <p>오전 11시 • 단체상봉(고려호텔)</p> <p>오전 12시 • 북한 적십자회 주최 환영 만찬(인민문화궁전 예상)</p> <p>12.1</p> <p>오전 • 1차 개별상봉(호텔객실)</p> <p>오전 • 가족 공동오찬(호텔 내)</p> <p>오전 • 2차 개별상봉(호텔객실)</p> <p>오전 • 침관(물밀대 동 평양인근 유적지 예상)</p> <p>오전 • 평양시 인민위원회 주최 환송만찬(육류관 예상)</p> <p>12.2</p> <p>오전 9시30분 • 서울로 귀향</p>

30일 단체상봉... 1일 두차례 만남

미리기본 2차방문단 일정

30일부터 2박3일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은 1차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에 노출되는 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상봉 등 이산가족 중심의 행사가 많아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장재인(張在彦)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일행 136명은 남측 방문단이 대한항공 전세기편 이용, 평양에 먼저 도착한 뒤 같은 비행기로 30일 낮 12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장정자(張正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공항에서 이들을 맞을 예정이다. 방문단은 숙소인 오기

과 오후 2차례 호텔 객실에서 개별상봉을 갖는 한편 점심도 남측 가족과 함께 한다. 개별상봉이 끝나면 방문단은 남측 가족들과 떨어져 롯데월드 민속관을 둘러본 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이 주최하는 환송만찬에 참석한다. 방문단은 2일 오전 호텔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진 뒤 북한 고려항공 전세기편 통해 귀향한다.

◇평양=봉두원(奉斗元) 한직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 일행 151명은 30일 오전 9시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 10시 평양에 도착한다. 숙소는 1차와 마찬가지로 고려호텔이다. 평양의 방문단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2회, 공동오찬 1회, 단체 환송 등 가족들을 5번 만나게 된다. 환영만찬과 환송만찬은 1차의 예를 준용, 각각 인민문화궁전과 육류관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영기자 kwakgjin@sgt.co.kr

2차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 각각 1명 교체

오는 30일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할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원이 양측에서 1명씩 교체됐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남측 방문단원중 평양에서 재가한 부인과 여동생을 만날 예정이던 김용주(78)씨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방북을 포기해 이경훈(84)씨가 방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북측도 서울에서 여동생을 만날 예정이던 김석기(69)씨가 급병으로 방문단에 참여하지 못해 남측에 여동생이 있는 최근섭(75)씨가 방문단에 새로 포함된다고 지난 24일 통보해 왔다.

사회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한국일보

2차 상봉가족 수송 대한항공 먼저 평양행 남북방문단 각1명씩 교체

11월30일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이날 오전9시 대한항공(KAL) 특별기가 남측 가족을 태우고 평양으로 가시, 평양에서 북측 상봉단을 태우고 서울로 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남북 협의에 따라 30일에는 우리측 비행기가, 12월 2일에는 북측 고려항공이 운항해 이산가족들을 수송하게 될 것"이라며 "12월1일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된 환송 만찬에는 가족들이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북 양측은 25일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 중 각각 1명씩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교체한다고 통보했다. /이영섭기자

2박3일간 5차례 만남

2차 이산상봉 어떻게

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지난 1차례보다 하루 축소된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남북은 이에 따라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고 5차례, 약 9시간의 만남을 통해 '혈육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환방문 일정은 상봉 하루 전날 29일 시작된다. 남측 평양방문단 100명은 이날 오후 북측 서울 방문단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방북교육을 받고 1박을 한다. 그러나 1차 상봉때 있었던 방북 진침와대 방문 및 오찬은 이번엔 빠졌다.

상봉일인 30일에는 남측 대한항공 특별기가 평양방문단을 태우고 오전 9시쯤 평양으로 출발한다. 이어 서울방문단이 같은 비행기를 이용해 낮 12시30분쯤 김포공항에 내린다. 1차례는 북측 고려항공 여객기가 서울방문단을 태우고 먼저 왔다.

남북 방문단은 도착 후 각각 숙소인 고려호텔과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후 4시쯤 단체상봉을 한다. 서울은 반포 센트럴시티 6층 '말레니움홀'에서, 평양은 고려호텔에서 2시간 정도 이뤄진다.

방문 둘째날인 12월1일에 이산가족들은 6시간 동안 오붓하게 보낼 수 있다. 오전 10시 숙소 호텔에서 개별상봉을 시작해 점심쯤 함께 하고 이어 오후 4시까지 개별상봉을 한다.

상봉이 끝나면 인근 명소를 찾아 1시간 가량 관광을 한다. 이때 가족들은 동행하지 못하니 풍제는 하지 않는다. 저녁에는 환송만찬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날인 2일은 오전에 호텔 로비 등에서 30분 가량의 환송상봉이 있다. 평양방문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려항공 특별기를 이용해 서울로 오며 서울방문단은 이 비행기를 이용, 낮 12시쯤 평양으로 향한다.

최재영기자

cyouny@kyunghyang.com

이산가족 교환방문 1, 2차 비교

항목	1차	2차
상봉기간	8·15~18(3박4일)	11·30~12·2(2박3일)
상봉회수	단체1, 개별2, 공동식사2, 환송1회(총 6회 11시간)	단체1, 개별2, 공동식사1, 환송1회(총 5회 8시간30분)
숙소	서울: 위키움호텔 평양: 고려호텔	서울: 잠실롯데호텔 평양: 고려호텔
허용인원 상봉	북측: 함관평, 기정방문, 상요	북측: 기정방문, 상요
허용사항	병정·영물린스 상봉, 12개이 상봉	병정·영물린스상봉, 릴레이 상봉
참관	고궁관람, 롯데월드 민속관 (2회, 5시간)	롯데월드 민속관 (1회 1시간)
현금채권한도	1,000달러	500달러

75세 아들 '만년 청춘 사진' 잠못 이루며 '보고 또 보고'

2차 이산상봉 하루앞

방문단 숙소 롯데호텔 韓電파업 대비 자가발전

2차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30일 남측으로 내려오는 북측방문단 숙소인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과 집단 상봉장인 반포동 센트럴시티는 28일 손잡밧이들 위한 파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반대로 50년만에 그리던 합육을 만나러 북으로 떠나는 남측 방문단 역시 상봉을 하루 앞두고 설렘과 긴장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북측 방문단 숙소 및 집단상봉장 준비=롯데호텔은 북측방문단이 묵을 방으로 10~16층의 객실 100개를 기준가(30만2500원)보다 45%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다. 방문단은 30일 오후 2시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 후 곧바로 32층에 위치한 뷔페식당 '리센느'에서 문배주 등을 겸한 한정식으로 중식을 갖는다.

호텔측은 30일로 예정된 한국 전력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시간당 5900₩를 쓸 수 있는 자가발전 설비 6대를 대기시켰다. 호텔관계자는 "평소 일일 전력사용은 시간당 1200₩이기 때문에 한전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별도로 반포동 센트럴시티

에 마련된 집단상봉장은 외 1300평 규모의 6층 말레니움홀로 6명이 앉을 수 있는 동근테이블과 다과, 한미음 담배 등이 배치됐다. 개폐식 유리돔인 상봉장의 천장 돛을 상봉기간중 오후 4~6시 두차례 여는 이벤트행사도 준비됐다. 행사를 총괄하는 유재상 이사(45)는 "1차 상봉때처럼 딱딱한 만남은 지재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측 방북단 표정=북측의 큰 아들 신동기씨(75)를 만나러 가는 최고령, 유두희씨(100-여·김원도 원주)는 별편한 거동에도 큰 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이 잠을 못이웠다. 유씨는 "25세때 북한군에 끌려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눈 뜰에 안고 있던 아들의 결혼사진을 확대해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부인과 자식을 만나는 홍대중씨(79·서울 목수동)는 "하나님의 뜻으로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남쪽 아들이 선물로 준비한 돈을 전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아들 2명과 동생 석하씨(72)를 만나러 가는 김윤하씨(83·춘천시 후평동)는 "남쪽 가족들 사진과 북쪽 아들, 며느리와 재수씨를 위해 금반지쯤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태원 이송철기자

서울경제

2000. 11. 29 (수)

남북양측 이산가족 오늘 동시 교환방문

남북 양측의 이산가족 각각 100명이 30일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교환 방문한다.

이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29일 낮 1시 방문단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 집결

해 소지품 검사를 마친뒤 오후 3시부 터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흥역에방접 증을 실시한다.

남측 방문단은 이어 호텔 5층 롯데예식장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등에서 준비한 방북 안내 설명회에 참

가한다.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하는 남북 양측 방문단은 단체상봉에 이어 한직과 북적이 각각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첫날 일정을 마치게 된다.

/김홍길기자 01anycall@sed.co.kr

짧은 일정 아쉽지만 선물준비 분주

■ 상봉 앞둔 南측가족 표정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측 상봉 가족들은 선물준비에 여념이 없다. 만만다는 사실이 반갑지만 2박3일의 세부 일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박하다는 입장이다.

●모자 달린 점퍼가 가장 인기 북에 있는 가족에게 줄 선물로 가장 선호되는 것은

모자달린 점퍼·손목시계 인기 같이 보내는 시간 짧아 더 서운

활동용품인 모자 달린 점퍼다. 비싼 상품에 부담이 된다고 해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샀다.

여기에 목도리 양말 내의 등을 부수적으로 준비했다. 만나는 사람 수대로 준비할 수 있고 부피나 무게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목시계도 인기상품이다. 한편 평양에서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는 양철영씨(82·서울 마포)는 아내를 위해 한복

한벌을 따로 준비하는 등 상봉가족들은 의미있는 선물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선물을 지체해달라는 정부 방침에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북에서 오는 오후 이근섭씨를 만날 이영자씨(71·광주시)는 아내와 함께 끼라고 금반지 두개를 준비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그동안 소식이 끊겨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 우선 만나 보고 나서 선물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만나긴 하는데... 상봉자들은 일단 만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만에 만나는데 함께 지는 것은 안되고 식사도 둘째날 점심 한번만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갑갑하기만 하다는 입장이다.

방북자 가족들도 여간 걱정이 아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한상준씨(84·인천 부평)는 현재 지방이탈 집고 다니는 상태. 북에 두고 온 자식 7남매를 만날 생각에 최근에는 잠도 설치고 있다. 남한에서 태어난

2차 이산가족 상봉일정

남측 방문단 (평양일정)		북측 방문단 (서울일정)	
11월30일			
오전10시 평양순안공항 도착		낮12시반 김포공항 도착	
낮12시 고려호텔 도착		오후2시 잠실롯데월드 도착	
고려호텔	오후 4시반 단체상봉	신르빌시티 6층	
오후6시 남북적십자주최 만찬			
12월1일			
고려호텔	오전10시 개별상봉	롯데월드호텔	
	낮12시 공동오찬		
	오후1시반 개별상봉		
	오후4시반 참관		
	오후6시반 만찬		
2일			
오전9시	상봉가족 환송	오전10시	
오전10시	평양순안공항 출발	낮12시	김포공항 출발

팔 엄선씨(41)는 "하도 걱정이 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며 "앞으로는 가족 1명 정도가 함께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문의기자 lark3@kdaily.com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왼쪽)와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이번 서울 회동에서 서약한 마음을 풀지 주목된다. 시종은 두 사람이 지난 8월15일 평양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는 모습. ●대한매일 포토라이브러리

南北赤 두 張총재 '오해' 풀릴까

내일 서울서 자연스런 만남 北 비하 발언 앙금해소 주목

북한 비하발언으로 북측과 갈등을 빚었던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기간중 북측과 오해와 앙금을 풀 수 있을까.

북한의 장재언(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오는 30일 방문단을 인솔하고 서울에 올 예정이어서 상봉기간중 남북한 적십자사 총재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

기 때문이다.

북측은 장 총재의 비하발언 해명에 대해 아직까지 수용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 이 때문에 서울에 오는 장 위원장의 태도가 주목되는 가운데 두 총재는 행사 첫날과 둘째날 한적 총재 및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서 연이어 얼굴을 맞대게 된다.

한적측은 장 위원장의 적십자사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1차 때 평양을 방문했던 장 총재는 방문 첫날 조선적십자회를 찾아가, 20여분가량 장 위원장과 친밀한 전례도 있다. 서울에 왔던 유미영 북측단장도 적십자사를 방문했다.

한적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양측이 오해를 풀고 이산가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장 총재에 대해 '정중한 외면'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어 마음은 놓지 못하고 있다. 장 총재도 "방문단 교환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이끼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차분한 준비... 내용은 알차게



30여 시들과 평양에서는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8월 1차 상봉에 이어 다시 감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묘사지침이나 그 주변은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다.

북에서 올 동생을 맞을 시골의 한 심봉 대상자는 "상봉이

1차때 간접체험- 대상자-업계 조용한 움직임
겨울내의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선물마련 고심

제2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	
1차	2차
11월 15~18일 (3박4일)	11월 30일~12월 2일 (2박3일)
출 5명 (3차, 4명, 2명, 2명)	출 5명 (3차, 4명, 2명, 2명)
경북의 1인당 500달러의 보조금. 각 기업 협찬상품 전달	경북 및 선물 전달한다

계속될수록 기쁨과 흥분보다는 '와 떨어져 살아야 하나'와 같은 의문이 가슴을 찢어내는 것이 이다"면서 "만나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줄기만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1차 상봉 때 이산가족들에게 시계와 양말, 동 무료선물 판매를 맡았던 업체도 이직은 없다. 이번 동직업이 없고, 각종 이벤트를 펼쳤던 백화점들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차 상봉 때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러던 가족들도 생활에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경우가 많았다.

북의 오빠를 만난 이영자(李榮子·기·관주 평산구 송천2동)씨는 "나는 운이 좋지만 아직도 북의 가족을 못만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면서 "오빠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의 숙부님 만나는 니봉군(羅鳳均·49·시골 풍토구 부안동)씨는 "북에서 만난 선물을 기리는 뜻에 겨울내의 등 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영사·민동월간지) spear@donga.com

방탄 가족들 될 준비합니까

제2차 이산가족상봉(30일~12월2일) 대상자들은 가족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8-15 제차 상봉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가족사친 교인용품 챙기야

V이렇게 준비하라-대부분의 '상봉 계획자'들은 추운 겨울인 만큼 따뜻한 옷가지와 여러용품 가장 좋은 선물로 꼽았다.

8월 평양에서 오빠와 동생을 만났던 정명희(丁明希·72)씨는 "내외 양반에서 시작해 옷가지와 신발을 준비했다"고 소개하며 "어플 상자를 받는다는 만큼 두꺼운 옷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에서 아내와 동생을 만난 최대현(崔大現·71)씨도 내외 외에 감자와 비리만 양양제 품 필수 의복품을 추천했다.

방한용 옷가지-감기약등 의약품 추천

품대용	상비약, 위장용, 카메라, 컴퓨터, 전기제품(220V 전압, 전자레인지 등 안전장치로 전선지도 준비)	카메라, 컴퓨터, 휴대전화
건강상품	방한복(내외 및), 보온용, 의약품, 양양제, 가족사친, 가족어 접근 받은 선물, 교통 비싼품, 교인의 유물	
복합적인 품가용	영어교과, 의복, 미국가나 상조기 용기들품, 북한제대 비망 비자 및 비디오편, 영, 동도이상 의약품, 동, 음식물	
선물 품종	부모 못감 현해, 형제사제 간담한 기념품, 현금 500달러이하, 동고려원 문지, 양복, 현해 동 정경 경공	

옷가지와 의복 외에 좀 '귀한' 선물품 권하는 사람도 있다. "북에서 내려온 형에게 보정기품 선물했다"는 이준원(李准源·67)씨는 "형이 북에서 보정기품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뉘따기라며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메라나 시계, 화장품 등을 권한 사람도 있었고 각각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반지 등 귀금속을 추천

한 사람도 없었다. 가족 사진이나 교인의 유물같은 것을 가져가는 것도 뜻깊은 선물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북에서 내려오는 가족의 경우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리는 작으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선대하라"고 조언했다. V1차 때와 달리 전-북측 제안에 따라 상봉가족간에 주고

받은 현금과 기념품에 제한을 두었다. 부모는 옷감 한 벌, 형제지매는 간단한 기념품만 주고 받되 종교품 전달은 안된다. 현금은 500달러 이상 주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

1차 상봉 때 1인당 500달러씩 제공했던 '정부 지원금'이 없으며, 기업의 선물 협찬도 가급적 받지 않는다.

현금은 500달러 이내로

상봉 일정은 2박3일로 1차 때와 비교 하루 줄었지만 상봉 횟수나 시간은 줄지 않았다. 1차 때 2차례였던 잠금 시간도 1차례로 줄이는 대신 12월1일 오전 10시 개벽 상봉부터 품동 오전 10후 개벽 상봉까지 약 6시간간 동안 가족들 '노스프'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태원기자) scoonop@donga.com

손님이 분주 명시장-속

제2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 이틀 전인 28일 상봉장소인 서쪽 송과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과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는 아버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100여명 준비팀 발도 구성

V센트럴시티-30일 오후 4시 첫 위안상봉이 이뤄질 센트럴시티는 열을 전부터 100명으로 된 '남북상봉 준비팀'을 구성해 연회, 시식, 주차 등 분야별로 준비사항을 매의 점검.

상봉장인 6층 일레니움에는 하인 식당보에 담은 일레니움 30여개가 마련됐으며 상봉순간 동 행사의 천장이 열리도록 해극자의 잔여를 연출한 계획.

편안한 만남위해 구슬땀 마무리 한창



제2차 이산가족 접대상봉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6층 일레니움에서 호텔 직원들이 테이블 준비 등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가발전기로 전력 확보

V롯데월드호텔-북측 상봉단이 북을 롯데월드호텔은 14일부터 행사 사무국에 30명을 따로 배치해 '상공직 상봉'에 민전을 기하는 모습. 객실 냉장고에는 평소 넣어두던 양주 대신 분배주, 소주 등을 준비.

호텔측은 또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직원 300여명에게 '무리한 약속을 요구하지 말 것' '북한이 아니라 공화국이나 북측으로 호칭할 것' 등 주의사항이 적힌 소책자 '귀한 손님맞이예절'도 배포. 롯데월드호텔과 센트럴시티측은 한편의 파업에

“北방문단에 무리한 악수 요구 말라”

이산상봉 호텔직원 교육

‘무리한 악수 등을 요구하지 말 것’ ‘국명은 공화국, 이북, 북측으로 부를 것’ ‘돌아서서 웃거나 겹눈질하지 말 것’...

30일 2차 이산가족 상봉시 북측 방문단의 숙소가 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종업원들에게 배포한 교육용 책자 내용이다.

2차 상봉을 이틀 앞둔 28일 현재, 숙소와 상봉장으로 이용될 업체에서는 행사준비가 한창이었다. 롯데호텔측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종업원들 예절교육. ‘귀한 손님 맞는 법’이란 소책자를 나눠주고 하루 2~3차례씩 특강도 하고 있다.

한식 위주의 식단이 확정됐다. 30일 오후 2시 북측 방문단이 도착하면 우선 32층의 ‘라세느’에서 백세주를 곁들인 ‘뷔페식 중식’이 제공된다. 행사 이튿날 조식은 녹두빈대떡, 제주옥돔구이,



쇠고기 무국으로 결정됐고, 중식으로는 3층 ‘C.B.R’에서 쇠고기국, 전하유, 제주옥돔구이, 석식에는 한송만찬으로 해삼과 전복, 야채와 닭고기조림, 돼지고기와 탐수육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북측 방문단이 묵을 방은 10~16층 ‘스탠더드 룸’ 121개. 북측 이산가족방문단 단장을 위해서는 한 등급 위인 ‘코너 스위트룸’을 배정했다. 각 객실 미니바를 없애는 대신 ‘환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문배주와 소주함 비치기로 했다.

/崔宰赫 기자 jhchoi@chosun.com

한겨레

2000. 11. 29 (수)

장총재 유감 서한 북적 싸늘한 답신

“2차 상봉때 뒷줄 머물길”

북한은 27일 만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때 북측방문단이 서울에 머무는동안 장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행사의 진면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남쪽에 전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경향신문

2000. 11. 30 (목)

서울·평양서 100명씩 이산상봉

張한적총재 돌연 日출국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이 30일부터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동안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난다.

이산가족과 지원인원, 취재기자로 구성된 양측 방문단은 이날 오전 대현항공편으로 서울과 평양을 방문. 12월2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고려호텔에 머물며 새차례의 개별 및 단체상봉과 공동오찬, 관공각 한차례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한다. /권연기서 5·19면

북측의 평양방문단 151명은 봉두원(奉斗院)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북측의 서울방문단 136명은 김재연(金在彦)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각각 단장으로 이끌게 된다.

한편 정부는 북측 요구에 따라 2차 상봉 기간동안 장총식(張忠植) 한적 총재 대신 김정자(金正子) 부총재가 업무할 전망이다. 장총식 총재는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연 출국해 다음달 4일까지 체류할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원간조선 인터뷰권을 문제 삼으며 2차 상봉기간 동안 장총재를 진면에 내세우지 말아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30일 북한을 방문할 남측 이산가족들이 29일 남북 인내설명회가 열린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중앙일보

2000. 11. 30 (목)

오늘 2차 이산상봉

남북 이산가족 2차 방문단이 분단 반세기 만에 가족·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30일부터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교환 방문한다. 지난 8·15 1차 방문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방문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반포 센트럴 시티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첫 집단 상봉을 갖는다. <관계기사 5.26면> 방문단은 남북 이산가족 각 1백명 외에 지원요원·취재진 등을 포함해 남측(단장 秦斗玩 한직 부총재) 1백 51명, 북측(단장 張在彥 북직 중앙위원장)은 1백36명이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50년 恨...통곡의 만남

오늘 2차 이산상봉

30일은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다. 지난 8·15상봉 이후 3개월 보름만이다. 50년만의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남측 방문단은 설명회 흥분 속에서 북녘행을 기다렸다.

◆남측 방문단 '출발준비 끝' = 남측 이산가족 1백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에서 모

여 방북준비를 마

무리했다. 이들은

북녘 가족들에게

줄 선물 등을 담은

쳤고 오후 3시부터는

참에 따라 흥의 한

자들은 예방접종도

이후 4시30분부터는

설명회에 참석, 방

북과 행동요령 등

도 들었다.

정부측이 마련한

정부측이 마련한

을 남측 이산가족들도 설레기는 미친가치였다.

지난 5일부터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중인 운보 김기창(88) 화백은 막내 동생 기만(71)씨를 만난다는 생각에서인지 기력을 되찾고 의식도 점차 회복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상봉일정·북측 방문단은 30일 오후 2시 잠실 호텔롯데월드에서 여정을 끝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4시 센트럴시티 6층 빌레니움을

에서 단체상봉을

하고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1

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 객실별로 개별상봉을 하고 점심식사

도 함께 한다. 오후 개별상봉 후에는 롯데월드 민속관을 참관한 뒤 환송만찬에 참석, 서울에서의 마지막 밥을 보낸다. 이어 2일

오전 호텔롯데월드 2인방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이쉬운 직별을 한 뒤 평양으로 돌아가게 된다. 평양에 가는 남측 방문단은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회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제2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

Table with columns: 날짜, 시, 요, 임, 임.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2nd inter-Korean family reunion, including arrival times, meals, and departure times for both sides.

世界日報

2000. 11. 30 (목)

이산가족 오늘 '2차 상봉'

남편과 북한의 이산가족 각 100명은 반세기만에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30일 서울과 평양을 각각 교환 방문한다. 남측은 당초 8·15 이산가족 1차 상봉에 이어 2차 상봉을 11월2~4일 갖기로 합의했으나 북측 사정으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

(관련기사 5면)

남측방문단은 봉두원(秦斗玩)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요원 30명, 취재진 20명으로, 북측방문단은 장재인(張在彥)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

명, 지원요원 20명, 취재진 15명으로 구성됐다.

남측방문단 가운데 올해 100세로 최고령자인 유두희(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바리) 할머니는 평양에서 50년만에 아들 신동길(75)씨를 상봉하고 석만길(84·충남)씨는 아내 장보부(86)씨와 큰딸 장실(65)씨를 만난다.

양측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체류하는 동안 단체상봉(30일) 한 차례, 개별상봉(1일) 두 차례와 공식행사 등 2~3일간의 일정을 보낸 뒤 2일 오전 귀환한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한국경제

2000. 11. 30 (목)

오늘 2차 남북이산 상봉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으로 선정된 남북한 이산가족 1백명씩이 30일 서울과 평양을 상호방문,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 친척들과 만난다. ▶관련기사 37면

남측에서는 봉두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과 지원인원, 취재기자단 등 1백51명의 방문단이, 북측에선 장재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백36명의 방문단이 대한항공편으로 각각 평양과 시울에 도착, 2박3일간의 상봉 일정에 들어간다.

사회통 기자
fireboy@hankyung.com

서울경제

2000. 11. 30 (목)



"상봉설렘에 주사도 안아파요"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예비스 집에 참석한 한 할머니가 북측의 요구대로 예방주사를 맞으면서도 상봉의 설렘으로 웃고 있다. /이종철기자

한국일보 2000. 11. 30 (목)

남북 이산가족 오늘 2차상봉

100명씩 모두 200명의 남북 이산가족들이 30일부터 12월2일까지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상호방문, 반세기 동안 헤어져 지내던 가족·친척들과 만난다.

봉두완(奉斗玩)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단 20명으로 구성된 남측 방문단은 30일 오전 9시 대한항공 특별기로 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출발, 오후 4시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족들과 단체 상봉한다.

다. ★관련기사 5:34-35면
장재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20명, 취재단 15명으로 이뤄진 북측 방문단은 평양에 도착한 대한항공 특별기로 12시30분께 김포공항으로 입국,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 뒤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 시티 6층에서 단체 상봉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대한매일

2000. 11. 30 (목)

'고향 푸근함 갖고가도록 최선'

롯데월드호텔 사무국 韓逸국장

"민족의 대행사인 만큼 사명감으로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온듯한 편안함을 갖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 방문단이 머무르며 눈물바다를 이룰 롯데월드호텔 준비사무국 한일(韓逸·46) 국장은 지난 14일부터 숨가쁘게 진행됐던 준비과정을 돌아보며 성공적 상봉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롯데월드호텔은 한 국장을 중심으로 30명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리 객실과 연회장 준비를 마치고 600여명의 전직원들에게는 말투, 시선처리 등 세심한 부분까지 교육시키기도 했다.

한 국장은 "준비기간(2주)이 짧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최근 명양학



생청소년예술단 방문, 남북장관급 회담 등 여러 남북 행사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단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 동선을 가급적 짧고 편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2차에 이어 3차, 4차도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나아가 하루 빨리 이런 상봉행사가 필요없는 통일の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의 벽을 허무는데 일조한다는 뿌듯함이 가장 큰 동력이 됐다는 한 국장의 '소박한' 바람이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잡 다녀오겠습니다 "잡 다녀오겠습니다" 북측을 하루앞둔 2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모인 남북 방문단 일행이 환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kdaily.com



“오늘 北쪽 형제 만나요” 2차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누니와 동생을 만나러 평양에 가는 신형순(가운데)씨가 서울 잠실롯데월드호텔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북측 열육에게 보여줄 가족사진을 들여보이고 있다. (기사 2면) /신현경기자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홍익주사 맞았시오” 고향방문을 하루 앞둔 북한방문단 일행이 2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로비에서 용역 여행주사를 맞은 후 기대에 찬 환한 모습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호일수기자

오늘 2차 이산가족 상봉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관련기사 26면)

방문단 내한직접지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이산가족방문단 100명은 30일 오전 9시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전 10시쯤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장재인 북한직접사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이산가족방문단 100명도 남측방문단이 타고간 비행기로 순안비행장을 출발해 낮 12시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 2박3일간의 방문일정에 들어간다. 김재중기자 jikim@kmba.co.kr

장충식총재 돌연 日출국 논란

'2차상봉' 앞두고 北요구 따라 '자리피하기' 의혹

韓赤환영만찬 부총재가 대행

'북한 자극발언'으로 북측과 갈등을 빚었던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일본으로 전격 출국, 북측의 요구에 따른 '자리 피하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장 총재의 월간조선(10월호)과의 인터뷰를 문제삼아 지

난 3일 이산가족사업, 재검토 등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 2차 이산가족 방문단 일정조정 과정에서 장 총재가 이번 이산상봉의 전면에서 나서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장 총재의 이번 일본방문은 지나치게 북측을 의식한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적 관계자는 "장 총재가 일본적십자사 초청으로 29일 오후 6시

40분 서울을 떠나 내달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며 "장 총재는 일적 관계자들과 만나 사할린 동포의 영구귀국과 한국내 복지회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적이 북측 방문단을 환영하기 위해 30일 마련한 환영만찬은 장 총재 대신 장정자(張貞子) 부총재가 참석하게 된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北서 "張총재 거부" 통보후 우왕좌왕

張忠植총재 '이산상봉' 하루전 출국

대한적십자사 장충식(張忠植) 총재의 29일 돌연한 출국은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우선 27일 통일부 공보관의 공식 브리핑은 물론, 29일 박기훈(朴基勳) 사무총장의 확인을 통해서도 장 총재의 '30일 만찬 주재'는 부동의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장 총재가 출국 공항에서 "원래 예정했던 출국"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측의 이상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29일 오전, 북측이 27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장 총재 주최 만찬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장 총재의 '행방'은 갑자기 비밀이 됐다. 장 총재의 한 측근은 오전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허리가 불편해 병원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일 만찬을 주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적 관계자도 "작년에도 허리 병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다"며 "연세도 있고 하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연막을 쳤다.

이 시각 한적 총재실 주변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한 관계자는 외부와의 전화를 통해 장 총재의 일정과 안내를 맡을 사람을 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북측의 요구가 있을 뉘 서둘러 일본 방문 일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이래서 낡는다.

뒤늦은 한적의 설명도 군색하기 짝이 없다. 장 총재의 일본 방문 목적이라는 '사할린 동포의 영구 귀국 문제' 협의는 하필 북측 이산가족이 서울을 방문하는 이 시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적의 최고 책

어제아침까지 "만찬주최" 갑자기 "병원에 갈것" 오후에 일본행으로 변경

"사할린동포 문제협의" 적십자측 군색한 해명... '對北 저자세' 의혹일어

임지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측이 지난주 장 총재의 만찬 주최 여부를 놓고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협의 내용에 대해 관련기관 모두 쉬쉬해왔던 사실도 '뒤늦은 기획(企劃) 출국'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장 총재의 출국을 둘러싸고 다시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장 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와 관련, 장 총재가 직접 쓰지도 않은 대북 유감 서한을 이달초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崔秉默기자 bmcchoi@chosun.com

/尹楨漢기자 jhyoon@chosun.com

“50년보다 긴 밤...왜이리 더디나”

2차상봉 前夜 - '뜬눈 밤샘'

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 하루 전인 29일,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들은 반세기만에 만나는 혈육의 빛바랜 사진을 들여다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 방북길에 오르는 평양방문단 100명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방북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 가족을 만나는구나”라며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성일기자

‘잠못이루는 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평양에서 50년만에 부인과 두 아들을 만나게 될 양철영씨(82)가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

또 북측방문단을 맞이할 남쪽 가족들은 서울의 친척 집이나 여관에 모여 50년만에 만날 혈육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온갖 상념 속에 밤새 뒤척였다.

동생 김기만씨(71)의 서울 방문이 최종 확정된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진 김기창 화백(87)은 이날 현재까지도 산소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 상봉’이 허용돼 당대 남북 최고의 형제 화가는 50년만의 해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화백의 아들 김완씨(51)는 “아버지가 현재 말쑥은 못해도 사람은 알아보신다”면서 “북측과 상의해 병원에서 두 분이 상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도 “상봉을 위해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한다”며 “이직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시정이 여의치 않지만 동생과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에서 오는 형 리석균씨(72)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이날 일찌감치 단체 상봉장인 반포 센트럴시티에서 가장 가까운 막내 동생 석오씨(51)의 집에 모였다. 6·25전쟁 중에 생이별한 석균씨는 고향인 전남 순천을 떠나 서울에 올라가 일류대를 다니던 믿음직한 장남으로 집안의 기둥이었다.

석오씨는 “형님은 동네에서 수재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면서 “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불

흑백사진 돌려보며 가족들 ‘이야기꽃’ 김기창 화백 ‘병원 상봉’ 애탄 상의도 100세노모 78세 北아들 재회에 눈시울

림없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형님과 누님들이 모두 올라오셨다”며 “오늘 밤엔 각자 준비해 온 선물들을 포장하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50년 전의 추억에 흥취 젖을 것 같다”고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방북자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100)는 6·25 당시 헤어진 아들 신동길씨(78)를 만난다는 기쁨에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다. 50년동안 꺼내 때마다 동길씨 몫의 밥을 떠놓고 아들을 기다린 유할머니는 “이제 동길이를 만날 수 있게 됐으니 편히 눈을 잠을 수 있어...”라며 눈에 습막을 드리웠다.

북에 있는 아내(87)와 아들 딸들을 만나러 가는 석만길씨(84)는 “남쪽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함께 기뻐해 편안한 마음으로 북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아내와 갑자기 헤어지면서 이쯤조차 지어주지 못한 막내 딸이 가장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내복과 시계 등을 준비했다는 석씨는 “생전에 이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일이면 만날 수 있구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고향인 황해도로 시동생들을 찾아가는 김진옥 할머니(81)는 28일 대전에서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왔다. 김씨는 지난 주말엔 남편 묘소에 둘러 방북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서울에 와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양복 옷감, 내복, 초콜릿 등을 샀다”며 “비록 직계 가족은 없지만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을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김형기·권재현·임영주기자

hkg@kyunghyang.com

“행사줄여 만남 알차게”

박기륜 韓赤사무총장 일문일답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의 남측 총괄책임자인 박기륜(朴基倫)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29일 “일정이 1차때보다 하루 줄어들었지만 더욱 알찬 상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측 평양방문단 100명 중 10명을 제외하곤 모두 70세 이상이다. 몸이 불편한 이도 일부 있는데, 대비책은 있나.

“긴장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방북단 10명을 헌담으로 짜 각 팀에 지원인원을 1명씩 배정해 그림자처럼 모시게 할 계획이다. 또 의

1차때보다 하루 짧지만 가족만남 위주로 진행 후속사업도 논의 기대

사와 간호원이 동행해 한분 한분 세심히 돌볼 것이다. 1차때 경험용 바탕으로 평양 체류기간 중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봉 일정이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었는데,

“지난 8·15 상봉은 처음으로 하다보니 이벤트성 행사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만남 자체에 치중

하기로 했다. 행사 이복제는 오전에 상봉을 시작해 점심을 함께 하고 오후에도 계속 만난다. 하루종일 상봉하는 셈이다. 총 상봉시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여시간이 될 것이다”

—북측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적십자회담의 북측 최승철 단장이 오면 이산사업 논의는 하게 되나.

“이산면회소 설치, 생사확인, 서신교환 사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부단장과는 1, 2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므로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재영기자

ciyoung@k.yonhnews.com

“하룻밤만 기다려다오, 내 동생아”

2차 訪北團 출발 전날 표정

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남측 방북단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 무속, 방북절차를 밟은 뒤 차분하고도 설레는 분위기 속에 다음날 북으로의 출발을 기다렸다.

맨 처음 수속을 끝낸 김희성(71)씨를 비롯한 100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100세 할머니 “아들 다시 볼 줄은...”

최고령인 유두희(100) 할머니는 둘째 아들 신종순(63)씨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 “못볼 줄 알았던 큰 아들(종길·75)을 보게 됐다”며 “똥일이 일론 돼 한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화(80)씨는 빛 바랜 시집첩을 가방 속에서 꺼낸 뒤 “북에 있는 큰 형님과 옛날 사진을 보여 밤새 얘기할 것”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당초 예비후보 1번이었다가 추가로 포함되는 행운을 잡은 김경식(90)씨 역시 할아버지를 뵈지만 “못가는 줄 알았는데 북의 조카를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다”며 웃었다. 1·4후퇴 당시 부인과 월남해 처제와 조카를 만나러 간다는 손태선(81)씨는 부인이 이점숙(74)씨가 “나도 가서 동생을 만나야

되는데...”라고 하자 위로하기도 했다.

방북단이 준비한 선물은 대체로 간소했다. 최익수(82)씨는 조카에게 줄 정퍼를 준비했고, 조귀옥(72)씨는 내외와 침바지 4벌씩을, 양철영(82)씨는 이름도 모르는 5살짜리 손자를 위해 구두를 샀다.

“옛날 사진 보며 밤새 얘기할 것”

방북단은 적십자사로부터 ID카드와 정부 준비 선물(담배 1보루, 남녀 손목시계)을 받아 든 뒤 17~20층에 배정된 객실로 휴식을 취했다. 객실번호는 1차 교환방문 때와는 달리 공개하지 않았는데, 적십자사 관계자는 “상봉단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적십자사는 방북단이 고령임을 감안, 의료진 2명을 동행시키고 심장충격기, 관절염약 등 9상자에 달하는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가져갈 계획이다. 당초 6개를 준비했던 합체어도 사용희망자가 늘어나 부랴부랴 부족한 확보에 나섰다.

방북단은 30일 오전 9시쯤 평양으로 향하는 대한항공편에 오르고, 북에서 내려오는 방문단은 이날 낮 12시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 잠실 롯데호텔에 여장을 풀게 된다.

／崔宰赫기자 jhchoi@chosun.com

／金燮九기자 roadrunner@chosun.com



△북한으로 동생과 누이를 만나러 가는 신형순(72) 할아버지가 숙소인 롯데호텔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金錫九기자 cikim@chosun.com

흥분·설렘... 잠못이룬 '서울의 밤'



前夜 가족표정

2차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할육을 만나러 병양으로 떠나거나 할육을 기다리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살뜰한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들은 50년이라는 세월에도 더욱 또렷해지기만 하는 할육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광양으로 떠나는 상봉단 이날 오후 1시쯤 선물로 가득 찬 여행가방을 들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한 방북단은 반세기 만에 할육을 만난다는 생각에 모두 들떠 있었다.

황해도 개풍군 남면 신리가 고향인 김항권씨(89)는 북에 두고온 자식을 만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피난길에 여덟살난 아들과 내살배기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평생의 한이 됐다"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할육을 기다리는 상봉단 북한에서 내리운 할육을 기다리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어느때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흥연 예방주사 광양에서 통상을 만나게 될 이문영씨(86)가 2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흥연 예방주사를 맞으면서도 기쁨에 겨워 할박웃음을 짓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kldaily.com

선물꾸러미 들고 환송가족들과 애기꽃 남측 상봉단은 호텔부근 숙소잡느라 진땀

1차 상봉 때와는 달리 남측 상봉단은 각자 숙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이산가족들은 상봉장소인 잠실 롯데월드호텔 인근에 숙소를 잡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는 잠실 인근에 묵을 만한 숙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졌다.

영 잠재김씨(67)외의 만남을 기다리는 재국씨(57·중앙대 물리학과 교수)는 어머니 안준옥씨(88)와 함께 개깍씨의

애기로 하루를 보냈다. 재국씨는 "어머니는 '갈피하면 눈물을 짓는다'면서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에서 오는 아버지 신문대씨(81)를 만나기 위해 29일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신문재씨(51)는 "2차 상봉단에서 아버지 이름 석자쯤 보고 활짝 눈물부터 쏟아졌다"면서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힘들어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리움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며 애써 흥분을 억눌렀다.

●조현석 퇴북상기자 hyun68@kldaily.com

경향신문

2000. 11. 30 (목)

"제게도 아버지가 있다니..."

2차 남북이산상봉

· '유복자' 김영우씨 동행취재 첫째날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저녁, 북측 방문단 김중현씨(89)의 큰아들 영우씨(49·서울 김서구 신철동)가 아버지에게 낯선 처음 편지를 띄웠다. 6·25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차출된 김중현씨는 결혼한 지 6개월된 아내 유순이 할머니(71)와 영우씨를 남겨두고 가나간 생이별을 해야 했다. 경향신문은 유항머나 가족과의 3박4일 동행취재를 통해 분단조국의 아픔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 편집지 주

아버님 전상사 꿈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차마 북이 때에 부를 수도 없는 아버지... 남은 시간 한참 있어 얼굴도 모르지만 때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다니요, 제게도 아버지가 있다니요, 아버지, 저 큰아들 영우입니다. 친한편이고 '아버지'를 불러보지만 아직 설겁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향이 생각나시는지요. 흥북 칠원군 남이면 칠송리입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19살이던 아버지는 김중현 씨 6개월된 고을 어머니를 남겨두고 의용군으로 차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있어 있는 줄 모르셨을 겁니다. 농사짓는 친한아버지와 친한머니께서는 "내가 북에서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어머니 원통하시라"며 눈물짓곤 했지요. 병소 연락사

기반 하던 어머니도 아버지 재직날만 되면 "3년이 지나면 온다고 했는데 여직 소식이 없는 것 보니 분명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며 슬퍼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할 풀랐지만 차츰 커가면서 내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이듬해에는 큰아버지까지 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친한형님은 국도로 어려웠습니다. 꽃마지기 만되는 농사로 큰집 작은집 시구들이 먹고 살려나 힘들었던 게지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적전 시골로 유배되었습니다. 1967년 제 나이 16살때입니다. 변방장이며 할 풀랐고 얼북적이고 딱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 공장 얼어붙은 빙판 맨수에 밟아보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며 이집 저집을 헤맸습니다. 아버지, 때론 아버지를 원했던 적도

사진도 한장 없어 얼굴 모르는 당신 전 어머니 뱃속서 전쟁을 맞았지요 원망도 했었지만 살아서 오신다니

있었습니다. 예 이리 힘든 인생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소주를 병처럼 들이키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밤새워 찾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심쿵한 기분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현병생활 시부모님과 사동생들 돌보며 고향 집을 지키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세상이었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히 자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친한 아내를 얻고 직지만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 남한에 큰아들 영우가 있는 줄 모르셨지요. 남측 가족 명단에 어머니와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실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다면 그리움 리가 없었을 테지요. 아버지는 알가족을 이루셨지요. 그럼 제게 형제들이 생긴 거군요.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민선 / 김문식기자

"아버지 보세요"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지 50년만에 만나는 김영우씨가 29일 아버지께 드릴 편지를 쓰고 있다.

아들아!

“보고싶은 그생각을 어찌 참고 견디느냐
지금도 밤마다 세계를 돌고돌며 찾다가...
희망탑은 흔적도 없이 꿈이 되고 말아
머리속에 간직했다가 가져갈수밖에 없구나”

2차 남북이산상봉

서울 찾는 李錫均씨 노모가 남기고 간
‘큰아들 그리는 50년’ 27권 일기장 오롯이

“눈을 감으시기까지 반세기를 하루같이 형님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적으셨어요”

30일 남북한 이산가족 2차 상봉단으로 북한에서 오는 큰형 이석균(李錫均·71)씨를 만날 석오(李錫五·51)씨 형제들은 29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석오씨 집에 모여 94년 유명을 달리한 어머니 유명택(柳英澤·당시 90세)씨의 유품을 꺼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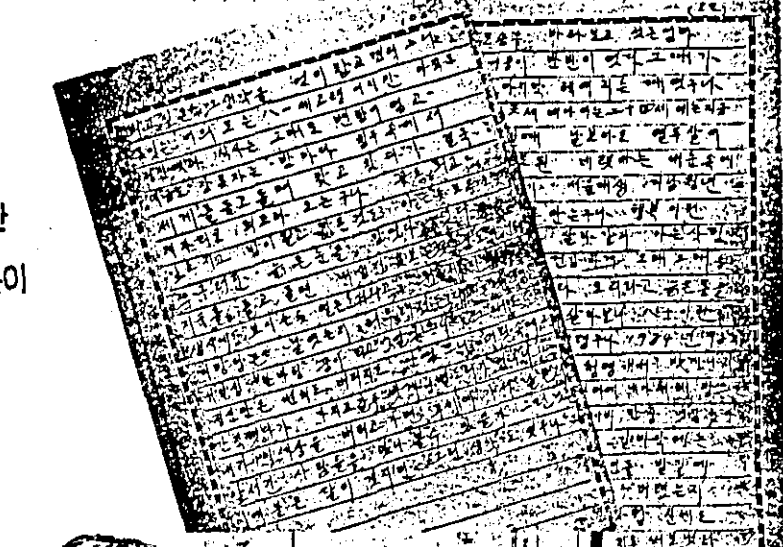
어머니 유씨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며 남긴 물건은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눈물로 썼던 대학노트 27권 분량의 일기장과 머리카락.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구방가사’(閩房歌辭)를 배웠던 유씨의 일기장에는 아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절절히 담겨 있다. 특히 ‘고흥을 떠날 때’라는 시에서는 전남 고흥에서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안타까운 모정을 표현했다.

“...서울 가는 큰 자식 바라볼 때/하, 즐거워 싱글벙글/내일 일은 영 몰랐다/큰 희망에 금의 환황 믿었더니/그날 그시(時) 꽃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그동안 남한의 4남3녀 중 1남2녀가 세상을 떠나 3남1녀만 남았다. 이들 남매는 “그동안 단순한 유품이라 생각하고 퍼보지 않았으나 형님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한 형을 미워하기도 했었다”면서 “서울간 형



북한에서 오는 큰형 이석균씨를 만나게 될 석오(오른쪽)·석정씨(왼쪽) 등 동생들이 어렸을 적 가족사진을 보며 웃고 있다. 위 사진은 어머니 유명택씨가 생전에 큰아들을 그리워하며 적은 일기.

● 최병규기자
cbk91065@kdaily.com

이 돌아오던 날 기차역에서 기다리던 일과 형이 집들에서 목욕시켜주던 일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50년 당시 서울대에 다녔던 석오씨는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됐다. 가족들은 지난 7월 1차 상봉 예비명단에 포함된 형의 이름을 보고 살아있음을 처음 확인했다.

어머니 유씨는 생전에 다투려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큰아들 얘기를 했다고 남매들은 전했다.

“우리 석균이는 얼굴도 잘 생기고, 공부도 잘 하고, 나하고 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자식이었지. 그런데 살아나 있는지...”

덕분에 49년에 태어난 석오씨는 “형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어머니가 평소에 큰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마치 오랜 시간 큰형과 함께 지낸 것같은 느낌”이라며 남매들과 반세기 만에 돌아오는 석오씨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냈다. ● 박복심 이송하기자 youngtan@kdaily.com

“내 백발을 나라고 여기림”

2차 이산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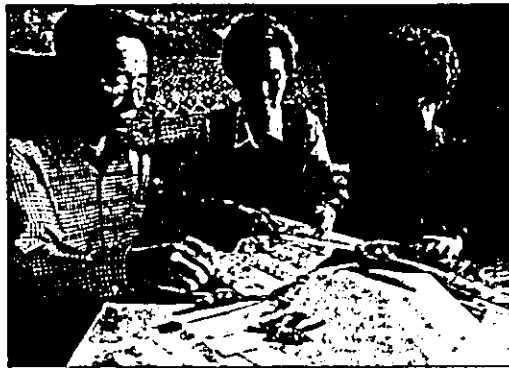
故 유영택합머니 유품 南오는 장남에 전달키로

“엄마의 백발을 나라고 보고픈 딸
만져볼 것.”

자신의 백발을 갈라 만든 붓으로 북녘 자식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써 내리간 드림(母情)의 편지와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품이 29일 공개됐다.

94년 북에 있는 큰아들 석근(李錫根·76)씨와 큰아들 석근(魏均·74)씨를 그녀의 사립을 얻은 뒤 고고한 유영택 할머니(본보 20일자 23면)는 손자가 직전 한 보지기로 한 작은 상자
를 남겼다.

유품을 정리하던 민내팔 송자(宋子·59·부산 금정구 구서동)씨가 보지기를 열어 “따가 으면 연(蓮)이와 근(均)이에게 전해 줄 것”이라고 쓰여 있어 당시에는 더 이상 상자를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송자씨 등 남쪽 형제들이 유품의 내용을 처



【동양기자】고 유영택씨와 민내아들 이석오씨, 둘째며느리 유희영씨, 민내팔 이송자씨(왼쪽부터) 등이 어머니가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긴 유품을 살펴보고 반세기 동안 미뤄둔 ‘할복외 잠’을 공개하고 있다.

음 본 것은 그 ‘근이’가 이산가족 2차상봉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29일.

“눈물로 먹을 갈고 백발로 붓 만들어/ 달리는 손에다 붓을 쥐니/ 손 따라 붓이 멀고 붓 따라 오는 할씨/ 후련(후이), 후련(후이)하는 곳이 어디냐/ 도자상봉 이마도/ 내 그것보다.”

누렇게 색이 바랜 화선지에 써내리간 유영택 할머니의 시어는 구절마다 애절한 그리움과 한이 녹아 있었다.

이 밖에도 석련씨가 사립할 때 만들어주고 남은 배냇옷 조각, 반이삼경과 시군자를 한 병

풍감, 손수 만든 색색의 놀무와 바늘집, 선들로 만든 뒤 이끼워 돛시켰다고 아껴둔 부채와 손지갑 등.

히안 중이여 색인 마지막 물건을 숨겼을 때 온 가족은 말을 잃었다. 자신이 그리워 더 보라는 때와 함께 히안 머리칼 한 다발이 들어 있었던 것. 유영택 할머니의 민내아들 석오(魏五·52)씨는 “머리카락도 별로 없던 분이셨다”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큰할머니 이찌야 오시는데...”라며 눈물을 흘린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이산가족 설레는 상봉준비

雲甫 병실서 동생 만날듯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북으로 올라갈 남쪽 가족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상봉 전야를 보낼 객실을 배정받고 방목 교육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20여명은 이날 호텔에 도착한 이산가족들에게 신봉카드, 적십자마크와 태극기가 그려진 배지, 방목단 안내서 등을 나눠주고 흥겨운 불려 흥진 등의 여방 경축을 실시했다.

오후 4시반 열린 방목 교육은 1차 때의 교육 내용과 달리 통일 정책이나 전방 동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내용을 줄이고 고려호텔 이용법이나 행동 요령 등 실질적인 부분으로 채워졌다.

선물등 확인하며 부산

이날 객실로 올라간 방목 가족들은 바깥 나온 남쪽 가족들에게 북쪽 가족들에게 전할 사진이나 선물 등을 챙겼는지, 옷가지는 충분히 넣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10시50분경 가장 먼저 호텔에 도착한 김희섭씨(70·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는 “30년간 어 아들 자식을 만난다는 생각에 얼쩍 잠을 내셨다”며 “하지만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론 가슴이 두근

다”고 말했다.

【문보 근황】 북한 공훈회기인 동생 기만씨(71)와의 상봉을 앞두고 패혈증과 고혈압으로 입원중인 문보 김기창(雲甫 金基昌·88)회원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켜 놓은 채 투병중이다. 현재 이아기를 알아들을 정도의 의식은 있지만 의사 표현은 못하는 상태.

아들 완(完·51)씨는 “북에서 오십 삼촌이 동의한다면 후후품 잠시 병실로 옮겨 상봉할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북한에서 환영의 표현을 못하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완씨는 북한 의 도복(軍裝)과 금가리치 등을 선물로 마련했다.

한직속은 1차 때도 병원이니 양평연구소에서 상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병실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병동측은 문보의 병세와 관련해 “지금 중환자로서 양평연구소 이동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상봉지 근황】 3개월여 전 ‘한반도 달(望) 드라마’의 주인공이던 1차 상봉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암으로 보스한 몸을 움켜쥔 어 의지한 차 50년만에 만난 북은 아들(안순환씨·75)의 반을 어부단지엔 이르면 할머니(87·경기 하남시)는 요즘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가족들은

“상봉 후 한달 동안은 외출하질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려니 그 뒤엔 체중이 눈에 띌 정도로 쇠약해졌다”며 “순한이를 만난 건 그저 꿈만 같았다”며 상봉 당시를 회고한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흥겨운 우려에 되에 게 2차 상봉 관련 소식을 되도록 전하지 않을 생각이다.

“신경안정제 생겨가라”

역시 움켜쥔 태고 북의 동생을 만났던 최순래 할머니(89·서울 마포구 대흥동)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고질병인 고혈압이 조금씩 가라앉는 등 몸상태를 회복했다”며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상봉 때 충격에 대비해 신경안정제, 위장약 등을 꼭 챙겨 가라”고 충고했다.

북의 으빠(이광성씨·69)를 50년만에 만난 황순인 이지연씨(52·여)는 “상봉 후 한달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멍했다”고 소개했다. 이씨는 “나는 일이 바빠 상대적으로 금방 적응으로 돌아왔지만 두 언니는 요즘도 풀만 나면 언니가 상봉 당시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한 ‘배시며무초’ 등의 노래를 들으며 당시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김준석·이승현·최호원기자)

kjs35@donga.com



상봉 앞둔 이산가족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밤을 뜬눈으로 지냈지.” 남측 방북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100·시진) 할머니는 큰아들 신동길(75)씨를 만날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들 동길씨는 1950년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 온락읍에서 논일을 하다가 휴전하는 인민군에게 붙잡혔다. 당시 결혼 8개월째던 아들을 잃은 유씨는 “올로 남은 며느리를



방북 최고령 유두희 할머니 “아들 보려고 100살 살았나봐”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유씨는 “전젠이 지난 직후 누군가로부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아들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고 며느리도 재가시켰다”고 말했다. 유씨는 “죽을 줄만 알았던 동길이를 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남측 방북단에 선정돼 북측 시누이 서영옥(66)씨를 만나기로 돼있던 최영자(55·경기도 동두천시)씨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중씨가 당신과 시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신했다. 지난 8월 1차상봉 때도 북측에서 생사 확인을 요청한 2백명의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 1백명에 선별되지 못해 탈락했었는데 다시 상봉의 꿈이 켜진 것이다. 북측은 중씨가 남편 서영현(85년 사망)씨의 누나라고 확인하고

있었다. 1차 상봉자 명단에 포함됐을 때 남편 가족들의 이름이 일부 틀린 것을 발견하고 직십자사에 재차 확인했지만 직십자사는 “시누이가 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중씨의 친역 남측 가족이 확인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은보 김기창 화백은 지난 17일부터 병세가 악화돼 북에서 오는 동생 김기만씨를 만나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정훈·김승현 기자 <cchoon@joongang.co.kr>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北손님맞이 준비 끝

상봉장·숙소 선정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북측 방북단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상봉장의 반포 스포츠센터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다. 롯데월드 호텔은 이날 오전 지하 1층 사뮈데움에 임시 프레스센터를 열어 취재진을 맞았다. 호텔측은 이산가족 회담을 위해 내선 7백명·외선 3백명 등 총 1천여명의 보도진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호텔측은 입구에 ‘환영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쓰인 대형 현관을 내걸었고 3백여 직원에게 최종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오후 방북단이 도착하면 전 직원들이 모반로 나와 박수로 이들을 맞고 장제인(張在亨)북측 단장에게 꽃다발을 주기로 했다. 북측 방북단을 위해 준비한 객실은 스위트룸 1개를 포함, 10~16층의 객실 1백22개, 스위트룸은 2단장이 사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가족들이 2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교육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장문기 기자

용한다. 1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객실 미니바에 문세주·소주 등 우리 술을 넣었다. 북측 방북단을 위한 첫 식사는 백세주가 곁들인 뷔페식으로 준비했다. 북측 방북단이 70대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복두반대떡·육뽕구이 등 한식 위주로 했다.

스포츠센터는 이날 1천3백여명 규모의 6층 밀레니엄홀에 테이블 배치와 스크린 설치 등을 끝냈다. 스포츠센터측은 상봉·회사·주차 등 분야별로 1백명씩 직원을 배치하고 그간 특별 교육을 실시해 왔다. 6명씩 앉게 될 테이블에는 다과·음료수·담배·휴지 등이 놓였다. 모자(母子)가 상봉하는 모습이 담긴 대형 걸개그림이 걸렸던 1차상봉 때와 달리 밀레니엄홀 전연에는 가로 7m·세로 5m 크기의 스크린을 설치해 상봉 장면을 방영한다. 한편 남측 방북단 1백여명은 이날 오후 롯데월드호텔에 모여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방북자 교육을 받았다. 적십자사는 방북단 선물용으로 내복·장갑·양말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했다. 이들은 간단한 유의 사항을 전달받은 뒤 객실에 투숙, 실연 속에 고향행 을 기다렸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

시가 있는 아침

공작도 하지 않는다
비례로운 것들이 모여서
공제 스르르 하고
한 시대의 평안을 지켜주는 용담에
가만히 기대어 본다
...늘 아슬아슬한 세상
-장순금(47) '달맞이 기대어' 중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주저앉고... 어디서 날벼락이 떨어질
지 모르는 “늘 아슬아슬한 세상”을 살
다 보면 날이 날아 올런 물방도 미안지
않을 때가 있다. 물론 문이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다 보면 도란 무르르
뒤너굴 때가 있는 것을.
그래서 워터문 물물이 서로 통을
연하게 기리고 한 사대를 걸겠다는 것이
이 오히려 대견하다. 이제 물다리는 부
드러지고 건너도 편다
이근배<시인>

北동생은 오늘 오는데... 몸이...

애꿎는 운보



동생 기만씨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88) 화백이 반세기를 꿈꿔 온 동생 기만(基萬·71)씨의 재회를 앞두고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들 완(完·51)씨는 '앰블런스에 옮겨 태우지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 작은 아버지께서 직접 병원에 오셔야 형제 상봉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 번 병실에서 모자가 만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남북 당국이 예의를 허용해 주기를 바

**병세 갈수록 더 악화
앰블런스도 못할 상황
'병실상봉'에 실낱희망**

랄 뿐'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4년째 병마에 시달려온 운보는 지난달 27일 동생이 북측방문자 1차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었다. 당시에도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을 졸인 탓일까. 운보는 최종 명단 발표 하루를 앞둔 17일 그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패혈증과 고혈압 병세가 악화해 지금껏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운보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겨울 전북 군산의 처가로 피란길을 나섰다. 다섯 동생들과 생이별을 했다. 열아홉 나이에 어머니를 여읜 뒤 자식처럼 길러온 동생들이었다.

운보는 40년이 지난

지난 여름 충북 청원 자택에서 요양할 때의 운보 모습.

91년 한 정치인을 통해 꿈에도 잊지 못하던 동생들의 소식을 처음 들었다. 헤어질 당시 서울시립미술연구소 연구생이었던 셋째 동생 기만은 56년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의 대표적 조선회가로 30여년간 활동, 공훈미술가 칭호까지 받았다고 했다.

94년에는 중국 시인을 통해 기만씨의 편지와 작품 5점이 전해졌다. "언제나 잊지 못하고 밟고 싶던 형님에게. 연로하신 몸, 건강에 주의하시면 우리 형제가 머지않아 기쁜 상봉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형님 그림 '정청(靜靑)'의 모델이었던 막내 여동생 기옥(基玉)이는 의사가 됐어요"

이듬해에는 동생의 작품 20여 점을 서울로 들여와 '형제작품전'까지 여는 등 상봉이 눈앞에 온 듯 했지만 남북 관계가 급랭하면서 운보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험거운 투병생활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충북 청원집 방에 작은 아버지의 그림을 걸어놓고 늘 바라보셨다"고 전한 아들 완씨는 "50년을 그려온 동생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의 한이 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안준현기자dejavu@hk.co.kr



“꿈에 그리던 혈육 만난다니...” 뜬눈 밤샘

■ 방북단 출발 전날 표정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에 모인 남북 방북단 100명은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평양으로의 출발을 기다렸다. 방북단은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오전 11시부터 로비에 모여 흥겨운 예방 접종에 이어 오후에는 방북교육을 받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객실(2인1실)로 올라갔으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가족과 고향 이야기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내소식 대신 전해주오”

○...그러나 1, 2차 방북신청에서 모두 탈락한 김봉선(金奉善·73·여·서울 광진구 구의3동)씨는 방북단에 포함된 같은 평남 대동출신 장도순(張道淳·71)씨가 독고있는 호텔 1408호를 찾아와 북에 있는 언니 등의 사진을 전해주며 눈물을 흘려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씨는 “나이대로 선정한다고 해놓고 두살 어린 고향후배가 가게 됐다”며 “친정없는 설움을 달래려 이번에는 꼭

북에 가기를 원했었다”고 끝내는 시울을 뉘었다.

“北아내 꼭 안아주겠다”

○...6·25 때 서울로 피란왔다 한강 인도교 폭파때 헤어진 부인 이덕실(78)씨와 남매를 만나러 가는 명용덕(明用德·84)씨는 “아내가 가장 보고 싶다”며 “만나자마자 꼭 안아주겠다”고 뜬눈 밤을 감추지 못했다. 명씨는 “나도 1차 방북 때 탈락해 서운한 심정을 아는 만큼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애인 만나러 가요” 농담

○...아내와 아들을 상봉할 예정인 오병철(吳炳哲·80)씨는 “애인을 만나러 간다”며 조크한 뒤 “북의 아내에게 아이를 잘 키워줘 고맙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씨는 “5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 때문에 잠을 못자고 뒤척였다”면서 “우리 합일이 북쪽 아내를 만난다는데도 질투한 번 안하고 선물까지 준비해줘 정말 고맙다”고 기뻐했다.

○...적십자사측은 방북단의 출신과 나이, 성별 등에 따라 2명이



2차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이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정문 입구에 29일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홍인기기자

한방을 쓰도록 했고 최고고령자인 유두희(100)씨와 안진삼(92)씨는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혼자 방을 쓰도록 배려했다. 방북단은 오후 4시 호텔 5층 예식

장에 모여 1차 상봉장면을 VTR로 시청하는 등 방북교육을 받았다. /장래근기자 rajun@hk.co.kr
강훈기자 hoony@hk.co.kr
김세정기자 sejong@hk.co.kr

방송3사 3일간 상봉 특별방송

오늘 오후 4시 생중계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30일부터 3일 동안 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대해 특별

방송한다. 방송 3사는 30일 오전 9시 남북 방문단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뉴스특보 형식으로 내보낸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릴레

니엄홀에서 이뤄지는 가족 단체 상봉을 2~3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뤄지는 단체상봉은 생중계 대신 녹화 중계된다. 12월 1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각각 진행

될 가족 개별상봉 역시 단체상봉 경우처럼 방송하게 된다. 12월 2일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의 출발과 도착을 뉴스 특보로 내보내는 것으로 3일간의 특별 방송을 마무리한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귀한 손님 온다” 호텔·준비 구슬땀

한식단 하렴... 구급차도 대기

2차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상봉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과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 시티는 여행연습과 직원교육을 반복하며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했다.

북측 방문단이 묵을 롯데월드호텔 측은 6:15 남측정상회담 직전에 시작된 피업으로 심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호텔측은 ‘귀한 손님 맞이 예절’이라는 소재자를 직원들에게 돌리고 하루

2~3차례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무리하게 악수를 청하지 말 것’ ‘북한이라 하지 말고 공화국이나 북측, 이북으로 부를 것’ ‘돌아서서 웃거나 걷는 걸 하지 말라’ 등 세심한 주의사항을 내렸다.

식단은 한식위주로 마련됐다. 조리책임자인 양옥석(梁玉錫) 과장은 “방문단 대부분이 노인층임을 감안, 이틀동안 메뉴는 녹두빈대떡과 제주우동구이, 쇠고기 두국, 해삼과 전복, 탕수육, 튀지고기와 닭고기 조림 등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첫 집단상봉이 이뤄질 센트럴시티도 열흘전부터 ‘남북상봉 준비팀’이 구성돼 밤을 꼴리고 있다.

상봉장인 6층 릴레니엄홀에는 상봉을 위한 원탁테이블 30여개가 마련됐으며 상봉순간에는 극적 분위기 연출을 위해 천장의 돛이 열리도록 고안했다.

한복차림의 도우미 30여명이 행사장 안에서 상봉가족을 안내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10여명의 의료진과 4대의 구급차도 비상 대기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큰아들 만나는 100세 유두희할머니

“함께 살자고 꼭 붙들거야”

“다녀오세요”

방북을 하루 앞둔 남북 방문단 일행은 반세기만에 헤어졌던 희옥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설렘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북한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네요.”

지난 8·15 이산가족 상봉 때 109세 노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은 장이운(張二允·72)씨에게 방북 기회가 넘겼던

‘아름다운 양보’의 주인공 우원희(禹元喜·65)씨는 “집안

에서 2차 상봉 때 우선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조하고 불행했다”며 “세상을 떠난 부친님 묘소에 이 재라도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경자 개신축선으로 1·4 추위 때 가족을 두고 홀로 워남, 1백년 세월을 부딪고 두 동생 옥해(64·여), 인향(61)씨에 대한 그리움으로 19년 우씨는 “동생을 머리도 아재 하얗게 세어 버렸잖아”라며 침울로 준비한 금반지를 꼭 쥐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2차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은 유두희(100·강원 원주시 분방읍) 할

머니는 귀가 조금 어두운 것을 빼고는 일상적인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청정한 상태. 29일 정오에 집결장소인 롯데월드 호텔에서 나온 유씨는 “이들을 만나려고 지금껏 살았다. 만나면 ‘함께 살자’고 꼭 붙들 생각”이라며 깊은 해리를 끝내 새웠다.

북의 큰아들 신동길(75)씨는 원래 허약체질로 갖은 고생을 다하고 귀국, 1949년 결혼했으나 자식 하나 보지 못한 채 50년 어둠인민군 침입으로 고향을 떠나 또다시 어머니와 생이

별했다. ○방북단에는 북에 생존이 확인된 이산가족 중 최고령인

누나 문심실(89)씨를 만나러 가는 원봉(74·경기 고양시 마두동)씨, 처와 이들을 포함해 가족 9명의 생존이 확인된 임정연(81·서울 마포구 연남동)씨, 조카의 생사만이 확인됐지만 고향지 배려 차원에서 선발된 안진삼(92·인천 남동구 논현동)씨 등도 포함됐다.

이번 방북단은 북측이 가족의 생사파 확인해준 124명 가운데 직계가족과 고향지 순으로 100명(남자 74명·여자 26명)이 선발됐다.

/임정대기자 torch@hk.co.kr
김용식기자 jwoll@hk.co.kr

■ 오늘부터 2차 이산가족 상봉



30일 방북하는 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중 최고령(100세)인 유두희 할머니가 2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예비 소집에 참석. 직십자사 직원의 도움으로 신분증을 달고 있다. /이종필기자

■ 이산가족 1·2차 상봉 비교

상봉기간	1차	2차
상봉기간	8.15~18일(4일)	11.30~12.22(32일)
상봉횟수	단체 1, 개별 2, 공영식사 2, 환송 1회 총 6회 11시간	단체 1, 개별 2, 공영식사 1, 환송 1회 총 5회 9시간
일정	첫날 단체상봉, 둘째날 개별상봉, 향여중 편명, 셋째날 개별상봉, 롯데월드 인속편 편명, 마지막날 환송상봉	첫날 단체상봉, 둘째날 개별상봉 2회, 마지막날 환송상봉
숙소	서울:뚝섬야영촌, 평양:고려호텔	서울: 잠실롯데월드호텔, 평양:고려호텔
환송비용	1,000달러	500달러
총 경비	18억7,000만원	9억5,000만원(예산)

“환영합니다”

시월에 오가는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에는 교수·예술가 등 유명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김영환(70) 김익성총합대 교수는 북한 이문학계의 권위자. 동학대 재학 중 원장, 김익성총합대 대표와 40여년간 교단에 있다.

‘조선민족의 발전’을 210여 편의 논문과 수많은 교과서를 집필, “조선이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종원(71) 5·18민중항쟁 중앙분서 소장도 북한의 위문 과학자. 시월에 북측에 다녀온 의용군에 입대하여 리 소장은 김익성총합대 강좌장(여장)을 지내며 수많은 후진을 양성했다. 시월에는 동생 종원(61)씨 등이 살고 있다.

교수·예술가 등 유명인사 다수포함

김영환교수 어문학 권위자

리종원 北과학원소장 원로

하재경 김책공대 강좌장도

하재경(65) 김책공대 강좌장은 시월 중앙중학교에 다니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한 뒤 의용군에 입대했다. 김원도 문필 재단소에 근무하며 이간기술전문학교를 나와 30여년간 교편을 잡았다. 지난 3월 평양에서 열린 전

국 과학자·기술자 대회에 모습을 보였다.

김봉희(68) 평양시 현덕수 검공업대학 강좌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원로인사 백남운의 생필 전복 고창 출신으로 고려대 입학을 기다리던 중 의용군에 입

대, 북으로 간 뒤 김익성총합대 대표였다. 시월에는 동생 규희(67)씨 등과 재회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홍용표(64) 평양시 직물도매소 지배인, 모승득(70) 지강도 인업연합기업소 자재장사 사장, 림순용(65) 평양외국어대학 연구사 등이 방문단에 들어 있다.

한편 북측 방문단 인솔 단장은 장재연(張在彦) 북한 직십자회 위원장이 맡았다. 장 위원장은 장재철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우며, 오랫동안 대남사업에 종사해 왔다. 1989년 조선 기쁨리교회회 회장에 임명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998년 북직 위원장이 됐다.

직십자회단 북측단장이었던 최승철 북직 상임위원은 부단장 자격으로 이번에 시월에 온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아들만날 기쁨에 잠 못자”

특별취재팀

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30일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감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봉두원 대한직접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북 방문단은 30일 오전 9시 시해 직항로를 이용해 대한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2차의 간담회를 시작한다.

정재연 북한직접사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북측 방문단은 같은 날 낮 12시 30분에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푼다.

■심려는 가슴안고 대기

평양으로 가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잠긴한 남북 이산가족들 표정은 심려로 가득찼다.

방문단 중 100세로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줄 선물용 잠신초를 꾸렸다.

아들이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시계 두 개를 준비했다는 할머니는 “수은 북한 날씨를 생각해 선물로 내복과 방한복 잠금 안락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1차 방문 때 109세 노모의 사망으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30일 평양으로 출발하는 권오술 씨(89)가 29일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서 합체어를 탄 채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김성중 기자>

로 재외대 장이윤 씨에게 방문 기회를 넘겼던 '이름다운 양보'의 주인공 우원형 씨(65)는 “17살이 떠나 온 고향이 눈에 선하다”며 감격했다.

또 부인과 딸 동생들을 만나러 가는 조희원 씨(79)는 “이산가족으로 5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마음은 낯설지가 아니란 이해할 수 없다”며 울었다.

왕정인 씨(81·서울)는 “김시란이

북의 아내를 만나는 데 동의했지만 자신 때문에 삼치만을 두 아내를 생 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끼리 단 하루라도 같이 잘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한국전쟁 직후 31살의 나이로 강 제정권을 피해 남동생 두 명과 함께 월남하면서 8살난 아들 딸 등 가족과 생이별 한 문정일 할아버지(81·부산)는 “얼굴도 모르는 아들이 환갑도 지났을 나이가 되니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다”며 50년 만의 눈물 어린 부자 상봉을 기대했다.

■안반의 준비 미처

롯데월드호텔에서는 지상 10층에서 16층까지 모두 122개 객실을 준비하고 전담 서비스 요원 30명을 배치하는 등 연연의 준비를 마쳤다.

단체상봉 장소인 서울 샌드박스기도 태이름이다 6개씩 좌석용 배치해 모두 600석을 마련해 행사전담 요원 100명도 준비시켜 놓았다.

2차 이산가족 피랍방문 일정

일차	서울(북측 방문단)	평양(남측 방문단)
11.30 (목)	12:30 대한항공편 서울 도착	10:00 대한항공 평양 도착
	14:00 숙소 롯데월드호텔 도착	11:00 숙소 고려호텔 도착
	16:00 단체상봉(호텔식당)	16:00 단체상봉(고려호텔)
	18:00 단체 주최 만찬	18:00 백적 주최 만찬
12.1 (금)	10:00 개별상봉(호텔객실)	10:00 개별상봉(호텔객실)
	12:00 가족 교류행사(호텔대회의실)	12:00 가족 교류행사(고려호텔)
	13:30 2차 개별상봉(호텔객실)	13:30 2차 개별상봉(호텔객실)
	16:30 취선(호텔대회의실)	16:30 취선(평양 민관)
12.2 (토)	18:30 환영회(호텔 관공식 만찬)	18:30 환영시연(평양호텔 만찬)
	10:00 가족 교류행사(호텔 주최장)	08:00 가족원숙 행사(호텔 앞)
	12:00 고려항공편 평양귀환	09:30 고려항공편 서울귀환

선물 제한...현금은 500ㄱ이내

1차 때와 다른점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차 8~15일경 때보다 위치가 하루 씩이 가족상봉이 1회 줄어든다. 모두 5차례 상봉하고 총상봉 시간은 8시간 30분이다. 비정은 줄어든 상봉은 김씨라는 인기에 따라 위치도 1시간만 배정하고 방문단과 남북 상봉가족 지원용 축소했다.

남측 대한항공이 먼저 평양 방문단 받고 평양 중앙광장으로 가서 서울 방문단을 대우하고 되돌아온다 1차 때는 북측 고려항공이 먼저 지원을 방문했다.

개별상봉 일정도 1차와 달리 오전·오후 주 3회였으나 12월 1회 공동 중식을 포함해 하루 동안 한꺼번에 연이어 이뤄진다. 가족과 함께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1차 때와 같으며 동숙상봉·가정방문 상봉은 1차 때와 같이 별화한다.

이번 상봉부터는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제한된다. 북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부모에게는 옷감 한 벌, 형제에게는 간단한 기념품, 현금은 500ㄱ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지한 물품을 교환할 수 없으며 기원제 헌화 꽃장도 금지된다.

정부와 한국직접사는 이번 2차 상봉을 1차 때 18억 7000만 원에서 절반 가량으로 줄인다. 남북사의 위복합금도 200만 원과 선물은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1차 상봉 때는 항공료와 선물비용도 지원했으나 남북 상봉가족을 위해 올림피아호텔에 숙소를 마련했다. 방북 지원인력과 취재단도 방북 전담 숙소에서 합숙했으나 이번에는 객실을 잡지 않았다.

남 정부는 생환보훈대상자와 의료보훈대상자 귀국안금수령자를 위해 50만 원 인원의 상봉수비금을 지원했다.

1·2차 상봉 비교

구분	1차	2차
체류기간	3박4일	2박3일
방문단	남(경총식 단장 등 151명)	남(봉두원 단장 등 151명)
	북(유이영 단장 등 151명)	북(정재연 단장 등 136명)
상봉횟수	6회	5회
총상봉수	2회	1회
예산	1080달러 내	1000달러 내
선물	제한없음	부모 옷감 한 벌, 형제에게 기념품, 소비물품 교환금지, 기업 헌화 금지, 현금 500달러 이하로 제한
		9억 5000만 원
총비용	18억 700만 원	9억 5000만 원

특별취재팀

윤경호 최은수 고성훈 허진석
백을 홍중성(사회1부)
김인수(정치부) 김성중 진용하
박상선 기자(사건부)

人物相

현재의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관계라고 남북사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교류·협력이란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우리를 압박적으로 꾸짖고, 지시하고, 위협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어떤 제1차 군사 상봉회담에서도 그랬다. 모처럼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격려의 차이를 따른 심문문제 논의는 뒷선으로 밀어놓고 남측의 최근 군사훈련을 강조하며 ‘전쟁연습’이라고 격한 소리를 내뿜었다. 시가들은 최근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장중식(張忠植) 직접사총재 인터뷰 내용은 남북이 있어서 긴박적인 시간이다. 북측은 전 북측의 발표 문제 된 것이 없는 한 위관지외의 인터뷰 내용을, 그것도 알리지 않던 일이 이번 일은 처음 문제점이 “그럼 교재 처리라” “그가 있는 한 이산가족 추가상봉은 없다”며 범양방송을 통해 위협했다. 그러자 한진(韓赤)과 통일부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본연도 보르게 사파르 워시(蘇丹)를 보냈다가 북측이 공개하는 데에 우리측은 똑똑히 명심한 듯했다. ▶우리측부가 고문 고문 발을 듣는 것에 제비를 붙였는지 이번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서한은 또 아래라 지레리 ‘지시’를 내렸다. 이산가족 상봉장 무근에 장중식은 인연도 하지 말라며 격고시신을 보낸 것이다. 통일부 당국은 그런 일 없었다고 수사계급치고 있으나 남북연락관 접촉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모양이다. ▶그런 모양지, 장중재는 ‘이산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9시 30분으로 출국해버렸다. 시한이 불포 부재 때문이라는 게 공식 설명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30일 만찬 주재자는 장중재’라는 게 직접사 관계자들의 말이었다. 이번에도 ‘북한 지시’ 때문이란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도 평양도 '잠 못드는 밤'

■ '만남 하루앞문 가족표정'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들은 50년 이상 헤어진 혈육들을 만나는 감격과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쳤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측 이산가족들도 남쪽의 협육을 만날 생각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새날을 맞았다.

이날 오전부터 속속 도착한 방문단 가운데 상당수는 전날부터 짐을 제대로 지지 못했는지 중얼거린 눈이었지만 한결같이 기쁜 표정들이었다.

1차 상봉 때와는 달리 숙소를 정하지 않고 북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을 맞게 된 남측 이산가족들도 이날 속속 상경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이들은 집에서 상봉 준비를 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선물을 마련하려 분주했다.

◇남측 방문단 방북준비=오후 1시부터 용역 예방진종과 방북경비 수령, 화물검사, 방북교육을 받기로 예정했으나 이산가족들은 오전부터 삼삼오오 아들·딸의 손을 잡고 모여 들었다. 이들은 이어 자신의 재실번호를 확인한 뒤 현재 지원봉사자로부터 이름표와 배지, 안내서, 객실업쇠를 받고 각자의 방에서 짐을 풀었다.

14후퇴 당시 북녘에 두고 온 아들·딸과 동생들을 만날 예정인 박연선(83·강원 춘천) 할아버지는 "반세기 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렇게 만난다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뭉클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할아버지의 장녀로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박은진(44·경기 평택)씨는 "중국을 통해 꼭 북쪽의 형제들을 만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평양 시무리급 여직에 쓰는 서만길(85·충남 천안) 할아버지도 "50년 만에 북쪽의 아내와 아들딸들을 본다니 힘이 안 든다"며 "자다 와서 편지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소식을



30일 북측으로 출발하는 이산가족상봉단이 방북교육장에 들어서며 서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무슨말부터 하나' 설레임에 밤잠설쳐 방한복등 선물보따리도 꼼꼼이 챙겨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쪽의 부인과 자녀들을 만날 생각에 연신 짐을 싣겠다는 명용담(84·서울) 할아버지는 "만나게 되면 '반길다', '오래 살아있어 만난다'고 말하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산가족들은 북쪽의 가족들에게 줄 마음의 선물로 주로 본인과 가족 사진용 액자에 담긴 방한복, 내의, 사계, 하의류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북측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해 렌코디를 준비해가는 정종근(84·인천 남구) 할아버지는 "북녘에 두고 온 외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방한복과 강기아, 소화제, 비타민 등 구급약을 잔뜩 싣다"며 관계 포장한 옷꾸러미와 약상지를 흔들어 활짝 웃었다. 박연선 할아버지는 "북측 가족에게 주기 위해 미화 500달러(상한선)도 준비했으나 모두 가족들에게 전달 받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레는 남측 이산가족=30일 오후 단체상봉장인 서울 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는 남측 이산가족들

도 이날 실패와 기대 속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선물보따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거나 하나라도 더 좋은 선물을 하려 뒤늦게 쇼핑을 하기도 했다. 또 지방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이날부터 미리 예약해둔 강남 일대 호텔과 여관, 서울 친척집 등지로 올라와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 개최장이 된 형 김봉희(68)씨를 기다리는 규희(67)씨는 이날 시업 관계로 바이어들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공부를 잘했던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윤보 김기장(88) 화백도 병상에 누운채, 동생 기만(71)씨를 기다려 추위의 기대와 안타까움을 샀다.

/고평분기자 kbgo@sed.co.kr
김윤길기자 j1anycall@sed.co.kr

오늘 2차 남북상봉

2박3일 서울·평양 동시

남북 각각 100명의 2차 이산가족 방문단이 반세기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30일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한다.

북부안(북쪽)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단 20명으로 구성된 남측 방문단은 30일 오전 9시 서울인 여의도를 이목에 대한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2박3일간의 체류일정이 돌입한다.

또 장지인(張在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20명, 취재단 15명으로 이뤄진 북측 방문단도 같은 날 낮 2시 30분경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와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여정을 풀고 오후 4시 30분 들어선 가족들과 단체상봉을 한다.

남측에서는 유래 100세로 방문차 경 최고령자인 유두리(경원도 원주시 문암읍 문막리) 할머니가 평양에서 아들 신동길(75)씨를 상봉하고, 북측에서는 1차 때 मिल되었던 김영희(69) 김립성중학교 교수, 김봉희(68) 한덕수평양경공업대 개최장, 허재경(65) 김희공대 개최장, 문기만(71)씨 등이 서울에서 협육을 만난다.

남측 양측 이산가족은 첫날인 30일 오후 2시간 동안 단체상봉에 이어 12월1일에는 두 차례 개별상봉과 동석 오찬을 통해 8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오철수기자 cooh@sed.co.kr

4시부터 단체 상봉 내일 개별만남·오찬

■ 방문단 일정

◇2박3일 일정=남측 이산가족들은 30일 오전 9시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시계방향로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다. 북측 방문단은 이 항공기로 서울에 온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여정을 풀 다음 북측 방문단은 오후 4시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남측 방문단은 오후 4시 30분부터 고려호텔에서 단체상봉

을 하게 된다.

12월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차례 개별상봉과 가족과의 오찬을 갖는다. 이날 북측 방문단은 롯데월드 민속관을, 남측 방문단은 평양의 명소를 참관하게 된다. 저녁에는 만찬이 예정돼 있다. 2일에는 숙소 로비의 주차장에서 30여분간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다. 우선 남측 방문단이 고려항공편으로 서울로 오고 북측 방문단이 이 항공기로 평양으로 돌아간다.

관광 즐기고 상봉시간은 늘려

■ 1차 방문과 다름점

◇1차 방문 때와 달리진 것=방문 일정이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고 관광 프로그램을 줄이고 가족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이번에는 또 경비철거차원에서 북측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을 만나는 남측 가족들의 숙소로 따로 잡지 않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경비까지 지원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1차 때와 같다.

“어색함까지 감사히 껴안길”

형 오영재씨 만났던 근재씨의 조언

지난 1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의 계관시인인 형 오영재씨를 만났던 홍익대 오근재 교수가 29일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상봉을 앞둔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경향신문에 전해 왔다. 오교수는 이와 함께 선물로는 헤어진 뒤에도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족사진 앨범 등을 추천하기도 했다.

저는 지난 8월14일, 올림픽 파크텔에 입소하여 4박5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이산가족으로서 북에서 온 형님을 만나는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북에서 명단이 한적으로 넘어오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왔던 이들이 다시 이곳을 떠날 때까지 시간의 진행상태에 따른 가족들 심리상태는 실제로 체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 흥분, 슬픔, 고통, 분노, 지침, 허망... 그 밖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서들이 시간의 때 위에서 서로 다른 양과 내용으로 뒤섞여지면서 극심한 심리적 콤플렉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제2차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하는지, 선물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어떤 절차로 만나게 되는지, 또 그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모든 것이 불확정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표정이나 말도 사전에 준비하지 말며, 또 어떤 기대도 상대방에게 갖지 않도록 이번 상봉가족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내맡겨버리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남북 사이의 수많은 갈등과



“
기쁨·허망함 뒤섞인
형용 못할 신비 체험
어떤 표정이나 말도
미리 준비하지 말고
큰 흐름에 내맡기길
”

화해의 결실로 어렵게 얻어진 상봉은 아직 만남 그 자체를 충분히 예비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산가족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것들은 만남의 형식이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헤어지는 순간까지 상봉자의 자의성과 능동성이 배제되어 있는, 그리고 그 어떤 통신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산가족 상봉이 가지고 있는 이같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과정이 불만스

럽거나 허망하기만 한 느낌들을 어찌지 못할 것입니다.

50년 동안이라는 긴 함몰된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상봉은 일반인들의 상상보다 대화의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만났기 때문에 격한 감정에 몸을 떨게 되고, 대화를 지속시킬 공체감이 절대 부족하다. 보이지 않는 이념적 간극 때문에 갑자기 대화가 끊기거나 어색함이 감도는 순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의 순간이 식어지면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으며, 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가지고 있는 체제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족의 상봉을 우선하는 당국에서도 몇가지 더 세심하게 준비하여 상봉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당국자 사이에 의견 조율을 마쳐서 현장에서 가족들이 초조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과 마지막날 정도는 가족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하룻밤 정도 숙박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차 상봉시에는 만나는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수화된 시간의 절대량보다는 어린 시절처럼 같이 뒹굴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단 몇분의 시간이 상봉 당사자들에게는 더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만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홍익대 조형대학장

오늘 평양상봉 南김한·北김철씨 남북형제 지상시화전

누이에게 보내는 노래

김철



김한씨의 작품 향가(鄕歌)

남북의 형은 그리고, 북북의 동생은 쓰고.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남북한 이산가족 평양상봉에는 한국전쟁중에 헤어진 형제가 반세기 만에 화가와 시인이 되어 재회한다. 남쪽의 형 김한(金漢·72·서양화) 화백과 북한의 동생 김철 공훈시인(67)이 주인공이다. 이들의 작품은 모두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어 이번 상봉을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함북 명천군 하기면 '술골'이 고향인 김희백은 3남1녀 중 '말'이로 1·4후퇴때 국군을 따라 월남했다. 전쟁이 끝난 뒤 4년 만에 김시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피난나온 것을 알고 합류했지만 항수를 달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소나무가 무성하고 파란 바다에 물고기가 뛰노는 고향 포구(浦口)의 정경이 담긴다. 이종섭미술상 수상(1995년) 작가에 국전 심사위원이기도 한 그는 이번엔 '남남북녀(南男北女)'가 '평양의 끈'을 부여잡고 통일에 매진하는 작품으로 심검을 표현했다.

이중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돌아올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다만 하나 벗이었던 맑은 눈이며,
 마음껏 아껴주고 돌봐주지 못한 생각
 두근두근 가슴에 맴도는 편진한 얼굴
 이며,
 지금도, 의용군 대렬에서 전선으로 향
 할 때
 “오빠!” “오빠!” 대문가에 손졌던
 그런 어린 아이로만 생각키우는 너
 아! 하루에도 몇번
 너를 생각한다
 내 곁에 없는... 내 곁에 없는...

<중략>

오죽이나 좋으랴, 네 내곁에 있다면!
 네 순진한 꿈 가슴다는 흥분까지
 오빠로서 너그러이 들어줄 수 있다
 면!
 얼마나 좋으랴 늙으신 어머니 더운 방
 에 모시고
 너, 나의 안해-새 언니와 마주 웃고
 너, 나의 아들-어린 조카를 업어 준다
 면...!
 내 집에 찾아오는 좋은 친구들 중에
 네가 택한 길동무 있어준다면...!

오늘은 '혈육의 恨' 눈물로 씻는날

2차 남북이산상봉

미리보는 방문단 일정

남북 이산가족 200명이 30일부터 24일 3일 일정으로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 50년만에 혈육을 만난다. 지난 8·15 상봉에 이어 유혈이 두번재, 지난 80년에 이어 몽산 새민해다.

●방문 전일 평양에 갈 남측 방문단은 20일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일단 이장을 풀었다. 김경사령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북측 요청에 따라 휴여 예방접종을 했다. 4시30분부터는 북한에서 주의해야 할 언행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첫날 단체상봉 30일 남측 방문단은 오전 9시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시제 직항로할 통해 평양으로 향한다. 북측 방문단은 이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온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실을 묶은 뒤 북측 방문단은 오후 4시부터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힐레니움에서 남측 방문단은 오후 4시30분부터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각각 짐에

● 11월 30일

꿈에 그리던 첫 만남

● 12월 1일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

● 12월 2일

짧은 만남 기약없는 이별

그리던 가족들과 만난다. 오후 8시부터는 남북 양측 직접시사가 주재하는 만찬이 열리지만 가족끼리의 동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날 개별상봉 12월1일 이산가족들은 객실에서 개별상봉을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번 개별 상봉을 하고 함께 점심의 식사를 한다.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숙소에서 가까운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남측의 경우 롯데월드 호텔관, 북측은 고려호텔과 가까운 연변문화공원이나 연변대학습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을 마친 북측 방문단은 바재굴(巴在谷)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남측 내11단도 북측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짧은 만남 긴 헤어짐 24일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2일 남측 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헤어진다. 호텔 코비에 주차장에서 30여분간 가족끼리의 짧은 만남이 시간이 주어진다. 남측 방문단은 고려항공편으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고 북측 방문단은 이 항공기로 평양에 돌아간다.

●전경희기자 lark3@kdaily.com

북측방문단 서울세류일정

30일

- 12:30 김포공항 도착
- 14:00 롯데월드 호텔 도착
- 16:00 단체상봉
- 18:00 객실지우식 만찬

1일

- 10:00 개별상봉
- 12:00 가족 합동 오찬
- 13:30 개별상봉
- 16:30 서울 시내 관광
- 18:30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

2일

- 10:00 가족합동
- 12:00 김포공항 출발

남측방문단 평양세류일정

30일

- 10:00 순안공항 도착
- 12:00 고려호텔 도착
- 16:30 단체상봉
- 18:00 객실지우식 만찬

1일

- 10:00 개별상봉
- 12:00 가족합동 오찬
- 13:30 개별상봉
- 16:30 평양 시내 관광
- 18:30 만찬

2일

- 09:00 가족합동
- 10:00 순안공항 출발

北손님맞이 준비 '이상무'

■ 막바지 총점검

남북 혈육상봉을 하루앞둔 20일 정부 관련 부처와 북측 이산가족이 목거나 상봉장으로 이동할 서울 잠실롯데월드와 반포 센트럴시티는 막바지 총점검에 들어갔다.

●정부측 준비 통일부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경합청 등 이산가족 상봉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단장 鄭榮植·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 3층에 상합실(실

상봉기간 서울·평양 날씨

	2-8일	9-10일	11-12일
서울	50%	1%	2%
평양	21~7도	12~18도	0~8도

●숙소 및 상봉장 30일 북한에서 내려올 이산가족 상봉단이 북측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는 손님맞이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처음으로 '북측 손님'을 맞는 롯데호텔 측은 직원 600여명에게 '귀한 손님맞이예절'이란 소책자를 만들어 항상 갖고 다니며 하루 2~3차례 반복해 입기할 것을 주문.

이 책자에는 '무리한 의수 등을 요구하지 말 것', '국명은 이북, 북측으로 부르지 말고 공화국으로 부를 것', '돌아서서 웃거나 걷는질하는 행위들 하지 말 것' 등 세부 행동지침이 담겨있다.

롯데호텔 본관에는 '한일 남북이산가족상봉'이라고 적힌 가로 6.5m, 세로 12m크기의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으며 북측 방문단이 사용하게 될 호텔 10~16층의 객실 냉방고에는 외제품을 모두 빼고 문대주의 소주 등을 채워 넣었다.

북측 의압진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응급사태에 대비, 의무실에 의사와 간호사 1명을 2시간 배치하고 호텔 밖에 앰버린스를 대기시킬 예정이다.

●조현석 전경희 박희삼기자 hyun60@kdaily.com

정부지원단 상합실 가동

객실 냉방고엔 국산술만

방북단 심장전문의 동행

장 洪良植·통일부 안도지원국장)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원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또 30일 평양으로 떠나는 방북단에는 지난 8·15 1차 상봉 때 방북단을 수행했던 직접지명인 심장전문의 이수진박사(38)가 포함됐다. 방북단 상봉을 위해 롯데월드 호텔에 북측 남측 가족들을 위해서는 20일부터 의뢰진 5명이 대기중이다.

한편 내한직접시사는 이산가족 상봉자들이 북측 가족들에게 줄 선물로 한미음 담배 1보루와 양말 북도리 잠간 겨울내의 등 상봉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다.

남북 가족 만나는 '센트럴시티'내부는 미로 혈육상봉 '생고생'우려

지하철 -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결
구조복잡·유동인구 하루 수십만명
잘못하면 길잃어- 사전에 알아둬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태=28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에서 서울 청량리 아들집에 가기 위해 올라온 김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가 지하철 3, 7호선의 지하철로와 연결돼 아주 복잡한 데다 안내 표지판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리 어트호텔 등이 몰려 있어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길을 헤매다 버스 출발시간을

모(67세)는 버스에서 내린 뒤 20여분동안 헤매다 경비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지하철 3호선을 탈 수 있었다. 3호선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대로 찾지 못해 사 람들 뒤만 쫓다가 길을 잃었던 것. 경비원 이모(50세)는 "길을 찾지 못해 하루 수십명이 길을 물어온다"고 말했다.

또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내려 호남선을 이용하거나 강남성모병원 등으로 나가려는 시민들도 고생하기는 마찬가

지다. 지하 3층의 3호선에서 내려 복잡한 안내지도를 꼼꼼히 살펴볼 수 없을 경우 지하 2층으로 올라가게 돼 낱파를 보기 일쑤다. 개찰구 밖에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김남훈(60세)은 "호남선을 타러 다 길을 잃어 30여분을 헤매 버스를 놓친 적도 있다"고 본분을 터뜨렸다.

○원인과 대책=신속된 호남 고속터미널에 13만명 규모의 센트럴시티까지 개관해 지하로 기존 지하철 3, 7호선과 연결되면서 복잡한 지하철로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이 절대부족한데다 약도마저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한양대 전한종(37·건축공학) 교수는 "센트럴 시티는 지금이라도 이용객들의 동선(動線)을 분석해 통합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중정연기자 skylee@spt.co.kr

반세기만에 만남... 설레는 밤

이산상봉 D-1 최종점검

정부는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북측 방문단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집단상봉장소인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등 대안 최종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1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신하의 정부합동지원단·단장 양영식·박영숙 통일부차관을 중심으로 롯데월드호텔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중앙호(洪良浩)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의 인솔하에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의 이산가족방문단 일정과 수송·상봉·경비 등을 비롯해 취재지원 등을 총괄토록 했다.

양영식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합동지원단장 자격으로 롯데월드호텔 종합상황실에 둘러 2박3일 동안의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총점검에 나섰다.

박기룡(朴基龍)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도 오후 4시쯤 호텔에 들러 행사 준비상황을 둘러봤다.

정부는 이날 남북 이산가족들이 북측 가족들에게 건넬 목도리 텃장갑 내의 담배 시계 등 모두 10만인 상당의 선물세트를 마련해 방북단에게 전달했다. 지난 1차때의 40만원선에서 크게 감소하진

정부, 北가족에 건넬 선물 전달
수송·상봉·경비 등 마무리
복송화물 검역작업도 마쳐

액수다. 한편 방북단은 오후 1시 호텔로 집결, 복송 화물에 대한 검역작업 등을 마친 뒤 북측 요구에 따라 용역 예방집중주사를 맞았다. 이번 방북에는 1차 행사에 참여했던 적십자병원 심장전문 의사이신(38) 박사와 이복순(28) 간호사가 방북단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정부는 고려자가 많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방북자가 8명에 이



	낮 12시30분 ●서울 김포공항 도착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 도착
	오후 2시 ●숙소 롯데월드호텔 도착, 오찬		오전 11시30분 ●숙소 고려호텔 도착, 오찬
	오후 4시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단체상봉		오후 4시 ●고려호텔 단체상봉
	오후 7시 ●센트럴시티 마이클홀 민족 주회 만찬		오후 7시 ●북측 주회 만찬
	오후 10시 ●취침		오후 10시 ●취침

그레픽/ 박현정 기자 nayoi@spt.co.kr

르고 고협압 환자가 20여명에 이르는 방북단을 위해 휠체어 5대

동을 별도로 마련했다. /곽민영기자 kwakgja@spt.co.kr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일정

북측 방문단 (서울)	남측 방문단 (평양)	북측 방문단 (서울)	방문단 (평양)	북측 방문단 (서울)	남측 방문단 (평양)
11월30일 (월요일)	10:00 평양도착 (북대일항공기 동행)	12월1일 (월요일)	북측방문단 10:00 (북대일항공기 동행)	12월2일 (화요일)	남측방문단 10:00 (북대일항공기 동행)
12:00 고려호텔 도착		첫 개별상봉 (북대일항공기 동행)	10:00 첫 개별상봉 (고려호텔)		
서울 도착 12:30		가족동반 오전	12:00 가족동반 오전		
잠실롯데호텔 도착 14:00		2차 개별상봉	13:30 2차 개별상봉		
잠실상봉 16:00 (선드림시티)		합권	16:30 합권		
16:30 잠실상봉 (고려호텔)		(북대일도 인속관)	(남소 미정)		
북측 주회민선 18:00	북측 주회민선	초청민선	18:00 초청민선		
		(북대일도 통일장관)	(주최자 미정)		
				상봉가족 환송 10:00	평양 순안정경 출발
				김포공항 출발 12:00	(北고려항공기 동행)

이벤트 줄인 '실속 상봉'

30일 시작되는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앞으로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 여부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저녁 장충식(張忠植)한적 총재가 5박6일 일정으로 돌인 일본 출장을 떠나 정부와 한적의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짧은 만남 하루 '실속상봉' 기대=1차때보다 하루 준 일정이지만 가족간 만남을 최대한 늘려 상봉의 감격을 맛보게 배려했다.

1차때 집단상봉 한차례와 개별 상봉·식사 각 두차례 등 6회에 걸쳐 11시간을 만났지만, 이번엔 한차례 준 5회 상봉에 8시간30분간 만나게 됐다.

특히 관광·참관과 이벤트성 행사를 줄여 가족간 만남을 늘리고, 고령자 이산가족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같이 머물 수 있는 민속관만 들른다.

비용도 8·15방문단 때보다 크

오늘 이산가족 2차만남

張 韓赤총재 돌연 출국

'北 눈치보기' 논란일듯

계 줄였다. 남측의 경우 호화 만찬 등을 줄이고, 방북 이산가족들의 선물비를 절감함으로써 지난번은 18억여원의 절반인 9억5천만 원만 쓸 예정이다.

북측도 비용절감을 위해 오·만찬 메뉴를 조정하고 선물수준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연장은 張총재의 출국=張총재는 박기훈(朴基勳)사무총장 등 측근의 전송을 받으며 29일 오후 6시40분 대한항공 705편으로 출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적십자사 초청으로 시할린 동포의 영주귀국과 인폭피해자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적의 최대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때

다 30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을 위한 한적 총재 주재 만찬까지 예정돼 있어 갑작스런 출국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적 관계자는 "이산상봉을 원만히 하려는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적 총재까지 휘둘러서는 곤란하다"며 침통해 했다.

張총재의 방일(訪日)은 북한측이 그의 월간조선(10월호)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우리 정부에 '이산가족 사업에서 張총재가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단장은 대남 전문가=북측 이산가족을 인솔할 장재언 북적 위원장은 1998년 12월 임명됐고, 조선종교인협의회장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다. 법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과 국가보안법 철폐 대책위원도 맡아 북측은 8·15상봉 때의 유미영(천도교청우당 위원장)에 이어 대남봉을 단장으로 보낸 셈.

이영종 기자

<yilee@joongang.co.kr>

오늘 2차 離散상봉

남북 이산가족 200명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 반세기 동안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다.

▶관련기사 5·26·27면

봉두안(奉斗完) 대한적십자사 부총재할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은 30일 오전 9시 서해 직항로를 이용, 대한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2박3일간 머문다. 앞서 이들은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흥여 예방집중과 방북교육 등 준비를 마쳤다.

장재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 방문단도 같은 날 낮 12시30분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으로 입국,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후 4시 가족들과 단체 상봉을 한다. 이산가족의 만남은 첫날 2시간 단체상봉에 이어 다음달 1일 두차례 개별상봉과 동식 오찬으로 이어진다.

●전경희기자 hark3@k3daily.com

한겨레

남북 이산가족 200명 오늘 교환방문

남북의 이산가족 200명은 30일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해 2박3일간 상봉 일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5면

평양에서는 올해 100살로 방문자가운데 최고령인 유두희(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씨가 아들 신동길(76)씨를 만나고, 서울에서는 김영환(69) 김일성종합대 교수, 김봉희(68) 한덕수병원경공대 강좌장, 하재경(66) 김책공대 강좌장 등이 협육과 상봉한다. 특히 '꿈은여승가'인 김기민(71)씨는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형 윤보 김기창 화백과 12월 1일 서울에서 '병상 상봉'을 할 예정이다. 이채훈기자 nomad@hani.co.kr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100세 오마니...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의 아들 신동길씨(오른쪽)를 만난 남측 평양방문단 최고령자 유우희 할머니가 상봉시선이 믿기지 않는 듯 감은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

南北혈육 또 만났다

2차 이산상봉...서울·평양서 100명씩 눈물포옹

남북 이산가족 200명이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50년을 예타게 그려온 혈육들을 만났다. / 관련기사 2·4·5·18·19면

남측의 평양방문단은 이날 오후 4시 45분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 가족과 친척들을 2시간 동안 상봉했다. 유우희 할머니(100)는 아들 신동길씨(75)에게 "너를 만나 죽어도 원이 없다"며 아들을 연신 어루만졌고 동길씨는 "오마니, 나 동길이에요"라고 외치곤 어머니를 감싸안았다. 양철영씨(81)는 부인 우순애씨(73)와 아들 효덕씨

(55), 효식씨(52)에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생 많았지"라는 말로 반가움과 미안함을 대신했다.

북측 서울방문단은 오후 8시25분쯤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6층 락스나임을에서 남측 식구들을 만나 이산의 환을 풀었다. 권순호씨(67·여)는 활막이는 목소리로 "아바이"라고 부르곤 쓰러지듯 아버지 권경태씨(90)의 품에 안겼다. 최재경씨(65)는 형 재인씨(73)의 손을 덥석 잡고 "봉일이 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봉두완(奉斗完)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장재연(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남북 교환방문단 각 151명과 136명은 이날 대한항공 특별기를 이용해 평양과 서울을 오갔다.

이날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로 평양행 비행기 출발이 예정보다 4시간 가까이 늦어짐에 따라 상봉 일정이 1시간 이상 순연됐다.

양측 방문단은 단체상봉 후 한적 장정자(張貞子) 부총재와 양민길 평양시 인민위원의 위원장 주치의 현영 만찬에 각각 참석한 뒤 첫 밤을 보냈다. 양측 방문단은 1일 두차례의 개별상봉과 공동 경신 및 참관할 예정이다.

최재영기자/평양·공동취재단

“장총식총재 출국
본인이 판단한것”
한적 사무총장 밝혀

박기훈(朴基勳)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장총식(張忠植) 총재의 29일 일본 출국은 이산가족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 /관련기사 4면
박총장은 “장총재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산가족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서 “출발 전까지 고민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여기에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본으로 간 것이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안호기기자
haho0@kyunghyang.com

한국경제

2000. 12. 1 (금)

장총식총재 출국 ‘北입김’ 공방

어제는 30일 장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건널 일본으로 돌연 출국한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북 저자세의 긴장적인 본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에서 “장 총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半) 강제적 방출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눈치보기와 대북 저자세의 전향”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장 총재의 출국을 강

요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북에 대한 원칙과 관계 재설정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장 총재의 출국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해 뒤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공식 논평을 유보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도 장 총재의 발언에 과잉 대응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환 기자
leejc@hankyung.com

매일경제

2000. 12. 1 (금)

張총재 강제 출국시켰나

일본 출국 싸고 대북 低자세 與野 격론

황봉현 기자

어제는 30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 환영민간을 주재할 예정이었던 장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9일 일본으로 갑자기 출국한 것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대북 저자세의 전향적인 본보기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식적인 인가를 지체한 채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에서 “장 총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半) 강제적 방출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눈치보기와 대북 저자세의 전향”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장 총재의 출국을 강요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북에 대한 원칙과 관계 재설정 문제를 심각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경근 수석부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한적 총재도 북한에



30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외교위의 외교 통상부 회의 답변에서 이종빈 장관이 답변에 앞서 진땀을 흘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몇 배수 후보명단을 보내 나침을 받아서 임명해야 할 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장 총재의 출국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해 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

다”며 언급을 피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한 민주당 의원도 “장 총재가 출국한 이유를 뒤라 뒤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장 총재가 최근 모 워간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자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제제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북한도 장 총재의 발언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과잉대응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민련 박경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장 총재의 출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저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라면서 “한적이 주최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한적 총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맞선보는 데 당사자가 못나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북측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장 총재를 일본으로 미신시키기도 하는 사퇴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 12. 1 (금)

北 ‘張총재 발언’ 또 비난

서울-평양서 동시 거론

‘북한 자극발언’으로 북측의 ‘기피대상인 장총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 기간 일본을 방문, 자리잡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장 총재 문제를 집요하게 들고 늘어져 우리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 첫날인 30일 오후 1시50분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봉두완 단장에게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장 총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윤상환 shyoon@sgt.co.kr

한겨레

2000. 12. 1 (금)

장총식총재 출국
북 눈치보기 전향

한나라-지민련 비판

한나라당은 30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 서울도착을 앞두고 장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전날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북한 눈치보기’에 따른 대북 저자세의 전향’이라며 정부쪽을 감도 높게 비난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장 총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강제적 방출”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장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라는 (북한의) 공갈에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 드디어 외국으로 내보내 버렸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장 총재의 출국을 강요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북에 대한 원칙과 관계 재설정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경훈 지민련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장 총재의 출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저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한적이 주최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총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맞선보는 데 당사자가 못 나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장 총재의 출국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해 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박기훈 한적 사무총장은 “장 총재는 개인적으로 자신으로 인해 이산가족 행사에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총재는 출발 전까지 고민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여기에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일본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익립 전총회 기자 choi21@hani.co.kr



50살에 헤어져 50년만에...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가 30일 오후 월체를 타고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아들 신동길씨를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는 이들의 손길을 느끼며 별국의 정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널 만나려 100 되도록 살았다”

서울·평양 또 올었다 2차 이산방문단 감격의 포옹

방북단 최고령
유두희 할머니

“오머니... 나요, 동길아”
남측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100)는 큰 아들 신동길씨(75)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들이 맞서려 이복을 팔하자 그제야 어머니는 복현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합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껴안고 50년간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다. 유할머니는 새로 마련한 보청기가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한 채 아들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울기만 하는 어머니가 안타까

75세 큰아들 눈물재회
반세기 밤피놓고 기다려
“이제는 죽어도 원없다”

위 아들은 “오머니, 난 모르겠소”라고 머리 차례 부르짖었다. 대답없이 아들을 껴안고 있던 어머니는 20여분이나 흐느낀 뒤에야 가까스로 얼굴을 들어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이 “오머니, 머느리 좀 보세요”라며 부인 이희순씨(66)를 소개하자, 고개를 들어 얼굴을 쳐다본 뒤 유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너를 만나려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지.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며 말문을 연 유할머니는 50년간 가슴에 담아놓은 한을 쏟

이내듯 계속 말을 걸었다. “아들이 맞아나...”는 어머니의 질문에 동길씨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다”고 대답하고는 “아들(인첩·45)을 데리고 오려 했는데 간신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못 데리고 왔다”며 안타까워 했다.
유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25세였던 동길씨가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인민군에게 강제징집을 당하면서 헤어졌다. 아들이 끌려간 때 집에 없어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던 유할머니는 50여년 동안 동길씨의 밥을 떠놓고 아들을 기다렸다. 사무치게 아들이 그리울 때면 아들의 결혼사진을 보며 이른 미움을 달랬다.
최현수기자·평양=공동취재단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과 북측 방문단 100명은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각각 2시간여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과 상봉했다.
이어 북측 방문단은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한 만찬에, 남측 방문단은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3·4·26-27면, 화보 11면)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지원단, 취재진 등 151명은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서울을 출발, 오후 1시5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방문단 136명도 같은 비행기로 오후 4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남측 방문단은 1일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가진 뒤 2일 오전 귀환한다.
고승욱기자 swko@kmb.co.kr



南 100세 오마니-北 75세 아들
올해 100세로 남측 방문단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유우희 할머니가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8·25전쟁 때 헤어진 큰아들 신동길씨(75)를 만나 소리없이 흐느끼고 있다.

서울-평양서 뜨겁게 껴안았다

어제 200명 2차상봉

'8·15 상봉' 후 3개월만 만에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30일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아온 혈육과 만났다.

〈A29·30·31면에 권견기사〉

남북 이산가족 200명(남북 각 100명씩)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경유, 본단의 장벽을 넘어 여타게 그리던 고향 땅에 도착해 집단상봉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박3일의 고향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뤄진 집단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50년 만에 다시 만난 혈육을 뜨겁게 부둥켜안은 채 할 말을 잊고 오열했다.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이산가족들은 2시간여의 상봉이 끝난 뒤에

도 붙잡은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흐느꼈다.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방문단은 센트럴시티 5층 메이플홀에서 대한직접자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남측 방문단은 평양에서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마련한 만찬에 각각 참석한 뒤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서 감격의 첫밤을 보냈다.

남북 이산가족방문단은 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갖는다.

한편 남측 방문단은 당초 이날 오전 9시 평양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평양 순안공항의 집은 안개 때문에 대한항공 KE 815편이 예정 시간보다 3시간반이 늦어진 12시 47분에야 이륙했고, 이 때문에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북측 방문단의 서울 김포공항 도착도 순연됐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그리운 평양

봉두원 南측단장 自作詩

평양
이름만 몰어도 실쾌이는 마음
살아 생전 갈 수 있을까
포이심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눈물 감아야만 꿈속에서
볼 수 있던 곳
평양
그리운 고향에
통일 명천을 만들고
오늘 이렇게 서다니...
50여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고 살아온
그리움의 땅에 이렇게 서다니...
이게 꿈인가요? 생사인가요!

한강에서 대동강까지
한시간 거리를
50여년이 걸리다니...
산천은 의구한데
몇 친구가 소식조차 없고
무심한 세월에도
이토록 아름다운 만남
그 순수의 꽃을 피우듯
혈육이 만나 응어리진
한이 풀리는 곳
이
서럽고 눈물성도록
아름다운 평양
그리운 평양이여!

이산가족 2차 교환방문 남측 방문단장을 맡은 봉두원(奉斗元) 대한직접자사 부총재가 30일 평양에 도착한 직후 반세기만에 북한을 방문한 감회를 자작시(詩)로 발표했다. 봉 단장은 평해도 수안 출신으로 14후퇴 때 일가족과 함께 남측으로 내려왔다. 다음은 '그리운 평양'이라는 제목의 자작시 전문.



보고 또 보고 “내 아들 맞구나”

서울-평양 또 뜨거운 만남

이산 200명 협육상봉

남과 북의 이산가족 200명이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만에 애타게 찾던 협육을 만났다. 지난 8·15 1차상봉에 이어 3개월 보름만에 이뤄진 2차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상봉장은 반세기만에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가슴 속의 맺힌 한과 설움을 한꺼번에 쏟아내 '눈물의 바다'를 이뤘다. 이산가족들은 서로 주름진 얼굴을 어부만지며 협육을 확인하고 재회의 기쁨에 온몸을 떨면서 눈시울을 적시고 또 적셨다. 분단 50년간 갈등과 반목을 벗어난 이념과 체제의 벽을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민족 회합의 감동'이 재현된 것이다.

100세의 유두희 할머니는 75세가 된 북측의 아들 신동길씨의 주름진 얼굴을 두손으로 감았다. 양철영(81)씨는 전쟁으로 헤어졌던 아내 우순애(73)씨와 아들을 만나 "고생 많았다"며 아내의 두손을 꼭잡은 뒤 이산의 아픔을 달랬다.

서울을 찾는 북한의 공훈예술가 김기만씨는 형 윤보 김기창 화백이 병상에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롯데월드호텔을 속속로 정한 북측 방문단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 홀에서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다.

평양으로 간 남측 방문단도 고려호텔에 짐을 풀 뒤 이곳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부인과 아들, 딸, 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방문단은 센트럴시티 5층 메이플 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만찬. 남측 방문단은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마련한 만찬에 각각 참석한 뒤 서울과 평양에서 감격의 첫뽀를 맞았다.

한편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로 남측 방문단(단장 봉두만·奉斗萬) 151명은 3시간 47분이 늦은 낮 12시47분 대한항공 KE-815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이어 북측 방문단(단장 장재인·張在仁) 136명은 같은 비행기로 예정보다 늦은 오후 5시쯤 평양을 출발해 전체적인 일정이 잇따라 늦춰졌다.

/윤상환·권민경기자
shyoon@sgt.co.kr



半世紀만에 “어머니”

30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의 최고령자 유두희 할머니(100)가 고려호텔에 마련된 단체 상봉장에서 아들 신동길(75)씨와 며느리 리희순(66)씨를 만나 너무나 목이 메어 눈물 같은 새 눈물을 삼키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00살 어머니, 살아 계셨군요”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쪽의 최고령자 유두희(100) 할머니가 북의 아들 신동길씨를 만나 말을 잃은 채 흐느끼기만 하자, 신씨가 “어머니, 애기 줘 하세요”라며 울부짖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과 평양 다시 울었다

2차 이산방문단 200명 감격의 가족상봉

“자, 용케 나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서울과 평양이 30일 또 다시 열의 바다로 변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200명은 이날 분단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아온 가족·친척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서울의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과 평양의 고려호텔 2·3층에서 이뤄진

단체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이름과 번호가 적힌 명찰을 확인하기도 전에 달려가 부둥켜안고 흐느꼈다. 100세의 할머니, 81세의 할아버지도 백발이 성성한 아들의 손을 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관련기사 3·4·29·30·31면

이날 단체상봉은 비행기 출발·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평양에선 오후 4시45분쯤부터, 서울에선

밤 8시30분쯤부터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 봉두완(奉斗玩)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방문단 151명은 당초 이날 오전 9시 대 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로 낮 12시47분에야 평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따라 장재언(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방문단 136명은 같은 비행기편으로 오후 4시10분에야 평양을 출발했다.

/ 연합뉴스기자 bmchoi@chosun.com

서울·평양에서 2차 이산가족만남

하늘의 시샘도 가족 상봉의 열망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아침부터 평양 순안공항을 뒤덮은 겨울 안개는 방북 이산가족 100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KE815)를 내시간이나 묶어 놓았다. 모든 일정이 뒤로 밀렸지만, 남북 피별이들의 한뎃한 만남은 늦은 만큼 더 뜨겁게 타오르며 겨울 추위를 밀어냈다. ▶관련기사 4·5·18·19면

8·15 교환방문 뒤 103일 만인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타워 6층 밀레니엄홀과 평양 고려호텔에선 남북 이산가족의 단체상봉이 이뤄졌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텐데..." 동생 이재경(65) 김책공대 강좌장의 손을 맞잡은 재인(74·전 서울의대 교수)씨는 숨진 형제의 얘기를 전하다 끝내 눈물을 쏟았다.

"내가 너를 만나려 오래 살았지. 이젠 됐다잖아..." 평생의 절반을 아들만 그리며 살아온 유두희(100·여)씨도 평양에서 어느새 할아버지가 돼버린 50년 만에 만난 아들 신동길(75)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석춘씨는 "때가 오면, 굳이에게 간히라"는 고운 글씨가 적힌 어머니의 유품을 북에서 온 형님 석균(71)씨 앞에 처음으로 풀어해쳤다. 문보 김기장 회백의 동생 '공훈예술가' 기만(71)씨는 "형님이 건강하게 시시는 걸 보는 일"을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다.

이날 방북단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로 예초 예정된 오전 9시보다 3시간 47분 늦은 낮 12시 47분에 김포공항을 떠난 탓에, 전체적으로 상봉 행사 일정이 늦춰졌다. 이날 오후 집단상봉을 한 남북의 방북단은 12월 1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숙소에서 가족단위로 6시간 남짓 개별상봉을 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평양/공동취재단

society@hani.co.kr



100살 어머니 부둥켜 안고...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번 방북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100)씨가 북의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눈물을 쏟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photo@hani.co.kr

서울·평양 다시 감격의 눈물

2차 이산상봉단 200명 혈육 만나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난 8·15 상봉에 이어 30일 두번째로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 분단 반세기동안 헤어져 살아온 혈육들과 만났다.

이날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서울과 평양에 도착한 제2차 남북 교환방문 이산가족 각 100명은 곧바로 단체상봉장인 서울 센트럴시티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족, 친척들을 만나 50년 이산의 한을 풀었다.

★관련기사 4·5·26·27면

평양에서는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柳斗姬·100·김인 원주사 문막읍) 할머니가 건강한 모습

으로 아들 신동길(申東吉·75)씨를 만났으며, 서울에서는 역시 북측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신용대(信膺大·81)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려온 아들 문재(文宰·50)씨와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날 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윤보(尹甫) 김기창(金基昶·88) 화백은 남북 당국의 배려로 1일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북의 동생 기만(基萬·71·공훈예술가)씨와 병상 상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어 각각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회가 마련한 민찬에 참석한 뒤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2박3일 일정의 첫 밤을 보냈다.

이에 앞서 이날 낮 12시45분 취재단 등을 포함, 총 151명으로 구성된

남측 방문단(단장 봉두완·奉斗玩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은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북측 방문단(단장 장재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136명이 오후 4시께 같은 비행기편으로 순안공항을 떠나 1시간여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남측 방문단을 태운 대한항공기는 당초 이날 오전 9시 정각 김포공항을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로 출발이 3시간45분 지연돼 북측 방문단의 서울 방문일정도 아울러 순연됐다. 양측 방문단은 앞으로 2차례 개별상봉과 환송상봉 시간을 가진 뒤 2일 각각 귀환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한국경제

2000. 12. 1 (금)

서울도...평양도... 또 한번 울었다

2차이산상봉 교환 방문 평양공항 안개 출발 지연

하늘도 울고 사람도 울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두번째로 교환방문을 한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만에 상봉한 이산가족들은 십사리 뽕뽕을 그치지 못했다.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단에 합한 양측 이산가족 2백명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과 서울에 잇따라 도착.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과 50년만에 상봉했다.

▶관련기사 6.37.39면

남측 이산가족들은 평양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 뒤 오후 1시15분부터 2시간 동안 이 호텔 2.3층 식당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북녘의 가족 친척들과 만났다. 또 북측 이산가족들

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 뒤 오후 강남고속터미널 옆 센트럴시티 6층 말레니움홀에서 남측 가족들과 태후, 50년간 물어왔던 얘기를 보따리꼴 2시간 동안 풀어냈다.

이에 앞서 1백51명의 남측 방문단은 이날 오전 9시 김포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평양 순안공항의 안개로 세차례 출발을 늦춘 끝에 낮 12시47분 평양으로 떠났다. 또 같은 비행기를 타고온 북측 방문단 1백36명도 예정보다 5시간 가까이 늦은 오후 5시1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양측 방문단은 1일 숙소인 고려호텔과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오전, 오후 두차례의 개별상봉 및 가족공동 오찬 등으로 하루를 보낸 뒤 2일 오전 서울과 평양으로 돌아온다.

사회동 기자·평양공동취재단

fireboy@hankyung.com



“이제야 오셨습니까”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북의 신동길씨가 50년 만에 만난 100세 노모(유두희씨)의 입을 어루만지며 뽕뽕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몽잉=사진공동취재단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목메인 핏줄

2차상봉 남북 다시 술다

운보동생 “형님 꼭 만나보고 싶어요” 단체로 반코트에 중절모 한껏 멋내

서울

○서울 방문단의 김재권씨(70)는 동생들 보자마자 “아, 참 반갑네. 50년 세월이 여러 갈구나”라며 동생들 업세인었다.

김씨는 큰절을 올리는 조카에게는 “너 이름도 내가 지었다”며 반가워했다. 1·4후퇴 때 형제들과 헤어진 뒤 북에서 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로 있는 김규서씨(61)는 “내 고향이 안동인데, 아직도 여대에 삼구꽃이 많이 피는지도 생각날 정도로 생각하다”고 말했다.

○운보 김기성(金基成·88) 화백의 동생 기만씨(71)는 형의 별명소식들 듣고 “형님이 그렇게 변하셨네요”라며 “꼭 만나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기만씨는 “별명에 입원하신 형님도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형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그린 조선화 몇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만씨는 남측 관계자들에게 “내 일엔 꼭 협력을 만나게 주신데 달라”고 간곡한 애초로 부탁하기도 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이산가족과 심혈면들이 북측 방문단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현치기씨(66·서울 송파구 신천동)는 “홍남 시호, 형 현지동, 홍남 내오, 처남 이준국, 처형 이준자, 서울, 현치기, 이준욱”이라고 지인 풀개카드를 들고 북측 방문단 배스 앞에서 북측 기자들에게 “가족들을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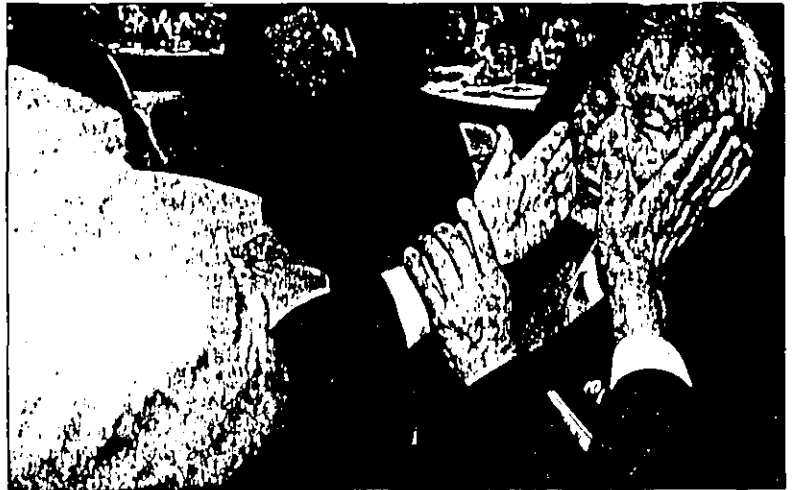
○인제 등 기성익외로 이산가족 상봉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자 남측 가족들 일부는 집단시위가 열리는 선 트럼피터 앞대니엄출에서 심혈면 숙소인 롯데월드호텔로 달려와 ‘현역’이라고 지인 풀개카드를 내걸고 ‘산 바깥’ 등 나의 눈길을 모았다.

남측 이산가족인 이현주씨(49·여)는 북측에서 내려온 방문단중 셋째가 머지않아 리용숙씨(68)가 호텔 로비에 등장하자 “셋째아저씨”라고 불렀고 리씨도 이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서울에 온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지난 1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복을 맞춰 입은 듯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남측 상봉단원의 경우 양복에 반코트를 걸치고 중절모로 한껏 멋을 낸으며 한결같이 목에 세크루의 목도리를 걸게 한 치렁이였다. 여자 상봉단원들도 모두 반코트를 걸치고 속에는 검은 색 비딩에 화려한 원색꽃무늬가 그려진 우산 옷감으로 만든 개리한복을 입었다.

○반세기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다 보니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도 많았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북측 고향방문단이 대니엄출에 떠나볼까 들어서는 가운데 남측의 영민씨(65)가 북측 최재덕씨(65)를 자신의 형 만기씨(68)로 착각하고 “형님”하고 외치며 열씨안는 정면을 연출했다. 김국직씨(61)가 지인 병사자의 아내로 실수를 알아차린 양씨는 “50년 동안 못났으니...”라며 겸연쩍어했다.

박경은·유신모·김종목기자
kso@koryon.com



“어디 만져보자”

김기성 화백의 시동생인 기중씨(77)가 김희백의 동생인 기만씨(71·오른쪽)를 만나 얼굴을 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꿈이나 생시나”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신금옥씨(왼쪽)가 30일 오후 명양 교리호텔 상봉장에서 두 동생 금덕·금식씨를 만나 열씨안고 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1차때와 달리 환영인과 없어 설렁 혼장 10개 달고나와 형에 자랑 눈길

평양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30일 오후 명양 교리호텔에서 50여년만에 북측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이산의 아픔을 달랠다. 하지만 친척가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선연씨(84·충남 신안시)는 아내 장모부씨(86)와 딸 최정(65)·정옥(55)·진희(49)씨, 아들 손대

(63)·선영(61)씨 등 6명과 만났다. 특히 태어난 시조조차 몰랐던 태어날 정희씨의 얼굴을 친신처럼 알아보기도 했다.

○“금방 돌아가리다...” “아저씨 보고싶었어요...”
대여나기도 전에 헤어졌던 아저씨 이순규씨(83·강원 춘천시)를 난생 처음으로 만난 한 손옥씨는 숨을 따라 물리고는 간 집을 뒤졌다. 남측 아씨는

동생과 조카를 찾는데 신성서를 보였으니 팔과 두 여동생을 만나 두 배의 기쁨을 맛봤다.

○북측의 두 동생 혜조(59)·혜영(56)씨를 만난 백계수씨(71·서울)는 김덕태 감사라는 직업에 걸맞은 품위 있는 상봉준비로 눈길을 끌었다.

백씨는 일가 친척의 시간 50여분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동생들에게 전하는 기 하던 고향인 평남 신양군 백석리의 지도를 건네기도 했다.

또 미리 준비한 질문목록을 꺼내 “고향집 옆에 있던 소나무 세그루는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등 짧은 상봉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오빠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보자,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1차 상봉 때 장이준씨의 109세 노모가 세상을 떠다는 소식에 방북을 양보했던 우원형씨(67·서울)는 여동생 옥희씨(64)를 부동적 인연 세 친구는 눈물을 흘린다.

옥희씨는 무척가 단체상봉장에 들어 서지마져 달려가 끌어안고 심혈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은 눈물을 쏟아냈다. 기술자인 남동생 인형씨(61)는 노력훈장 등 10개의 훈장을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명양 순안공원에서 숙소인 교리호텔 향하는 동안 방문단은 정위의 시안을 형제 손을 흔들었지만 환영시안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순안공원에 도착한 30여분이 나와 다소 불편한 분위기였다. 남측 관계자는 “1차 때 공방 공장에 수백의 환영 인파가 나왔다”며 “북측 단체의 기자들 역시 줄어든 것 같고 말했다.

인호기자·평양 / 공동취재
hwh00@koryon.com

“내 아들 맞지”... “오마니 나여”

■ 어머니 유두희씨 - 北 신동길씨

“100살까지 사니 이렇게 만나누나”

이산가족 해외 방문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유두희 할머니(100·경남 완주시 문암읍)는 이날 평양 고려호텔 2층 침실에서 반세기 만에 큰아들 신동길씨(75)를 만났으나 입을 열지 못했다. 웅하고 심근 환이 팔리기에 50년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다.

과보이의 참관은 유해머니의 어린 몸을 사정없이 뒤집어댔다. 오빠처럼 그리던 장남을 만난 기쁨이 1세기를 살아온 100세 노인에게 믿기지 않는 것일까. 유해머니는 이들의 얼굴을 품에 안고도 두 눈을 뜨지 못한 채 계속 고개만 흔들었다. 아들 김씨가 눈물로 뒤범벅된 채 연신 “오마니”를 외쳤으나 유해머니의 입문은 터지지 않았다. 내신 치유원이 눈물만 쏟아졌다. 헤어질 때만 해도 그에 평범하던 흥인의 아들, 어리바운 신부부 남자는 새 인민군에 징집돼 죽었는데, 친양친 조지소도 없던 그 아

들. 어머니 기억 속의 이들은 여전히 활기찬 듯 “정녕 꿈은 아니겠지”

하지만 평양에서 만나. 이씨는 주름진 얼굴에 허락하듯 못한 미소와 함께 아들 보습은 100살 노모를 팔방으로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우, 어우”하며 희희의 신동소리만을 뱉어내던 노모는 “오마니, 나여 등글...”를 연방하던 큰 아들이 눈물방울을 어머니의 옷소매에 묻자 힘내 내 발음을 엮기 시작했다.

“100살까지 사니가 어떻게 만나누나... 얘들은 뭘이 아니냐”

“아들 하나, 딸 둘이냐”

“어머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68살에 돌아가셨다. 그레도 바네까지 내가 다 키웠다”

어둠기 복원에서 검은색 머니 리 리호준씨(66)는 5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 리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유해머니의 이야기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아들과 헤어져 지내 50년의 세월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유해머니는 6·25 당시 25세이던 동갑씨가 인민군에 강제징집을 당하면서 헤어졌다. 1943년 아들이 18살 때 일본군에 징집돼 이별의 이튿날 걸었다. 유해머니는 재야에서 한 번 남았다. 매는 리도 당시 친장에 귀찮았다가 재가하는 바람에 이들의 기억은 난 현장 남은 검은색장복이었다. 할머니는 그동안 까니마나 큰 이들의 뒤를 따로 따놓은 뒤에야 수자 를 들었다. 이들의 귀순사실을 보고서야 잠이 들었다. 학생기자 www.kynews.com

母子 상봉

30일 평양과 서울에서 물려버린 통곡은 50년 세월만큼이나 컸다. 분단, 그리고 대립과 반목의 세월도 모자(母子)간의 정만큼은 없어 붙게 만들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끈끈한 '혈육의 장'을 더욱 두텁게 했다. 반세기 만의 서역행은 단 한번의 뜨거운 모음으로 녹아내렸다.



반세기만의 입맞춤

반세기만에 북에서 온 육손의 아들 정재갑씨를 만난 남의 어머니 안준옥씨가 이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감격에 겨워하고 있다.

■ 北 이석근씨 '너무늦은 귀향'

어머니 백발로 붓 만들어 쓴 詩 유품 받아들고 “난 불효자” 통곡

“항남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남긴 유품입니다”

큰 아들을 그리워하며 반세기 가감도록 쓴 어머니의 입가집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이들의 눈물로 얼룩졌다.

6·25 전쟁중에 북으로 사라진 큰 아들 이석근씨(71)는 30일 서울 센트럴시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동생들이 전해준 어머니 유영택씨(90)의 입가집을 받고는 오열했다.

이씨는 특히 동생들이 어머니가 남긴 ‘백발 뿔치’를 건네자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유품함 아무런지기만 했다.

이씨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다”면서 “나도 북에서 어머니 생가에 늘 가슴이 저렸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남측 동생들이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에서 빠진 백발을 묶어 만든 붓으로 써 내려간 시집 보여주시어 위아래가는 동안 종이 위로 이씨의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눈물로 비읍 길고/ 백발로 붓 만들어/ 얼

리는 손에다가/ 붓을 쥐니/ 손바라 붓이 떨고 / 붓따라 떠는 글로/ 李爾準이/ 李爾準이/ 사는 곳이 어디메니/ 모자상봉 아메도/ 때 느꼈나 보다’

가족의식중 큰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물리오자 수지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일기내용에 이씨는 “어머니가 쓴 입가집 세월의 너께에 누렇게 바랬지만 자식에 대한 모정이 구석구석 녹아 있는 것 같다”면서 물내 법지 못한 어머니 생가에 눈물을 흘렸다.

또한 이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중 ‘이 조이는 장남 식구가가 남브라고 현경을 주어서 쓰다 남은 것을 다 못 배리내 두고 두고 보는 조이다’라고 쓴 몇장 남지 않은 편지지를 읽어으며 한동안 회상에 빠지기도 했다.

여동생 손지씨(58·서울 중구 신당동)는 “오빠가 사라진 후 삶의 의욕을 잃은 어머니를 지탱할 수 있게 한 것은 죽기전에 써 만나 재지리는 회화 이레 쓴 입가집이었다”고 말했다. 조현필기자 dn1972@kyunghyang.com

■ 어머니 안준옥씨 - 北 정재갑씨

“심부름 간놈이 이제사 오느냐”

“재갑이, 내 아들 재갑이 맞지” “어머니... 어머니 아들 재갑이예요”

30일 남측 심봉림인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6층 카페니업을. 반세기나 갈래 밖에서 달려온 아들 정재갑씨(66)가 어머니 안준옥씨(88·충북 청주시 청남동)를 만났다.

“난 안 물어, 내 아들은 꼭 심이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반세는 아들을 확인하지마지 아들을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50년 세월 속에 험사리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한 모습에 역장이 무너졌다.

그러나 감격의 눈물도 잠시였다. 마치 여재 해어진 모자처럼 해우의 기쁨을 토해냈다.

어머니가 이들의 가슴에 뿔을 넣어주자 이들은 “결혼시키는 것처럼 좋네요”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이놈아, 결혼하는 것보다 예미 만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중조부씩 보냈다가 의용군에 징집당해 백발아들 부어잡고 “애미를 용서해다오”

“재갑씨가 ‘연세가 많지만 그래도 살아 계실 기리는 희망을 갖고 상봉 신망을 했어요’라고 말하자 어머니 안씨는 “애미는 먼저 떠나보냈지만 예미만큼은 너를 만나야 한다는 입념으로 살았다”고 답했다.

안씨는 50년동안 간직했던 시전 두장용 품에서 꺼내 건넸다. 또 아들이 결핵중에 다니던 것을 자랑하듯 문앞에 걸어뒀던 ‘결핵중학 교 정재갑’이라고 쓴 명패도 전해했다. 평양근교의 대학 생리학교수인 재갑은 인민문화공원을 배경으로 두어달래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내놓았다.

“살아서 너를 보니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러나 꼭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번이라도 먹이고 싶구나”

경기 피우에 살던 아들 모자름 50년의 세월 동안 길다놓은 것은 전쟁이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22일, 어머니는 그날에 한이 맺혀 지금도 날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당시 16살 중학생이던 아들을 이웃의 중조부 때에 심부름 보냈으나 그 길이 미지막이었다.

“의용군에 끌려갔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부러지게 운동장으로 달려갔지만 얼굴은커녕 근처에 접근조차 못했다.

“원한 시집에 너를 심부름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 애미를 용서해 다오”

정씨는 연신 비안애 하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는 해어지지 않으려는 듯 좌우 잡으며 서울에서의 첫방을 보냈다.

김형기기자 hgi@kyunghyang.com

대남문제 정통 '대표적 종교인'

서울 온 장재언 北赤위원장

北가톨릭교·범민련 핵심 역할 3차 적십자회담 '돌파구' 기대

북측 서울방문단장인 장재언(張在彦·64)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겸 북한 종교계 대표하는 인사이자 사회 분야 남북문제 전문가다. 1989년 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 본부 부의장 등의 직책을 통해 대남사업에 관여해왔다. 다른 대남 '일꾼'처럼 장재철이름 이름도 사용하는 그는 최고인민회의의 10기 대의원이기도 하다.

장재언은 1차 이산상봉식 환영에서 남측 방문단 환영민찬을 열었다. 비전향장기수 북송 요구, 서한을 발송하고 남한 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지지 담화를 내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원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이산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에 처음 온 이남도 장충재를 거남한 듯 "이산사업이 북남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일부에서 방문



단사업에 제동을 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협력은 장재언의 방문에 내심 기대가 크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최종합 북측 단장도 장재언과 함께 서울을 방문함에 따라 남측 적십자회담 수석대표인 박기훈(朴基勳)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지연되고 있는 1·2차 생사확인, 서신 교환, 3차 적십자회담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관계자는 "1~2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산사업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우리측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지수다. 북측이 접촉에는 응하겠지만 "내부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합의 사항은 지킨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측 지연요인 중 적십자 관련 회담일꾼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점과 장재언의 성명, "이산가족 사업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품이 잡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북측 관계자의 얘기 등 계속되는 북측의 '장충재 발언 거론'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재명기자 cyoung@kyungnyang.com

장충식총재 '피신성 출국' '對北 저 자세' 野 강력성토

여야는 30일 북한을 자극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빚었던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배경을 둘러싸고 성명전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지만원은 30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 공식민찬을 주재할 예정이던 장충재의 원만한 출국은 대북한 눈치보기와 저지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한이 서로의 재계를 존중하며 대화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권혁현(權赫顯)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장충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감재적 발출임이 분명하다"면서 "사과사한까지 조작해 보냈다가 망신을 당하다니, 이제는 국가 자존심마저 꺾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또 "이러니 전적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의혹,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북한에 대한 원칙과 관계 재설정을 주문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앞으로 한적 총재 위엄까지도 북한에 맞배수 추보명단을 보내 낙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지만원 박경춘(朴景春) 부대변인도 "한적이 주최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한적 총재가 나설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에 답사자가 못가기는 할"이라고 보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장충재의 출국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해 뒤리고 말한 입장이 아니냐"라며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용목기자 wook@kyungnyang.com



시인공동회대남

'언제 가나'

30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의 인개로 특별기의 김포공항 이륙이 늦어지자 기내에 탑승해 있던 남측 방문단의 얼굴에 궁금함과 초조함이 가득하다.

• 총재없이 행사치르는 韓赤 표정

겉으론 '덤덤' 속으론 '짹짹'

2차 상봉은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빠진 채 진행됐다. 30일 오후 있던 한적 주최의 환영민찬도 장정지(張貞子) 한적 부총재가 대신 주재했다. 이산상봉사업의 남측 최고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식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날 민찬행사를 준비한 한적 직원들의 얼굴은 내내 밝지 않았다. 겉으론는 덩덤한 듯 보였지만 뺨뺨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장충재의 원간조선 인터뷰 발언으로 벗어진 사단이 간 해도 이산상봉사업에 최고 책임자가 끼지 못한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기훈(朴基勳) 한적 사무총장은 장충재 출국 이유에 대해 "이산상봉사업

에 걸림돌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본인 은 여기 없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판단해 떠났다"고 전했다. "일본 적십자사 초청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전담 해명과는 사뭇 다르다.

한적 직원들 사이에선 장충재의 출국이 '도발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했던 북측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는 풀이가 대체. 정부 안에서도 장충재간을 마무리해야만 남북회해의 상징인 이산상봉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무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저지세'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상봉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고충이 드러난다.

안호기기자 heho@kyungnyang.com



7시간종료후에

“많이 닮았구나”

상봉장에서 만난 북의 아버지 김중현씨에게 남의 어머니 유순이씨와 함께 남북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영우씨(오른쪽).

“머리는 어찌 그리 세었오” 반백년 수절 서럽게 통곡

‘유복자’ 김영우씨가 가족 동행취재 둘째날

“왜 이제서야 오신 김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당신 아들이 신상이 되었습니다...”

30일 북측 이산가족 김중현씨(69)가 상봉장에서 돌아서는 순간 백년 수절 하며 ‘부처상봉’을 기다려온 유순이 할머니(71·서울 강서구 신월동)가 저만큼 달려나기까지 서럽게 통곡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선 큰아들 영우씨(49)는 “아버지, 제가 큰 아들입니다”하고 엄드려 큰 짚을 묶었고 아버지 김씨는 있는 줄도 몰랐던 아들의 인사에 “그래, 내가 내 아들이로구나”라며 비탄에 주저앉아 버렸다. 6·25 전쟁과 함께 의용군으로 차출된 아버지, 입원 3개월에 남편과 헤어진 어머니, 아버지의 영구도 모르고 태어난 ‘유복자’ 어린 ‘유복자’,

큰 아들 영우씨에게 분만 50년은 가난과 애고였었다. “폐는 몸보다 잔하대”고 했거늘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아픔이 있었다.

부부로 연을 맺은 세월이 겨우 6개월, 뱃속에 지식이 있다고 한들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사부모의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시던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 육체 툇 각장대 한 이복 속에서 기저귀 갈아드리며 4년짜리나 병수발한 며느리...

원망스럽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래도 어찌 다행이도 아버지라 있으나라는 등 뜬힘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한류 이미 상노인인데 피붙이랑 이렇게 의지가 되는 것일까.

“예배없이 자란 자식을 곁을 곁을 시키면서

혜중 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비어졌습니다. 한갑찬차 때는 아버지가 그리우셨는지 온종일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들 영우씨는 어머니의 손을 아버지의 손에 포개드렸다. 시간가지마자 생이 별개 벽안이 심심한 노부부로 만났지만 스무살 그 시절의 얼굴을 기억해내려는 듯 보고 또 보았다. 유희씨는 “당신 앞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려. 머리는 어찌 그리 세었오” 하고 묻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킁꿨다.

남생 처음 불러보는 아버지
“제가 큰아들입니다...” 큰절
“고생만한 장한 우리어머니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전남 밥 소주 2병을 돌이켜고서야 눈곱 붙일 수 있었던 영우씨는 내심 걱정이 앞섰다. 집안 머뭇머뭇에서 3,000원을 주고 ‘고대’를 하고 신부취직을 하듯 연한 파운데이션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모습은 한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흰색 꽃이 수놓아진 고무신은 언제 시두셨는지 묵색 치마지고리결 여마는 뒷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이제서야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린 듯 영우씨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냈다”며 어머니에게 피뎠던 소리를 했던 것을 후회했다.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요. 어머니, 준비해온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세요”, 유희씨는 치마폭에 숨겨둔 작은 삼자통 열어 시계를 꺼냈다. 회색포켓모아은 돈 7만원쯤 꺼내자 유희씨의 미소를 알아챘는지 동네 시계방 주인이 12만원짜리류 정성스럽게 포장해 줬다.

“어머니, 이제 웬어려진 마음을 무세요. 아버지, 친한 우리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정재용기자 younn@kyeonghyang.com

北 유명인사들의 가족상봉

어학권위자 김영황교수 누나·쌍둥이동생과 얼싸안고 ‘해후의 눈물’

30일 남북을 잇는 방문단 중에는 김연황 김영실총합대학 교수(69)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북한 언어학계 권위자인 김교수는 누나 옥인씨(80)와 쌍둥이 동생 영철씨(63), 영우씨 등을 만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교수는 옥인씨의 손을 꼭 잡고 “진정했어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나까지 떨어져 어린 동생들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면서 “내가 짐만 못했음 못한 것이 한스럽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옥인씨는 “내가 입어서 키우다시피 한 니를 이제야 다시 만났구나”며 “복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됐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연방 눈물을 흘렸다. 임북 전 동국대 문과대학에 재학했던 김교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언어학 학사, 어학계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선민족어법연구’ 등 40여종의 교과서와 참고서헌 아니라 230건의 논문을 집필, 조선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단체상봉 직전 남북을 잇는 소감을 묻자 즉석에서 “많은 고향땅이로되 재킷(우리집)이 없어 타향과 같구나”라고 외국풍 일색인 서울의 모습을 표현, 국어학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김병희 평양시 한려수평양경공업대학 김희정(68)은 동생 규희씨(67)와 반희씨(62) 등을 만나 반가움을 나타냈다. 동생들을 부둥켜안고

■ 김병희 한려수평공업대학 학장장

동생들 만나... “모친 작고”에 망연

■ 허재경 김책공업대학 학장장

둘째형·조카만나 상봉의 기쁨

■ 김규서 농업과학원 연구사

동생들 만나 “고생 많았다” 흐느껴

한미당 눈물을 쏟았던 김씨는 지난 9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한동안 망연자실해 했다. 규희씨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해서 면목이 없습니다”고 말한 뒤 “어렸을 적 어머니가 밭에서 돌아오실 때면 미리 반갑음 한참이나 곱이 마중 나가 짐을 대신 들고 오시곤 하면 형님이셨는데...”라며 말문을 잊지 못했다. 김씨는 고래대 임학을 기다리던 중 6·25가 터지자 가족과 헤어졌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백남운씨의 생모이기도 하다.

허재경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희정(65)은 둘째형 재인씨(73·전 서울의대 교수)와 지난 6월 숨진 큰형 재영씨의 아들 상진씨(43) 등을 만나 상봉을 기쁨을 누렸다. 재인씨는 “큰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남 만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어렸을 적부터 줄곧 1등을 놓치지 않더니 복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주었구나”고 말했다. 재경씨도 큰형수 유정열씨(69)와 조카 상진씨의 손을 꼭 잡고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큰형님 만나뵙 수 있었을텐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사로 있는 김규서씨(61)는 동생 시희씨를 비롯한 가족들을 만났다. 시희씨는 “형님 어떻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과학계 북에 유명한 인사가 되셨다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라며 부여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규서씨는 “내 고향 안동에는 삼구꽃이 많고 지두 반 등이 풍성했던 것 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매일 동생과 고향을 그리던 것이 어느새 50년이 흘렀구나”고 탄식했다. 시희씨는 6남매중 유일하게 사임한 다섯째 동생 시범씨의 이름을 소개하며 “죄송합니다. 동생을 제대로 전사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냈습니다”며 눈물을 흘렸고 규서씨도 시희씨가 전해준 동생의 사진과 동생의 아들을 반갑아 바라보며 히엄없이 눈물을 닦아냈다.

정재용 인대연 손병호 이승철기자 jwjang@kmb.co.kr

“내게 아들이 있었나” 오열

“동생 4명 더 태어났어요”

‘유복자’ 만난 험서옥씨

약혼녀 남겨두고 월남 간암 투병중 가족소식

“여 이제 오셨습니까. 어머니가 일어나 기다렸는데...”

유복자로 태어난 생면부지의 아들은 아버지 집을 부둥켜안았다.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는 그것이 더욱 비탄한 듯 언짢은 눈물을 흘렸다.

험서옥씨(80)는 유복자 중만씨(50)를 30일 평양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현씨는 51년 11월 임진 8개월된 약혼녀 지순호씨와 가족들을 고향 흉년에 두고 흉년 때를 타다 식량이 없어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피난길이었지만 반세기여 이별이 되고 말았다. 지씨는 생전에 아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이들 중만씨도 남쪽의 아버지

에 대한 얘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만난 현씨는 “살이 있는 게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다”며 중만씨를 붙잡고 환고 또 환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현씨의 여동생 정옥씨(65)와 순애씨(61)도 언짢은 눈가의 뺨기름 흘려냈다. 부지 상봉으로 인한 타질 듯한 심정을 가리킨 현씨는 그제야 가냘픈 몸집의 여동생들을 돌아보았다. 이따가 주먹이 깊게 썬 여동생들을 안싸안은 현씨는 또 오열했다.

현씨는 남에서 우덕봉씨(65)를 만나 3남 2녀를 뒀지만 북에 남기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다. 특히 외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던 기억은 현씨에게 평생의 한(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간암에 걸려 투병생활중인 현씨는 북에 가족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상을 바치고 일어났다. 육신한 가족과 신자인 현씨는 “앞으로 북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다시 아들과 여동생들을 끌어안았다.

한민수기자·평양공동취재단

‘이름다운 일본 유원회사’

훈장10개 동생과 해후 9남매 밝혀지자 ‘충격’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보자.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북측 여동생 옥희씨(64)를 부둥켜안은 우원형씨(65)의 두 눈에는 연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지난 8월 1차 상봉때 109세 노모의 별세 소식을 들은 정이운씨에게 방북을 양보했던 그것기에 만남은 더욱 뜻깊었다.

옥희씨는 단체상봉장에 돌아선 오빠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오빠가 살아있을 줄 몰랐어”라고 흐느끼는 옥희씨를 품에 안은 원형씨도 한동안 말을 할지 못했다. 가족자로 일하며 노력훈장 등 10개의 훈장을 받아 가슴에 달고 나온 남동생 인형씨(61)도 50년만에 만난 형의 발을 부여잡고 “오노라

아니고 생각했구나”며 손수건을 꺼냈다.

1·4후회 당시 “3일간만 피세 있으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러디오방송을 듣고 단신으로 월남한 원형씨는 동생이 보고싶을 때면 무작정 ‘우’씨 상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또 남씨가 밥을 때면 고향명이 보이는 강화도 마린산에 올라 그리운 고향 개풍군 백미산 자락을 바라보았다.

원형씨는 동생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오는 동안에도 사진을 보고 고 보았다”며 긴 이별을 원망했다. 힘겨운 대화는 다시 가족 안부로 이어졌다. 원형씨는 생사 확인에서 ‘미상’으로 나온 피내동생의 생사를 몰랐고 동생 인형씨는 “그 해는 이미 죽었다고 믿어서 동생이 ‘그었다’고 들었다. 5남매만큼 알았는데 모두 9남매였음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원형씨는 “정이운씨가 소식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소식을 몰랐다”면서 가뭄에서 가족사진을 꺼내 동생들에게 소개하고 죽보도 전달했다. 남도영기자·평양공동취재단

“입이 열개라도 할말없소”

“조카가 부모봉양 하다니”

이내만남 양철영 장로

종교탄압 피해 남으로 “하나님께 감사” 눈물

종교탄압 피해 월남하다 헤어진 아내와 두 아들을 상봉한 교회 장로 양철영씨(81)는 아내 우순애씨(73)의 뺨을 어루만지며 50여 년간 쌓였던 눈물을 허위없이 쏟아냈다. 양씨는 “혼자서 살아보니 부양하고 아들, 손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있었느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씨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미안해하는 눈물을 쏟았다.

부인 우씨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덕정치, 정책정치로 아무 관심 없이 침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미안함에 양씨는 우씨에게 “요즘도 기도할 하니”고 묻고 싶었지만 가슴속에 붙여두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양씨는 아들 둘이 한동농장에서 농기계 8000대를 관리하는 직위에서 임하며 비교적 여유있게 살고 있다는 아내의 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양씨부부는 평양 신정교회와 성가대에서 활동하다 결혼한 믿음의 부부였다. 1945년 소련군이 간주하자 “북에서 종교인으로 살 수 없다”고 만난 1·4후회 직후 고향인 황해도 송화읍 떠났다.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해주 시리움을 거쳐 황해도 잠산곶 벼농사까지 가족과 함께 걸었다. 하지만 구원선 근처에서 격한 진주가 벌어지는 바람에 당시 24세였던 아내와 6세, 3세였던 아들과 헤어지고 말았다.

양씨는 아내와 두 아들, 마느라, 손자 등 북측 가족 9명의 생존 사실이 불모에 헤더 인위 상봉 예상치못도 관심을 모았으나 상봉장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없었다. 아들 효식씨는 “남자스레 가뭄을 받아 가족 전부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대타’행운 김명식씨

“부모님 모습 되살아나” 불효 떠올리며 통곡만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너를 만나니 더 이상 여언이 없다”

당초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시공옥씨(85·여)가 건강문제로 방북을 포기함에 따라 교체된 예비후보 1번 김명식씨(89)는 조카 정현씨(64)를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조카에게서 부모님의 체취를 맡았을까. 김씨는 한동안 조카를 붙잡은 채 눈물 줄을 흘렸다. 평남 순천이 고향인 김씨는 9남매중 다섯째로 지난 47년 3월 무작정 월남했다. 김씨에 이어 아내와 딸, 가족들이 차례로 월남해 다른 이산가족보다는 그나마 행복한 편이었지만 남아주고 갈라주신 부모님이 북에

남아있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걸렸다.

같이 월남한 형제자매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여동생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조카를 바라보니 자상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부모님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조카 정현씨는 “아버지의 할머니는 오랜전에 돌아가셨다”면서 “나이가 90세에 가까운 양반이 어머니를 찾겠다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한편 방북 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방북을 포기해 대신 행운을 거머쥔 이경훈씨(83)도 조카들을 만났다. 이씨는 당초 만나기로 했던 조카 순애씨(61) 외에 승천씨(43)를 추가로 만나게 되자 일일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심봉을 기쁨을 나눴다.

양자를 키우며 혈육의 정에 굶주려 있던 이씨는 조카들에게 “아버지 산소가 고향에 있다니 그지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평양공동취재단

장총재 日잠행... “누가 내보냈나” 한나라 “정부서 北눈치보기” 고강도 비난 북측단장도 여전히 심기불편 ‘집값가경’

북한사회 비판 발언으로 북측으로부터 비도를 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장총재(張忠植)총재 “사건”이 갈수록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12월 20일) 일본으로 돌연 출국했던 장총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방일 배후로 장총재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측도 장총재를 계속 문제 삼았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

한적 박기남 사무총장은 30일 “장총재가

취입 후 일본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에서 미안치명도 나오고 허니가 시용에 없는데 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장총재의 도 월간지 위트부 기사를 끌고 넘어지고 있는 북측을 피해 나라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다.

방일 목적도 명쾌하지 않다. 한적은 일본 적십자사 초청으로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측 설명은 다르다. 일본 적십자사는 “30일 현재 장총재와의 어떤 스킵에도 걸친 관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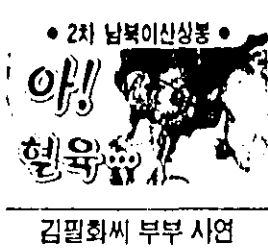
다”면서 “한적이 20일 양측 회담을 갑작스럽게 재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장총재의 일본내 소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권위적인 대변인은 “장총재의 돌연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半)강제적 방출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눈치보기와 대북 지지세의 진형”이라고 비난했다.

앞간대 댈친 격으로 북측은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남측 방문단을 맞이한 허허립 민회협 부회장은 “색인

있는 위치의 사람들과 언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안내원들도 “대하 총장을 지내도 남조선 적십자사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산가족 사업에 관여를 끼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며 언론에 사파론 개재할 요구하기도 했다. 시용에 도착한 발남단 장재연 북측 단장 역시 도착 심명에서 “일부에서 방문단 교환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장총재 발언을 비판했다. 한민수기자

임신중이던 18세 수줍은 새댁...
피란길 죽은줄 알았던 15세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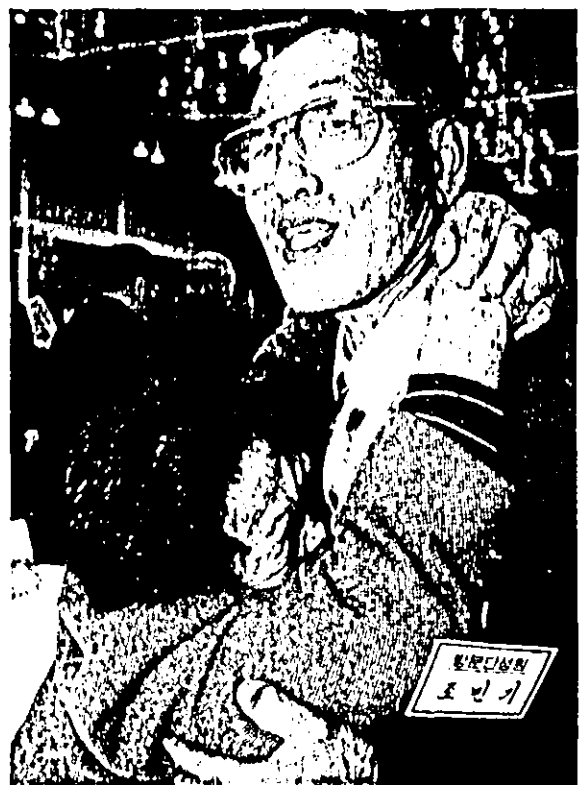
“50넘은 당신 아들 보세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50년 동안 당신도 많이 늙으셨구라. 나도 당신 따라 유리가면 안 됩니까”
6·25 전쟁중 피난 길에 헤어진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조민기씨(65)를 만난 김필희씨(68·김씨 본명)는 첫눈에 남편을 알아본다.
안동시범학교를 다녔 당시 사진과 비교할 때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얼굴만 달라졌을 뿐 신형 눈매와 입가의 미소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합 밥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던 아들 규석씨(50·사진)는 김씨가 자신을 아버지에게 인사시키자 비로소 눈물을 펴고 흘렸다. 김씨가 남편과 헤어질 당시 뱃속에 있었던 규석씨의 최후한 머리칼이 무성한 새털을 기증해줬다. 남편 조씨는 자기보다 다 큰 아들을 안고는 미안한 마음에 한숨 돌렸다.
“내가 꿈에 그리던 내 아들이 맞나? 이 꿈이 규석이라고. 나 없이도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 제사를 지내온 규석씨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신

뱃속에 있던 아들
떨리는 “아버지...”
“많이 늙으셨구려”
“따라가고 싶어요”

맛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였다. 규석씨는 50년 만에 불러보는 ‘아버지’를 크게 외치며 반세기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김씨 모지는 상봉 하루전인 29일 밤부터 실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복기능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김씨는 남편 따라 가게 되면 옷이 필요할 것 같이 자신의 옷가지를 밥을 이상으로 한보따리 싸 놓기까지 했다.
김씨는 밤 기차 편으로 30일 새벽 6시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남편 생각에 잠시도 눈을 떠지지 못했다. 김씨 모지는 여장을 쓴 잠위동 친척집에서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못하고 서울로 상봉 장소인 반포동 센트럴시티로 향했다. 그러나 복속 방문단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소식에 서로 손을 부여잡으며 안다끼워줬다.
신물로 시계, 은수저 등을 준비한 김씨는 무엇보다도 손수 지은 적삼



남측 이산가족인 김필희씨(68)와 30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호텔에서 마련된 이산가족 집단상봉장에서 6·25 당시 헤어졌던 남편 조민기씨를 만나 목을 끌어안고 재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통취사단

목메인 재회

올 쟁겼다. 지난 여름 1차 이산가족상봉 당시 복속 남편을 만날까 싶어 직접 직장을 만들어놓았다. 김씨는 “이유,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취서 어쩌나”하면서도 끈게 접어뒀던 직장을 전하게 된 게 너무 기쁘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이준희기자 jhee@kmba.co.kr



김수현 추기경

北 장재언단장, 金추기경 만난다

김위원장의 ‘訪北초청’ 의사 전달
김추기경 내년봄 평양行 가능성
종교교류등 협의... 적십자측선 부인



장재언 단장

북측 이산가족방문단을 이끌고 서울에 온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61)이 서울 체류기간중 김수현 추기경을 쿠마리에 만날 예정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장단장은 김추기경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남북 종교교류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추기경측은 “지난달 27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추기경과 장단장이 30일 만날 수 있느냐는 의사를 전달

했다”면서 “장단장이 (김추기경과의 만남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30일 밤 또는 1일 공식인정용 미친 뒤 해외종주교관으로 찾아올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북 시기는 내년 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추기경도 수차례 북한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또 지난 89년 인수결제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문규현 신부의 의 만남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신부는 30일 “북측 인사기 없이만 장단장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는 “장단장이 한지를 통해 김추기

경과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한다”며 “남북 최고 종교지도자간의 만남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연’이라는 세례명의 천주교 신자인 장단장은 지난 91년부터 조선총교인협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북 종교지도자들의 방북 친구 역할을 해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측은 장단장과 김추기경의 만남 추진설에 대해 “진짜 그런 계획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명훈 이화여자

서울 - 센트럴시티 호텔

평양 + 고려호텔



“내 아내” 북측 방문단 김중희씨(68)가 30일 오후 서울 방문동 센트럴시티 호텔에 마련된 집안상봉장에서 50년만에 헤어진 아내 유순씨(70)를 만나 우편편 알곡을 어루만지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내 동생”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김경호씨가 30일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북한의 여동생 공영숙씨를 얼싸안고 할인 표모를 들고 있다. 통일 = 사진공통취재단

평양외국어대 임순응 연구사, 못듣는 동생과

컴퓨터강사 박해수씨, 北 두동생과

복받친 ‘筆談상봉’

눈길 끈 ‘컴 상봉’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의 강제로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들이 이젠 다시 만나고 있다.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30일 서울 방문동 센트럴시티 호텔은 모두 현재 남편 자녀를 찾은 이산가족들의 떠나는 초느낌으로 가득했다. 예전보다 무려 3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25분쯤 북측 방문단이 상봉장에 들어서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측 가족들은 지리멸렬 바치고 일어나 부모형제의 얼굴을 찾았다.

편지라도 잊지 못했던 행적을 만나는 순간 이산가족들은 서로의 주된 안목을 쓰디듬으며 외눈을 내리고 있었다. 재회의 눈물과 함께 서로를 감싸안고 손끝 마주잡은 채 지난 세월을 돌이켜며 이야기를 비웠다.

다섯살 때 헤어져 어머니 이복옥씨(72)를 50년만에 만난 홍영희씨(56)는 다시 36년 전과 못어린듯 손을 보지 못했다. 홍씨는 6·25 당시 미군이 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현역 장교의 아내로 남편을 잃고 10여년에 걸친 혼신은 “살만 끈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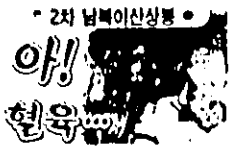
평양외국어대 연구사 임순응씨(66)는 동생 김중희(68)와 50년만에 만났다. 중씨는 4세대 동네 위두막에서 버려진 장외아동으로 먹고 살만은 없었지만 할아버지도 못하게 했다. 임씨가 숙여준 리는 이윤환씨(68)와

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라고 묻자 중씨가 준비한 종이 에 “반갑습니다”고 응답했다. 임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는 “동여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타향가리는 노래를 부른다.”

반세기동안 방부기를 풀려온 유순씨(70)의 눈물은 더욱 예뻐졌다. 같은 6개월만에 남편 김경호씨(68)와 헤어져 유복자 양우씨(49)를 홀로 키운 유씨는 뒤늦게 수줍은 새책사의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다. 김씨는 “고생 많았다”며 아내의 등을 어루만졌고 유씨는 “말이 늦은 찻다”며 아내 고개를 뺐구었다. 이항 영우씨는 “아버지에게 치

음으로 인사드리겠다”며 큰절을 올렸다. 최숙 상봉단의 이석균씨(72)는 어머니 유영덕씨(94년 사망)가 숨지기 전 백발을 삼라 만 들 것으로 자신에게 쓴 시를 가족들로부터 받아보고 오고에 주위를 인다졌게 했다.

어머니는 시에서 “눈물로 먹고 살고 백발로 밟고 밟고, 할머니는 손에다가 붓을 쥐니, 붓 따라 떠는 대로, 아서연이 이복군이 사는 곳이 어디에나, 모자상봉 이마도 늦었다 보다”라며 지시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유씨는 94년 8월1일 벼에 있는 행록을 그리다 세상을 왔으며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유씨 가 쓴 시를 모아 “내 아내 너 온다면”이란 시집을 출간했다. 이학은기자 arisu@kmb.co.kr



방북한 이산가족들은 30일 오후 4시45분쯤 평양 고려호텔에서 마련된 이산가족 단체상봉장에서 북측 가족들과 만났다. 남과 북으로 헤어져 반세기기를 지냈던 행록들이 만나면서 상봉 장소는 한순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이제를 볼들거나 손을 들어 입글을 어루만지면서 빙글임을 확인하는 이들의 표정에는 상봉의 기쁨과 지나간 세월의 무심함이 동시에 교차했다.

○상봉 = 고려호텔 2층과 3층에 마련된 집안상봉장에서 만난 이산가족들은 눈물과 감추지 못하며 울고 또 울었다. 특히 자

식들을 만난 부모들은 그들을 전혀 몰라도 못했다는 지레감 때문인지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홍영희씨(86)는 이들이 “제가 삼은입니다”라고 말하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물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삼은씨는 아버지에게 “아바이, 어디갔다가 이제 왔소 내게...”라고 원망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 듯 곧바로 “어머니 효성이 많으셨습니까”라며 인사를 올렸다. 홍씨는 “그냥 내내려두고 있다가 만나니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남거두고 온 큰이들 현상순

씨(55)를 만난 현정서씨(80)는 오랜 세월 외로웠을 이들을 상동키안고 현동인 눈물만 흘린 뒤 “그들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위로했다. 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와 어별래야 했던 딸 이춘옥씨의 큰할아버지 윤은씨(89)는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측의 두 동생 박재호(59) 해병씨(56)를 만난 박해수씨(71)는 점점한 ‘컴퓨터’ 상봉 준비로 단연 행사장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컴퓨터 강사인 박씨는 일가친척이 50여명을 동생들에게 전해주고 고향인 평남 신안군 백석리 고향 지도까지 내보

냈다. 또 집문 리스 드림 들고 “고향리 부근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는 어떻게 됐나”며 “외가 가족 OOO, XXX는 어떻게 사느냐”며 왕복별로 묻기도 했다.

○민간 = 눈물젖은 1차 상봉을 끝낸 남측 방문단은 저녁 7시쯤 인민문화공원에서 안민길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양위원장은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뜨거운 혈액의 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평두원 남측 단장은 “1000만 이산가족 가운데 수백의 가족엔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며 “행복의 만남이 잘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기자·평양 = 공통취재단





北큰오빠 만난 김영욱씨

“아, 영욱아. 니 왕국이 남아 있디야”
 MTK 드라마 ‘이별’에서 원배역의 함바리로 나오는 탤런트 김영욱(63)의 오빠 김영현(71)은 영욱씨를 보자 금방 자신의 여동생임을 알아챘다. 영욱씨도 “큰오빠 왕국도 그대로예요”라며 오빠를 반겼다.
 영욱씨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오빠가 북한에서 내리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욱씨가 30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남편가족 상봉교육장에서 만나자 그제서야 그가 북측 김씨의 동생임을 알려준다. 영욱씨는 21년전 중셋째로 쌍둥이에는 순원(67) 여자(55-여) 영숙(55-여) 등 형제 자매가 모두 나왔다.
 영욱씨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빠생각 부르며 많이 울었어요”

반세기 이별에도 서로 금방 얼굴 알아보고
 “이제 오시면 어떡해...” 5남매 부둥켜 울어
 “유행가 가르쳐준게 탤런트 된 계기” 웃음꽃

기다렸으나 오빠를 보는 순간 눈시울을 붉히며 오빠를 껴안았다. 영욱씨는 “어머니가 오빠만 기다리니 10년간 돌아갔었다”면서 “오빠생각” 부르며 많이 울었는데 이제 돌아오시면 어떡하나”며 울먹였다.
 김씨는 “동생이 남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전쟁중에 팔짱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명의 형제가 모두 무사히 살아있어서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연세내 2학년이 재학중이던 김씨는 영욱씨 등 가족들에게 “학교에 다녀온다”는 말을 건넨 뒤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 영욱씨 가족은 지난 1차 쌍둥이

교한 때 영한식 이름이 누락되자 죽은 줄 알았다고 밝혔다.
 영욱씨는 큰오빠가 네명의 동생 중 유독 자신을 아꼈었다고 회고했다.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오빠가 어디서 재깍는지 피자 2,3개씩을 삼막 책상 위에 올려놓곤 했다”면서 “오빠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생 네명의 공부와 부모님 일을 돕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대학생이던 오빠가 신식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 유행가를 많이 가르쳐줬다”면서 “어쩌면 오빠가 대중가요를 가르쳐준 것이 내가 탤런트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병호기자 bhson@kmb.co.kr



“오빠! 오빠 맞죠” 탤런트 김영욱씨(왼쪽)와 가족들이 30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상봉교육장에서 북에서 온 오빠 김영현씨와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병상에서라도 널 꼭 보고싶구나”

동생 기다리는 운보 김기창 화백
 지병으로 생사 넘나들어도
 의식 놓지 않은채 그리움
 가족들 ‘병실상봉’ 요청

반세기만의 남북 화가형제의 만남은 이뤄질까.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중인 운보 김기창 화백(88·사진)은 30일 병상에서 운에도 그리던 셋째 동생 기만씨(71·평양미술대학 교수)와의 첫 만남을 예타게 기다린다.
 김화백은 지난 18일 폐렴증과 고혈압으로 입원한 이후 계속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몸 정도만 생사 여하였다가 이틀 전인 28일에서야 다소 호전돼 호흡기를 뗐다.
 하지만 여전히 빛도, 기동도 할 수 없어 컴퓨터를 타고 쌍둥이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족은 동생 기만씨가 병실을 방문해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으로 30일 서울에 온 북측 방남단 김기만씨(가운데)가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상봉교육장에서 김화백의 아들(왼쪽)을 만나 병상에 누운 형 소식을 듣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이동 원씨(51)는 “이름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실 정도로 의식은 또렷하다”면서 “1일 개별상봉에 병원에서 두 분이 꼭 만날 수 있도록 직입자사측에 요청해줬다”고 말했다. 직입자사측은 북한직입지회 언더권과 협의해 병실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센트럴시티 집단상봉장에는 원씨의 기만씨의 사촌 가족(78), 손자딸인 영숙씨(51) 등 가족 3명이 대신 나갔으며 집안

쪽보통 선물로 전달했다. 김화백 가족도 1일 병실 상봉이 이뤄지면 기만씨에게 좀 선물로 평소 김화백이 아끼는 직통 ‘승무’ 문보의 일대기와 직통 5000원을 담은 ‘전직 도록’(총 5권)을 준비했다.
 상봉의료원측은 병실 상봉이 결정되면 김화백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의료진이 동침한 가운데 30분 정도 취재진에게 상봉모습을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민태열기자 twmin@kmb.co.kr

남측 상봉장 준비영망

이산가족 집단상봉장인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호텔의 준비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권 의시설조사원에게 지적됐던 행사진행마져 매끄럽지 못해 남측 가족들이 큰 불만을 겪어야 했다. 일부 가족들은 집다못해 호텔측에 집단행위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대기실이 마련된 건물 6층의 경우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때문에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고령자들은 에스컬레이터에 한쪽 바퀴를 걸친 채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보기에도 이슬이슬한 광경이 속출했다. 호텔측이 배치한 안내원과도우미들은 건

을 내부지리에 어두워 안내는커녕 자신들부터 허둥했다.
 북측 방문단의 도착 지연으로 고행자들이 잇따라 쓰러졌지만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남측 가족 중 최고령자도 북측 아들 홍세안씨(69)를 기다리던 박천에 할머니(91)와 북측 동생 안영현씨(70)를 만나려온 인형원 할아버지(81)가 잇따라 발진에 편식을 앓고 쓰러졌다. 그럼에도 호텔측과 통일부는 30일이 지나서야 1층에 있던 의료진을 부르는 북측대응으로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게다가 1시간 5000원, 2시간 1만1000원, 8시간 1만7000원인 주차장 이용료는 바가지손해를 연상시켰다. 북측방문단 도착이 지연되자 곳곳에서 주차비 시비가 일어났다.
 호텔측은 “직입자사가 주차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변의를 보낼 수 없다”고 잘리말했다. 호텔측은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하지 않아 내외산가족 100여명이 집단행위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조수경기자 sjcho@kmb.co.kr

“오늘같이 기쁜날 왜 자꾸 눈물만...”

2차 남북이산상봉

단체상봉·만찬 스케치

“오머니...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50년의 기다림은 눈물이 되고 오열이 되어 남북으로 흘렀다. 30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과 평양 고려호텔은 단체상봉이 시작되자마자 열악한 가족들의 흐느낌과 절규가 뒤섞인 눈물바다로 변했다.

●서울 김해공동대교장장 하재경씨(65)는 남의 가족들에게 양복에 건 메달을 보여주며 “박사 메달”이라고 설명했다.

●은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 기만씨(71)는 영의 병세에 관심을 나타내며 “형님 드리려고 조선화 4점을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은 곳곳에서 북측 방문단들에게 “꼭시 내 가족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모습이였다. 한치기씨(66·서울 신천동)는 “평양 서호, 함 지돈, 홍남 내호, 처남 이춘국, 처형 이춘자, 서울 한치기-이춘옥”이라고 직인 플래카드를 들고 방북단 버스 앞에서 북한 기자들에게 “가족들을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환 김일성대 교수(68·어문학부)는 누나 육인씨(81)의 몸을 외락 안은 채 오열속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주위의 민중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만나겠다는 열념 하나로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상봉장은 찾은 팔순의 누나도 동생의 어깨를 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서울 김기창화백 동생 기만씨 “형님은 좀 어떠십니까”

●평양 단체상봉을 마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인민문화궁전으로 이동, 함민길 평양시 인민위원회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출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사업은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발양시키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평양 화가 김한씨 그림 2점 北 시인 동생에 선물

만찬에는 봉두란(奉斗完) 남측 단장과 북측 예선 방 위원장과 전금진(全金貞) 내각 책임참사,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허해동 조선적십자사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머리를 다친 채운목씨(82)는 단체상봉장에서 아들 규철씨(55)가 “짜 왔다고 물어보더라”면서 “너 보러 금히 오다가

다쳤다고 얘기해 줬다”고 말해 한바탕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고려호텔에서의 단체상봉에서 방북단에 뒤늦게 김명식씨(89·경기 포천군 화천면)는 조카 정현씨(64)를 만나 부둥켜 안고 행복했다.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너를 만나니 더 이상 여한이 없다”면서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남한의 화가 김한씨(72)는 북한의 유명 시인으로 성장한 동생 철씨(67)를 만나 자신이 그린 ‘어린이를 길고 있는 어머니’ ‘항가(鄉歌)’ 그림을 선사했다.

●조현석 월명상기자 평양공통취재단 hyun68@kcdaily.com



50년만의 예기꽃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남북가족들이 오손도손 예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 사진공통취재단

한국경제

“내가 너무 늦게 왔구려...”

2차 이산상봉

50년 鰥夫歌 유순이씨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보구려... 못 달린 있으면 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년만에 다시 만난 아내에게 북측의 남편이 어렵게 건넨 첫머리였다. 남측의 아내는 솟구치는 울음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같은 6개월만에 남편과 헤어진 뒤 유복자를 키우며 수절하고 살아온 유순이(71) 할머니가 드디어 남편 김중현(66)씨를 만났다. 지난번 1차 상봉 때 남편의 이름이 명단에 들어있다가 재외대 만지지 못한 터여서 이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반세기만에 상봉한 부부는 한동안 서먹한 듯 상봉장이 나오지 못한 다른 가족들의 인부를 돌리니 곧바로 서로의 손을 쓰다듬으며 몇장을 확인했다. “고생 많았지, 고생 인양을 학이 있어, 아들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김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안타까워했다.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를 보게 된 아들 영우(49)씨도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시야에서 놓지 못했다. 영우씨는 “아버님, 잘 돌리겠습니다”며 상봉장에서 큰 껌을 물었다. 유순이 할머니가 남편과 헤어진 것은 6·25전쟁 직후. 남편은 임신중이던 아내에게 “몇 달 뒤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인민군에 차출돼 충북 청주 신승리 징을 나셨다.

울로 울리와 함흥점과 옥공소 등을 전전하며 어머니를 보살펴왔다. 어머니를 주위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릴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원망했었다는 영우씨는 “이제 나도 아버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2시간 남짓 얘기를 나눈 서시랑과 김씨의 누이 정숙씨(70), 동생 경림(64), 용현(52)씨 등은 다음날 있을 개별상봉을 기약하며 왔던 단체상봉을 뒤로 했다. /북평취재단

北남편 어렵게 말전네 결혼 6개월만에 이별 외아들 키우며 수절

이때 할머니의 나이는 꽃다운 18세. 두 뒤 소식이 끊겼다.

유 할머니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슬허하게 원망하며 자살도 여러 번 생각해 봤다. 그러나 “영우를 고이로 만들 수 없다”며 이를 안고 참았다. 파출부와 공시관 리노동 등 딱치는대로 일을 하며 모진 독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너무 오래 소식이 끊긴 탓에 20년 전부터는 해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내왔다.

아들 영우씨는 17세 되던 해에 서

마침내 여동생 만난 ‘아름다운 양보’

1차때 양보한 우원형씨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보지,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지난 1차 상봉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기회를 남겨준 ‘아름다운 양보’라는 칭송을 들었던 우원형(67·서울 서초구 잠원동)씨가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복어 있는 여동생 옥희(64)씨를 만났다. 반세기 만에 부둥켜 안은 날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팔어짚을 몰랐다. 옥희씨는 상봉장에 들어선 오빠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센트럴시티에서 이복친 1차 집단상봉에서 북측방문단 김중현씨가 부인 유순이씨의 얼굴을 만지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정동현 기자 dhchung@hankyung.com

원형씨를 보지마지 달려가 끌어안고 상봉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빠가 살아있다나, 오빠 글이야, 생시야”라며 흐느꼈다.

남중상 인형(61)씨도 50년만에 만난 형의 한쪽 팔을 붙들고 “오늘라 얼마나 고생 했었나”면서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흘려냈다. 인형씨는 북한에서 뛰어난 기술자였던 안전반야 노련훈장 등 10개의 훈장을 뜻에 달고 나왔다.

원형씨는 “후시나 너희들들 알아 보지 못할까 봐 오는 동안에 시간을 보고도 봤다”며 두 동생의 얼굴을 다시는 잊지않겠다는 뜻 어루만

다. 원형씨는 북측이 보낸 생사확인 회보에서 ‘미상’으로 나온 판공동생의 생사를 몰랐고 동생 인형씨는 “그 때는 이미 죽었고 그야 말고도 말로써 ‘형의 동생이 더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남편이 모두 ‘영희’니 된다는 동생의 말에 원형씨는 자신이 재언할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번 1차 상봉 때 북측이 1백43세 노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건이 온(71)씨에게 상봉기회를 마트해 양보한 그였기에 이 날의 만남은 더욱 뜻깊었다. 평양공통취재단

“아, 솥덩이 가슴들”



애절한 사연들 50년 세월의 흔적이 어디 한 곳이라도 아프지 않은 곳이 있으리라... 어머니와 자식, 형제 자매, 유택지에 외지 한 처 부동거 인은 이산가족들은 이숙한 세월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北서 온 남편품에 주름진 얼굴 묻어

■ 부부만남

흰눈길에 남녘 아내를 만나러 온 4명의 북녘 남편들. 남에서는 15일이 북녘 아내를 만나러 평양에 갔다.

남으로 내려 온 김종현(71)·조민기(66)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50년 전 헤어진 아내를 만나 한동안 위를 잊지 못했다.

아내 유순애씨(70·시골 김서구 신원동)를 만난 김씨는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유씨는 “애 이제서야 왔다...”고 흐느꼈다.

충북 청원군 남양면이 고향인 김씨 부부가 헤어진 것은 51년 5월. 결혼한지 6개월

유순애·김필화씨

‘별夫的 한’ 달래

만에 눈앞 나갔던 남편이 인민군에 끌려갔다. 신혼의 단꿈에 있어 있던 유씨는 아들 영우씨(40)를 임신한 상태였다. 유씨는 일 끝도 기뻐기뻐한 남편을 기다리며 번영생을 출산 삼았다.

조민기씨도 남쪽의 아내 김필화씨(60·경북 안동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동안 입을 잊지 못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

느냐”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경북 안동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던 조씨가 50년 여류 인민군에 끌려간 뒤 반세기만의 만남이었다.

또 남북에서 각각 재혼한 북녘 원영규씨(76)도 남쪽 부인 심금분씨(75·경기 김포시)를 만났다. 심씨는 6·25전쟁 때 남편과 헤어진 후 딸 상애씨(54)를 키우며 홀로 살다 주위의 권유로 재혼했다. 그러나 낀대 심씨(77)는 끝내 부인을 만나지 못해 주위 할 인다깝게 했다.

북에서는 교회장로 양철영씨(81·서울 마포)가 아내 우순애씨(73)를 만나 50년의 한을 풀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들은 45년 소련군 전주후 교인에 대한 탄압에 심해지자 함께 월남하다 함해도 장산곶 근처에서 헤어졌다.

●조현식기자 hyun68@kdaily.com

“꿈이냐 생시냐... 어디보자 내새끼”

■ 부모·자식 만남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반세기 만에 부모와 자식이 만난 경우는 북측 방문단 6가족, 남측 방문단 30가족이 넘었다.

북측 방문단 최고령자인 신광대씨(81)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려온 아들 문재씨(50)를 만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되뇌면서 두손을 꼭 잡은 채 흐느꼈다.

51년 때 어머니와 헤어진 흥영애씨(55)는

평양 달려온 아들에

“아비구실 못해” 오열

이번에 서울에 온 박봉옥씨(72)를 만났다. 흥씨는 “어머니를 만나기는 했지만 아직 꿈인 것만 같다”며 울먹였다.

평양에서도 현시욱씨(80·부산 대연동)가 아들 중만씨(50)를 첫 대면했다. 현씨는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월남했다. 임신 8개월된 약혼녀를 고향인 흥남에 두고 남으로 내려왔다.

아내와 자녀를 두고 혼자 남측으로 내려온 석만길씨(84)는 평양에서 반세기 만에 만난 아내의 두 손을 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라며 용서할 빌었다.

한정서(80)할아버지도 아들 삼순씨(55)를 한동안 덤덤히 마주 앉아 보다 눈물을 쏟았다.

한 할아버지가 “아비 구실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삼순씨는 “고생이랴, 아무 일도 없습시다”라고 오히려 아버지 위로했다.

●전경희기자 kark30@kdaily.com

꿈에 그리던 큰오빠 치매 ‘발 동동’

■ 형제·남매 만남

“꿈에도 그리던 큰오빠는 말이 없고...”, 남쪽 오빠를 만나기 위해 북에서 내려온 서병욱씨(66·이)는 난생 처음 내리는 조카들만 보이고 큰오빠 병상씨는 나타나지 않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모님, 저 볼때오빠 아들 준악이예요”, 볼때오빠 병시씨(90년 사망)의 아들 준악씨(60·서울 강남구 역삼동)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병욱씨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북녘동생 서병욱씨

조카들과 첫 대면만

51년 3년 가운데 큰오빠 병상씨(89)만 살아있고 모두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큰오빠 병상씨가 차에 걸려 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사실을 알고는 “오빠”를 부르짖으며 오열했다. 준악씨는 “큰아버지가 가끔 정신이 풀이오

시브로 물체남 상봉 때는 꼭 모시고 올 것”이라며 고모를 위로했다.

평양에서 두 동생 해조(50)·해범(56)씨를 만난 박혜수(朴海珠·71·서울 광진구)씨는 비디오 카메라 등을 활용, 이번 상봉을 철저히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혜수씨는 평남 신원군 백석리 고향지도까지 구해 고향집 부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동생들에게 설명해주는가 하면 비디오 카메라로 동생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혜수씨는 50여명의 친척들 사진용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보면서 질문하는 등 짧은 상봉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연기자 carbo@kdaily.com

“아들아 널 보려고 100년을 살았다”



北아들 만난 최고령 柳두희 할머니

“어머니. 니여 동길이. 동길이...”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柳斗喜·100·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할머니는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6·25 때 인민군에 징용당한 뒤 헤어진 아들(신동길·75)을 이렇게 만났다.
 아들은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끌어 안고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눈을 핍뻍거리며 신음소리같은 회한을 뱉

었다. 이젠 죽어도 원이 없다”며 속삭였다. 살포시 눈을 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뒤 다시 눈을 감았다. 유 할머니가 아들의 귀에 대고 “아들은 몇이나”고 묻자 며느리 리씨가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유 할머니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계속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귀에 지난

6·25때 인민군 징용으로 생이별 “이젠 죽어도 원 없어” 회한의 눈물

어냈다. 두 사람이 부둥켜안는 바람에 유 할머니의 귀에서 보청기가 떨어졌지만 모자는 부여안은 말을 풀지 않았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노령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동길씨는 “어머니, 나 모르겠어”라면서 부르짖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듯 모자를 벗기고 얼굴을 더듬었다.
 동길씨가 “어머니, 며느립니다”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비로소 정신이 든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다. 눈은 아들에게서 떼지 않은채 며느리 리화순씨(66)의 손을 잡았다.
 “너를 만나려고 죽지 않고 살아있

50년동안 못다한 얘기를 쏟아부듯 계속 중얼중얼거렸다.
 북의 아들과 며느리는 휠체어를 옆으로 밀어놓고 큰절을 올렸다.
 유 할머니는 6·25 당시 25세이던 동길씨가 고향인 원주시 문막읍에서 인민군에 강제징집을 당할 때 얼굴도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50여년 동안 매일 동길씨의 밥을 따로 떠놓고 기다려왔고 아들의 결혼사진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왔다.
 동길씨는 최근까지 통조림공장에서 과장을 지내다 얼마 전 은퇴했다.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살고 있으며 현



오마니! 2차 이산가족 남북 방문단을 통해서 100세로 최고령인 남측 유두희 할머니가 평양에서 북의 아들 신동길씨와 만나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다. ●평양 시전공동취재단

재 북한의 고령자 보장책에 따른 지원으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동길씨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50년 기다린 北동생 왔는데 왜 닳새를 못 기다리셨나요”

서울은 김히락씨 형님 사망소식에 통곡

“형님, 아, 형님... 왜 닳새를 못 기다리셨나요.”
 북에서 온 김히락씨(69)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울먹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히락씨의 형 주락씨(76·미국 뉴욕)는 지난 25일 만리타향에서 동생 히락씨를 애타게 찾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지난 95년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낙심했지만 형님이 살아 계신다 해서 만날 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렸는데 이게 널 날벼락입니까.”
 히락씨는 북반쪽으로는 슬픔에

여동생 귀연씨(67)와 조카 참모씨(47) 등 피붙이들을 만난 기쁨은 잠시 뒤로 미뤄야 했다.
 김주락씨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입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헤어진 동생 히락씨(60)를 눈을 감기 전까지도 못잊어왔다. 전쟁이 끝난 뒤 함께 군에 다녀왔던 동생의 친구들로부터 ‘히락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김씨는 지난 8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에선, 향수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리던 김씨는 건강도

나빠졌고 지난해부터는 약간의 치매증상까지 보였다. 그러던 지난 7월 1차 상봉대상 예비명단에 동생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씨의 건강은 급속히 회복됐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의 옛이야기를 하고 신물을 마련하며 귀국준비를 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생이 1차상봉자에서 탈락하자 김씨의 건강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당시 김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을 이제야 만나나 싶었는데, 동생을 또 잃어야 해”라면서 정신

을 잃고 쓰러졌다.
 김씨는 그뒤 숨지기 전 네달 동안 치매와 중풍에 시달리면서도 눈만 뜨면 ‘헛소리’로 동생을 찾았다. “동생을 만나야 되는데... 짐사. 빨리 한국에 들어가야 돼.”
 결국 꿈에도 그리던 동생이 지난 13일 2차 상봉자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씨는 정신을 회복한 듯했으나 결국 50년을 풀지 못한 한(恨)만 품은 채 눈을 감고 말았다.
 ●북쪽삼기자
 youngtan@kdealy.com

서울·평양 다시 '뜨는 밤샘'

2차 이산상봉...재회 기쁨에 '눈물바다' 순안공항 집은 안개로 만남 4시간 지연

"살아 있었구나" "이제야 가족이 다 모였다" "형님, 왜 닳새를 못기다렸소" "임자, 그 급던 모습아..."

코흘리개 소년이 반백의 노인으로, 신혼 세력이 주름살투성이 할머니로 바뀌어 5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부모형제와 배우자를 만났다. 울다가 웃었고, 얼굴을 더듬다 또 부둥켜 안았다.

내민 손과 손, 흘러내리는 눈물 앞에선 이념도 철책선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과 평양에선 모진 세월을 뛰어넘은 혈육의 정이 '통곡의 강물'이 되어 다시 흘렀다.

▶관련기사 3·4·23면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았던 남북 이산가족 200명이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지난 8월15일 상봉이 이뤄진 이후 두번째, 85년 첫 상봉 이후 봉산 세번째 만남이었다.

이날 남측 이산가족들은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 이산가족들은 서울 반포 센트럴 시티에서 애대게 찾던 가족들과 단체로 각각 상봉, 잠시나마 이산의 한과 아픔을 달랠다.

평양에서는 올해 100세로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할머니가 아들 신동길씨(75)를, 서울에서는 북측 방문단장 김일성종합대

교수인 김영환씨(69)가 가족과 열사안은 등 눈물의 상봉이 줄줄이 있었다.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방문단은 센트럴 시티 5층 메이플 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남측 방문단은 평양에서 북한적십자회 중앙위가 마련한 만찬에 각각 참석한 뒤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의 첫 밤을 보냈다.

남측 방문단은 이날 내한항공편으로 시해 직항로를 경유, 남단의 장백유 넘어 고창평에 도착해 '꿈인지 생시인지' 모퉁이 2대3인간의 상봉일정에 들어갔다.

남측 방문단은 이날 낮 12시45분 내한항공 특별기 편으로 서울을 출발, 1시간여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숙소인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북측 방문단도 같은 비행기로 오후 5시8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남측 방문단은 오전 9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평양 순안공항에 낀 집은 안개 때문에 지연됐다. 북측 방문단의 서울 방문일정도 함께 순연돼 예정됐던 단체 상봉시간이 4시간이 가까이 늦어졌다.

●이44우기자·평안공동취재단

swlee@kdaily.com

중앙일보

2000. 12. 1 (금)

서울·평양 또 눈물의 밤

2차 방문단 단체상봉... 오늘도 두차례 개별 만남

남북한 이산가족 2백명이 지난 8·15 상봉에 이어 30일 다시 한번 분단과 이산의 벽을 넘었다.

봉두원(奉斗玩)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이산가족 2차 방문단 1백51명은 낮 12시45분 대한항공 KE815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오후 1시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담초 오전 9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순안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북측과 연락관 긴급접촉을 갖고 안개로 인한 일정지연을 감안해 남측 방문단의 오찬은 기내식(機內食)으로 하고, 북측 방문단은 평양에서 오찬 후 서울에 오도록 조정했다.

남측 방문단은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 뒤 오후 4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단체상봉을 했다.

대한항공편으로 예정보다 훨씬 늦은 오후 5시20분쯤 서울에 도착한 북측 방문단(단장 張在添 북적중앙위원장)은 계속된 일정지연으로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반포 센트럴 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단체 상봉했다.

이어 이곳 5층 메이플룸에서 한적 총재 주최 만찬이 열렸으나 초청자인 장총식 총재가 지난달 29일 갑자기 출국하는 바람에 남북적십자회 최고 책임자간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문 이틀째인 1일 남북한 방문단은 두 차례 개별상봉(숙소)과 가족동반 점심식사를 한 뒤 롯데월드 민속관과 단군통일 참관할 예정이다.

이영중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yilee@joongang.co.kr>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죽은줄로만 알았는데"

텔런트 김영옥씨 北오빠 만나

"오빠, 살아 있었구나" "영옥아, 영옥아..."

반세기를 갈라져 산 이들의 눈물과 통곡으로 넘쳐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는 중견 텔런트 김영옥씨(63) 가족이 포함돼 있어 화제를 모았다.

북에서 온 김영환씨(70)의 셋째 동생인 영옥씨는 "드라마 녹화중 오빠의 이름이 상봉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 속이 멍해져 대사를 모두 까먹었을 정도였다"면서 당시의 감회를 생생히 털어놓았다. 지난 한국전쟁 때 연세대 영문과 2학년에 다니고 있던 영환씨는 7월초 '학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소식이 영영 끊겼다고 한다. 영옥씨는 "그동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오빠가 원망스럽고 미기도 했다"면서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한다"고 눈자위를 붉혔다.

그동안 오빠를 그리워하던 눈감은 부모님과 영



북에서 온 김영환씨(왼쪽)가 여동생인 텔런트 김영옥씨와 만나 가족계보도를 보며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들의 발자취가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김영환씨와 영옥씨 가족은 다시 한번 세월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MBC드라마 '아중마' 등에서 일토란 같은 연기활 보여주고 있는 영옥씨는 "지금 알고 있는 옛날 줄은 노래들은 모두 어릴 적 오빠에게 배운 것"이라며 상봉을 기뻐했다.

●박복심기자 youngtan@kdaily.com

4년전 南에서 가족찾고 오늘 北에서 내려오고

“이제야 우리가족 다 모였어요”

“이제야 가족이 다 만났어요.”
북에서 내려온 오빠 정재갑씨(66)를 만난 재순씨(59). 재순씨는 1·4후퇴 때 가족들과 헤어져 소식이 끊긴 채 외톨이로 지내다 4년 전에야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이었다.

“한국전쟁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먹기라도 잘하라고 열집에 지를 양녀로 뒀지요. 그래서 제 성이 조씨예요. 1·4후퇴때 양부모를 따라 피난오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소식이 끊겼지요. 급방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지난 83년 이산가족찾기 때 신청을 하긴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도 자신을 찾아 나섰단다. 그 때는 ‘만남 인연이 아니었는지’ 못 만났다. 그러다 96년 이들이 가족을 만나게 해줬다. 헤어진 형제

들 이야기를 가끔 하곤 했는데 아들이 직장 근처 화원 주인이 어머니와 너무 닮았다며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한 것. 큰 기대없이 찾아가 보니 동생 재영씨(53)였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가 나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정신이 멍하더라”는 것이 재순

씨의 당시 소감이다. 큰오빠 재갑씨는 의용군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재순씨 1·4후퇴때 가족들과 생이별
96년 아들이 “어머니 닮았다” 동생 찾아
의용군 끌려간 큰오빠와 감격의 상봉

“어머니가 늘 오빠 안 죽었다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니 그대로잖아요. 어머니가 칠석날 심부름을 보냈는데 상베로 만든 반말 반바지 차림으로 나갔대요. 날만 추위지면 어디가서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셨지요. 이제 살아 있는 가족들은 다 만났으니 한이 없네요.”

● 점검하기자 lark30kdaily.com

남북방문단 안개로 출발 늦어 애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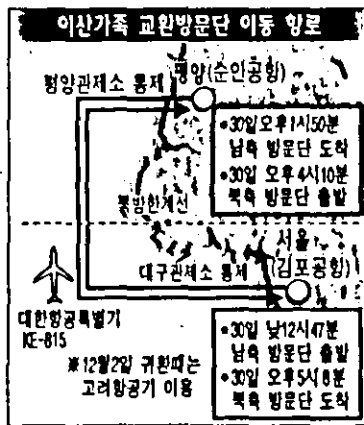
4시간 늦게 출발... 일정 짧아 아쉬움 더해

남이나 북이나 발을 동동 구른 하루였다. 안개가 '범인' 이었다.

이날 새벽부터 평양 순안공항 주변에는 시정 150m의 짙은 안개가 공항을 뒤덮었다. 오전 10시엔 갇힐 것 같던 안개는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다. 북측의 이륙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던 것은 낮 12시 18분. 오전 9시 김포공항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기는 12시 47분에서야 북으로 향했다.

눈으로 발을 지새며 이른 아침 공항에 나왔던 남북단은 2박3일의 너무나 짧은 일정의 시작부터가 늦어지자 입이 바짝 말랐다. 애태우기는 북측의 방남단도 마찬가지다. 순안공항에 나와 대기하던 방남단은 오후 4시 10분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줄이던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힐 수 있었다.

대한항공기는 지난 1차 이산방문단 때와 같은 서해 직항로를 거쳐 남북을 오갔다. 김포를 이륙한 비행기는 우리측 서해상을 일직선으로 진행하다 북위 37도 12분 46초 동경 124도 24분 47초 지점에서 기수를 돌려 북상했



다.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한 비행기는 북위 38도 48분, 동경 124도 15분 지점에서 기수를 쭈어 순안공항으로 향했다.

방북단이 평양 땅에 내린 것은 오후 1시 50분. 방남단은 김포공항에 오후 5시 8분 내렸다.

● 월간심가지 wshong@kdaily.com

‘반세기 恨’ 녹아내리다



□서울 온 故유영택할머니 장남

유품 품에 안고 북받친 ‘思母曲’

그렇게도 가까운 기렸건만 반 세기를 돌아 찾아온 서울과 평양. 평양에서는 100세를 넘긴 어머니가 높은 아들의 주름살을 비비며 말을 잊었고 서울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한중의 백발을 손에 든 70대 아들이 허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0일 서울과 평양에서는 다시 한번 밤도 높고 하늘도 높고 사람도 울었다.

고인이 된 남쪽의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며 시집을 남겼고 이를 받아들인 북쪽의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어머니를 생각하며 즉흥시를 읊었다.

자신의 백발을 잘라 만든 붓으로 북녘 자식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써 내려간 시집을 유품으로 남긴 고 유영택 할머니(본보 30일자 A29면 참조)의 장남 이석균(李錫均·74)씨가 30일 상봉장에서 이 유품들을 만지작거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선 필리는 목소리로 즉흥시를 한 수 지어 읊었다.

“스물 세살 꽃나이에 서울 떠난

이름/남은 가족사진 한 장 갖고 다시 왔네/63년 진 여섯이 찍은 사진/.../이젠 나 하나뿐/다시 만난 동생들과 다시 가족사진 찍으려다/하루만 지니면 북행길/봉일의 매아리치는 그날 새로 찍은 사진 갖고 다시 나오라.”

석균씨가 가져온 사진은 자신의 소학교 시절인 1937년의 가족사진. 중점모를 쓴 아버지와 한복차림의 어머니, 소학교 모자를 쓴 석균씨를 비롯해 모두 6명이지만 지금 남은 사람은 석균씨뿐. 석균씨는 “당시 한 싹배기였던 막내동생 송자는 어려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즉흥시를 읊은 뒤 “나는 비록 문학도가 아닌 공학사이지만 북받치는 감정은 매한가지 아니겠느냐”고 어머니의 시에 자신도 시로 화답하게 된 감정을 설명했다.

석균씨는 또 어머니가 남긴 시집 ‘내 울어 너 온다면’을 품에 품고는 “오늘밤 이 시집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지 모르겠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나가니 이 아들을 생각했다고-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고개를 떨궜다.

석균씨의 어머니 유영택 할머니는 94년 북에 간 큰딸 석련(錫連·76)씨와 큰아들 석균씨를 그리며 시집을 엮은 뒤 작고했다. 막내딸 송자씨는 “매가 오면 언(連)이와 균(均)이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쓰인 유품을 이날 상봉장에 들고 나와 석균씨에게 전달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올해 100세를 넘겨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할머니는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 만에 만난 큰아들 신동길씨(75)의 손을 부여잡고 한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유할머니는 몸매에도 그리던 아들이 말을 건넨 때마다 얼굴을 자신의 귓가로 끌어당겼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새 보청기를 했는데도 아들이 목청을 높여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

한참 아들 얘기를 들던 유할머니의 입에서도 작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오래 산 보람이 있어...” 모자는 이렇게 얼굴을 맞댄 채 반세기 동안 가슴에 쌓인 한(恨)들을 조금씩 풀어 나갔다.

유할머니에게 동길씨는 두번이

□평양서 장남 만난 100세 유두희할머니

아들 손 부여잡고 소리없는 눈물

나 생이별을 해야 했다. 그래서 더욱 한으로 남은 아들이었다. 동길씨는 광복을 이대 앞둔 1943년 일제에 강제 징집돼 일본으로 끌려가 갖은 고생을 다했다.

해방이 되면서 강원 원주시 문막의 집으로 돌아온 뒤 1949년 고향촌해 이제야 고생이 끝나나 했더니 6·25전쟁이 터졌다. 그 해 여름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던 동길씨는 이번에는 인민군에 강제 징집됐다.

유할머니에게 더욱 한이 된 것

은 아들과 헤어질 때 집에 없었던 것. 이 때문에 아들과 직별인사 한마디하지 못했고 나중에 마을사람들로부터 아들의 소식을 전해들어야 했다. 며느리는 당시 전쟁으로 피란갔다가 재가를 했고 지금은 연락이 끊겨 버렸다.

유할머니는 50년 동안 동길씨의 결혼사진을 보며 모정을 담래 왔다. 유할머니는 둘째아들 종순씨(64) 내외가 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지켜본 후 “우리도 상봉신청을 합시다. 향남을 찾으려면 사진

을 찍어야 합니다”고 하자 “헤어진 지 50년이 다됐는데 설마... 죽었겠지. 뭐”라며 큰 기대는 걸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유할머니는 뜻밖에 대한적십자시로부터 아들이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이후 아들을 만난다는 박찬기쁨에 주름진 손가락을 잡고 또 짊어왔다.

이런 어머니를 위해 둘째아들 종순씨는 “할님을 만나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한다”며 보청기를 장만해드렸다. 며느리 황한숙씨(60)는 빙북 때까지 죽어 시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매일 관국과 인양재로 건강을 챙겨드렸다.

(문 헬기자·평양=공동취재단)
fullmoon@donga.com



반오세요

트럼프시티 상봉장에서 북과 아들 황서은씨가 북측에서 온 어머니 박건례씨와 이미 별세 지 9일 만에 면담을 하고 있다.



김배

대한적십자사 주석의 서을 민선중에서 북에서 온 김현준씨(가무회)가 고인 상봉회 가족과 함께 김 배하고 있다.



네가 내동생이나

서울 선트럴시티 상봉장에서 북에서 온 김영환씨(오른쪽)가 폴란드 김영옥씨(왼쪽) 등 남북의 동생들과 손을 맞잡고 상봉회 기쁨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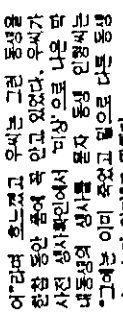
평양의 안개가 눈물되어



가족을 떠난 비행기의 출발을 지 그 평양의 안개가 눈물로 변한 것 같았을 때, 오빠 평양 그리움에서 반 에 복네 가족을 만난 남북 방문 정은 간려과 기쁨의 눈물을 그릴 다.

친친 결혼사진 보며 오열

반갑스. 혼자 예를 키우느라...
피' 때 대통령 다리가 끊겨 가족
기뻐했던 평양대(平壤大學)씨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아내 이력
(의 손을 부여잡고 말을 잊지 못
채이질 당시 29세였던 젊은 아내
살이 짙은 할머니가 돼 있었고
세이던 딸 정숙씨(51)와 아들 영
)도 중년쯤 홀로 남겼다. 영씨는



이"라며 흐느꼈고, 영씨는 그런 동생을
한참 동안 품어 죽고 있었다. 우씨가
사건 당시 북에서 "피상"으로 나온 막
내동생의 생사를 묻자 동생 인형씨는
"그저는 이미 죽었고 앞으로 다른 등장
이 4명 더 있다"고 말했다.

남화가-北시인 감격의 포옹

○...서양화가 김환씨(72)는 50년 김일
성상까지 받은 북한의 공훈시인인 동생
김철씨(67)를 드디어 품어안았다.
이들 형제는 8.25전쟁이 터지자 동생
은 인민군에 지원하고 형은 북으로 돌아
간 국군에 합류했다가 '1.4후퇴' 때 남으
로 내려오면서 헤어졌다. 형 김씨는 전
장이 판난 뒤 가족도 포로수용소에서 부
조를 찾았지만 동생의 생사는 알 수 없
었다. 김씨는 몇 년 전 여아 한 제미교포
를 통해 동생의 편지와 사진을 전해 받
을 수 있었다.
(부경권기자·평양=공동취재단)
bookum90@donga.com

센트럴시티는 울음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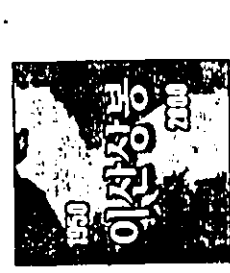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는 하릴없이 울었다. 반백년의 아픔, 그
로써 가슴 지었던 그리움을 모두 씻어내
려는 듯 서울 선트럴시티의 상봉장은 차
라리 눈물바다였다.

팔손아버지 "내가 죄인이다"

○...북에서 온 아버지 황영규씨(75)
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딸 성애씨(54)는
뒤늦게 환상에 나타난 어머니 성금복씨
(75)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영조
어머니 성씨는 "시누이에게 딸을 맡기고
자거한 내가 무슨 탓으로 네 아버지를
보리느냐"며 성애씨의 간곡한 재회 요청
을 뿌리내렸다.
그러나 성씨는 북에 부인을 두고 월남
해 자신과 지혼한 지금과 남편이 "연신
의 아픔을 누누보다 할 만다"며 실존해
오며 금회 상봉장에 나와 형제와 감격
의 해후를 나눈 것.

김영환씨 "동생이 배우리나"

○...양강일씨(72)는 평양에서 온 북측 동생
현씨를 만난 폴란드 김영옥씨는 "동부
동화과 저능 딸인 양강일씨와 딸은 최
을 잊지 못하자, 아들 문제까지 역시 '아



업"이라며 "내 여상이 되었다"고 흔한
표정. 오빠 김씨는 "내가 이곳에서 인
단배우 인 줄 몰랐다"며 "이렇게 만나
니 50년 세월이 한순간 같다"고 응답.
연희대 영문과 2학년 재학 중인 영근
어 풀려났던 영환씨는 5남매 중 장남이
있고 영문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오
빠에게 풀려선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영
문씨는 "지금 내가 아는 거의 모든 노래
는 그대 오빠가 가르쳐준 것"이라며 오
빠의 손을 잡았다.
(서경보·김준석·이동영기자)
suhchoi@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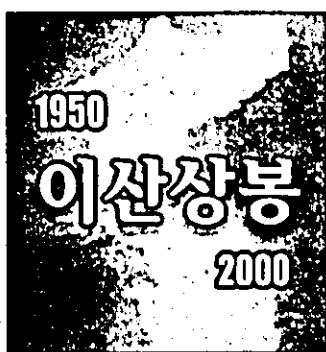


행여나 가족소식 들을까...

변영목기자

북측 방문단의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에서 실향인 정양섭씨가 북에 거주하는 자신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달라며 서울을 방문한 북한 기자에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고향-혈육 그리움에 창밖만 응시



평양←서울 기내 스케치

30일 100명씩의 '설레는 마음'들을 태우고 서울과 평양 사이를 오간 비행기는 '대한항공의 A330-200기종. 2일 헤어지는 아쉬움을 나눌 비행기는 고려항공 편으로 8월 상봉 때와 순서가 바뀌었다.

대한항공 '상봉 여객기'에는 비행경력 7042시간의 박성중 기장을 비롯해 비행과 기내 서비스 경험이 많은 9명의 '베테랑'급 승무원이 탑승했다.

두툽떡 콜라 커피 인기

비행시간은 40여분에 불과했지만 들뜬 마음에 식사를 제대로 못했을 승객들을 위해 요기가 될 정도의 기내식이 마련됐다.

추운 날씨에 몸을 보하기 위한 인삼절편과 대추 밤 잣 등 고급 재료로만 만들어 궁중잔치에 올렸다는 두툽떡 등이 인기. 음료수는 콜라·커피 수정과를 많이 찾았다고 한다.

승객들이 고려자임을 감안해 심장질환 등에 사용되는 '자동심실제세동기'를 비롯한 첨단

응급치료 장비와 약품도 준비됐으나 다행히 왕복비행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승무원 한근혜씨(29)는 "서빙할 때 북쪽 분들은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잊지 않았고 비행기 탑승에 익숙한 듯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며 "뉴스와 가요무대를 기내 방영했지만 대부분 창 밖을 내다보는 걸 보니 고향 땅이 많이 그리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고 많다" 승무원 격려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한 민경열씨(68)도 "형제들 만날 생각에 비행기가 어땠는지, 뭐가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떡은 참 맛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불효자 용서하시라요...” “이 못난 애미가 잘못이지...”

‘심부름 아들’ 반세기만의 포옹

본단의 벽 넘어 이산가족 상봉



남인준속·北장제갑씨

소년에서 백발의 노인으로 빈한 북의 이들과 남한의 노모가 부둥키 안는 순간 회한과 감격의 눈물로 뒤범벅됐다. 이들 모자는 그리움으로 50년을 눈물속에 살아왔고 안타까움으로 가슴은 새까맣게 탄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이들은 꼭 한 번 아들을,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집념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머니, 50년만에 오머니를 찾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시라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를 지키지 못한 이 애미 잘못이지.”

안준속(87·충북충주시함곡동) 할머니는 30일 오후 서울 시초구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 2만좌석에서 들어서는 큰 아들 장제갑(66·평양군외대하 생리학교수)씨를 첫눈에 알아보고 “아들아”를 외치며 잡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안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장씨를 만나기 위해 여섯 층에서 올라오며 새벽에 일어나 목욕하고 머리를 감았다.

이렇적 추억 화제 웃음꽃

안 할머니는 오후 2시부터 시작 된 교육 중에도 이들을 하반에 앉혀 이쁘려 평생을 보낸다는 새김찍의 여러 직 사진 2장을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곤 했다.

안 할머니와 장씨가 다녔던 학교 그 앞에 장씨의 동생 재국(57·중앙대물리학과교수) 재갑(61·주부) 재순(59·주부) 재인(53·주부)씨가 앉았다. “형님, 김복동중앙학교에 다닐 때 1등을 노망이하고 졸업했는데 ‘다 이산 가족인 게 아니라 형님을 권유했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자주 들었어요.”

재국씨가 여러 직 추억을 꺼내면서 안 할머니와 장씨 등 가족들은 감격의 웃음을 터뜨리며 이산의 아픔을 되냈다. 안 할머니가 장씨와 헤어지게 된 것은 1950년 8월22일 오전 11시쯤, 안씨가 남

시 중학교 4학년에 다니던 장씨에게 ‘심부름’을 시간 1시간 이범의 시작이었다. “김장 고부신유 신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너에게 심부름을 보낸 게 가슴에 못이 박혀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어.” 안 할머니가 장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지 장씨도 “오머니가 장장하게 살아개신채도 찾지 못한 지는 불효미심한 자식”이라며 노모의 손을 꼭 잡고 품에 안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박천례씨도 北아들 만나

한편 65좌석에서도 박천례(86·경기도부천시오정구역월동) 할머니가 북의 큰 아들 홍세안(69)씨를 일찍이 안고 모자의 정을 나눴다. 박 할머니는 친척에 허리마지 굽지 않아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이날 만큼은 분홍색 개강한복에

빨간 단화, 털외투를 두르고 진득 맛을 냈다.

“유난히 흥분이었던 1950년 9월 눈을 삼피려 갔던 너는 돌아오지 않고 의용군에 끌려갔다는 소문만 흘러 죽은 줄 알았는데...”

홍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오머니, 살아 개서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읊먹었다. /김용술·김준모기자
kingjin@sgt.co.kr



○30일 서울 센트럴시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운보 김기창 회백의 동생 기만(가운데)씨와 김희백의 아들 원(왼쪽)씨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형님 만나게 꼭 병원 보내주세요”

北서 온 김기만화백 호소... 병상의 雲浦는 눈물만

운보(71) 김기창(金基昶·87) 화백의 50년 만에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30일에도 풀리지 않았다.

동생 기만(基萬·71)씨의 외의 만남을 앞둔 지난 17일 폐혈증 등 지방이 악화돼 삼정시술병원에 입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김 화백은 이날도 허무종일 중환자실에서 목에 호스만 채 갇은 상태에 잠긴 수발에 없었다.

중환자실에는 TV나 신문 등이 없어 상봉장면조차 보지 못한 김 화백에게 담당의사와 간호사들이 간혹 실망한 소식을 전해줬지만 침한 병세 탓에 알아들지 못한 채 깊은 혼수만을 내치곤 했다. 이들을 크게 부들 경우에만 눈을

소리나는 곳으로 힘들게 돌리는 김 화백의 모습은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날 상봉장에는 김 화백 대신 아들 원(完·62)씨가 기만씨를 만났는데 기만씨는 형님이 나오지

조커만난 김화백 간절히 부탁 “지금 소원은 형님건강 회복”

못했다는 소식에 알락 눈물을 쏟았다. 기만씨는 완씨의 손을 꼭 잡고 “지금 가장 원하는 소원 하나가 형님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다”며 “병원에 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기만씨는 또 “회개인 아들에게 늘 큰이 비만큼 잘해라고, 말해왔다”며

“형님이 우리 6형제 다 키우고 가뉘셨다”는 말로 형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기만씨는 자신이 직접 그린 조신화를 선물로 준비했으며 김 화백도 평소 가장 아끼던 작품인 ‘승무(71년작)’와 진작도록(全作目錄) 1권을 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완씨는 “남북당국이 잘 협의해 내일 변인상봉이 리도 이뤄지면 아버님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바람 맑을 못하시도 평생을 기다려온 동생의 모습을 보면 조금이나마 웃음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성현·이성범기자
shon@sgt.co.kr

100세老母 아들부여안고 신음만



본단의 벽 넘어 이산가족 상봉

평양에서

평양을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30일 평양 고리호텔에 마련된 단체 상봉장에서 가슴에 맺힌 한과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울고 또 울었다. 서로 얼굴을 어루만지다 부둥켜안고 싶어서 만

“어머니 나여 동갈이!... 나 모르겠어” 오열 생면부지 아들잡고 “미안하구나... 미안...”

남을 기뻐하면서 얼굴에 땀 주름을 쳐다보며 세월의 무상함에 한숨이었다.

○...“어머니, 나여 동갈이”.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100·강원도원주시문막읍) 할머니는 6·25 때 인민군에 징용당한 아들(신동길·75)를 이렇게 처음 만났다.

아들은 합체어 위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내 놓지 못했고, 어머니는 회한의 신음소리만 뱉어냈다.

두사람이 부둥켜안은 바람에 새

로 장만한 보청기가 바닥에 떨어 진지도 모르고 유씨는 가슴에 머리를 파묻은 아들을 놓지 못했다. 노령의 어머니가 안타까운듯 동길씨는 “어머니 나 모르겠어...”라며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들을 안고 있던 유씨는 20여분이 지난 후 비로소 얼굴을 들었다. 동길씨가 “어머니 머느립니다”라고 아내를 소개하자 유씨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다.

고향인 원주시 문막읍에서 25살이던 동길씨가 6·25 당시 인민군

에 징집당할 때 유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됐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유복지로 태어난 생면부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부둥켜안았고,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현서옥(80·부산시남구대연동)씨는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만난 ‘유복지’ 증만(50)씨를 이렇게 만났다. 현씨는 아들과 여동생 둘을 꼭 붙잡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눈물을 연신 흘렸다.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권했던 남행(南行) 현씨는 1951년 11월 입신 8개월된 약혼녀 지순호씨를 고향인 흥남에 두고 홀로 배를 탔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나-투이돌리난 양집영씨

1·4후퇴 직후인 1951년 1월8일 ‘종교탄압’을 피해 월남하다 헤어진 아내와 두 아들을 상봉한 양집영(81)씨는 아내 우순애(73)씨의 뺨을 한없이 어루만지며 50여년간 쌓였던 눈물을 하임없이 쏟아냈다.

양씨 부부는 평양 신정현교회 신기대에서 활동하다 결혼한 북산의 기독교인 부부였다. 45년 소련군 진주 후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입이 열개라도”... “살아있는것만도”

이 심해지자 ‘북에서는 종교인으로 살 수 없다’고 판단, 고향인 황해도 송희를 떠나 24세의 아내, 6·3세 된 아들 가족을 데리고 남쪽행에 나섰다.

그러나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타러 해주-시리인을 거쳐 황해도 장산곶 벽동포로 2~3일을 무릎까지 찬 눈속을 걸어오다 구할산 근처의 진부가 심해지면서 그만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다. 양씨만 국

이내뺨 어루만지며 눈물만 北엔 며느리들 9명 생존

군 군함을 타고 백령도로 탑승, “곧 자리를 잡고 돌아갈 것”이라고 기약했으나 그만 50년이 흘렀다.

양씨는 부인 우씨에게 “혼자서 시어머니 부양하고 아들-손자 키

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며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눈물을 쏟았고 우씨는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고 애써 양씨를 위로했다.

양씨는 당초 부인과 두 아들, 며느리, 손자 등 북측 가족 9명의 생존 사실이 확인돼 최대 인원 상봉자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상봉장에는 부인과 두 아들만이 나왔다.

아들 효식은 “급작스레 기별을 받아 온 가족이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1지상봉 양보 우원영씨

“오빠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보자,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지난 1차 상봉 당시 109세 노모가 세상을 떠난 장이윤(72)씨에게 반백살을 양보했던 ‘아름다운 양보’의 주인공 우원영(67)씨는 30일 평양 고리호텔에서 육회(이·61)·인형(61) 두 동생은 입이안고 참

“얼굴 못알아볼까 사진보며 왔단다”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육회씨는 단체상봉장에 들어선 인형씨를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상봉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빠가 살아있는지 몰랐어”라고 호노끼는 여동생을 인형씨도 꼭 품에 안고 한동안 껴안고 놓지 않았다.

북측 기술자로 노련한 장을 비롯해 10개의 훈장을 옷에 달고 나온

“오빠야- ” “어디보자” 세남매 안고 주저앉아

남동생 인형씨는 형의 팔을 붙들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며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흘렸다. 인형씨는 “나는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는 동안에도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개성공업학교 4학년인 51년 1·4후퇴때 단신 월남한 우씨는 막내동생의 생사를 확인하다 형제가 모두 9남매였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기도 했다. 우씨는 “장이윤씨가 소원을 풀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소원을 풀었다”며 가족사진을 꺼내 동생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는 등 50년 동안 쌓였던 정감을 아낌없이 나눠냈다. /평양=공동취재단

양윤의 상봉자 2人

당초 방문단에 포함됐던 시경옥(85)씨와 김용주(78)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을 포기하는 바람에 방문단에 포함된 ‘양윤의 상봉자’ 김명식(80)씨와 이경훈(83)씨도 이날 북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평양 출신이 고향인 김명식씨는 조카

60代조카 손잡고 “이제 여한없다”

정현(64)씨를 부둥켜안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너를 만나니 더 이상 여한이 없다”며 통곡했다. 김씨는 자기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 조카에게서 50여년 동안 그리운 부모의 체온이 느껴졌는지 한동안 정현씨를 붙잡고 놓지 못했다. “그래, 할아버지와

8손의 김명식 이경훈씨 반백년 이상의恨·토해

할머니는 어떻게...” 조구씨는 눈물에 김씨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조카의 두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조카 정현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며 “나이 90에 가까운 양반이 어머니를 찾겠다고 이곳까지 온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훈씨도 조카 승인(61)씨와 승건(43)씨를 만나 긴 이산의 한(恨)을 함께 토해냈다. 이씨는 “아버지 산소가 고향에 있다니 그지 고마울 뿐”이라며 조카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영정 앞에서 뽐нок 30일 서울 센트럴시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쪽의 진중인(오른쪽씨가 남쪽 가족들이 보여주는 돌아가신 부모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많이 늙었구려 30일 서울 센트럴시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측 방문단 김종현(왼쪽씨가 남측 아내 유순이씨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랑스런 교수증" 북측 김일성대학 김영환 교수(왼쪽)가 30일 누나 옥인씨를 만나 기뻐하는 박사 교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동일 위해 건배 30일 서울 센트럴시티 북측 방문단 한영만찬장에서 이산가족들이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헬린트 김영욱씨가 50년만에 오빠 영환씨를 만나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상봉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숨진줄 알았는데 오빠 정말 맛군요"

北오빠만인 헬린트 김영욱씨

"오빠! 오빠 맛군요."
"13세 굶던 소녀가 머리가 희끗 희끗한 할머니가 됐구나."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 시티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중견헬린트 김영욱(63)씨가 50년만에 북에서 온 오빠 영환(70)씨를 만나 눈물을 쏟아냈다. 김씨는 숨진 줄로만 알았던 오빠 품에 안겨 한동안 말을 잇질 못했다. 영환씨는 부모님 소식을 먼저 물

"13살 굶던 소녀가 할머니가 됐구나"

었다. "오빠를 그리워하다 10년전에 모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영환씨는 "어머니"를 흐느끼며 봤다.
영환씨 소식이 끊긴 것은 영환씨가 연희전문 영문과 2학년 때 재학 중이던 1950년 7월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게 마지막이었다. 김씨는 "오빠는 당시 유행가인 유행가는 모두 가르쳐 줄 정도로 재주가 많아 동네에서 우상이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오빠를 50년 만에 만났는데 금방 잊고 재워 된 것 같고 찻눈에 오빠인 줄 알아왔다"고 말했다. 영환씨는 김씨와 함께 상봉장에 나온 남동생 순환(67)씨와 여동생 영지(60)·영순(55)씨한테서 김씨가 유명한 헬린트라는 애갈 들고 "그래, 대견스럽구나"라며 김씨 손을 꼭 쥐었다.

/이진수기자 lccjs@sgt.co.kr

“재혼한게 무슨 흠이라고” 보듬어

본인의 벽 넘어 이산가족 상봉



서울에서

재가정에 만난 장영규씨

“수절도 못한 채 살아온 게 부끄러워 만나지 않으려 했는데... 나랑 맞지 않고 찾아주다니 너무 고맙네요.”
협한 새와 어울 수 없이 '같은 머리끼리 꼬여서 되게까지'라는 수

남아내 성금분씨 “만날수 없다” 고집

딸·아들 설득에 마음 돌려... 감격해후

원의 맹약을 깨고 살아온 이산의 부부에게는 반세기 만에 상봉의 감격을 누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45년만에 북측 남편 황인규(76·계상신문 전편집국장)와 남측 아내 성금분(75)씨 부부가 헤어지기까지 심씨의 발뚎한 고집은 끝없이 이어졌다.
성씨는 당초 상봉예정 시간이던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어린 딸을 놔두고 재혼한 ‘외인이 어떻게 남편을 만날 수 있겠느냐’며 남편과의 만남을 거부해 왔다. 딸 상에 (53)씨가 “재혼한 것이 무슨 큰

흠이 되느냐”며 그렇게 심득할 때도 애써 눈물을 감추며 “부끄러워서 상봉은 못하겠다”고 비터왔다.
그러나 이날 재혼한 뒤 일은 아들 박승국(47)씨까지 “그렇게 먼 곳에서 어렵게 찾아온 분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간곡히 설득하자 마음을 돌려 오후 늦게 부랴부랴 상봉장에 도착해 한참은 노부부의 상봉이 극적으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상봉장에 남편 황씨가 들어오자 성씨는 “미안해요”라며 고개를 떨구었고 전후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 황씨가 “재혼이 무슨 흠이라고. 모두 본인이 안긴 상처인 것들...”이라

버 미안해하는 옛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이렇게 늙어서 돌아온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의 45년만의 상봉을 함께 한 딸 상애씨. 어려서 떠나 보낸 큰형을 보게 된 동생 영철(65)씨, 셋째 영공(61)씨 등도 이날 ‘아버지’와 ‘형’의 손을 쓰다듬으며 감격과 회한의 눈물을 원 없이 쏟아냈다. 반세기만에 만난 가족들은 인선 강화에서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 딸 상애씨 등 남편 키우며 오순도순 살던 일, 6·25전쟁이 발발, 눈에서 워하던 남편 황씨가 느닷없이 뛰어다닌 동네 청년들과 함께 민사무소에 나갔다가 의용군에 들어간 얘기, 아버지가 고한 강소에서 아학을 열어 문맹자들을 깨우치던 일 등 수십년 못다한 얘기를 고투하기도 했다. /이천종-이진수기자 skylee@sgt.co.kr

“北서 최고의 학자가돼 돌아오다니”

김일성대 김영광교수

‘논문 수백편과 교과서 10여권을 쓴 저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임장에게서 생일상을 받은 북한 어문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명.
김일성종합대학 김인환 교수(70·언어학부)가 가리키는 호칭은 많지만 그가 평생 가슴 속으로珍藏하고 싶었던 호칭 중의 하나는 ‘형, 동생’이었다.
‘내 동생, 영환이’라든 김육인(80) ‘형님, 이렇게 늦게야 찾은

쌍둥이 동생 兄만나러 美國서 급거 귀국 北어문학계 권위자-김정일 생일상 받기도

저희 동생들을 용서하십시오”(동생 영철·영우·63)
김 교수는 30일 서울 서초구 샌프란시스코 빌라니움에서 만난 남편 가족들로부터 잠에도 들지 않고 살아있던 ‘형, 동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고있던 누님은 백발노인이, 쌍둥이 동생 영환이와 영우도 한강

을 훌쩍 넘겨버리다니...” 미국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에서 각각 살고 있는 쌍둥이 동생 영철·영우씨는 형을 만나기 위해 며칠전 가족들과 함께 입국, 상봉장 근처 한 호텔에 묵고 있다.
누나 육인씨는 “어릴적 무척 똑똑했었는데 이렇게 북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교수가 돼 돌아왔다는

것이 흐뭇해”라고 김교수 품에 안겼다.
김 교수는 동국대 문리부에서 재학중이던 1950년 7월쯤 서울에서 의용군에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가나 긴 이별을 했다.
전쟁이 끝난 뒤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0년초 김일성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김 교수는 언어학부에서 40년간 강단에 서며 ‘조선민족어발원 연구’ 등 논문 270여편과 교과서 40여권을 집필, 북에서 어문학계의 최고 권위자의 한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70의 생일 때엔 김 국방위임장이 김 교수에게 직접 생일상을 차리니 그의 입직을 칭송하기도 했다. /김용홍기자 kimjip@sgt.co.kr

100개 테이블 온통 회한의 눈물바다

상봉장 이모저모

30일 2차 이산가족 단체상봉차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샌프란시스코 빌라니움은 김씨가 회한의 눈물 바다였다.
50여년에 만난 남편의 형제들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하며 인공안팎이 잘 보였다. 남편의 노모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북측 아들의 얼굴을 아무런 지체 없이 얻었고 남편의 상봉은 서로 손을 감싸며 새 희망을 얻었다.
“...북측 이산가족을 맞은 남측

“하늘나라서만 만날줄 알았는데-” “너무 긴장” 잠시 나갔다 오기도

가족들중 최고령자인 권경대(90)씨는 이날 “하늘나라에서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딸 상애(67)씨를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광복회가 봉해진 방에 잠깐 나갔다 돌아오던 딸을 반세기만에 만났다.
“죽었다 싶었던 것 같이 기쁘다”고 상봉소감을 털어놓은 권씨

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 흘렸다.
“...반세기만에 만난 남쪽의 위 허재인(74)씨와 북측 동생 재강(65)씨는 각각 전 서울의대 교수와 김제공대 교수로 성공했지만 이산의 한을 달랠 수 없었다.
1차상봉 당시 후보에 동생의 이름이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서 빠졌고 이보다 한달전 큰 형님 재영씨가 세상을 떠나 심의에 빠졌다가 ‘재수’ 끝에 만남이 성사된 데다 상봉의 기쁨은 더했다.

형 재인씨는 “공부할 집한다고 수재 소리를 들던 내가 공부하러 서울로 갔다가 이재사야 왔느냐”며 울먹였다.
재경씨는 부모님과 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북받치는 심을 참지 못했고 형님이 타고 온 사정으로 불효와 그리움의 정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북에서 온 동생 휘인(70)씨를 맞은 안형원(81)씨는 이날 너무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속이 안 좋아 휠체어를 타고 상봉장인 샌프란시스코 빌라니움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안씨는 “평소 지방은 없고 건강했는데 너무 긴장한 것 같다”면서 “잠시 쉬었다 상봉 시간에 맞춰 들어오겠다”고 말했다. /김형구-김영준기자 julyend@sgt.co.kr



○30일 북쪽의 리석균 가운데 씨가 북에 있는 자식을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북으로 쓴 휘호를 남북 동생들로부터 받아보고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생전의 어머니가 백발잘라 만든 북으로-

피토하듯 써내려간 詩 끌어안고 오열

北서은 리석균씨 목놓아

‘반세기 이산의 모정은 죽어서도 꺾일 수 없었는가.’

30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및 레니엄홀에서 열린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에 북쪽의 함 리석균(72세)가 들어서는 동생 석정(64)씨 등 가족들은 1994년 돌아가신 어머니 유경덕씨가 남긴 시 한수를 꺼내 보여주며 함께 오열했다.

눈물노 먹을 갈고 백발노 뽀뽀아 들어/떨리는 손에다가 붓을 쥐니 /순따라 붓이 떨고/뽀따라 떠는 글노/이석연아/이석균아/사는 곳 이 어디에나/모자상봉 아아도/때

94년 작고노모 “힘에게 전해 주어라” 유언

‘서울서 만난동생’ 즉석 詩로 회답-장내 숙연

늦었다보다라는 시꺼처럼 걸국 담신 생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식들에게 건네지 못하고 말아 이날 주위를 숙연케 했다. 특히 시 앞 부분에 ‘때가오면 연이와 군이에게 전해줄 것’이란 유씨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어 눈시울을

더욱 뜨겁게 했다.

동생 석정씨는 “평생 형과 누나를 잊지 못한 어머니가 당신의 백발을 잘라서 만든 북으로 지은 시야...”라며 “이 시를 짓고 꼭 3년만에 돌아가셨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동생이 전하는 말에 함 석균씨는 어머니의 시집을 꼭 품은 채 죽어서도 꺾이지 않는 모정에 한동안 숙연해지기도 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동생들이 잠시 뒤 어릴적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자 석균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생’이라는 즉석시를 지어 어머니의 유시에 회답한 뒤 “어머니”를 목놓아 울었다.

매일경제

2000. 12. 1 (금)

남북 어제 2차 방문

특별취재팀

· ‘꿈인가 생사인가.’
· 70대 노인이 되면서기에 만난 남매는 “외 이렇게 늙어버렸다”며 분단의 아픔을 통곡으로 토해냈다.
· 75세의 다 늙어버린 큰아들은 100세 어머니를 불통고 “200살까지 사세요. 통일되면 같이 살아요”라며 오열했다. 한 형제는 만남이 믿기지 않는 듯 말을 잊은 채 허얼얼이 눈물만 쏟아냈다.
한 자매는 “이대로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며 통일의 날이 빨리 오길 기원했다. 평생 수일 붙여 50년 만에 북의 남남이 만난 아내의 서러움에 북남이 믿기지 못했다.

50년의 세월은 실로 긴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별의 아픔이 가슴 숙연한으로 맺혔고 얼굴엔 깊게 썬 주름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대신했다.
▶ 관련기사 11-38-39면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던 30일 남북은 또 다시 물금바다로 변했다. 지난 8월 15일 1차 교향방문한 지 석달 보름 만의 일이다.
서울과 평양에서 여타계 그리던 협약을 만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이날 반세기의 세월이 서러워 울고 또 울었다. 낯의 감격은 믿기지 이어져 서울도 평양도 잠들지 못했다.
서울 롯데월드호텔을 속으로 잠한 북측 방문단 100명과 평양을 찾은 남측 방문단 100명은 이날 오후 6시에 서울의 센트럴시티의 평양의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품에도 그리던 협약을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방문단은 센트럴시티 5층 예미홀 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남측 방문단은 평양에서 북한적십자회 중앙위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산가족 눈물의 상봉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30일 서울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상봉장에서 북측 김재연 씨(왼쪽)가 남측 동생 장남 씨(오른쪽)와 효근 씨(가운데)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30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한 북한 상봉단원들은 거의 모두 중절모에 반코트를 입은 옷차림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코트에 중절모...훈장 단 모습도

서울은 北상봉단 복장

서울에 온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양복에 반코트를 걸치고 중절모로 한껏 멋을 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번 1차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복을 맞춰 입은 듯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 옷차림이었다. 이들은 또 한결같이 목에 체리나무 목도리를 걸게 됐다. 다만 반코트와 양복, 중절모 색상은 개인마다 짙은 회색, 갈색, 흰도색, 검은색 등으로 변화했다. 흰색 와이셔츠에 밝은 색깔의 넥타이와 복장에 상당히 신경을 썼음을 찾는 데 알아볼 수 있었다.

여지 상봉단원들도 검은 색 바탕에 화려한 원색 꽃무늬가 그려진 우단 옷감의 생활 양복을 입고, 그 위에 모두 반코트를 걸쳤다. 구두는 목이 길지 않은 단화들이었다.

그러나 북측 상봉단은 호텔에 짐을 풀 뒤 집단 상봉장에는 대부분 반코트와 중절모를 벗어 버리고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나타났다. 양복 왼쪽에는 김일성 배지를 달았고, 오른쪽에는 직사각형의 인민공화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일제히 달았다. 특히 김책공업대학 강좌장 하재경(65)씨는 양복 위에 훈장을 달았고, 일부는 노동영웅 메달을 달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全東暻기자 dskim@chosun.com

“서럽고 눈물 겹도록... 그리운 평양이여”

추斗玩 단장 自作詩 공개

“평양 이튿날 들이도 실레이는 비음
살아생전 갈 수 있을까, (동화)
이!

서럽고 눈물겹도록 이튿날은 평양
그리운 평양이여!”

북두완(추斗玩) 단장 이산가족 방문단장이 30일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고향인 평양 방문의 감격을 담은 자작시를 공개했다. 북 단장은 이 시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방문 임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선한민 출신인 북 단장이 북쪽 땅을 다시 밟게 된 건 54년 만에다.

그의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 공표초등학교.

1946년 10살의 나이로 어머니와 함께 먼저
워남한 아버지를 찾아 남쪽에 왔다.

북 단장은 “친가는 물론 외가쪽도 수안군 출신”이라며 “고향집 뒤 신산이 지금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북 단장은 4살 때인 1940년 평양에 있는 할아버지대를 방문한 이후 60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게 됐다며 감격해했다.

“북에 남아있던 친척들도 1·4후퇴 때 모두 워남해 북에서 가까운 친척을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시 모르겠습니다. 통일되기 전이라도 남쪽에 묻혀 계신 부모님을 소원대로 고향에 옮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鄭萬善기자 bschung@chosun.com

/韓在賢기자 rookie@chosun.com

“엄마가 보고플때 白髮 만져보거라” 北 아들에 유품

눈물로 입을 잡고 /백발로 첫을 쥐니 /손따라
벗이 떨고 /뚫따라 떠는 글로 /李錫連아 /李錫
均아 /사는 곳이 어디에나 /모자 상봉 아마도 /
때 늦었나 보다. (1991년 8월 14일 부산에서)

이산가족 2차 상봉단 일원으로 30일 서울을 방문한 북측 리석균(71)씨의 어머니 유영택(94)년 작고·당시 90세)씨가 한국전쟁 전 한층으로 시집 보낸 큰딸 석연씨와 서울대 재학 중 전쟁으로 행방불명된 큰아들 석균씨를 그리며 써내려간 시에는 구구절절 모정이 배어 있었다.

석균씨는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 홀에서 만난 석정(63)씨 동 남쪽의 네 동생들로부터 시집 등 어머니의 유품을 건네받고 말없이 어루만졌다. 하얀 보자기에 싸인 유품은 어머니 유씨가 쓴 대하노트 27권 분량의 지식 그리움에 지친 편지,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붓으로 써내려간 붓글씨, 그리고 작고하던 해 피낸 ‘내 울어 너 온다면’이라는 제목의 시집이었다.

석균씨는 ‘때가 오면 글(均)이에게 전해주라’며 남쪽의 동생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붙잡고 읽었던 눈물을 티트었다.

백발이 담긴 종이꾸러미에는 “엄마가 백발이다. 엄마 보고플때 만져보아라”는 글이 써 있었다. /鄭萬善기자



○북에서 온 리석균씨가 애티게 자신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백발(白髮)이 고이 담겨진 종이 꾸러미를 들고 비통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운 30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일리니엄 홀에서 북에서 온 김중현씨가 남쪽의 아내 유순씨를 만나 50년 만에 얼굴을 만져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양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 만에 만난 남쪽의 남편 양철영씨가 북의 아내 우순씨를 끌어안고 뺨을 어루만지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주름살 보듬으며 “여보...”

北남편 만난 '守節' 두어인

50년 만에 남편의 모습을 대한 김필희(68·경북 안동)씨는 턱뼈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소매를 부여잡은 채 허연 눈물만 흘렸다. 남편 조민기(65·경북 안동 출생)씨는 결혼 1년 만인 50년 10월, 의용군으로 끌려 갔다. 뒤서 김씨의 뺨속에는 아들 규석(49)씨가 6개월째 자라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동네사람들은 “남편이 죽었다”고 했지만 김씨는 믿지 않았다. 재

“남편들은 재혼했지만
어찌겠어요... 상관없어요”

은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30년 전부터 체념하고 남편의 재혼을 지내왔다”는 김씨는 이날 오후 상봉장에 들어서서 재회할 기나긴 해가지만 제도 뒤뚱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뒤뚱한 표정이 한꺼번에 무너지 내었다.

50년 가까이 유복자인 줄 알고 살아 왔던 아들 규석씨는 애써 감정을 조절하며 “아버지가 건강해 보이셔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북의 남편은 재혼해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규석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외아들이니 좀 있었는데 5남매의 장남이 됐

다”고 애써 웃었다. 경북 안동에서 농사일을 하며 어머니를 봉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안동포로 곁게 지은 모시옷을 가져 왔다.

유순이(70·충북 청주)씨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 유씨가 남편인 김중현(66·충북 청원군 출생)씨와 생이별한 것은 결혼 6개월 만인 50년 9월중, 의용군으로 나가며 “3년만 기다려 달라”던 남편이었다. 당시 어머니 뺨속에 있던 영우(49)씨는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8일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때에서야 유씨는 남편의 최근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50년이 지났지만 찬찬히 뜯어 보니 영리없는 남편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어머니 곁에서 아들 영우씨는 “유복자인 줄만 알고 자랐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니 꿈인지 생사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외아들과 충북 청주에서 힘든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온 유씨는 남편에게 “아들이 농사일을 하느라 중학교밖에 못나온 것이 가장 큰 한(恨)”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젊었으니 재혼을 했으려니 했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라고 유씨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짐작했듯이 남편은 북한에서 새 아내를 얻어 5남매를 두었다. 유씨는 남편을 위한 선물로 500달러를 준비했다.

/황영희기자 hchoi@chosun.com

北아내 만난 '南의 남편들'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만난 남측 남편들도 많았다.

1·4후퇴 직후인 1951년 1월 8일 ‘종교탄압’을 피해 월남하다 헤어진 아내와 두 아들을 상봉한 교회장로 양철영(楊澈泳·81)씨는 아내 우순애(73)씨의 뺨을 끌어안고 어루만지며 50여년간 쌓였던 눈물을 허연없이 쏟아냈다. 양씨는 “혼자서 살아보니 부양하고 아들, 손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부여잡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고 우씨는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소”
거친 손 부여잡고 흐느껴

양씨는 단초 아내,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북측 가족 9명의 생존사실이 확인됐으나 상봉장에는 아내와 두 아들만 나왔다. 아들 효석씨는 “급작스레 기쁨을 받아 온 가족이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석만길(84)씨는 북측의 아내 정보부(86)씨와 딸 정실(65)·정옥(55)·정화(49)씨, 아들 춘대(63)·신영(61)씨와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석씨의 아내 정씨는 남편 옆에 서서 자녀들을 소개하는 등 밝은 모습이었다. 평양 철도관리국 축구선수 출신인 석씨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만 배로 만든 배즙 1박스씩 선물로 준비했고, 남측에서 재혼한 아내가 북측 아내에게 준비한 선물도 전달했다.

백남선(82)씨도 북한에 남아 큰 딸 기순(58)씨 등 4남매를 돌보던 아내 이용순(78)씨를 만났으나 아내 이씨의 얼굴이 흐려, 밝아보이지 않았다. /평양=공동취재단

100살 老母 “너 만나려 못죽었어...”

최고령 柳斗禧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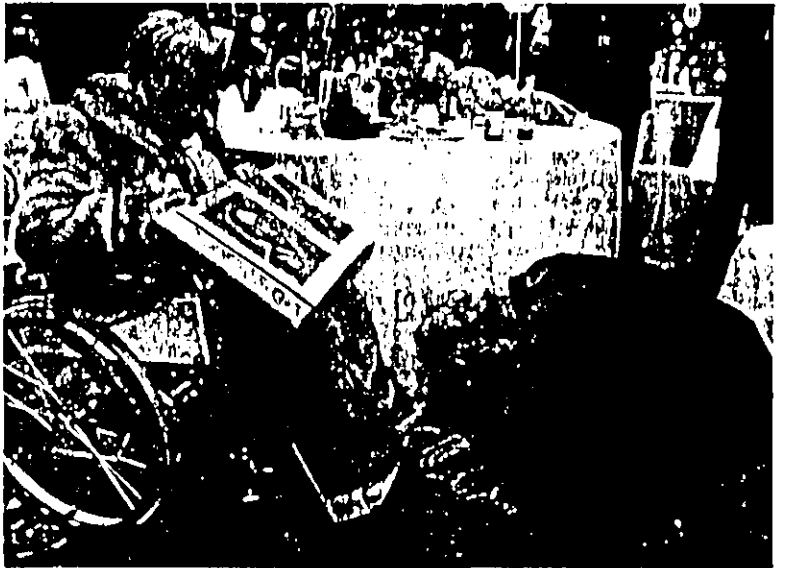
한동안 얼굴만 부비며 눈물만... 아들 밥그릇 떠놓고 50년 기다려



경안

“어머니, 나 어 동갑이...” (신동갑·조)
 “자 내느리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들하고 얘기 좀 하세요.” (매느리)
 75세 아들과 매느리의 눈물짓은 외향에도 휘둘러 위의 100세 어머니는 흐느끼기만 했다.
 30일 오후 4시45분 평양 고려호텔 이산가족 상봉장. 방북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柳斗禧·100) 할머니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북의 아들 신동갑씨가 얼굴을 비비듯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순간 유씨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바닥으로 굴렀다. 보청기, “형님 말을 제대로 알아 한다”며 붙여놓은(종손)이 새로 마련해 준 것이었다.
 할머니 지냈을까, 흐느끼기만 하던 유씨가 비로소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들릴라 말라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있어?”(어머니)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매느리)
 “내가 매느리아?”(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아들)
 “돌아가셨어.”(어머니)
 다시 감정이 복받쳐오르는 듯 유씨는 바쁜 손동작으로 눈물을 훔쳤다.
 두 빈이나 생이별했던 이들이었다. 광복을 앞둔 1943년 동갑씨는 일제에 강제 징집돼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했다. 2년 후 광복이 돼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으로 돌아온 아들은 40년에 걸친 이산가족 내외와 동시집 지으며 유씨는 ‘잠시’ 행복했다.
 그러나 이듬해 찾아온 6·25전쟁은 또 다시 모자(母子)를 갈라놓았다. 유씨는 마을사람들 인공흉재 동갑씨가 인민군에 징집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50년, 유씨는 ‘동갑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끼니 때마다 아들 밥그릇을 밥도 모르고 기다려왔다.
 “너를 만나려고 죽지 않고 기다려왔다. 이런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상봉시간 내내 유씨는 아들 손을 놓지 않았다.
 /조선일보기자 shahm@chosun.com /평양=공동취재단



◇“절 받으세요” 30일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이뤄진 서울 사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북측 방문자 총서양(69)씨가 어머니 빅간래(90)씨가 펼쳐 보인 부친의 영정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버님 제가 왔어요”



서울

제사까지 지낸 아들이 영정앞에 큰 절

박간래·용세안 母子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30일 밤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남측북의 어머니 박간래(90)씨와 북의 아들 용세안(69)씨는 만나 치마치, 눈물부터 쏟았다.
 “어머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너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라며 감격해했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내가 폭격으로 죽었다고 해서 50년 줄 알았다.”
 “아들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저를 잘 키워주셨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을 꺼내자 매느리 할머니 무릎 꿇고 절을 올렸다.
 “간래(90)씨가 ‘머무름’ 박씨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할아버지 한 고개) ‘대어’ ‘추분’ ‘가득한 아들’ ‘합창’ ‘당분’ 이후 단했다.
 세안씨는 “아직도 공인지 생인지 모르겠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시어 됩니다. 앞으로 품일이 되면 제가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셔요.”
 어느새 세안씨는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함께 나온 4명 제도 큰 영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비었다. 세안씨의 바로 아래 동생 세희(68)씨는 “형님, 제 이마의 상처 기억하시요? 형님하고 놀다가 다친 거예요”라고 말하며 세안씨와 이마를 맞댔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소년의 하늘로 떠나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던 세안씨는 육군이 처벌을 수복하기 직전 의용군으로 합류했다. 60년 동안 세안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슴에 ‘용어리’라고 새겨놓은 남측 가족들 ‘회근’ 들어 농사부조(세안씨 사망신고를 내요) ‘영정’ ‘대어’ ‘추분’을 치대왔다.
 /조선일보기자 shahm@chosun.com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어머니.’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의 아들 신동길씨가 방북단 중 최고령자인 어머니 유두희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안고 오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 서울·평양서 2차상봉

2박3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첫날인 30일 100명씩의 남북 이산가족들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50년간이나 생사를 몰라 애태우던 가족들과 단체로 애절한 재회의 감격을 누렸다.

남측 방문단(151명)은 평양 순안 공항의 짙은 안개로 예정시간보다 3시간 50분여가 늦은 낮 12시47분에 김포공항을 출발, 오후 4시40분께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과 2시간여 단체상봉을 했다. ★관련기사 38-39면 북측 방문단(136명)도 4시10분

께 남측 대한항공기를 타고 5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 여장을 풀고 반포 센트럴시티에서 8시10분부터 10시까지 가족들과 이산의 한과 아픔을 달랬다.

남측 방문단은 단체상봉에 이어 가족들과 헤어진 뒤 각각 대한적십자사와 평양인민위원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방문단은 1일에는 2차례의 개별상봉과 가족오찬을 갖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서울경제

2000. 12. 1 (금)

“열세살 꼬마가 배우 됐구나”

北 오빠 김영한씨-南 탤런트 김영옥씨

“6·25 동란 때 헤어진 오빠를 만나러 왔어요.” 2차 이산가족 상봉장인 센트럴시티 5층. 낮익은 얼굴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탤런트 김영옥(63)씨는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일일이 답변을 해줬다. 조금 후에 오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면 여러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선지 애써 고개를 돌려 몰래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던 김씨도 큰 오빠 영한(70)씨가 나타나자 더이상 남들을 의식할 수는 없었다.

“영옥아! 내가 꼬마 영옥이 맞니?”

“오빠!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어머니가 그렇게 비통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두 남매는 반세기 넘게 참아왔던 눈물을 훌쩍 쏟아 냈다.

“대학생 오빠 죽은줄만 알았는데 어머니 생전에 오셨더라면...”

영옥씨가 오빠와 헤어진 것은 6·25 동란 직후

인 50년 7월 24일. 당시 21살의 나이로 연희대학교 영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영한씨는 어느날 학교에 간다고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영옥씨는 “오빠가 ‘의용군으로 끌려가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다”며 “그동안 확인할 길 없이 세월이 흘러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영옥씨에게 오빠 영한씨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모범생이면서도 고교시절 농구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운동도 잘했던 멋쟁이었다. 흥분이 가라앉자 영한씨는 “꼬마 때 헤어진 내가 유명한 배우가 돼 있다니 정말 반갑구나”라며 이야기를 건넸고 영옥씨는 “집안의 기둥이 이제야 왔다”며 반가워했다.

/全美九기자 roadrunner@chosun.com



◇30일 오후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집단상봉장에서 탤런트 김영옥(오른쪽)씨가 북에서 온 오빠 김영한(가운데)씨와 가족계모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시만남 南北

평양 표정

100살 할머니 “죽어도 원 없어”

남측 방문단은 30일 오후 4시45분 쯤 평양 고려호텔에서 50여년 만에 북측 가족·친척들을 만나 이산의 아픔을 달랠다. 이들은 인민문화궁전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함께한 뒤 호텔로 돌아와 불면(不眠)의 첫 밤을 보냈다.

“어머니 나여 동길이”

○“어머니, 나여 동길아...”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柳斗熙·100·강원도 원주시)할머니는 6·25 때 인민군에 징용된 아들(신동길·75)과 이렇게 만났다.

아들은 황체가 위의 어머니를 끌어 안고 놓지 못했고 어머니는 회한의 신음 소리만을 뱉어냈다. 서로 부둥켜 안느라 새로 장만한 보청기가 바닥에 떨어져졌지만 柳씨는 부여안은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만을 흘리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동길씨를 “어머니, 날 모르겠어?” 라면서 울부짖기도. 어머니는 며느리 이희순(66)씨까지 소개받은 뒤 비로소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를 만나려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지,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고 말했다.

柳씨는 50여년 동안 동길씨의 밥을 따로 차려 놓으며 아들을 기다려 왔다. 동길씨는 최근까지 통조림공장 과장으로 있다가 임마신 은퇴했다.

○... 4 후퇴 직후 종교단위유 괴해 원남하다 헤어진 아내와 두 아들을 상봉한 교회 강로 양철영(楊徹泳·81·서울)씨는 아내 우순애(73)씨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다.

柳씨 부부는 평양 신정교회 성가

평양

“너를 만나러 살아 있었지...”



친척사진 50장 컴퓨터로 분류

대에서 활동하다 결혼한 독실한 기독교인 부부. 1945년 소련군 진주 후 탄압이 심해지자 柳씨는 고향(황해도 송희)을 떠나 24세의 아내와 여섯살, 세 살짜리 아들 둘을 데리고 원남했지만 구월산 근처의 전투가 심해지면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다.

柳씨는 이남 아내 우씨에게 “혼자서 시어머니 부양하고 아들·손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 부여잡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고 우씨는 “살아 있는 것만도 고맙다”고 답했다.

동생들 사진 보고 또 보고

○“오빠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디 보자,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북측 여동생 옥희(64)씨를 부둥켜안은 우원형(禹元亨·67·서울)씨의 두 눈에서는 인방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북측의 기술자로서 노력훈장을 비롯해 10개의 훈장을 받아 옷에 달고 나온 남동생 인형(仁형·61)씨도 50년 만에 만난 형의 한쪽 팔을 붙들고 “오노라 임마나 고생 많았느냐”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쳐냈다.

“나는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오는 동안에도 사진을 보고 또 봤다”고 원형씨는 털어냈다.

1차 상봉 때 1백9세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접한 장이운씨에게 남북

을 양보했던 그것기에 이남의 만남은 더욱 뜻깊었다.

고향집 지형 일일이 설명

○...북측의 두 동생 해조(海조·59)·해범(海범·56)씨를 만난 박해수(朴海洙·71·서울)할아버지는 꼼꼼한 ‘컴퓨터’ 상봉 준비로 단연 눈길을 끌었다.

직업이 컴퓨터 교육감사인 柳씨는 그간 수집해 온 일가 친척의 사진 50여장을 합동별로 분류해 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가 하면 고향(평남 신양군) 지도까지 펼쳐 보이며 고향집 지형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도.

또 사전에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꺼내놓고 “고향집 부근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는 어떻게 됐느냐”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북측 관계자들은 지난 8월 1차 상봉 후 있었던 남측 방문단의 언론 인터뷰 등을 문체삼으면서 ‘사전 입단속’ 의도롭 내비치기도.

순안공화 국민실에서 북한적십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때) 우리는 상의껏 했는데 어떤 방문단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 맘에 안드는 말을 했다”며 불만을 표시.

그러자 봉두안 단장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곧바로 날씨 예기로 화제를 돌리버렸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만찬

장에서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만길(楊萬吉)위원장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산가족 문제는 외세에 의해 우라 민족에게 강요된 국토분단의 산물”이라며 “오직 민족주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柳단장은 “이 협육들의 만남을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게 해서선 안된다”며 “상설면회소 설치 등 상봉절차와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

“너 보러 급히 오다 다쳐”

○...단체상봉을 마친 남측 방문단은 오후 7시30분부터 인민문화궁전으로 이동해 양만길 인민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서울을 출발할 때 머리를 다친 채 훈목(82)씨는 단체 상봉장에서 아들이 “싸웠느냐고 묻더라”면서 “너 보러 급히 오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해 줬다”고 답해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중앙 테이블에 앉은 柳단장이 “인상술 맛이 아주 좋다”고 하자 옆에 있던 柳위원장도 “지난번 남측에서 가져온 문배주도 맛이 아주 좋더라”고 회담.

평양=공동취재단

울어버린 '筆談상봉'

다시만남 南北

南 청각장애 동생-北 형님

50년 만에 돌아온 형을 동생은 머리 위로 손뼉 크게 울리며 수화(手話)로 붙였다.

"형!"

형은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다.

"형에게 하고 싶은 말."

동생 역시 글로 대답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하다. 너 말 못하고 못 듣는 것만큼은 내가 고쳐주고 싶었는데..."

30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 평안도국어대 연구

"너 고쳐주려고

언어 연구사 됐는데"

北형님 회한의 눈물

사인 임순용(林順容·66)씨와 동생 준용(俊容·65·청각장애인·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 형제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앉았다. 남쪽의 여동생 순자(順子·55)씨도 배식했다.

형제의 대화는 준용씨가 순자씨를 통해 수화나 볼펜으로 종이에 적어 순용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유명한 외국어 연구자가 돼 나타난 형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동생은 수화와 필담(筆談)으로 가슴 속에 커키어

쌓아 두었던 한을 친밀함을 풀어냈다.

"이제 나타나면 목이 없구나. 형이랍시고 너한테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는데..."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데요. 어머니가 미싱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줘 지금껏 잘 살았어요."

순용씨는 또 순자씨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암마는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암마가 오빠를 보고 싶다며 죽을 때도 눈을 감았었어요."

"내가 불효자식이다." (울음)

준용씨는 네살 때 동네 원두막에서 혼자 놀다 남들이 버린 찜의 껍질을 먹고 체한 뒤 알병이 나타나 장애가 시작됐다. 용하다는 약을 지어 먹인 게 오히려 화근이었다. 이후 삶부터 완전히 들지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다.

순용·준용씨는 12남매 중 셋째·넷째로 한강 터울이어서 매일같이 싸우면서 정도 깊어졌다.

50년 서울공업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순용씨는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인영 소식이 끊겼다.

반세기 만에 모인 형제들 앞에서 순용씨는 '시항기(思愴歌)'를 불렀다.

"나 고향을 떠나올 때/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잘 다녀오라고..."

마음 속으로만 노래를 따라부르는 준용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북쪽의 임순용(左)씨가 남쪽의 청각장애인 동생 준용씨와 필담으로 만남의 감격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탈린트 김영옥씨 北오빠 만나

"생사불라 신청 안했는데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

"아이고, 우리 큰 오빠, 우리 큰 오빠 맞네요."

"영옥이구나.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탈린트 슈영옥(63)씨는 북측 상봉단에 포함돼 내려온 큰 오빠 영환(71·양강원보 편집부국장)씨를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상봉장에 함께 있던 둘째 오빠 순환(68)씨, 여동생 인자(60)·인순(56)씨 등 5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5남매 모두가 서로 얼싸안고 얼굴을 비쳤다.

홍분이 가시고 자리에 앉은 영옥씨가 "6·25 때 학교간다고 나갔는데 이렇게 늦게 오실 수 있느냐"며 동생 다문 두장을 부러져 영환씨는 "그게, 내 미안하다"며 연신 영옥씨의 손을 잡았다.

영환씨는 6·25 발발 당시 연세대 영문과 2학년 재학중이었다.

남쪽의 영옥씨 자매들은 "지난 8·15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며 오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이 울었어요"라며 "그러나 오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상봉 신청도 하지 못했어요"라고 전했다.

영옥씨의 작은 오빠 순환씨가 "부모님은 큰 형님을 그리다 10년 전 모두 돌아가셨다"고 운을 떼자 5남매는 다시 한번 흐느끼야 했다. 영옥씨는 "큰 오빠는 우리 집의 아주 '기가 막힌' 기둥이자 기대주였고 어렵적부터 공부를 잘했으니 북한에서도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라며 오빠의 웃음을 잡았다.

영옥씨는 "나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탈린트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아요"라고 맑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정정훈 기자
<echoon@joongang.co.kr>



30일 오후 북측 방문단원의 김영옥씨(左·탈린트)와 함께 가족 계보도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0년 그럭움' 목메인 再會

30일 예정보다 상봉이 네 시간 가량 늦어지면서 안타까운 침묵이 흐르던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은 오후 8시10분쯤 북측 방문단이 입장하자 순식간에 '김동의 무대'로 바뀌었다.

다새전 사망 소식에 망연

○북측 방문단의 이석균(71)씨는 이날 동생 석진(63)씨 등 남측 네 동생들로부터 1994년 작고한 어머니 유영태씨가 자신을 그리며 쓴 대하노트 27권 분량의 편지글과 붓글씨, 백발의 머리카락 등 유품을 받아들고는 한없는 모정에 고개를 푼지 못했다.

91년 8월 14일 부산에서 쓴 어머니의 시엔 '눈물로 먹을 김고/백발로 벗을 쥐니/손따라 붓이 떨어/붓따라 따는 글로/이석안이, 이석균이/사는 곳이 어디/어니/모자상봉 아미도/때 늦었나 보다'라고 써어 있었다.

동생 석오(52)씨는 "어머니가 서애 진시회까지 하셨다"고 전했다.

50년 당시 서울대 공대 중 행방불명이 됐었다.

○북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온 김희락(69)씨는 황 주라(76)씨가 다행히 전 동생을 예타게 그리다 미국 뉴욕에서 숨졌다는 소식에 망연지나.



"사망 신고하면 형 못온다"

7년전 숨진 어머니 말 전해

여동생 귀순씨와 조카 참모씨 등 다른 형을 만난 기쁨도 잠시 히라씨는 "50년 세월의 벽을 넘어 달려왔는데 다행을 못 기다리고 가시디나"라며 통곡했다.

쌍둥이 만나 감격 두배

○김병희(68)한덕수평양검공업대 강좌장을 부둥키 안은 동생 참선(67·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는 "어머니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처님께 형 무시하라고 기도하시다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강좌장은 "사망신고를 하면 아들이 정말로 임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어머니가 사망신고를 극구 반대했다"는 동생의 말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6·25 당시 동국대 문학부에 다니다 의용군으로 참전하면서 가족들과 헤어진 북한 국어학계의 권위자인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김영환(69)교수는 누나 옥인(80),쌍둥이 동

생 영우·영철(63)씨와 만나 상봉의 감격을 나눴다.

미국에 거주하다 형을 만나기 위해 귀국한 영우·영철씨는 "미국 시민권 자리 북에 가서 형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형이 살아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조카 우현(52)이가 형님이 우리를 찾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50년 8월 14세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북한으로 간 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평양시 직물도매소 지배인인 홍용표(64)씨는 누이 양순(69·경기도 성남시 수성구)씨를 만나 오열속에 몸을 떨었다.

양순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육이라고는 너하고 나 둘뿐인데 50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떨어져 살았으니 이게 무슨 비극이란 말어디나"며 흐느꼈다.

죽석 무대 어깨춤 덩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센트럴시

티 5층 메이플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주최의 환영 민찬이 남측 종교계·학계 인사와 북측 방문단 등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에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한적십자사 잠정자 부총재가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며 간해를 제의했고 북측 장재언 단장이 "민족회합의 새 장을 열자"고 답했다.

민찬 도중 북측 방문단 10여명은 극석에서 무대로 나가 어깨춤을 돌리며 북한노래 '반갑습니다'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열창해 박수를 받았다.

○서울에 온 2차 북측 방문단은 1차 방문단 때와 비슷하게 단체복을 맞춰 입은 듯 비슷한 치림이었다.

남측 상봉단원들은 양복에 반코트 치림을 하고 여자들은 검은색 비탕의 개량 한복 치림에 반코트를 곁들였다.

○남측 방문단장인 방두환(孝斗玩)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호텔 출발 직전, "그리운 평양"이라는 자작시를 남측에 눈길을 끌었다.

부총재가 "평양, 이름만 들어도 실리는 마음, 살아 생전 갈 수 있을까, 조바심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로 시작하는 시를 남측까지 북으로 향하는 이산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시화부 <social@joongang.co.kr>

1 차때 빠졌다 온 北 '간판' 인물들

북측 방문단에는 지난 8·15 1차 상봉 때 탈락했던 유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어학자인 김영환(70)교수를 비롯, ▶김병희(68)한덕수평양검공업대 강좌장▶하재경(65)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홍용표(64)평양시 직물도매소 지배인▶노승득(70)자강도 임업연합기업소 자재상사 사장▶김규시(64)농업과학원 연구사▶임순용(65)평양외국어대학 연구사 등은 그동안 북한 언론에도 소개됐던 인물.

○김영환 교수=이문혁계의 손꼽히는 권위자. '조선민족어 발전연구' 등 수백편의 논문과 40여권의 교과서 등을 집필했다. 동국대 문학부에 재학 중 6·25가 터져 인민군에 입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교단에 섰다. 지난 8월 70회 생일을 맞아 김정일

- 김영환 김일성대 교수
- 교과서 40여권 집필
- 하재경 김책공대 강좌장
- 비철금속 분야 권위자
- 홍용표 평양직물도매소 지배인
- 의류물자 공급 총책

(金正日)국방위원장으로 부터 생일상을 받았다. ○김병희 강좌장=남조선 신민당 당수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한 백남운(白南雲)의 생질. 고려대 입학 진 6·25를 만나 1950년 8월

의용군으로 참전한 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 ○하재경 강좌장=비철금속 분야의 권위자. 지난 8월 17일 노동신문이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폐기와 정열에 넘쳐 교수 교양사업에 힘쓰고 있는 성실한 과학자"라고 소개했다. 서울 중앙중학에 입학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포기. 6·25가 발발하면서 의용군에 입대해 북으로 갔다. 강원도 문천시에 있는 문평제련소에 근무하면서 야간 기술전문학교를 졸업했고 박사원(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쳐 대학 교단에 섰다. ○홍용표 지배인=평양시내 의류 상점에 물자를 공급하는 총책임자로 '국가수호'를 여러차례 받은 인물. 경기도 교양군 출신으로 50년에 부모를 잃고 월북,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 남한에는 누나 양순(69)씨가 있다. ○노승득 사장=전북 김제의 기한한 소작농 아들인 그는 북에서 대학을 나와 임업부문에 종사해 왔다. 최근 임업발전이 기여한 공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상을 받았다. ○김규시 연구사=최근 북한 방송에서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를 비난해 눈길을 끈 인물. 경북 안동군 임하면에서 태어났으며 경기도 김포시 고침공립학교에 다니던 중 가족과 헤어졌다. ○임순용 연구사=서울 영등포 출신. 가족과 헤어질 당시 서울공업대학교 학생이었다. 정철현 기자 <jchmin@joongang.co.kr>

※김강좌장이름=북한의 대학에만 있는 독특한 직제로 특정 학부의 전체 강의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 대학의 학장이나 학과장과도 다르다.

다시만남 南北 “형 주려고 그림 갖고 왔는데...”

“형님 드리려고 제가 그린 조선화 몇 점을 가지고 왔는데...”

형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88) 화백을 만나러온 북한의 유명화가 기만(71)씨는 “경세가 약화돼 2주 전 입원했다”는 조카 안(51)씨의 말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봉장에 함께 나온 사촌형 기중(77)씨, 조카 백현(53)씨 등은 “내일은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만을 위로했다.

기만씨는 서울 사람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1951년 월북했다. 당시 동료 화가 우항 박래현과 결혼한 운보는 처가가 있는 군산으로 피난길을 떠나면서 동생과 헤어졌다.

운보는 지병인 폐혈증과 고혈압이 약화돼 지난달 17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말은 알아 들지만 거동은 전혀 못하고 두 손만 간신히 움직이는 상태다.

안씨는 “며칠 전 ‘숙부가 온다’고 말씀드리자 수화로 ‘정말이나고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운보는 71년작 ‘승무(僧舞)’를 기만씨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채어 상봉’ 얘기도 나왔지만 운보에 산소호흡기·가래 썬는 튜브·식사 주입관(관) 등을 꽂고 있는 형편

운보 동생 김기만 화백

형 입원 소식에 아쉬움

‘병실 상봉’ 실낱 희망

이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같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특출과 협의해 꼭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운보 김기창 화백. 사진은 김화백이 지난 10월 병상에 누워 간병을 받고 있는 모습.

“동생에게 총을 겨누었다니...”

6·25 참전 신현삼씨 인민군 복무 동생 만나

“천문아.” “형님-.”

6·25 당시 국군과 인민군으로 각각 참전했던 신현삼(73)·현문(70) 형제는 서로를 보는 순간 “옛 모습 그대로구나”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동생 현문씨는 1950년 충남도청 운수과에서 근무하다 인민군에 의해 차량기술자로 차출돼 의용군에 입대했다. 그는 재대 후 30여년간 개성검찰소 검사로 활동해왔다.

형 현삼씨는 46년 국군의 모체인 경비대 2연대 참살 멤버로 입대했

다. 낙동강전투 등 6·25 격전지를 누빈 그는 56년 대위로 제대했다.

현삼씨는 “지난 27일 상봉자 명단 발표 이후 신문기사를 통해 내가 인민군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내가 겨는 총 앞에 내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문씨는 “형이 섞여 있을지도 모를 국군과 전투할 때마다 괴롭기 그지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남쪽에 남았던 동생 현정(67)·현성(62)씨도 “혹한 분이라도 전사하셨으면 어찌할 뻔했느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준원 기자

<cchoon@joongang.co.kr>

“수절 못한게 어찌 당신 탓이오”

한때 상봉 거부 재혼 아내 北에 아내둔 남편이 설득

“수절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게 어찌 당신 잘못이오.”

‘제가한 죄인’이란 생각에 상봉 거부 의사를 밝혔던 최금분(76)씨가 북에서 온 남편 황경규(76·전 개성신문사 논설위원)씨를 만났다.

6·25 직후 소식이 끊겼던 남편 황씨, 남편을 아타게 기다리던 최씨는 “이미 죽은 사람은 잊고 새로 시작하라”는 시부모의 권유로 현재의 남편 차용규(91)씨와 재혼했다.

최씨는 북측 방문단에 남편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남편의 얼굴을 보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었다.

그런 최씨를 설득한 사람은 남편 차씨. 고향 개성에 부인과 4남매를 두고 월남한 차씨는 “내 처자를 보고 싶어도 못만나니 당신이라도 손을 돌려”며 최씨를 설득했다.

최씨는 상봉장에서 황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황씨는 “나도 재혼했다. 다 전쟁 탓인데 너무 미안해 하지 말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박현선·정효식 기자

<hyunsun@joongang.co.kr>

한겨레

2000. 12. 1 (금)

■ 6·25때 두 아들 남북 한감전할머니

“우리 애들은 왜 안오나...” 눈시울

생사조차 모른채

몽한의세월 반세기

“아들을 봐야 하는데 자꾸 눈이 침침해져.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데 귀가 멀었으니...”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50년 세월이 눈물로 맺혔다. ...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 품어 안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6·25사변 남북자 가족회’ 창립 총회가 열렸다.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징용되거나 북한에 끌려갔던 남북자 가족들이 ‘두달애’ 준비 끝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올해 아흔일곱의 한감전(경기도 군포시 공릉동) 할머니는 그 총회장의 재일 안쪽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전쟁 때 북으로 끌려간 두 아들은 이날도 끝내 어머니의 가슴에 와 안가지 않았다. “확인이 안 된다. 어디에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충남 당진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2남4녀를 기른 할머니의 삶은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폭포의 깊에 들어갔다. 당시 사립 명문인 서울 양정고등학교에 다니던 둘째아들 유홍목(당시 18살)씨가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북한의 의용군에 끌려갔다. 전쟁통이라 아

들이 간 곳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1·4 휴전 때는 서울 청량리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딸아들 유한옥(당시 27살)씨가 다시 북한군에 끌려갔다. “메리야스 기술자였거든. 그때는 재벌 대접받던 기술자였는데, 북한군이 후회하면서 데려간 거야.”

품어 안고 기른 두 아들이 모두 북으로 끌려간 뒤, 할머니는 두 아들을 품에 담고 반백년을 기다렸다. 지난 71년 세계적십자사를 통해 둘째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었을 뿐, 두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자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올해와 근심이 쌓여가던 지난 86년에는 의지했던 남편마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이놈 불효자들’ 그랬어. 보고 싶는데 소식 한번 전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신거지. 그러다 먼저 갔어.” 할머니는 마른 눈에 침침하게 고이는 눈물을 불같이 한동안 믿을 잊지 못했다. 창립총회가 끝나자 회원들은 이산가족이 만나는 잠실 롯데호텔로 발길을 옮겼다. 딸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감전 할머니도 일행을 따랐다. “아직 걸을 수 있어. 어디든 갈 거야!”

만수한 기자 ahn@hani.co.kr

탤런트 김영옥 '꿈속 오빠' 만났다

“영옥아...”. 북한에서 온 ‘오빠생각’의 그 오빠 김영환씨(70)와 감격의 상봉을 한 탤런트 김영옥씨. “오빠!”를 부르며 마음껏 울었다. 같은 TV 카메라 앞이었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김씨 5남매는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다. “영옥이가 인기 탤런트라는데 무슨 일을 주로 맡느냐”고 영환씨가 묻자 김씨가 “할머니역만 해요”라고 대답해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죽은 사람인 오빠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에게 배운 ‘오빠생각’ 노래를 부르며 많이도 울었더랬습니다”

김씨와 오빠와 헤어지게 된 것은 6·25로 서울이 점령됐을 때. 영환씨는 인민군의 징집명령을 받고 집을 나선 후로 소식이 끊겼다. 어머니 노득진씨(89년 작고)가 면담지에서 머리를 쥐고 의용군대열에 섞여있던 아들을 보긴 했지만 말 한번 물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낙동강 전선에서 영환씨가 전사했다는 소문



탤런트 김영옥씨(왼쪽) 자매들이 북에서 온 오빠 영환씨가 상봉장으로 들어서자 다가가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사 소문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왔군요”

이 들려왔다.

유달리 정이 깊었던 김씨 가족에게 영환씨의 죽음 소식은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다. 충각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못했지만 한시도 영

환씨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던 어머니는 임종 순간까지 아들을 예타게 찾다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영환씨는 전쟁후 언론계에 투신, 기자로서 필명을 떨쳤으며 현재는 양강일보 부국장직을 맡고 있는 중견 언론인이다.

이호승기자

bravo@kyunghyang.com

‘닷새를 못넘기고...’

北 김히락씨, 형 5일전 사망소식에 통곡

“닷새를 못 기다리다니...”

북측 상봉단 일원으로 30일 서울에 온 김히락씨(69)는 여동생·귀순씨(64)와 조카 참모씨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지만 감격은 잠시였다. 형 주락씨(76)가 닷새 전 동생을 그리다 숨졌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락씨는 중풍에 시달리면서도 헤어진 동생을 만나야 한

다는 일념으로 버티다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형님을 만날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히락씨는 여동생 귀순씨와 조카 참모씨 등 협육을 만난 기쁨도 잊은 채 병마와 싸우며 자신을 기다렸을

형님을 생각하며 대성통곡했다.

주락씨는 6·25전쟁 때 인민군 압대로 가족과 헤어진 동생 히락씨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멀리하려고 지난 8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갔다. 그러던 중 동생이 지난 1차 상봉단 예비 명단에 포함되자 희망을 가졌으나 최종 명단에서 탈락하면서 실망감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결국 2차 상봉을 하게 돼 숨지기 직전까지도 “동생을 만나야 한다”면서 희망에 불렀지만 한을 품은 채 눈을 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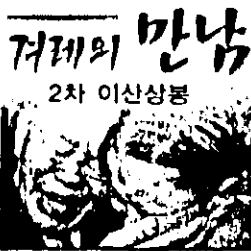
임영주기자

mnerva@kyunghyang.com



30일 밤 서울 반포동 인터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 마련된 상봉장에서 빈세이 만에 만난 이산가족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hani.co.kr



겨레의 만남 2차 이산상봉

■ 부모·자식간 애달픈 사연

미누리나 남편 잃는 삶이도 자식 잃는 못한다고 했던가. 부모자식의 애달픈 사연은 고려호텔을 또다시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제가 심은입니다." "내가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분단 빈세이 부자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아버지 홍양국

첫 대면 서막함 잠시 곳곳서 '뜨거운 포옹'

(86·황해도 송화군 출신)씨의 북쪽의 이름 심은(50)씨. 개구쟁이였던 이들이 반백이 다 돼서야 다시 찾아온 아버지가 아들은 뭘지도 애꿎었던가보다. "아버지 어디 갔다가 이제 왔습니까..." 그러나 서막함도 잠시.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심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야 만나니 내가 미안하구나." (양국) 부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1·4후퇴 때 북에 홀로 남겨두고 온

린이들 상순(55)씨를 마주한 한정서(80·평남 강서군 출신)씨는 오랜 세월 외로웠을 아들을 부둥켜안고 눈물만 흘릴 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에비구실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고생이요? 일없습니다. 다 아버지 업덕 덕입니다." 한사람만 울 수 밖에 없어 얼마 정성실(70)씨가 절망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전하자, 상순씨는 "오실 기회가 또 있겠소. 이젠 제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울먹 커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미안한 말을 그렇게 달랐다.

석만길(84·평남 침원군 출신)씨는 '행운아'다. 북쪽에 직계가족이 9명이나 살아 있었다. 한갑을 넘겨 할머니가 돼버린 딸 정실(65)씨는 식재 옆에 앉아 연신 컵에 물을 따라주며 "아버지, 아버지"를 연발했다. 이름도 지어 주지 못한 막내딸 정화(40)씨도 나왔다. 세월 탓일까. 석씨보다 두살 연상인 부인 정보부씨는 빈세이 만의 만남이 믿기지 않는 듯 식재 곁에 그치다 소곳이 앉아만 있었다. 윤기대(91·평남 중화군 출신)씨는 잃었던 딸 셋, 산자(62)·옥자(56)·산(53)씨를 한꺼번에 되찾았다. "이젠 여한이 없다. 아버지 없이 지라준 너희가 대견할 따름이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유복자 아들 만난 험서욱씨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



"어머나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생면부지의 아들 현중민(50)씨는 아버지를 부둥켜안고 아들의 존재조차 믿었던 아버지에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험서욱(80·부산시 남구 대연동·사진)씨가 여동생 순애(61)씨만 찾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뜻하지 않게 아들을 만난 것이다. 1961년 11월 인신 8개월 된 아흔네 지호순씨를 고향인 흥남에 두고 홀로 남녘으로 오는 배를 탔던 현씨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았는지 몰라"라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지난해 간암으로 고생했지만 올해 초부터 약물치료를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감시할 뿐이었다.

외동아들이면서도 모시지 못했던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현씨는 "중만이가 있었으니 아버님도 외동아들이니 나를 남쪽으로 보내시고도 외롭지 않으셨을게야. 이름도 모르면 자식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흘려내리는 눈물을 뒤어냈다.

현씨는 또 조그마한 아이로만 기억했던 여동생 정옥(65)씨가 살아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현씨는 이름과 누이를 붙잡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또 말했다. "살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오빠, 나 짐옥이야. 어릴 때 '이동'이 모 불리던 짐옥이예요"라며 짐옥씨가 무심하게 지나간 세월을 한탄했다. 여동생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었다. **평양공동취재단, 전용희 기자 symbio@hani.co.kr**

1차양보 끝 동생 만난 우원형씨

"100일 기다림 소원 풀어"



8·15 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때 잠이운씨에게 자신의 차를 팔아보내 '이름다운 양보'라는 말을 들었던 우원형(65·사진)씨가 100일을 더 기다린 누이와의 만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오빠,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어디 보자.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여동생 옥희(64)씨는 30일 평양 고려호텔 2층 상봉장에 들어선 우씨를 보지마자 달려와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눈물을 쏟았다. 우씨도 "오빠가 살아 있는 줄 몰랐어"라며 흐느끼는 옥희씨를 품에 안고 한동안 팔을 풀지 않았다.

북쪽에서 기술자로 노력훈장을 비롯한 10개의 훈장을 못어 달고 나온 남동생 인형(61)씨도 50년 만에 만난 형의 팔을 붙잡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봐 오는 동안에도 사진을 보고 또 보곤 했다."

이어 우씨가 생사확인에서 '미상'으로 나온 막내 동생 소식을 묻자, 인형씨는 "그에는 이미 죽었고 그 애입고도 말로 동생 4명이 더 있다"고 우씨가 존재조차 모르고있던 동생들 소식을 전했다.

지난 8월 100살 노모를 만나려다 뜻밖의 사망 소식에 낙담했던 잠이운씨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방북 기회를 양보했던 우씨는 "장씨가 소원을 풀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소원을 풀었다"고 말했다. '이름다운 양보' 뒤의 만남으로 더 아름다운 평명의 밤이 왔다. **평양/공동취재단,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유복자 딸 만난 이순구씨

"모두가 세월 탓...미안하다"

"뱃속이 있는 걸 보고 떠나 팔인지 아들인지 궁금했는데..."

이순구(83·황해 해주 출신)씨는 여씨 울음을 참았다. 순구씨는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인민군에 징집돼 집을 나섰다. 세월은 속출없이 빈세이 나 흘렸다. 집 떠날 때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던, 뱃속에서도 궁금해하던 자식을 30일 고려호텔에서 드디어 만났다. 얼굴도 이름도,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자식은 리춘옥(51), 딸이었다. "감방 들어가려다..." 순구씨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 딸은 평양에서 만복이 등 자식들과 지내다 왔다고 했다. "장군님 덕분에 아버지 없이 다 잘 키워왔어요." 아내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동생 형구(60)의 소식을 물었다. "딸애는 잘 모르는 눈치다. 순구씨는 미누리의 손도 잡아보고 싶고, 동생 형구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둘 다 이미 세상을 떠났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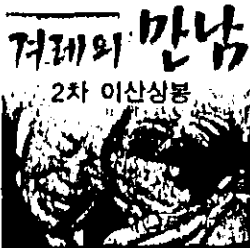
순구씨는 인민군으로 한국전쟁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아내 남쪽에서 포로로 잡혀 이변엔 국군으로 압대해 전장을 누볐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급변했던 한국전쟁 3년, 분노는 없었다. 살기 위해 싸웠을 뿐.

"보고 싶었다"는 말을 반복하던 춘옥씨는 나서 처음 아버지를 만난 감정의 격동을 견딜 수 없었던 지 갑자기 혼절했다. 순구씨는 '되찾은 딸'을 부둥켜안고 되뇌었다.

'이름은 누가 지어줬니? 미안하다 춘옥아, 모두 미친 세월 탓이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북어머니 남쪽 딸 못알아봐



■ 서울 이모저모

또한번 반세기 만의 집단상봉이 이뤄진 30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상봉장은 이산의 한과 만남의 기쁨이 눈물의 감이 되어 흘렀다. 하지만 서로 배반지고, 굳게 손을 맞잡은 한육류는 어느새 50년의 비움 위에 남아 가족친지를 밟아대어가듯 고개를 피웠다.

아들뺨 비비며 "난 안울어"

◇...운보 김기창(88) 화백의 동생 기만(71)씨는 30일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한 뒤 김 화백의 병환소식을 듣고 "형님이 그렇게 편찮으세요"라며 "당장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기만씨는 "형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그린 조신회 빛 집을 갖고 있다"며 "형님께 게 드립 생각"이라고 말했다.

운보 형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사상적 차이로 뿔뿔이 헤어졌다. 운보는 가깝게 지내던 그림친구 이석호와 정종녀, 이팔찬 등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혁명전선에 동참하자고 설득했으나 아내이자 화기였던 우함 박대현씨가 반대해 군인으로 피난을 갔다. 하지만 기만씨는 형과 형수와는 사상적으로 다른 견해를 표시하며 끝내 북행길에 올라 긴 이별이 시작됐다.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가 의용군으로 끌려간 정재갑(66)씨는 그리던 어머니 안준옥(88)씨와 상봉했다.

"난 안 울다 안 울어. 내 아이들은 북살아 있을 줄 알았어."

안씨는 반세기 만에 돌아온 아들들 일짜 안은 새 두쌍을 연신 비비었다. 정씨는 동생 계국(57·중앙대 물리학과 교수)씨가 "형 나 기억나"라고 묻자 "네가 너희들을 잊지 않으리 매달 어렸을 외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육토끼' 별명대자 꺼안아

◇...친할 남은 중년아삼이 돼 나타난 딸을 신뜻 알아보지 못해 더욱 애절하게 한 가족도 있었다. 북에서 온 어머니 박봉옥(72)씨는 5살 때 헤어진 홍인애(55)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딸이 빛미엔 사진첩을 꺼내 보어도 도리 짚지던 박씨는 별명을 묻고는 "육토끼였잖아"라는 대답에 그제야 기억의 귀퉁이를 찢기고는 딸을 부둥키었다. 지난 86년 뉴질랜드인인 남편을 따라 이민간 홍씨는 어머니를 만나러 이역만리를 날아온 길이었다.

◇...이번 북쪽 방문단에는 지난 8·15 1차 상봉 때 활약했던 유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북한 어문학계의 손꼽히는 권위자인 김영환(69) 김일성대 교수와 하재경

김기창화백 동생 조선화 선불 가져와 김일성대 교수등 유명인물 다수 포함



30일 밤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상봉장에서 북쪽 방문단 정재갑씨의 어머니 안준옥씨가 이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hani.co.kr



30일 반세기 만에 가족들과 첫 만남을 가진 북쪽 방문단원들이 이날 밤 열린 환영만찬장에서 적십자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의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hani.co.kr

(65) 김혁공대 강좌장이 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눈길을 끈다. 김봉희(68) 한덕수평양경공업대 강좌장은 해방 직후 남조선 신민당을 이끌다 월북했던 백남운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밖에 평양시내 의류상점 물자공급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홍용표(64) 지배인과 자강도 입업연합기업소 자재상사 노승득(70) 사장 등도 북쪽에서는 '알만한 인물'로 꼽힌다.

◇...비행기 이착륙 지연으로 이날 단체상봉 일정은 총체로 임크러졌다. 이산가족들은 예초 오후 4~6시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 시티에서 한꺼번에 상봉한 뒤, 서울방문단은 남쪽 가족들과 헤어져 만찬장으로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3시간쯤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쪽 가족들은 저녁식사로 거른 채 50년 만의 상봉을 해야만 했다.

북쪽취재단 society@hani.co.kr

50년 '망부가' 기적의 메아리



유순이 할머니
출로키운 아들에
"네 아버지란다"

"이렇게 만나는구먼!"

반세기 땀 흘린 한이 너무 컸을까. 30일 오후 북쪽의 남편 김중현(66)씨와 근 50년 만에 상봉한 유순이(71)씨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첫눈에 남편을 알아보았지만, 가슴에 맺힌 시련은 붉은 눈물방울이 되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제가 없어요."
김씨의 아들 영우(49)씨는 처음 불러보는 아버지의 무릎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죄인이다." 김씨는 이미 반백이 된 아들의 어깨를 기댄 어루만졌다.



북쪽 방도단 김중현(왼쪽)씨가 30일 밤 서울 연세빌딩에서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50년 동안 수절한 부인 유순이씨와 함께 사진공통취재한다.

한국전쟁 때 남편과 헤어진 유씨는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과 함께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왔다. 당시 김씨는 아내가 임신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전쟁으로 내몰렸다. 유씨는 "금방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전작 김씨는 아내가 수절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모른 채 50년을 지냈다. 지난 1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예비영단에 들어 남쪽의 누님(70)을 찾다 우연히 아내와 아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1차 상봉 때 서울에 오지 못했다.

유복자의 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일까. 아들 영우씨는 원망이 섞인 울분을 토해냈다. 이미 북쪽에서 세 가정을 이혼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말할이 없구려, 고생 많았지?" 어색한 남편의 위도에 유씨는 "이렇게 만났으니 됐다"면서도 주름진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백발잘라 붓 만들어... 떨리는 글 남긴채... 떠나가신 어머니

북 리석꾼씨 '혼절'

"아이고, 어머니!"
50년 만에 남편 땅을 밟은 리석꾼(71)씨는 동생들한테서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 건네받는 순간 고개를 파묻었다.
동생 석순(63)씨 등 남쪽 4형제가 작은 흰색 상자들 꺼내 위치 한 종이에 붓글씨가 실려 있었다.
"매가 모인 연(燕)이와 관(冠)이에게 전해줄 것"



북에서 온 리석꾼(가운데)씨가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며 마리카티를 그려 만든 붓으로 쓴 글씨를 읽어보고 회한에 잠겨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photo@hani.co.kr

다니다 소식이 끊긴 큰아들 석균씨와 북쪽에 시종간 편 석언씨를 그리며 남긴 시였다.
"당신의 한미리글 그려 만든 붓으로 쓰셨다"는 동생의 말에 석균씨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간신히 한숨을 돌리고 나시도 또 한번 눈물 흘리시며 했다.
어머니는 살아서 아끼한 한미리글만 그리셨을 사교까지 내려받으

27년이나 편지로 남겼던 것이다.
"어머니는 한순간도 형님을 잊지 못하셨어요. 당신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참대로 살아 있을 거라고 믿으셨지요."
동생 석순씨는 어머니가 80살 노구에도 글을 쓰며 헤어진 큰아들을 꼭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정성껏 지냈다고 한걸음 늦게 돌아온 형에게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전했다.

북쪽에서 온 리석꾼(가운데)씨가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며 마리카티를 그려 만든 붓으로 쓴 글씨를 읽어보고 회한에 잠겨 있다.

총부리 겨췄던 형제 서로 "무사했구나"

"그대, 전쟁통에 총을 쏘지 않은 수는 없었는지."

분단과 한국전쟁 때 전신을 사이에 두고 갈라뒀던 형제가 만났다.

서울에 온 신현문(69)씨와 함 현삼(72)씨 형제는 당시를 떠올리며 눈을 짙은 감았다.

"하이티엔 전쟁터에서 만났어. 뻔했구나." 형제는 이내 부둥켜안고 뽀뽀를 쏟았다. 곁에 있던 또다른 동생 현성(67)·현성(62)씨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다.

현문씨는 1950년 공무원으로 충남도청 운수과에서 근무하다 인민군에 추방돼 의용군으로 입대했다. 반면 함 현삼씨는 40년 국군의 모체가 된 경비대에 입대해 한국전쟁 때 격전지를 돌며 복무하다 56년 대위로 재대했다.

지난달 27일 상봉자 영단 발표 때 신문기사를 보고 동생이 인민군이었던 줄 알았다는 현삼씨는 "동생이 전선 건너쪽에 서 있었을 줄은 꿈도 못꿨다"고 말했다.

동생 현문씨는 "육 저쪽에 형이 있을 수 있다 싶어 국군과 전투할 때마다 괴로웠다"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현삼씨는 "어머니(84년 숨김)와 아버지(81년)께서 돌아가시며 "동생을 꼭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동생 이름을 고스란히 실려 놓은 호적등본을 동생에게 내밀었다.

유영택 할머니 부치지 못한 편지일기

오늘은 1985년 4월13일. 동은 조금 희박이 되어 맑고해지는 안으로 금강이 눈치고 한층은 가슴으로 든져 떠나고 나뭇가지가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잠겨있는 생각만은 싱싱하게 끓어만 가는 것 같다. 다할망 36년 봄은 또가고 있고 싶은 고향소식 보고싶은 부모형제 형사부지 간사할애 어느편 어느곳에서 백발이 그 모습들 내가 지금 보더라도 내눈이 이리되니 알아 볼 수 있을까나.

이십사시에 잃은 자식 욕심이 되었으나 못간대게 그리운 얼굴들, 팔남매 중 여섯형제 제각각 높은 모습 눈앞에 어련 거려 잊을 때가 있었느니라.

비단 바락 수놓은듯 평풍이 그린인듯 휘둘러 고향산천 풍연을 잊었느니라 그곳에서도 남쪽에서 가는 봄을 따라 재기도 날으며 고향소식 전하는듯 지시귀는 그 새 소리도 얼마나 반가우려. 손뼉 다르고 할 다르고 한대리가 활리려고 자손들을 할 때에 귀엽고 외롭구나.

고향 부모님께 너의 부친 초저녁에 한숨자고 잠겨만 첫새벽에 울떡이리나니 이이고 저소리 후유 하시며 한숨 쉬고 눈물 더고, 세세 기적소리로 가슴을 누시는 듯 목매어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어

미와 갖이 울기도 했고 슬픔도 서로 품을 생각하고 위로도 했지만 모른걸 게이 마치고 한층은 가슴으로 든져 떠나고 나뭇가지가도 어렵게 되었다.

나이 먹어서 좋은일 없는 나이였었으나 수이게 되었구나. 몇십년 지난후에 자손들이 그리던 고향이라 찾아왔다가 산도 살고 불도 산 낫산 티향 되었으니 말로 뜻던 친척들도 어느곳에 살고 있는지 누가 먼저 찾을 길 없어 헛망치고 도라갈 그 모습에 지금 내눈위에 보이는 듯하구나.

꽃도 피고 잎도 지고 봄이 깊고 짧은 것도 이눈도 모른듯 추우려진 봄은 눈을 감았다 했다 지구를 돌고 돌면 내 생전 못보던 곳 풍도 아닌 생사에 보이는듯 없는 거리고 원대한 희망은 허무로써는 되지 흔지도 없고 내 일생 한미리 끝이 되고 있었으나 그대도 정신만은 편지도 버려지도 않았으니 머릿속에 간직했다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될 도리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할 버리고 가면 후사에 가서 서지 않사간 사할을 만나볼 수 있을 게. 그런 것은 믿어 붙은 채이지만 그런 생각도 있구나.

● 유영택 할머니의 생리과 감정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김.

부모·남매 사망소식에 통곡

■ 평양 이모저모

분명 9시에 뜬다던 비행기가 순안공항에 간 안개 때문에 뜨지 못한다는 믿어 그들의 눈에는 또다시 흐릿한 안개가 끼고야 말았다. 비행기를 기다렸는데, 이까지 만나질 못 참으라. 서울과 평양의 시로 나쁜 안개가 피고 지기를 여러번, 비행기는 30일 낮 1시50분에야 평양 순안공항에 바퀴를 내리 놓았다. 평양 가리의 낯선 구조물을 지나쳐 고려호텔에서 만난 피복이들의 얼굴은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도 또렷하기만 했다.

○...48년 남편과 함께 피난하던 중에 헤어진 동생 김순자씨의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강자(76)씨는 "어머니, 아버지, 오빠, 나머지 동생들은 그새 다 죽었다"는 순자씨의 말에 동생을 붙잡고 주저앉아 울부짖고 말았다. 환원민간선 상이온 동생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소식이 먼저 이씨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일인히 피를 내는 자매다. 원래 이름이 김순옥인 이씨는 남편과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 이삿방 민지 내려온 시숙이 매달자 평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름을 몰라 '이강자'라고 적는 바람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다.

고향지도 보여주며 옛집 지형 설명 아버지 산소모신 조카에 감사 표시

○... '픽차'를 타고 평양에 온 이들의 길력은 더욱 컸다. 시골쪽(85)씨가 건강문제로 방북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비후보 1번으로 평양에 온 김병식(80)씨는 조카 정현(64)씨를 부동카인과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본인 대신 부모님을 모셨던 조카에게서 부모님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김씨는 꼭 붙잡은 조카의 등을 때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47년 아내와 딸, 다섯 남매가 남쪽으로 따라내려왔지만 부모님은 끝내 분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씨처럼 다른 사람의 불운이 자신에게 행운이 된 이기훈(83)씨도 마찬가지로 경우다. 조카 승원(61)씨는 "지회는 모두 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로 50년의 이쁜 기억을 지우려 했다.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딸이 일찍 세상을 뜬 뒤 암자를 들었던 이씨에게 피복이가 주는 따스함은 그이말로 고맙기만 했다. 이씨는 "아버지 산소가 고향에 있었다 그지 고마울 뿐"이라며 조카의 얼굴을 미음에 담아두려는 듯 아무말했다.

○...이른바 '컴퓨터 상봉'도 있었다. 직입이 컴퓨터 교육 강사인 박해수(71)씨는 그동안 수집한 알파 친척의 사진 50여장을 힐끔힐끔 분류해 북쪽 동생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미리 입수한 고향 평양 신양군 백석리 고향지도까지 보여주면서 고향집 지형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열의를 보였다. 이밖에 노환으로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간 권오승(88)씨 등 9명의 가족 상봉도 피가 물보다 진한 이유포 품으로 말해줬다. ○...이날 단체상봉은 4시45분부터 고려호텔 2, 3층 식당에서 이뤄졌다. 북쪽은 테이블마다 고유번호를 달아 지난 8·15 1차 상봉 때보다 가족식별이 쉽도록 배려했다. 방북단은 단체상봉 뒤에는 눈물이나 체 미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환영민찬에 참석했다. 환영민찬에는 안경호 조평통 시기국장, 전금진 남북장관급회담 북쪽 단장, 최윤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쪽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널 보려고 100살을 살았구나"

최고령 유두희 할머니 북 칠순아들 상봉

"오마니, 200살까지 사시라요." 올해 100살로 2차 방북단 남쪽 최고령자인 유두희(안주시 문막읍 문막리)씨는 생애의 절반 동안을 그리워해온 북쪽의 아들 신동길(75)씨한테서 "한백년을 다 사시라"는 눈물의 인사말을 받았다. 노환으로 기동이 불편한 유씨가 휠체어에 몸을 싣은 채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 들어 서자 아들 신씨와 며느리가 달려들어 부둥켜안았다.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는데도 유씨는 중풍으로 기루 고개만 흔들며 주위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래도 이들의 아끼만은 단단히 부여잡았다. 큰아들 동길씨는 8·15평북 2년 전에 입재에 의해 강제징집돼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와 한국전쟁 1년 만에 귀환했음에도 50년 이듬 어느날 인민군으로 북에 가면서 영영 헤어

어지고 말았다. 50여년 동안 법상에 주인없는 밥을 떠놓을 정도로 그리워한 이들이었다. 신씨는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여기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하면서 "며느리요, 며느리!"라며 보장기를 낀 어머니 귀에 대고 아내를 소개했다. 한참 만에 유씨는 들릴듯 말듯 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딸은 몇이나 있느냐"고 물었다. 귀를 쫓듯 새우고 있던 아들 신씨는 "아들딸 다 있어.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고 감격에 겨운 대답을 했다. 며느리도 이바님 소식을 묻자 유씨는 60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 간신히 의사소통을 했다. 신씨는 어머니쪽에 귀를 기울이며 알아들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유씨는 손자들이 공금했다. "아들이 몇살인가"라고 물었다. 신씨는 허무도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 어리광 부리듯



남쪽 이신가족 기온대 최고령인 100살의 유두희씨가 30일 휠체어를 탄 채 북쪽의 아들을 만나러 출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른 얘기를 했다. "네와 보고 싶었지 변명이 없었던 말이야." 신씨가 갑자기 웃었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큰절을 못했어요." 유씨는 그만두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아들 내외는 눈물 속에 잠겨 있고 있던 큰절을 울렸다. "오마니, 200살까지 살라요. 통일돼서 같이 살잔 말야." (아들) "통일 되도록 오래오래 사시라요." (며느리) 평양/공동취재단

'센트럴시티·메이플홀...식사실·면담실'

행사장 낯선 이튿에 '세월의 벽' 실감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장의 이름이 남북 사이에 험악한 내비를 이루 인어문화의 차이를 실감케 했다. 남쪽은 호텔 이름부터 행사장까지 북쪽 손님들에게 낯설기만 한 외래어 위생이었고, 북쪽은 남쪽 가족들에

게 또다른 의미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이 많았다. 북쪽 방문단은 '호텔 롯데월드'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센트럴시티 호텔' 6층 '말레니움'에서 가족들과 단체상봉

한 뒤 5층 '메이플 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배부른 환영민찬에 감사하며, 1일과 2일 아침은 호텔 롯데월드 2층 '리센스'에서 먹고 1일 점심과 저녁은 이 호텔 3층 '크리스탈 별룸'에서 먹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남쪽 방문단은 '고려호텔'에 머물며 이 호텔 안 '식사실'을 이용하고 '인정면담실'에서 가족과 만나고 '동식식사실'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연방

1차때 못 만나 감격 더 커져

겨레의 만남

2차 이산상봉



애태운 상봉현장

"이번에도 못 만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지난 1차 상봉 때 북쪽 땅 괴물들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했던 남쪽 이산가족들이 겪은 100여일의 '희망앓이'는 기대와 체념, 자포자기와 자기 위안으로 점철됐던 50년 세월의 축소판이었다.

"몸이 닳고 마음이 타들어가 뒤척이고 안절부절못했지요."



영정에 집 30일 밤 서울 센트럴시티 상봉장에서 북쪽 방문단 홍세한(오른쪽)씨가 어머니 박간례(90)씨가 가져온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0일 '희망앓이'...더이상 기다림 없어야

2차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이륙진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상봉장에 드인 이산가족들은 "차라리 살았는지 숨졌는지 몰라 답답할지라도, 생존 사실을 먼저 알고도 받침을 이루 기관 참갈르 어려웠다"고 털어냈다.

이번 서울방문단 100명 가운데선 무려 71명이 1차 상봉 때 가족의 생존이 확인된 이들이었다.

"죽었을 것이라고 포기했던 형님이 1차 상봉 명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 이후 사실 숨 피나 마셔왔습니다." 서울방문단 구재협(70)씨의 동생 재만(59)씨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난데없는 겨울 안개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느라 발을 굴렀던 남쪽 가족들은 저녁 늦게야 남으로 들어선 북쪽 가족을 발견하자 감격의 물결이 증폭됐다.

구씨의 남쪽 형제 가족들이 무더기

로 상봉장에 몰려와 "부활 구제협 형님 구환 축하" 등의 5~6장의 격문을 써들고 기다렸다. 저녁 늦게 모습을 나타낸 재협씨를 발견하고 감격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재협씨도 마찬가지로 "그려, 그려, 반갑다. 반가워, 이렇게 잘 살아줘서 참말로 고맙다"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1차 방문단 명단에 들었다가 막판에 뒤로 밀린 김영홍(69) 김일성종합대 조선어문학부 교수의 누나 옥안(81)씨도 그랬다.

그는 팔수를 넘긴 몸이 할애했어 오르고 열이 올라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꼭 만나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어. 그러도 안되더라고. 이번엔 단단다는 보장도 없었어. 어쩌지 해서 살아왔는데, 공부 잘하고 나를 따랐던 동생이 살아 있다는데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

김씨 오누이는 얼굴을 쓰다듬어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한참을 부둥켜안고 있었다.

하지경(65) 김척공동대 강좌장의 형 재인(74)씨도 100여일의 희망앓이여 물에 젖은 솜처럼 친근 만근이 된 몸을 날려 동생을 부여안고 마냥 울었다.

그는 "천군다행으로 이제라도 단났으니 한을 풀었다"며 "다음 상봉 자쯤에선 이처럼 몸과 마음의 진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은 하나같이 이전 이산가족들을 포함한 여태우지 않고 기다림 없는 상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김영옥씨 '각본없는 연기'

한국전때 헤어진 70살 오빠 만나 울먹

한갑을 넘긴 여동생이었지만 오빠 앞에서는 여전히 '할부지' 같았다.

"학교 갔다 온다더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려, 내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연희전문 영문과에 다니다 한국전 당시 헤어진 큰오빠 영환(70)씨를 만난 종전 연기자 김영옥(63)씨가 반세기 만의 만남을 실감하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눈시울만 붉혔다.

잠시 무거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상봉장에 함께 있던 둘째오빠 순환(68)씨와 영옥씨, 여동생 영자(60)·영순(56)씨 등 5남매가 서로를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며 50여년 만의 만남은 현실이 됐다.

흰찰한 외모에 조용하면서도 늘 자상하게 동생들을 돌보면 영환씨가 의용군에 입대한 것은 한국전이 벌어진 뒤 한달 남짓 지난 7월 중순 무렵이었

다.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문뿐 생사확인도 못한 채 반백년이 흘렀고, 부모님은 큰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은 채 10여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

감격의 눈물이 잦아들 무렵 영옥씨는 "지난 8·15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보여 오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무던히도 울었다"며 "그저 오빠가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여잡은 손을 놓지 못하던 5남매는 옛 추억을 하나둘씩 반추하며 어느새 50년 전의 소년·소녀 시절로 물아가 있었다.

특별취재팀

“이 아이가 뱃속에 있던 아들이라우”

2차 이산상봉



“미안하오.”
30일 남측 상봉장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호텔 뒤편다임홀에서 이루어진 열 여덟 세 신랑과 스무살 각시의 50년만의 재회는 밭밭이 흐르는 눈물로 시작됐다.
“의용군 몇 달만 다녀올게”라며 길을 떠났던 김종현(金重鉉·68)씨와 남편을 기다리며 수절해 온 아내 유순이(柳順伊·70)씨는 하얗게 얼얼한 미주보다 두 손을 마주 잡은 후에야 반백년 맺힌 한을 쏟아내듯 울음을 시작했다. “여보, 이 아이가 당신이 떠날 때 뱃속에 있던 아들이라우.” 김씨는 자신을 부여인온 채 어깨만 들먹이는 영우(永祐·49)씨의 뺨을 어루만진다. “임자, 곱던



김종현씨(왼쪽)가 50년만에 만난 아내, 아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의 사진을 보며 흐뭇해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0년 수절 유순이 할머니 남편상봉 18세 신랑·20세 각시로 돌아가 눈물

입술은 옛 모습 그대로구려, 왜 입신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소, 새기했을 거라 생각했는데...고생만 시키고 내가 죄인이네, 죄인이라며 가슴을

쳤다. 영우씨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요”라면서 큰 절을 올린 후, 주눅진 김씨의 손을 놓을 줄 몰랐다.

영우인 유씨의 손에 지란 김씨의 동생 응현(應鉉·55)씨는 “제가 다 잊을 때 헤어진 응현이예요. 기억 나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형님이 폭격에 돌아가셨을 것이라며 재가를 권유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형수님은 10여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저까지 키워주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다는 말에 부모님 사진을 움켜쥔 채 흐느낌 속에 ‘사랑곡’이라는 자작곡을 부른기도 했다.

눈물을 멈춘 노부부는 50년 전 신혼 때의 애절한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다. 서로 가져온 가족사진을 둘러보며 아이기뭇을 피우고, 8월 1차 상봉 당시 최종명단에서 탈락했을 때의 이품을 서로 위로하기도 했다. 꿈 같은 상봉을 마치고 일어나는 김씨의 두 손에는 유씨가 챙겨준 시계 2개와 내복 2벌이 들려 있었다. “새월이 그런 걸 어떻게 하우, 북의 가족과 정답게 나눠 가지 시라고 준비했어요.” 유씨의 말이 었다.

/인준현기자dejavu@hk.co.kr



김영욱씨(오른쪽)가 큰 오빠 김영환씨(기운대)에게 준비한 가족 계보도를 보이며 설명해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빠생각 부르며 50년 기다려”

탈런트 김영욱씨 오빠만나

“50년만에 봤는데 아직도 본 얼굴 같아요.” “니도 우리 영욱이 얼굴 킷 눈에 알아 뵈나.”

김영욱(63·여)씨는 누구나 손꼽는 배틀라연가사. 하지만 30일 반백년만에 만난 북의 오빠 김영환(70)씨 앞에서는 눈물 연기가 따로 뵈지 않았다. 영환씨의 상봉장에 남동생 승헌(67), 여동생 영옥(60), 영순(55)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지나온 이복 삶의 기억들을 씻어냈다.

“오빠는 죄인의 기둥이고 기대주였잖아요. 오빠가 가르쳐준 ‘오빠생각’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라고 영욱씨가 먼저 밭밭을 열자, 오빠 영환씨는 “힐부지

갑던 네가 남쪽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배우라나 만가지 없는구나”라며 환한 웃음으로 답했다.

연화전문 영문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영환씨가 도서관에 갇다며 집을 나선 것은 1950년 7월. 영욱씨는 “대학에서 농구선수로 활약하며 환할한 위모로 여지들의 우상이었던 오빠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런 오빠가 전쟁중에 죽은 것으로만 알고 온 가족들이 눈물로 밭을 지냈다”고 회고했다.

오빠 영환씨는 영욱씨가 “하지만 어머니(노득진)는 89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빠를 보고 싶어하셨다”고 전하자 다시 한번 동생들의 손을 부여잡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김훈기자hoony@hk.co.kr

“형님 얼굴만이라도...”

운보동생, 오늘 병실상봉 가능성



“형님 병세는 어찌나.” “말이 편찮으시지만 작은아버지들 무척 보고싶어 하십니다.”

30일 오후 센트럴시티 단체 상봉장에서는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88) 화백의 옛 제자 김기만(基萬·71·화가·

사진)씨와 운보의 아들 완(完·51)씨도 만났다. 사촌인 기중(基仲·77)씨, 먼 손자별인 영소(永昭·52)씨도 나왔지만 기만씨는 형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

간접한 표정으로 “형님을 꼭 만나 가슴 속 못한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한 기만씨는 “미술대를 나와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도 늘 ‘네 큰아버지 만큼만 하라’고 얘기한다”며 형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애정을 나타내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의 운보는 병세가 약간 나아져 산소호흡기는 뺐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가장 이끼는 71년작 ‘승무(僧舞)’와 작품 5,000점이 수록된 5권의 전작도록(全作圖錄)을 일찌감치 준비해 놓았다.

완씨는 “두 분이 만나게 해줄 것을 한직축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1월 오전 아버님을 일반병실로 옮겨 작은아버지들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룡(朴基龍) 한직 사무총장도 “북측 대표단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1차 상봉 때의 전례가 있는 만큼 병실 상봉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낙관했다. /정홍욱기자ltreos@hk.co.kr

“애비없이 어찌 살았니”

2차 이산상봉



■ 평양에서

“살아있어 고맙구나”

현서욱씨 유복자 첫대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생면부지의 이들은 어버지들 부둥키 안았고,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는 미안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현서욱(玄時勳·81·부산사 남구 대연동)씨는 반세기 만에 유복자 주민(50)씨를 처음 만났다.

여동생 순애(61)씨만이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양에 갔지만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만나게 된 것. 현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님이 권했던 남행(南行) 함경도 흥남 출신의 현씨는 1951년 11월 임신 8개월된 부인 지순호씨를 고향에 두고 홀로 배를 탔다. 석달이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피난길이 반백년이 됐다.

남에서 외롭게 살다 고독을 참지 못해 15세 연하인 우덕봉(65)씨를 만나 새로 기침을 꾸렸지만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갔다. “그 동안 강압으로 고생했지만 여동생과 유복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나를 병상에서 일으켰다”는 현씨는 “너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끈질기게 살았다”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평양=공동취재단

혼자온 아버지 “네엄마도 같이 왔으면...” ‘아름다운 양보’ 우원형씨 동생들 만나 “오빠 왜 이제왔어” 바닥 주저앉아 오열

30일 오후 4시45분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에서 헤어진 북측 가족들을 만난 남측 가족들은 2시간5분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다.

단체상봉 피난중에 북에 홀로 남겨두고 온 큰 아들 상순(55)씨의 얼굴을 마주한 현정시(韓正時·80)씨는 반세기 동안 외로웠을 아들을 부둥키안고 눈물만 흘릴 뿐 말이 없었다. “애비 구실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나 고생이 많았나” “고생이러라” “나 아버지 알려 덕택입니다” 답답한 얘기가 있지만 50년의 한을 담긴 대화였다. 아버지는 “남에 있는 내 어머니(정성삼·79)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아나”며 부인이 함께 오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8·15 1차 상봉 당시 100세 노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은 장이윤씨에게 남북기회를 알보했던 우원형(禹元亨·7·67)씨는 여동생 옥희(64)씨와 남동생 인항(仁恒·61)씨를 상봉하는 순간 “어디 보자, 옛날 그대로구나”라고 울부짖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옥희씨는 단체상봉장에서 오

빠짐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상봉장 바닥에 주저앉아 “오빠야 어디 갔다 이제왔어”라며 오열했다. 우씨는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했까 봐 오는 동안에도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1951년 1월 종교 탄압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온 양철영(楊澈泳·81·서울 미포구)씨는 부인 우순애(73)씨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혼자서 살아보니 부양하고 아들 손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평양 신정현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활동하다 결혼한 양씨 부부는 함께 남행을 결심,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함해도 송화를 떠났으나 구원신진주 때문에 이산가족이 됐다. “요즘도 혼자기도를 드리느냐”고 물어보러던 양씨는 “위대한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 때문에 잘 살고 있다”는 부인의 말에 준비한 말을 기두었다.

북의 동생 박해조(59) 해방(56)씨를 만난 박해수(朴海洙·72·서울 광진구)씨는 수집한 일가 친척의 사진 50

여장을 새세히 분류해 동생에 전달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동생들의 모습을 직접 담기도 했다. 시암화가 김현(金峯·73·서울 김서구)씨는 북에서 유명 시인시인이 된 동생 김철(67)씨 가족과 만나 “생전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다”면서 임신 동생의 얼굴을 매만졌다. 당초 방문단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참가 예정지의 포기로 반복 끝에 올랐던 김영식(金明植·89·경기 포천군)씨와 이경훈(李京勳·84·경북 김천시)씨는 조카들을 만났다.

환영만찬 및 평양도착

남측 가족들은 단체상봉 후 평양 김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한 만찬에 참석,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량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평양 시민들과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여러분이 2·1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헤어졌던 가족 친척들과 상봉하여 가슴 뜨거운 혈액의 정을 나누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에 봉두원(奉斗玩) 남측단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깊이 상처 받은 이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픔을 어루만져 주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남측 방문단은 이날 낮 12시45분 대한항공 815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을 떠나 오후 1시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허혜룡 북한 직심지의 부위원장, 최원식 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 등의 환영을 받았다.

/평양=공동취재단

“절 받으세요” “안아보자”

30일 서울 사초구 빈포동 센트럴시티 6층 이산가족 상봉장은 이산의 한(恨)과 재회의 기쁨이 어우러져 기대된 눈물비라도 내렸다. 북측 방문단이 예정보다 4시간이나 늦은 오후 8시30분에 상봉장에 들어서자 기다리던 남측의 가족은 뛰쳐나가 어머니, 아들, 누이, 아우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의 눈물과 뽀짝을 티뜨였다. 그러나 행사장 곳곳에서는 간간히 웃음과 박수가 울리나오기도 했고, 노래를 부르는 가족들도 있어 1차 상봉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너를 보려고 지금껏 살았어.” 남쪽의 어머니 박간례(90)씨는 50년간 죽은 줄만 알았던 큰아들 유새원(69)씨를 만나자 마치 평생 눈물 흘렸을 듯 울었다. 새원씨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직접 참 껴워줘 주셨는데...”라며 뺨글을 잊지 못했다.

귀가 어두운 어머니는 이들의 말을 이심전심으로 알아듣고 끄덕이며 등을 어루만졌다. 박 할머니는 “사랑들이 네가 폭력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린줄 알았어”라며 이들을 꼭 껴안았다. 이들은 “간강하세요. 통일이 되면 꼭 모시러 오겠어요”라며 차마

“재가하고 무슨 낯으로” 뒤늦게 나오기도 즉석에서 어머니영정 모시고 눈물의 제사 빗겨진 아들머리 만지며 “고생 많았구나”

쪽애 얼굴을 물었다.

○“아버지, 절 받으세요.” 아버지 신용대(81)씨를 만나러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귀국한 문재(文宰·50)씨는 아버지를 대번에 알아보고 절부터 올렸다. 아버지도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빗겨진 머리칼 어루만지며 “너도 나처럼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문재씨가 생후 2개월 때 전쟁의 혼란과 함께 가족을 떠났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신 후 나도 이 말을 떠났죠.” 흐느끼는 이들을 아버지는 “네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지. 그 사랑의 인연으로 너를 다시 만나게구나”라며 껴안았다.

○“누님 많이 늙으셨구려.” 평양 직물도매소 지배인 홍응표

(64)씨는 누이 임순(69·경기 성남시 수정구)씨를 만나자 마자 몸을 떨었다. 누이는 “혈육이라고는 너하고 나 둘 뿐인데 이게 무슨 비극이나”며 흐느꼈다. 경기 고양군이 고향인 용씨는 한국전쟁중이던 14살때 부모를 잃은 뒤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수호”를 받기도 했다.

○상봉장에서 북의 아버지 황영규(76)씨를 기다리던 황 상애(54)씨는 어머니 심금분(75)씨의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 오셨군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밥을 달라고 재가한 내가 무슨 낯으로 네 아버지를 보겠느냐”면서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워 주변을 안타깝게 해왔기 때문이다. 모녀는 이날 상애씨의 둘째고모 영철(66), 막내고모 영금(61)씨, 상애씨의 아들 오경석(34)씨와 함께 황씨를 50년만에

2차 이산상봉



■ 서울에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즉석에서 차례를 지내는 가족도 있었다. 남쪽의 누나 김영태(73)씨를 상봉한 황태(71)씨는 즉석에서 어머니 영정사진과 과일, 당근주스 등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50년 만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눈물 대신 웃음과 애기 꽃을 피우는 가족도 있었다.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 의용군에 징집된 정재갑(66)씨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슬피 울고 있냐”며 어머니 인준옥(88)씨와 눈물을 주고 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배성규기자 veg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北측 한결 여유... 춤·노래 ‘잔치’

■ 달라진 北방문단 모습

여성들 화려해진 옷차림

표정도 부드러워져

30일 서울에 온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8~15차 상봉 때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울의 밤을 즐

기는 듯했다. 특히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서울 사초구 빈포동 센트럴시티 5층 베이클럽에서 열린 환영만찬은 식사와 춤이 어우러진 잔치마당이 됐다. 북한 직접자와 관계자가 식사 도중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박자가 빨라지면서 테이블 곳곳에서 북한 할머니들이 어깨춤을 추었다. 이어 ‘우

리의 소원’ 노래가 이어졌으며 일부 선이 난 방문단과 남측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 어깨동무한 후 몸풀음 춤과 즉석 합창무대를 펼쳤다.

반주로 내놓은 포도주의 문배주는 모두 깨끗하게 비워졌고, 가족들은 모두 불쾌해진 얼굴로 만찬을 즐겼다.

웃침에도 대부분 비웃었지만 훨씬

더 맛을 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여성 상봉단원들도 모두 반코트를 걸치고 속에는 검은색 비단에 화려한 원색 꽃무늬의 우단 개방한 복을 입고 있었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웠다.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서는 우리측 안내원에게 스타그램이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 건넸다. 집 단상봉장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동인 ‘김정일 장군님’을 언급하는 횡수도 훨씬 줄어들었고, 고향 얘기와 안부로 화제물 이어갔다.

/정희화기자 jeong2@hk.co.kr

피말린 관제탑

“이놈의 안개가 걷히지 않습니다. 왜 하필 오늘...” 평양 순안공항의 안개로 김포공항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을 태운 대한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되는 동안 대구와 평양 향로교통관제소(ACC)의 관제사들도 발을 동동 굴렀다.

오전9시 직전 “이륙 힘들겠다”... 北 급전

출발 예정시간인 오전 9시 직전부터 대구 ACC에 설치된 직통전 화선은 평양으로부터의 급전으로 연거푸 울려댔다. “시정 150m의 안개로 10시에는 이륙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안개가 걷히지 않습니다. 오전 11시30분 이후로 변경합니다.”

“이놈의 안개가 걷히지 않아 오전엔 못 옵니다.”

항공기 착륙이 불가능함을 계속 해 알려오는 북측 관제사의 연락을 받는 남측 관제사 모두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낮 12시18분께 평양 ACC로부터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이륙해도 좋겠습니다”라는 통

12시18분 “안개가 걷히고있다”... 南 탄성

보가 오자 대구ACC에서는 관제사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낮 12시45분 김포공항을 이륙, 서해로 빠져나간 대한항공 KE-815편은 45분여 뒤인 오후 1시30분께 북위 38도, 동경 124도20분 지점의 관제 이상점에 다다랐다.

“관제탑 남긴다”는 의미의 ‘핸드 오프(Hand-Off)’를 외친 뒤 대구ACC 관제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4시간 동안의 안타까움과 애디는 조바심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정래준기자 rajun@hk.co.kr

“넌 보려 100살 살았어...”

2차 이산상봉



“어머니 내 동강이 밥 입이 보겠어...”

남쪽 방문한 중 최고령인 백수(白壽·100살)의 유두희(柳斗熙·김원 임주서 문약음) 어머니와 50년만에 재회한 북의 늙은 아들 신동길(申東吉·75)씨는 어머니의 위 협을 손으로 감싸며 어떻게 오였는지

신씨는 한때에 않은 어머니와 부둥켜 안은 채 눈물 흘린 채 어머니는 희한과 감격에 목이 뻐뻐 가개소로 신

■ 유두희-신동길씨 母子

50년동안 끼니때마다 아들밥 떠놓고 재회 기원

“이젠 모셔야 하는데...”

北아들 노모품에서 오일

음소리만을 들려왔다.

이들의 목소리에 팔리는 미음을 거라 없던 신씨는 위글을 들이 “너를 만나려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지. 이제는 죽어도 되었다”며 희한의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이들 신씨가 “어머니, 만나드립니다.”라고 소개하자, 유씨는 “만나려...”라며 어머니 리희순(66)씨의 손을 꼭 잡았다. 유씨가 “어디든 빛이다”고 묻자 희순씨는 차이나니 귀에 입을 대고 “아

들 하나, 팔 돌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유씨는 기억을 되찾은 듯 “동순이(63·동길씨의 여동생)난 아들 하나에 할 다 있어. 막내(아들)가 대학 다니고 딸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시집갔어”라며 얼룩의 인부를 잊지 않았다. 이어 “내 아버지는 62세에 돌아가셨어”라고 울먹인 뒤 현중인 입을 잊지 못했다.

유씨는 한국전쟁 당시 25세이던 아들 신씨가 인민군에 징집되면서 생이별을 해야 했다. 고한인 원주시 문약음에서 동길씨가 징집될 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된 50년동안 끼니마다 동길씨의 밥을 떠놓고 인생을 가워하며 아들과의 재회를 고개해 왔다.

“살아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의 여성만이라도 제가 보실뻔이 하는데...” 신씨는 끝내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사무친 그리움을 뽐내며 도해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북의 형 입순옹씨가 믿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동생 준옹씨에게 글을 써주고 있다. 황새강의 대화는 중간에서 여동생이 글을 읽고 준옹씨에게 수화를 통해 전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50년의恨

“손짓으로...”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가 천마다 밥을 내신입니다.”

50년 ‘침묵의 기다림’ 끝의 만남이었다. 30일 밤 인준음(林俊恩·64·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씨는 서울 센트럴시티호텔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형 순옹(順恩·65·평양외국어대학 연구사)씨를 보지마지 안타까운 손짓으로 그리움

과 힘줄 표출해

냈다. 준옹씨는 사고로 이음할 때 형력과 언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

“답답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겁니다.” 큰

오버를 위해 분음세 장미꽃다발을 준비해온 이동영 순사(順宇·54)씨는 “최은오씨가 글을 모르잖. 사람이 오뉴저기만 안타까운 적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50년 세월도, 신재지 장애도 형욱의 죄 앞에서 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형 순옹씨가 흰 종이에 “나한테 하고 싶을말 없다”라고 써서 건네자, 옆에 앉아 준옹씨의 입 모양을 읽은 순지씨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적었다. 종이를 받아온 순옹씨가 “읽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리자, 준옹씨는 모두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준옹씨는 상봉장에 먼저 도착, 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동생에게 “헤어지기 전 어렸을 적에도 손짓, 밭짓으로 무슨 얘기든 했다”는 뜻을 전하며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눈물로 먹을 갈고 백발로 붓 만들어...”

■ 北리석군씨, 어머니 유작시 ‘상봉’

“내가 오면 언(恩)이와 공(功)에게 전해줄 것. 눈물로 먹을 갈고 백발로 붓 만들어. 떨리는 손에 붓을 쥐니 손따라 붓이 떨고 (어머니)씨는 꽃이 어머니의 묘자 상봉... 어머니께는 못왔나 보다 1990년 8월 11일”

아들그리는 절절함이

詩 노트 27권에 가득

머리카락 만சி미 오일

50세이 온 리석군(72)씨는 서울 반포동 현대문화재단 상봉장에서 시화(63·시화 감독)씨 등 남쪽 문약음의 대동은 어머니 유(柳)씨(72)와 50개년의 유자 재(在)를 전해온 반재가 돌아온 백의 한의 눈물을 읽기 좋아했다.

“이 시는 어머니가 원한을 풀고 싶어 쓴다. 백발로 붓을 만들어 쓰겠지요” 시화씨가 내기, “27권의 책 새운 시화의 시언을 설명해주자 리석군은 한

동안 눈을 잃었다.

어머니 유씨는 94년 서울 거주기 전 어둠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집 모아 “내 몸이 나 온다”란 제목의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리석군은 시집 헌법에 “어머니 백발이다. 붓과 함께 만지보아라”는 한 맺힌 글귀와 함께 남자의 한 머리카락을 만지매 다시 오였

었다. 눈물을 그친 리석군은 문약음에 어린 시절 함께 써온 밭매 시집을 보여주자 리석에서 “시화에서 만난 동생”이란 제목의 시집 옮기기도 했다.

“23세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린 손자를 갖고 개산 죽은 분한어요. 어머니의 자(在)정성이 지금 남쪽까지 오



리석군씨가 어머니가 생전에 남겨놓은 머리카락을 만지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한 것 같어요” 리석군은 헤이할 수 없는 모진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용식기자 jwahl@hk.co.kr



북측 방문단 출세한 씨가 30일 저녁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심봉장에서 남북에 살아계신 어머니가 안고 있는 부친의 영정에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얼굴 부비고 만져보고...

여기는 서울

특별취재팀

단체상봉장인 센트럴시티 입레니 인물은 가깝의 눈물이 곳곳에 흐르는 풍경의 바다였다.

상봉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고 한껏한 풍경이 배아리로 울려 퍼졌다.

이산가족들은 부동커인은 새 얼굴을 부비고 만져 보며 꿈이 이남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개인별로 마련된 100개 테이블에는 편양에서 온 방문단을 둘러싼 남북 가족들이 해후의 기쁨을 활짝이 토해냈다.

○...북측 서울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신용대 씨(81)는 '이들과 여동생'을 만났다.

신씨는 "가족과 헤어진 후 50년 동안 가족과 인연기는 만나려고

매일 운동을 빠짐없이 하고 과식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힘썼다"며 "그러나 아들 생일도 모르니 아버지 도리할 못했다"고 부끄러워했다.

가족 만나려고 헤어진 후 50년간 꾸준히 건강관리

신씨는 아들에게서 죽은 아내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지금까지도 혼자 산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다. 내가 죄를 많이 짓어"라며 울먹였다.

○...북의 김책공업대 김치장 하재경 씨(65)는 남측의 함 재인 씨(74)와 감격의 심봉을 했다.

그는 함을 만나자 "외 혼지나. 아버지 다른 함남들은 다 어디갔는 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함 재인 씨는 남측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두 사람은 남북 박사 형제의 만남이었다.

○...1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지해 상봉장에 나온 안형원 씨(81·서울 서대문)는 북에서 온 막내동생 필원 씨(70)를 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함 형원 씨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고생 많았지"라며 동생의 손을 잡았고 동생 필원 씨는 "건강하시어 하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북측의 정재갑 씨(66)는 동생 재국 씨(57·중앙대 물리학과 교수)가 "형 나 기억나"라고 묻자 "내가 너희들 얼굴을 잊지 않으려 매일 이름을 외었다"며 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해 보이기도 했다.

"이산상봉 통일에 큰 기여"

□北 장재연단장 도착성명

북측 방문단장인 장재연 조산적 신자회 중앙위원장은 30일 오후 내한항공 81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북측 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남북 동포들에게 전한다"며 "따뜻한 환대에 감사표현한다"고 도착성명을 발표했다.

장 단장은 이어 "이산가족 교환 방문이 두번대로 진행되는 것에 온거레가 다같이 기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조국통일을 촉진하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북한과의 대남 관련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북한 종교계 인

사로 남북관계 전문가.

올해 64세인 장 단장은 지난 89년 조선키보러협회 회장을 맡으며 시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 '따뜻'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은 포근한 날씨 속에서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개별상봉이 이루어지는 1일 서울의 날씨는 남해상을 지나서 의한 기압골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맑은 후 구름 많이 보이는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30일 "서울은 12월 1일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이루어진 30일 서울은 구름 많이 끼고, 평안은 구름 조금 끼다가 한때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다.

남북 이산가족 2차상봉

남과 북에 헤어져 있던 합유을 만난 이산가족들의 기쁨은 50년 단절된 단숨에 뛰어넘었다.
그러나 부모 합재를 만난 가족은 지나간 세월을 되돌리며 옛모습 찾기에 바쁘고 인고의 세월을 끌어안은 모습이었다. 기쁨만 기대반으로 만난 합유들은

부모의 사망소식 등을 전해들은 뒤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은 긴 헤이기는 나중에 하지며 역시 50년 만에 어렵사리 이루어진 상봉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白髮 유품 안고 통곡

兄弟 北 리석균씨 南 이석오씨

특별취재팀

남측의 박대중생 이석오 씨(51)와 석순(69) 석정(63) 석훈 씨(61) 등 형제는 50년 만에 만난 큰 할 리석균 씨(72)를 부둥키 안고 일곱을 무비로 시로록 확인했다.
"인연이 풀어야 돼서 만나면 전해달라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동행할때서 전달받은 어머니의 머리카라와 어머니가 백발로 만든 붓으로 썼다는 시 등 유품을 꺼내안은 리석균 씨는 허탈없이 눈물만 흘

렸다. 어머니 유암대 씨가 머리카라와 배갯잇을 만들려고 간직해 놓았다는 친조각 부채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드었던 노르스 어머니의 한이 시려 있는 분신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유씨는 이들을 그리워해 편소 있던 시를 모아 94년 내 끌어내 온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했다.
세월에 빛이 바랜 어머니의 유품은 50년 전단으로 귀을 수밖에 없는 아픔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이들에게 남긴 유품꾸러미에 '엄마의 백발이다. 보고할 때 만져보아라'고 메모를 남기 그리움을 전해놓았다. 어머니의 채취가 그대로 느껴지게 증본했다.

북측상봉단 리석균 씨의 어머니가 지식을 그려며 자신의 백발로 만든 붓으로 쓴 시...
눈물로 베풀었고
백발로 붓을 만들어
떨리는 손에다가 붓을 쥐니
손바닥 붓이 떨고
붓따라 떠는 글도
하치연아...
이석균아
시...
북이 어디에나
모두 상봉 아마도
...
2000년 8월 14일 부산에서

재혼한 부인과 극적 상봉

夫婦 北 황영규씨 南 성금분씨

황성에 씨(55·서울)는 아버지 황영규 씨(76)를 이들과 함께 만났다. 이들의 상봉은 성에 씨가 5살 때 아버지가 모내기할 하다 의용군으로 끌려간 후 50년 만이다.
"유이가신 것으로만 여겼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는 황씨는 "아버지가 너무 흥분해 놀라시

기라도 하면 드리려고 우황청심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황씨의 부인 성금분 씨(75)는 30일 아침까지만 해도 자식을 때놓고 개기한 것이 죄스러워 남편 황영규 씨와 상봉하는 것을 꺼려했다가 마음을 바꿔 단체 상봉장에 나타났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 안부를 묻자 잠시 얼굴을 숙인 채 성씨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다"며 울먹였다. 마음을 진정시킨 두 부부는 이후 "너보다 더 늙었네요"라는 부인 말이 "아 그런 세월이 없는데

안녕해"라며 시종일관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했다. 황영규 씨는 부인에게 "전화라도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이날 두 부부의 극적인 만남은 성씨가 재가해 낳은 딸들이 회사 출근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심독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딸 성에 씨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낡은 사진 속의 모습과 어릴적 무릎을 태워 동내를 거닐던 것이 전부"였다며 "아버지, 아무도 몰랐던 그날까지 건강하세요"라며 통곡했다.

네 엄마도 오고 싶었는데...

父子 北 한상순씨 南 한정서씨

협망 = 공동취재팀

51년 1·4주 때 잃어버린 큰아들 한상순 씨(55)와 마주한 한정서 씨는 간 세월 외로웠던 이들을 부둥키안고 눈물만 흘리던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애미 구할 못해서 미안하구나. 혼자서 अपना 고생이 많았나."
"고생이려니도 아무일 없습니다."
"자식을 훌륭히 키우고 사람 구실 닮았구나."

"다 아버지 업러 덕택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부모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힘든 길을 올라왔다며 업러하는 자식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한씨는 손녀 소식부터 물었다. 손녀명희 씨(23)가 지난해 첫눈을 날렸다는 소식에 "그런 내가 증손녀를 본 거야"라고 흐뭇해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꿈에도 그리던 큰아들의 생존을 확인하고도 방문단에는 한명만 포함했다는 소식에 집안했던 아내 정상실 씨(79) 모습이 떠올랐다.
같이 오지 못한 아내 모습을 전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까 생각해

지만 이들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차마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다.
한씨는 "네 엄마가 너를 업어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 원래 네 엄마가 먼저 (이산가족 찾기) 신청했는데 기구주가 신중해야 한다기에 내가 대신 오게 됐다"며 부부가 같이 오지 못함을 아쉬워 했다.
하지만 상순 씨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듯 "오실 기회가 또 있었죠. 저는 고생 모르고 왔으니 걱정 인해도 된다 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본문 외견·재보 social@mk.co.kr

1일 일정

- 시간 서울(북측 방문단)
- 10-12 개별상봉(호텔객실)
- 12-13:30 가족 공동중식(롯데월드호텔)
- 13:30-16:30 2차 개별상봉(호텔객실)
- 16:30-18:30 정권(롯데월드 민속관)
- 18:30- 통일부 정권 현송 민천



- 시간 평양(남측 방문단)
- 10-12 개별상봉(호텔객실)
- 12-13:30 가족 공동중식(고려호텔)
- 13:30-16:30 2차 개별상봉(호텔객실)
- 16:30-18:30 정권(평양 인민)
- 19:00-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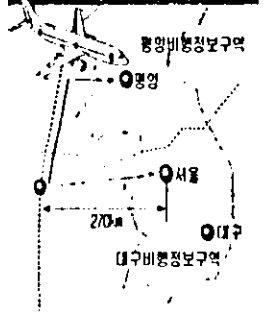
서해상 2차 비행 40분만에 도착

이번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간 비행항로는 지난 8월 1차 이산가족 상봉 때와 같다. 시해안을 'ㄷ'자 형태로 40분 가량 비행해 평양과 서울을 왕복하도록 한 것.

30일 낮 12시 47분 대한항공이 먼저 남측 평양방문단을 싣고 평양에 도착한 뒤 바로 북측 서울방문단을 데리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는 대한항공 815편으로 기종은 A330-200이었다.

이산방문단 비행길



오빠 모습에 눈물 줄~줄~

여기는 평양

평양 = 공동취재단

○“제가 삼은입니다.” “내가 아버지는 사람이다.” 분단 반세기가 갈라놓은 가족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기도 했다.

홍양국 씨(86·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이름의 말미 비수처럼 들리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로 사죄했다.

삼은 씨는 아버지를 불간고 “아버지 어디 갔다가 이제 왔습니까”라며 애절한 심정을 나타냈다.

삼은 씨는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그냥 내려두고 있다가 만나니 내가 미안하구나”라고 대답했다.

○30일 오후 4시 45분께부터 평양 고려호텔 2층과 3층에서 진행

평양 ‘포근’

기상청은 이어 “평양 역시 맑은 후 구름 많아지는 날씨를 보이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상 6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30일 아침 무렵 평양 순안공항에 건 집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150m에 불과해 방문단의 평양 도착이 지연됐다”며 “그러나 오전 12시 30분 이후 안개가 걷히면서 평양은 낮 최고기온 영상 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30일 남측 양영철 씨가 평양에서 북에 두고온 부인 우순애 씨를 만나 부둥켜안는 채를 먹이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된 이산가족 단체상봉은 하나 둘씩 가족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분단 반세기의 간격을 좁히려는 듯 가슴 가까이가 가족을 끌어안는 가족들

도착 늦어지자 안왔을까봐 안절부절하기도

의 얼굴에는 상봉의 기쁨과 지나간 세월의 무상함이 동시에 교차했다.

동생 김석화 씨(72)를 만나러 평양을 방문한 김윤하 씨(84·강원 춘천시 후평2동)는 “내가 윤하야. 모두 내 잘못이지”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같은 자리에 나온 이류삼우(56), 상욱 씨(52)는 마치 알아

보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평양 공항 기상악화로 도착이 늦어짐에 따라 단체상봉 일정도 순연했다.

고려호텔 2, 3층에서 동시에 진행된 단체상봉은 북측 가족이 상봉장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측 가족이 상봉장에 도착하면 만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만나기로 했던 가족이 늦게 도착한 북측 가족은 옆 테이블을 톺아리며 지켜보며 초조한 빛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남측 가족의 입원번호와 북측 가족의 테이블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가족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우원형 씨(67·서울 서초구 잠원동)를 만나러 온 북측 여성생 육희 씨(64)는 다른 테이블에서 먼저 상봉이 이뤄지자 “혹시 안오는 것이 아니냐”며 안절부절못하다가 오빠의 모습을 본 뒤 울음을 터뜨렸다.

“이산의恨 하루속히 풀어야”

□南 북두원단장 도착성명

남측 상봉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북두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30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제2차 이산가족 방문 의의를 담은 도착성명을 발표했다. 북 부총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남녘에 있는 1000만 이산가족의 희망과 염원을 안고 평양에 다시 왔습니다”라고 밝히고 “50여 년 동안 맺힌 이산의 한을 하루속히 풀어주는(일문)이 이산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 없는 민족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진정한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길”이라며 “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을 뛰어넘어 민족의 간격적인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

100세老母 “너 만나려 여태 살아”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이산가족을 만난 200명의 2차 상봉단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인사들도 포함돼 '분단의 벽'을 넘어 화유과 뜨겁게 포용했다.

북측 방문단에는 최고령자인 신용대 씨(81)와 김영삼총합대 교수인 김인환 씨(70)를 비롯해 공훈예술가인 김기만 씨(71·평양미술대 교수) 등이 눈길을 끌었다. 남한의 화가인 함과 북한의 동생 김철 시인간 예술가 형제의 만남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훤채어앉아 한동안 말잊어

남 최고령자 유두희씨

평양=공동취재단

“어머니.” “너에 동갑이...” 남북 방문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 할머니는 30일 6·25전쟁 때 인민군에 징용당한 아들(신동길·75)을 이렇게 처음 만났다.

이들은 뒤통수에 몸을 의지한 어머니를 끌어안고 놓지 못했다. 어머니는 회한의 신용대 씨(81)와 두 사람이 부둥켜안은 바람에 새로 장만한 보청기가 떨어졌지만 유씨는 부여안은 아들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눈물민을 흘리는 노령의 어머니가 안다끼운 듯 동갑 씨는

“어머니, 날 모르잖어?”라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동갑 씨가 “어머니, 머느립니다”라고 했을 때 유씨는 비로소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다. “머느리여...”라면서 유씨는 머느리 리화순 씨(66)의 손도 놓지 않았다.

“너를 만나려고 죽자 않고 살아 있었지.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며 비로소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유씨가 “아들은 몇이나”고 묻자 머느리 리씨는 “아름 하나, 딸 둘입니다”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이날 최고령으로 큰 이들을 만난 유씨는 6·25 당시 25세던 동갑 씨가 인민군에 강제징집을 당하면서 헤어졌다.

너만 두고 월남해 미안하다

김 철 북한시인

남측방문단인 김한 씨(72·시암화가)가 북한의 유명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 김철 씨(67)와 5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했다.

함 김한 씨는 동생을 만나자마자 “이우야”하며 동생을 일러앉았다. 동생 김철 씨도 “형님 많이 늙으셨군요. 건강은 어떠세요?”라며 화답했다.

가족 안부가 오고가면서 부인과 두 딸, 아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온

김한 씨가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자 김한 씨는 “자 이제 우리 그만 울지”며 “1·4 후퇴 때 너만 남겨두고 월남해 미안하구나”로 말하면서 동생을 달랬다.

이들 형제는 남한의 화가와 북한의 시인이라는 예술가 형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북한 언론의 집중 취재 대상이었다. 1950년 6·25전쟁에 북한 의 용군으로 참가한 김철 씨는 북작기하원 1기생으로 현재 ‘조선문화참정사’에서 활발한 작가생활을 하고 있다.

형님께 그림 드리려 왔는데

김기창 화백 동생

북측취재단

문보 김기창 화백(88)의 셋째 동생인 김기만 평양미술대 교수는 형을 만난다는 꿈에 부풀어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단체취재단에 들어섰지만 형이 없자 눈시울을 적셨다.

김 화백이 최근 다리까지 붓는 동맥경이 악화돼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상봉장에 모습을 나타

내지 못했다.

김 교수는 “형님께 그림을 드리려 갖고 왔는데 형님이 그렇게 편찮으니까”라며 사정 우물한 표정을 지었다.

김 교수는 형을 만나지 못한 슬픔을 뒤로한 채 조카 백현 씨(53)와 안 씨(51), 사촌 기중 씨(77)를 부둥켜안은 채 만남의 기쁨을 만끽했다.

내한취재단에서는 김 교수와 김 화백의 첫날 만남이 불발됨에 따라 북측과 협의해 1일 점심 상봉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최고령인 유두희 씨(100)가 30일 오후 훤채어를 탄 채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아들 신동길 씨와 김철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하루도 가족 잊어본적 없어

김영환 김일성대 교수

“부모님과 어린 너희들을 뒤로 하고 훌쩍 떠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

6·25전쟁 때 인민군에 입대하면서 가족과 생이별한 김영환 씨(73·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원사)는 동생 엄우 씨(63·미국 배지니주 거주)를 끌어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전쟁이 끝난 뒤 어허어 짐짓해 북한 어문학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

람이 된 김씨는 “형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는 동생의 안부어 “하루도 가족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김영환 씨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한참 눈물을 흘린 뒤에야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북한 생활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다.

북에서 가져온 박사자격증과 교수증, 원사자격증을 차례로 펼쳐보였으며 지난 8·15 이산가족 북측방문단에 포함됐던 류영 씨의 뒤를 이어 후보 원사가 됐다며 가슴뭉툭해하기도 했다.

상봉장은 또 한번 눈물바다

"오빠, 어디갔다 이제왔어" "이디보자. 옛날 얼굴 그대로구나"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었다. 2차 이산가족단체상봉이 이뤄진 30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와 평양의 고려호텔은 반세기만에 만난 형유를 맞이하고 울부짖는 울음소리로 눈물바다가 이었다. 단체상봉장에서 이산가족들은 형유를 보는 순간 "오머니" "형남" "누나"를 외치며 서로 부둥켜안은 채 50년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려 보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조국의 분단으로 반세가 끊인 생시도 확인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헤어져 살아온 부모 형제 누이 친척들은 이날 끊어진 가이들을 되살리며 그리움을 울음과 눈물로 대신했다.

평양 30일 오후 4시45분부터 고려호텔 2, 3층에서 진행된 단체상봉은 가족들이 만나자마자 울음바다로 변했다.

○"애비구실 못해 미안하구나. 원마나 고생이 많았나" "고생이라고. 아무일 없습네다" 파산뽕에 복에 홀로 남겨두고 월면 된 아들 한상순(55)씨를 평양에서 만난 한진사(80) 할머니는 오랜 세월 외로웠을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러 뿐 한 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 휘둘릴 줄리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자 너무나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1차 상봉대 장이윤씨에게 반박을 양보했다. 우원형(65)씨는 북의 여동생 옥희(64)씨를 부둥켜 안은 채 연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옥희씨는 고려호텔의 단체상봉장에 들어서자 오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심방장 바닥에 주저앉아 한 뼘은 눈물을 쏟아냈다. "오빠가 살아있지 않지 않냐"라고 흐느끼는 옥희를 꼭 안은 채 우원형씨는 "너 희생을 안이하지 못하게 봐 오는 동안에도 사진은 보고 또 봤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원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미안하구나" 유복자로 태어난 생부부지의 이득은 아



북측방문자 홍세원씨가 남쪽에 살아있는 어머니와 상봉. 이미 돌아가신 부친의 영정에 절을 올리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유복자 아들 손잡고 "애비구실 못했구나..." "오머니 와 이제 왔시요" "살아있어 고맙구먼" 50년 찢어진 가슴 부둥켜안고 통곡 또 통곡

바지를 부둥켜 안았고 이들의 이름조차 몰랐던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민사의 아흔네를 남겨두고 홀로 남행길에 올랐던 현서옥(80·부천시 내인동) 할머니는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만난 이들의 손을 잡고 "살아 있는게 원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았다. 현 할머니는 딸 정옥(65)씨가 "어릴 때 '이동'으로 불리던 정옥에게 '요'라고 말하자 무심하게 흘려간 세월을 탄탄했다.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상봉 예정시간보다 4시30분을 남긴 저녁 오후 8시 30분이 되어서 시작했다. 남과 북의 가족들은 50년간의 간격을 뛰어 넘어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며 부둥켜 안은 채 눈물바다를 이었다.

○"집식군(72)씨는 동생들과 만

나 어머니 유영택(작고)씨가 지난 94년 자신을 그리는 시(눈물로 먹음) 같고 백발로 붓 밑에서 떨리는 손에 다가 붓을 쥐니 손끝 붓이 떨고 붓파라 피는 글로 식군아...와 당신의 백발로 만든 붓으로 쓴 한시를 보고 '어머니를 복놓아 붙었다.

○"북의 공예예술가인 김기만(71)씨는 지병으로 최근 병이 악화돼 입원한 윤보 김기창 화백을 그리며 "형남이 우리를 다 키워주셨는데..."라며 "병실로 형남을 꼭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북측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신용대(81)씨는 연신 담배를 피워 물린 시도 어동생인 용숙(78)씨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 문제들은 51·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씨를 보고는 "대어난지 2개월만에 헤어지게 돼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어머니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연신

이들의 울음 쓰다듬었다.

○"인민군에 입대하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북측 김형대(68)씨는 누나 연년(72)씨의 어머니 영정을 놓고 울부 짖으며 "외아들로서 계속 어머니 제사할 모서 왔다"며 모정을 추유했다.

○"전쟁 당시 종군간호사로 활약했던 리운호(60)씨는 언니 동호(70), 동생 준호(65)씨의 손을 꼭 부여잡고 연신 눈물을 흘리며 옛날 사진첩을 꺼내놓고 주의를 되새겼다.

○"6·25때 남편과 헤어진 뒤 생을 수할 해은 유순이(71·서울 인천구 신월동) 할머니는 상봉장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부여잡고 "금방 온다더니 왜 이제 왔나"며 오열하며 한 동안 말걸 줄을 물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윤종열 사회부차장
사회부 오철수·최석영·현영일 기자
정치부 임정욱차장, 김홍길기자
산업부 고광범기자
사진부 신재호·김동호기자

"너 만나려고 죽지도 못했어..."

■ 100세 할머니 아들 상봉

"어머니, 나야. 동길이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100·여·강원도 원주·사진) 할머니는 30일 오후 원재아를 타고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 들어와 6·25에 인민군에 징집된 아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이들 신동길(75)씨는 위재에 없

어 있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놓지 못하고 어머니는 대답 대신 희한의 신음소리만을 냈다. 두 사람이 부둥켜안은 바람에 새로 정만한 보청기가 떨어졌지만 유씨는 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노령의 어머니가 원마가 온 듯 동길씨는 "어머니, 날 보르겠어"라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들을 안고 있던 유씨는 20여분이 지난 후



비로소 얼굴을 들었다. 동길씨가 "어머니, 만나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유씨는 비로소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

봤다. "머느리여..."라면서 유씨는 동길씨 부인 리화순(66)씨의 손을 잡은 채 눈물 줄을 물었다.

"너를 만나려고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지.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며 이들을 얼굴을 흘려다웠다. 유씨가

"이들은 벗이나"고 하자 며느리 리화순씨는 "이들 하나 말 돌입니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날 최고령으로 이들을 만난 유씨는 6·25때 동길씨가 인민군에 강제징집당하면서 헤어졌다. 고향인 원주시 문막읍에서 동길씨가 강제징집을 당할 때 유씨는 이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것이 한이 컸었다. 때문에 유씨는 50여년 동안 동길씨의 밥을 별도로 차려놓고 이들을 기다려왔고 이들의 결혼사진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왔다.

출발 늦어지자 “50년도 기다렸는데

■ 2차남북방문단 이모저모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1시간 거리뿐 5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30일. 서울과 평양은 다시 눈물바다에 잠겼다. ‘오빠’ ‘누이’를 부르며 서로 부둥키 인은 가족들을 지키보던 7,000만 거제도 농사일을 뉘었다. 안개로 상봉이 늦어진 5시간은 50년보다 더 길었지만 끝내 그들은 만났다. 이산가족들의 서울과 평양의 첫날은 이렇게 깊어갔다.

평양 ○“50년보다 긴 하룻밤”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30일 오전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은 밤새 실연과 기대로 잠을 설치지만 반세기만에 협약을 만나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은 채 모두 밝고 활기찬 표정들이었다. 새벽부터 밤을 나외 사정거리면 이들은 오전 6시에 한식으로 나온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긴박함 이야기와 고향에 대한 추억을 주고 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활활한 날씨 속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남측 이산가족들은 비행기 트랩 준비가 약간 늦어지 오후 2시 5분부터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

공항 입구에는 30여명의 공항 관계자만 나와 있어 다소 쌀쌀한 분위기였다. 지난 8월 1차 이산가족 상봉 때도 참여했던 남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상봉때는 공항 광장에 수백명의 환영인파가 나왔었다”고 밝혔다.

○“평양 순안공항에는 허해봉 북한직접심지회 부위원장, 최유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조종환 조평통 부국장, 허혁립 민회협 부회장 등이 나와 방문단을 맞이했다.

평양 사격고등학교 1학년 림실희(11)명은 부모와 한직 부총재에게 꽃다발을 인가며 “열렬히 환영합니다”라



30일 50년만에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북측방문단이 탄 버스를 향해 이산가족들이 상봉자들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가족들을 찾고 있다.

●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이틀짜리 일정(1일)

〈남측 평양방문단〉		〈북측 서울방문단〉	
08:00~09:00	이탈식사	08:00~09:00	이탈식사
10:00~12:00	1차 개별상봉(고려호텔)	10:00~12:00	1차 개별상봉(롯데월드호텔)
12:00~13:30	가족 합동 오찬	12:00~12:30	가족 합동 오찬
13:30~16:00	2차 개별상봉	13:30~16:00	2차 개별상봉
16:30~18:30	평양시내 sightseeing	16:30~17:30	롯데월드 민속관 sightseeing
19:00~20:30	북측주최 환영연회	18:30~20:00	평양주최 환영연회

공항 환영인파 없어 분위기 다소 쌀렁 가족식별 쉽게 상봉장 좌석 배려 눈길

고 인사했고 봉 부총재는 “손이 차내요 반기워요”라고 답례했다.

○남측 이산가족방문단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승용차 8대와 버스 7대에 분승, 숙소인 고려호텔로 출발했다.

방문단은 금룡동굴을 거쳐 금수산 기념궁전, 김일성 종합대학, 개신교, 만수대의사당, 노동신문사 등을 지나 는 동안 거리낌 지나가는 평양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북측은 1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고려호텔 2, 3층 식당에 집단상봉장을 마련했다. 2층 식당에는 214명, 3층에는 141명이 있을 수 있는 의자 110여개와 테이블 100여개를 배치한 것을 달리 가족식별이 쉽도록 배려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 접대원은 “50년만에 만나는 가족들이니 얼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번호를 보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서울 ○북측 방문단은 오전 9시부터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남측 방문단을 태우고 오는 대한항공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짙은 안개로 비행기 도착이 오후 1시 50분으로 늦춰져 오후 4시10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방문단은 남측의 가족들을 만나는 가슴 벅찬 설렘의 표정이 역력했다. 일부는 남쪽 미중개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남자는 취백 또는 남색 반코트와 앞북에 중장보, 여자는 반코트의 치마 치림으로 복장을 통일했다. 김포공항에는 남측가족 100여명이 정오부터 플래카드 등을 들고 미중을 기다렸다. 나오후(30)씨는 “죽은줄 알고 제사까지 지내었던 친은 아버지(도시 씨 60)가 방문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미중 나온 가족들은 북측 방문단을 보고 환호하며 일부는 자신의 가족을 발견하고 이내擁막이기도 했다. 역시라도 북측 가족의 생존 소식을 들을까 해서 나온 이산가족들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김진수(68·여)씨는 “지난 48년에 헤어져 북으로 간 아내(전희씨 72)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순안공항 안개로 오후 4시10분 북행길 상봉 못기다리고 숙소로 달려오기도

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미중 나온 가족들은 북측 방문단을 보고 환호하며 일부는 자신의 가족을 발견하고 이내擁막이기도 했다. 역시라도 북측 가족의 생존 소식을 들을까 해서 나온 이산가족들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김진수(68·여)씨는 “지난 48년에 헤어져 북으로 간 아내(전희씨 72)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북측 방문단은 공항에서 버스 5대에 나눠타고 오후 6시40분께 숙소인 서울 최실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직원 200여명은 꽃을 흔들며

환영했고 숙박객들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했다. 북측 방문단은 상기된 표정 속에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거나 일부는 조국통일을 연호하며 손을 뻗은 취이보이기도 했다.

○민체상봉장인 세인트립시터에는 남측 가족들이 일찍부터 나와 북측 가족을 기다리다 당초 일정보다 상봉시간이 크게 늦어지자 일부는 롯데월드호텔로 달려오기도 했다.

한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소속 20여명은 한반도가 그리진 깃발을 ‘반갑습니다’라는 글귀를 써서 이들을 환영했다. /북측취재팀

100살 老母 손잡고 눈물만... 75살 아들 "어머니" 목메고...



최고령 유두희 할머니

"어유! 후후후... 어유! 후후후..."

30일 평양에 도착, 반세기 만에 큰아들 신동길(75)씨를 만난 유두희(100·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할머니는 반쯤은 땀을 흘린 채 흐느끼기만 했다.

"어머니가 알아보시겠어요, 동길이에요?"

두 사람이 부둥켜안는 바람에 서로 정반한 보청기가 떨어졌지만 유 할머니는 무어런은 이들을 놓지 못했다. 눈물 같은 채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던 유 할머니는 동길씨에게 "어머니, 머느립니다"라고 했을 때 애어미로써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다.

"니를 만나려고 죽지않고 살아 있었지,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며 50년의 원한 식인 유 할머니는 그래서야 "아들 딸은 빛이나"며 미느리에게 땀을 건넰다.

2차 이산가족 방문단중 남북을 방문에 최고령인 유 할머니는 큰아들의 땀이 잘 들리진 않았지만 세



"환영합니다" 북측 이산가족방문단 일행이 예정보다 4시간40분 가량 늦은 오후 6시30분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도착, 지인과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숙소로 들어가고 있다. /최모친 기자 sweat@hankyung.com

머느리 소개하자 "손자가 몇명이나" 눈뜨고 말문열어

웁의 흔적이 깊게 뵈 이들의 얼굴을 아내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동길씨는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돼 일본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광복과 함께 조국에 돌아왔다. 4년후인 49년 결혼했다. 그러나 공갈던 신혼도 잠깐, 운명의 여신은 동길씨의 행복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6·25전쟁이 터진 50년 이듬날 그는 다시 인민군에 끌려가야 했다. 이렇게 모지는 헤어

졌다. 유 할머니는 50년 동안 아들의 결혼사진을 보면서 이쁜 마음을 담내왔다.

1남2녀를 두고 있는 동길씨는 "아들(인철씨·45)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못 데리고 왔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올 이가산 것으로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상이게질 좁은 꿈에도 못꿨다"며 상봉내내 유 할머니 손을 놓지 못했다.

평소 건강한 편이던 유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병양길에 올랐다. 혼자서 20~30m 정도 걷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원세 고령인데다 날씨가 추워 대한적십자사에서 특별히 배려했다.

/명일공동취재단

김기창화백 병세악화 아들이 北 숙부 만나

오늘 병원에서 상봉할듯

30일 저녁 이산가족 단재상 평자인 서울 센트럴시티에는 운보 김기창(87) 화백의 아들 김원(51)씨가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작은 아버지 기만(71)씨를 만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기만씨는 "형님에게 드리려고 조선휘 몇점을 가져왔다"며 "형님이 그렇게 편찮은 줄 몰랐다"며 울먹이자 원씨는 "먼 길을 오신 작은 아버지가 꼭 아내님을 만나고 갈 수 있으면 한량 없겠다"며 선물로 준비해온 족보를 건넸다. 기만씨는 "형님이 우리를 다 키웠고 형님을 본받아 그림을 열심히 그려왔다"며 형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결히 표했다. 김 화백은 최근들어 거동은 툭툭 사람도 알아보기가 어려워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한 상태. 동상이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 기만 수화로 '내 우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하곤 했으나 동생들 알아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한적십자사측은 김 화백과 동생의 만남은 개별상봉이 있는 1일 김 화백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김 화백의 현재 상봉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꼭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e@hankyung.com

탤런트 김영옥씨 北 큰오빠 만나

5남매 한자리에

"김씨의 가족이 이제서 왔네요" "내가 유병관 배우라니 가족하다" 배태와 원거사인 김영옥(63)씨지만 50년만에 만난 큰 오빠 임환(70)씨를 만나려는 귀로 찾는 김동애 연기가 따로 필요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는 키가 커서 키가 크고 키가 크니까요, 우리 가족은 모두 오빠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 있다는 말을 듣고 오빠가 키가 크죠" "오빠를 잘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좋아했어요" (영옥)

"어려던 내가 남쪽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배우라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임환)

"신식 노래를 많이 알고 있던 오빠한테 배운 유행가들 따라 부른던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옥)

작은 오빠 순환(67)씨, 동생 영자(59), 임순(55)씨까지 5남매는 상봉이 시작되자 금세 이입적 증감된 오누이로 돌아왔다.

"50년만에 왔는데 잊고져 번 얼굴 같아요" (영옥)

"나도 내 입과 못 눈에 알아봤다" (임환)

그러나 이들을 끌어안고 아끼던 어머니 노득진씨가 1989년 세상을



김영옥(왼쪽 첫번째)씨가 30일 밤 센트럴시티 상봉장에서 북측 방문단의 일행으로 서울에 온 오빠 영환씨와 재회, 손을 맞잡고 감격에 겨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떠났다는 말을 건네자 임환씨는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져 내리며 실움을 참을 수 없었고 남매들

도 눈시울을 적셨다.

정종호 기자

rumbe@hankyung.com

남북이산가족 2차상봉 전날인 지난 29일 밤, 평양으로 갈 이산가족들이 묵고 있는 서울 잠실 롯데호텔은 썰렁했다. 가족들의 객실이 있는 12층에는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산가족이 김포공항으로 출발한 직후인 30일 오전 8시, 기자를 내려준 택시 운전사는 "상봉 취재 오셨나요. 상봉 날짜가 언제죠?"라고 반문했다. 이 호객이 상봉가족들의 속소리는 사실음 모르는 투숙객들도 많았다. 곳곳에 나붙은 환영 플래카드가 없었더라면 50년 만의 상봉 현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였다.

지난 8월 1차상봉 때 너무 요란하고 화려했다는 여론의 반작용일까, 아니면 경제난에 시달리다 보니 이산가족의 고통과 애절한 사연이 가슴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일까. 물론 이번 상봉이 1차 때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취재하려 온 외신기자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또 앞으로 계속 정례화될 행사인 만큼 요란한 선전보다 차분하게 내실을 기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번 분위기는 차분함을 지나 냉정할 정도다. 통일, 초석음 하나하나 다지는 이치런 중요한 일이 어느새 '관심 밖의 일'로 밀려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던 '당국자'들의 모습이 이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공치사하거나 요란을 떨지 말라는 것이지, 썰렁하게 만들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통일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양 열기를 붙여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 따지고 싶다. 전날 한 이산가족이 "결국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지..."라며 섭섭해하는 모습이 눈에 자꾸 밟혔다.



사회2부 이 중 근 hanbang@kyunghyang.com

"2내3인간의 금쪽같은 시간을 안개 때문에 이렇게 허비해야 하거나 50년을 갈라놓은 협색선만큼 평양의 안개가 아속합니다"

▶ 한 병북 이산가족, 대한항공 특별기가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 때문에 출발이 계속 지연되자

"임으로 한적 총재도 북한에 몇 배수 후보명단을 보내 낙점음 안아서 임명해야 할 판이다"

▶ 정광근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김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갑작스런 출국은 북한의 압력에 의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라며

韓赤 "외부압력 있었는지 말하기 곤란"

張총재 日출국 파문

朴基崙사무총장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결정"

韓赤 거듭된 거짓말-불투명한 태도 비판여론

장총식(張忠植·사진)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급작스러운 입북방문에 대해 한적측이 속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기륜(朴基崙)한적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롯데월드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장총재의 방일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잘 치르겠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총장은 "장총재는 자신이 이산



가족 상봉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총재는 출발 전까지 고민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여가에 없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일본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총장은 장총재가 일본으로 출국한 29일 "장총재가 30일 한적총재 주최 북측대표단 환영민찬에 참석할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기정말을 했다.

그러나 한적 관계자들은 "출국

전날까지도 장총재의 거취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장총재 자신은 물론 일부 간부들도 장총재가 이산가족 상봉기간에 도망가듯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털어놓았다.

관계자들은 "외부압력에 의해 장총재의 출국이 결정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난처하다"고만 말했다.

한적측이 장총재의 전격 방일과 관련해 "일본 적십자사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힌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총장은 "장총재가 올해 8월 취임 이후 일본방문 의사 표시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부에 알아보라"는 등 대답을 기피했다. 한편 남북방문단을 위한 '북적주최' 환영민찬이 이날 오전 '평양시 인민위원회 주최'로 바뀌어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한적측은 "환송민찬을 하기로 했던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환영민찬을 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메이플홀에서 열린 한적의 환영민찬은 장정자(張貞子)한적부총재가 주최했다. <한대원기자> scooop@donga.com

30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 환영민찬을 주재할 예정이었던 장총식(張忠植)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지난 달 29일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지민련이 '대북 거지세'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30일 상명에서 "장총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半) 강제적 '빙쇄'로 북한 눈치보기의 견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장총재의 출국을 감묘한 주체가 누구인지

"韓赤총재 北 낙점받아 임명할건가"

한나라-지민련 "對北거지세" 비난- 민주당 언급 회피

빙하리"고 속구했다. 정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앞으로는 한적 총재도 북한의 낙점을 받아서 임명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지민련 박경훈(朴景勳)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적이 주회하는 이

산가족 상봉에 한적 총재가 나설 수 없다는 것은 맞선 보는 데 당사자가 못나키는 힘"이라고 지적했다. 지민련의 한 당직자는 "장총재를 시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영정에 관접

30일 남북 이산가족 서울 상봉장소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북측 방문자인 송세원씨가 어머니 박간례씨와 상봉, 시망한 부친의 영정에 접수를 돌리고 있다.

●시진공통취재단



평양 도착

50년 동안 헤어졌던 혈육을 만나기 위해 30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일행이 대한항공 특별기에 서 내려며 밝은 표정으로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평양시진공통취재단

출생지·학력 배일에 싸인 對南전문가

"방문단 교환사업 일부서 제동" 여운 남겨

■ 張在彦 北赤위원장

장재연(張在彦·64)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36명의 방문단을 인솔하고 온 장 위원장은 코트속 정장에 금테안경을 한 여유민만한 얼굴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는 항공기 탑승구를 빠져나와 대한항공 여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으면서 "동포의 정을 안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1차 이산가족 방문단 단장이었던 류미영(柳美英·여) 친도교 침우당 중앙위원장처럼 장 위원장도 종교계(기독교)에 몸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남북관계에 관여해 온 대남 진문가이자인 출생지, 학력 등은 배일에 가리 있다. 이번 2차30일의 서울방문에서 그걸 둘러싼



장재연 위원장

공급증이 어느 정도 풀릴지 미지수다. 일본 미국에도 많은 지인을 갖고 있으며 국제 감각과 추진력으로 고위층의 신임이 두텁다. 93년 일본, 95년 미국을 방문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일부에서는 방문단 교환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 서울 첫방의 여운을 남겼다. ●출판사기자 wshong@kdeily.com

이산상봉 실무 주역

차세대 대표 對南通

■ 최승철 북측 부단장



최승철 부단장

북측 수행원 가운데는 최승철(40)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의 실무위원 등이 끼여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은 1·2차 적십자회담 대표 등을 맡아 방문단 교환을 이끌어낸 실무주역 중 한 사람. 8·15 상봉 때에도 부단장 자격으로 방문했다. 당시 단장인 류미영(柳美英)씨를 대신해 사실상의 단장역할을 했다.

최 위원은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출신으로 노동당 대남사업부에 복무하면서 대남사업을 담당해 온 북측의 대표적인 차세대 대남전문가다.

차분해진 '2차상봉' 1차때와 달리 국민관심적어 "對北정책실망·경제난 탓"

"나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이지만 어찌까지만 해도 언제 상봉이 이뤄지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냉담해진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 들뜬 이유도 없겠지요."

30일 이산가족 상봉장인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주변을 서성이던 이산가족 2세대 최모씨(42)는 이같이 말하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한반도를 눈물로 지시며 50년 이산의 한과 아픔을 함께 나눴던 '8·15' 1차 상봉 때의 흥분과 열기를 이번 2차 상봉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북측 방문단이 묶은 서울 롯데월드호텔 부근엔 호텔 직원과 취재진만이 분주한 모습을 보일 뿐 지나가는 쇼핑객과 행인들은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차 상봉 때 북측 방문단 숙소였던 웨리온 위키힐호텔 앞에 수백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날 숙소 앞에는 상봉단에 끼지 못한 몇몇 이산가족이 피켓을 들고 나왔고 시민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대회 회원 10여명이 '반갑습니다'라고 외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을 뿐이다.

2차 상봉의 열기가 덜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8·15 1차 상봉 때만 해도 15년 만의 상봉 재개라는 의미 외에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이라는 정치적 의미까지 있어 기대가 컸던 게 사실. 하지만 이번 상봉은 6·15선언의 실천 미비, 정부 대북정책의

'저자세' 논란 등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 여기에서 어려워진 경제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동국대 김성운(姜聲允·북한학)교수는 "13일 열리는 3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런 식의 냉담함과 무관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85년 평양을 방문해 가족을 만났던 이재운(李在運)변호사는 "생사 확인, 면회소 설치, 우편물·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산가족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고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김승진기자〉
kjs359@donga.com

장재언 단장 종교계 출신 '대남일꾼'

북측대표단 일꾼들



장재언 단장



최승철 부단장



최영화 기자

제2차 이산가족상봉 북측대표단에는 장재언(張在彦·64·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단장과 부단장인 최승철 북측중앙위상무위원이 우선 눈에 띈다. 하지만 6월과 9월 남북적십자회담 때 최승철단장을 수행해 8·15이산가족교환방문 합의를 이끌어 냈던 이금철, 최창훈 대표 등이 빠져 전체적 '중량감'은 떨어진다. 지적, 수행단 중 조선기독교회합영소 합영기사 최영희(崔榮圭·62)기자는 이번이 13번째 서울 방문.

▽장재언 단장=장단장은 오래 전부터 '장재철'이란 이름으로 남북관계에 관여해온 '대남 일꾼'.

89년 조선기독교회합영소장을 맡으면서 외부에 알려진 그는 98년 북측 중앙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최고 인민회의 9, 10기 대의원에도 뽑혔다. 비전향장기수 복속 요구 편지 발송, 범민족대회 참석,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지지 담화 등을 발표한 그는 장중식(張忠植)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최승철 부단장=올해 40세로 활달한 미남인 최부단장은 30, 40대 인력층으로 교체되고 있는 북한의 차세대 회담 일꾼 중 신두주자.

함남의 노동자가족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일해 온 자수성

가형 인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은 최부단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상봉 때도 북측 유미영(柳美英)단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좌'했다. 그는 30대 후반이던 93년 10월부터 94년 3월까지 1~8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대표를 맡았으며 94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에도 참가했다.

▽최영희 기자="서울에 자주 오니 남의 동네 같지 않고 친근하고 편합니다." 최기자는 북측 인사로는 최다 서울 방문 기록을 갖고 있다. 72년 9월 남북 적십자회담부터 올 8월 1차 이산가족 상봉 때까지 주요 남북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다.

한갑이 넓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재 35mm망사거울 메고 회담장을 누비는 최기자는 북한현대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평양영화연극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기독교회합영소에 들어간 그는 김일성(金日成)주석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공식행사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최태원기자〉
scooop@donga.com

南北 환영인파 1차보다 '썰렁'

이산상봉 분위기

남북의 이산가족방문단은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그러한 열육을 만난 뒤 첫 만남을 보였다.

◆서울

북측의 방문단은 평양공항 안개로 인하여 예정보다 4시간40분 늦은 오후 5시17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집단상봉을 마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밤 10시30분경에 만찬을 시작하는 등 친밀적인 일정이 모두 지연됐다. 만찬에는 일본으로 피신한(7) 정중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북한으로 양역사(梁榮植) 통일부차관과 장정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대신 간배를 했다. 만찬식장에서 장 부총재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남북친화 붓기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간배를 재의했고, 장재인 북한이산가족 방문단장은 "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의 교환은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는 계기다. 우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민족대단결의 새 경지를 열고 계신다"고 답사를 했다. 이에 앞서 방문단이 오후 6시30분쯤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하자, 호텔 직원 200여명이 환영했고 호텔에 복고 있는 몇몇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비수환 했다. 서측 이산가족 일부는 '조국통일'을 연호하며 손뼉 칠건 뒤안이기도 했다.

◆평양

예정보다 4시간이 늦은 30일 오후 1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한 남측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감격적인 가족들과의 상봉을 마친 뒤 인민문화공원에서 열린 환영회(梅萬會) 평양시 인민위원회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차례는 첫날 일정을 마쳤다. 정금진(金金鎭) 대외협력차,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왕 위원장은 "유어진 가족문제에 위생에 의해 강요된 국외방문단의 상봉"이라며 "이민 때문에 이 땅에 내몰린 수많은 가족의 아픔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치"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지원하는 북측

인내인들은 남측 방문단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았다. 평양공항의 지상인내인인 정영옥(20)씨는 이산가족들을 반기며 "우리 부모님이 내려오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고, 숙소인 고려호텔 로비에는 60여명의 봉사원들이 늙어서 남측 방문단을 환영했다.

그러나 8-15 1차 상봉 때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는 우리측 관계자의 설명. 1차 상봉 때 평양을 찾았던 한 관계자는 "지난 8-15 때는 공항 광장에 수백명의 환영인파가 나와 남측 방문단을 열렬히 환영했었다"고

말했으나 이날은 30여명의 관계자들만 나와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다. 취재열기도 줄어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이 남측 방문단 취재에 나섰는데, 북측의 한 관계자는 "1차 상봉 때 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속소로 가는 연도에서도 남측 방문단이 차량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나, 방문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평양시민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尹植漢기자 jhyoon@chosun.com /평양=공동취재단

北안개로 서울도착 늦어 밤10시쯤 만찬 平壤시장 주최 행사에 全今振 등 참석



◆서울에서... 임영식 통일부 차관(왼쪽)이 30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만찬에서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장재인 단장(가운데)과 견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양에서... 30일 평양북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방문단의 봉두원 단장(왼쪽)이 인민문화공원에서 열린 만찬에서 평양시 인민위원회장과 견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張총재 계속 비난

“책임있는 사람 언행 바로해야”
“언론에 사과문 기고하면 용서”

북측의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2차 교환방문이 시작된 20일, 정중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위간조선 10월호 인터뷰 내용에 대해 좌-간첩적으로 비판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직립기회 혁명위 부위원장은 이날 밤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측 방문단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남측 단장인 봉두원

(봉두元)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에게 정중재의 이름을 기명하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불양에 방해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북측 인내원은 "언제 개인이 아니라 대외정책을 지내고 남조선의 적십자사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산가족 사업에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인내원은 "속사 정치

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되물기도 했다. 심지어 만찬장에서 북측 관계자는 "장 총재가 자기 심정을 담은 기고문을 언론에 실는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반에게 마땅히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사과문 게재"를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부 내외들은 장 총재가 위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 배경을 캐묻기도 했다. /全仁仁기자 ginko@chosun.com /평양=공동취재단

'金正日장군' 호칭 찾아 南가족 '머쓱'

북측의 가족들은 30일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단체 상봉장에서 유난히 '김정일 장군님 덕분'이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해 남측 이산가족들과 관계자들을 머쓱하게 했다.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처음으로 남측의 아버지 현서욱(81)씨를 만난 유복자(劉服子) 종만(50)씨는 "아버님 엄미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는 장군님께서 도와 주셔서 아버지 없이도 걱정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서욱씨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시시나 하지"며 말을 아꼈다.

서울에서 올라간 양철영(82)씨는 헤어지기 전 기도와 성경책 읽기에 열심이던 아내 유순애(74)씨에게 요즘도 기도했는지 물어보려 했으나, 아내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덕정치-광복정치로 아무 근심없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하자, 웃스레한 표정유 지으며 준비했던 말을 가슴에 묻었다.

또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인 유두희(100) 할머니의 북한 며느리 리화순(66)씨는 첫 대면하는 시어머니에게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장군님 덕분이예요"라고 여러 차례 되뇌었고, 신현순(72)씨의 북한 여동생 옥순(71)씨도 "장군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못 만난다"고 말했다.

서울 상봉장에서도 북에서는 김기만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윤보(劉甫) 김기창 회백을 대신해 나온 조카 김안씨에게 "형님이 병에도 안고 잘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며 "수령님의 은덕이 없는 게 아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라도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평양 인민문화공원에서 열린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회장 주최 만찬에서 왕 위원장은 "민족주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전도(前途)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 '우리 인민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덕으로 돌렸다.

/全仁仁기자 wily@chosun.com /평양=공동취재단



30일 오전 평양으로 가는 2차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비행기 기항 평양 순안공항의 인계로 출발이 늦어지지 상봉단 노인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취재단

南北 기상정보 교환은

정식협정 체결 안돼 국제기구 통신망 이용 순안공항 상황 증계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평양 순안공항의 좁은 인계로 지연되면서 남북 기상상황 상시교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에도 지난 8·15 1차 상봉과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남북이 서울과 평양의 기상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사는 "북한 순안공항 기상내에서 항공고정통신망(AFTN)

을 통해 김포공항 기상대로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사는 "오늘(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양 순안공항의 기상상황이 시간마다 전달되고 12시간 예보가 6시간 간격으로 통보된다"며 "김포공항 기상대에서는 30분 간격으로 기상상황을 북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북간에 '기상정보 교류에 관한 협정'이 정식 체결되지 않았지만 상호 필요할 때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FTN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국가들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선통신망이다.

각국 공항은 이 통신망을 통해 항공

기 운항 및 기상정보 등 공행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남한의 경우 남한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는 국가에 기상정보를 요구하거나 거꾸로 요구받기도 한다. 김포공항 통신소에서 AFTN을 담당하고 있다.

AFTN으로 보내지는 기상정보 등은 전세계 공용인 'AFTN 전용기호'로 쓰여지며, 각국 공항에 주소가 매겨져 있다. 김포공항 주소는 'RKSS', 순안공항은 'ZKPY'다.

김포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에 기상정보를 보낼 경우 일본과 중국을 거쳐 순안공항의 AFTN 시스템에 전달된다. 남한은 1952년, 북한은 77년에 각각 ICAO에 가입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겨레의 기쁜일... 일부서 화해 제동”

■ 北 장재언단장

제2차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을 이끌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장재언(張在彦·64) 조선직접자회 중앙위원장의 표정은 예상보다 밝았다.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해서는 미중나온 양영식(梁榮植) 통일부차관과 악수할 나누며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장 위위장은 서울에 오기 전 장중식(張忠植) 대한직접자회 총재의 위간조선 인터넷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을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측을 잔뜩 긴장시킨 장본인. 그는 시범으로 발표한 도착성명을 통해 “방문단 교환사업이 두번째로 진행된데 대해 온 가세가 다 같이 기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곧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

리 방문단 교환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사를 썼었다.

그는 북한의 민간 외교 전문가로 대남 문제에도 밝다. 1989년 조선가톨릭교회회 회장을 맡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장재철’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며, 가톨릭 세례명은 사무엘. 1994년부터 조선종교인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남측 종교인들의 방북 창구 역할을 맡아왔고, 1998년 조선직접자회 중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이산가족 문제할 주관해 왔다.

국제 감각을 갖춘 매너와 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3년에 일본을 방문했고 1995년에는 빌라 그레업 목사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민간 외교에도 일찍 눈을 떠 미국과 일본에 지인이 많다.

/이태희기자 tacheelee@hk.co.kr



장재언 북측 중앙위원장이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① 중앙일보

부모상봉 南측 없고 北만 3명뿐

달라진 2차 이산방문

30위 서울에 온 1백명의 북측 2차 이산가족 방문단은 지난 8월의 1차 방문단과 비교, 부모 상봉자가 대폭 줄어든 점이 특이하다.

지난 1차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 1백명 중 부모 상봉 대상자는 21명이었으나 이번에는 3명에 불과하다.

또 장재언 조선직접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의 대한직접자회는 2차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들의 부모 상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부모들이 90세 이상으로 대부분 사망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같은 상황은 평양을 방문한 남측 방문단도 예외가 아니다. 1백명의 남측 방문단 중 부모 상봉자는 한

1, 2차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비교

◇연령(명)

구분	90세 이상	80대	70대	60대	50대	계
1차	-	3	26	71	-	100
2차	-	1	31	68	-	100

◇상봉 대상(명)

구분	부모	처	자녀	형제지매	둘째	계
1차	21	3	3	72	1	100
2차	3	3	1	93	-	100

명도 없다.

부모 상봉이 대폭 줄어들에 따라 지난 8월 1차 상봉 때 병상의 노부모와 상봉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문제를 놓고 남북 직접자시간에 발생했던 갈등이 이번에는 재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월 1차 상봉 때 북측 방문

단의 가족상봉 장소는 서울 삼성동 교역스와 숙소인 세리본 워커히호텔로 제한됐고 제3의 장소에서의 만남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측 방문단 중 양한상(69)씨는 노모가 지척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해 애통 태우다 관계 당국의 노력으로 서울 출발 6시간 전 노모가 입원 중인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극적으로 만나 뽀뽀의 눈물을 흘렸다.

2차 북측 단장으로 장재언 위원장이 선임된 데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북한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실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화 파트너인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장충식총재 돌연 출국

野 비난

"北 눈치보기 정부 굴욕"

인나리당은 30일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출국과 관련, "북한 눈치보기와 대북 지지세의 전향"이라고 주장한 뒤 "도대체 무슨 의미로 김희갑에 시종 굴욕적 자세로 임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형현(權炯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장 총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에 의한 반(半) 강제적 방출이 분명히 나타나서 '사과사신까지 조처해 보냈다가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는 국가의 자존심까지 내뺏기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민권 박경호(朴景暉)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의 비위와 맞추기 위해 국가 자존심을 망각해 하는 지지세 대북관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목기자 feek.hoi@hk.co.kr



"여보" 남측 방문단의 양철영씨가 북에 두고 왔던 부인 우순애씨를 만나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다. /황양=사진공동취재단

北 관심

공식반응 일체 함구속

北관계자들 질문 공세

북한은 장충식(張忠植) 한적 총재의 방일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일체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30일 방일에 도착한 남측 방문단 관계자들에게 장 총재의 원간 조선 인다부기사와 관련해 질문 공세와 피켓팅 등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특히 봉두원(奉斗元) 남측 단장을 순의공항 영접실에서 맞이한 최여남 북한 민회협 부회장은 "이산가족 사업은 통일에 이바지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이분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언행이 중요하다"고 이 문제를 제치기 시작했다. 또 북측 우내원은 "대외총장을 지내고 직선지사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산가족 사업에 전념을 꺼리는 원인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다른 북측인 내원은 "장 총재가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기고문을 언론에 실는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명예롭게 비우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죄문 게재를 재검토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장 총재 일본 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선 공청자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총재 기사화 문제점은 북한 적십자회의 장제인(張在善) 중앙위원장이 2일까지 한적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ununglee@hk.co.kr



"오빠" 남측 방문단의 김광운씨가 북의 여동생 김광림씨를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울먹이고 있다. /황양=사진공동취재단



도착 남측 방문단이 30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측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오고 있다. /황양=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0. 12. 1 (금)

“머잖아 고향 방문할날 올것”

■ 봉두원 남측단장 인사말

평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 이산가족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여러분의 동포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에 이어 오늘 우리는 남녘에 있는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희망과 염원을 안고 다시 평양에 왔습니다.

금년 여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그 감격만으로도 본단의 장벽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었습니다. 협육간의 애뜻한 정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 겨레에게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50여년 동안 맺힌 현을 허우숙히 끊어주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진정한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



이 과거와 달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산가족들이 생시화인부터 시작하여 편지왕래와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움트기 시작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씨앗이 이산가족들의 감격의 눈물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가는 길로 온 겨레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물꼬가 돼 모든 이산가족들뿐 아니라 온 겨레가 뜨거운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민족의 감격적인 여사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이 그동안 가슴속에 쌓인 화포를 풀고 못다한 협육의 정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북녘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만남” 지난 8월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노모 별세 소식을 접한 평양씨에게 방북을 양보했던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우원영씨(오른쪽)가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남측 성안 인영씨와 여동생 옥희씨와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남 단합·통일 촉진 기대”

■ 장재언 북측단장 인사말

북측의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은 반세기 이상 헤어져 살아오면서 꿈에도 그리던 협육들과의 상봉을 위하여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분단과 민족의 분열로 누구보다도 고행을 안고 사는 것은 북과 남에 흠어진 가족, 친척들입니다.

그리운 협육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것이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가슴에 쌓여있는 원곡 같은 소망입니다.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이 두번째로 진행되게 된 데 대하여 온 겨레가 다같이 기뻐하고 있으며 이사업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방문단 교환 사업에 제

동을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적극 추동해 나가는 데 응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도록 모든 것을 나 할 것입니다.

○장재언 단장은 누구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을 이끌고 서울에 온 장재언(張在彦·64) 단장은 98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 선출돼 현재 조선종교인의회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장 단장은 조국통일법민족연맹(법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90년),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91년), 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98년) 등 줄곧 대남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그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요구하는 편지발송, 법민족 대외 친서,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지지하는 담화류 발표하기도 했다.

“고향 방문 이어지길”

남북화해 지속 희망

평양 간 봉두원 남측단장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한 봉두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김포공항 출발사와 평안순안공항 도착사를 통해 남북관계 화해와 지속성을 강조했다. 방문단은 30일 오후 순안공항에 도착. “모든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부터 시작하여 편지왕래와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데 대한 강조와 지속성에 대한 희망을 기원한 대목이다.

“부부총재는 이어 “금년 여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그 감격만으로도 본단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며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진정한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봉두원은 김포공항 출발사에서 “우리 민족이 흠어진 본단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는 이제 그 길 여정에 들어섰다”며 “오늘의 방문이 남북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생사확인, 상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동포의 情 안고왔다”

통일촉진 계기 기대

서울 온 장재언 북측단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포의 정을 안고 왔습니다.” 2차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장이 30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64)은 이 한마디로 서울방문 소감을 대신했다.

종교계에 몸담아오며 남측 종교인의 방북청구 역할을 맡아온 장단장은 98년부터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를 전담해온 인물. 지난 8월 1차 상호방문 때는 평양을 방문한 정중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공항에서 맞이하고 환영민찬을 배풀기도 했다.

장위원장은 서울 도착성명을 통해 “북남 상호방문이 두번째 이뤄지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북남 단합과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정중재의 언론인터뷰를 겨냥한듯 성명 중간에 “일부에서는 방문단 교환사업에 재물을 걸고 있다”고 다소 거센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재물을 건 사람들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남측 적십자사가 알 것 아니냐”고 되물기도 했다.

이광호기자 khlee@kmb.co.kr 남도영기자



체류일정 하루단축...경비 가족부담

1차때와 달라진점

'실속있고 차별하게' 30일 이뤄진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이렇게 특징지어진다. 반세기만에 상봉하는 당사자들의 기쁨과 감격이야 다들 바 없지만 상봉일정과 행사진행은 지난 8·15 상봉때에 비해 '거품'을 뺐다.

우선 양측 방문단의 체류일정은 2박3일로 하루 줄어 개별 상봉은 방문이틀째

선물공세 자제 '실속함'으로 참관 줄이고 상봉시간 충분히

인 하루 만에 끝난다. 대신 참관을 한 차례로 줄여 가족상봉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때문에 1일에는 두 차례의 개별상봉과 가족 공동중식 등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이 낮시간을 내내 함께 보내게 된다. 또 1차때와 같이 앰블런스 상봉이나 병실 상봉 등도 기대된다.

상봉비용도 1차때의 절반 수준인 9억5천만원 정도로 줄었다. 상봉비용을 해당 이산가족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대행사를 줄인 겹겹이다. 왕복 항공료 등 경비는 이산가족들이 부담하되 생활

보호대상자 등에게는 항공료와 50만원의 상봉준비금을 지원했다. 1차때 이산가족 1인당 5백달러씩 지원했던 지원금은 없었다. 북측 가족을 만나러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이산가족들을 위한 숙소도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부분 서울에 친척이나 친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측의 제안에 따라 상봉가족들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실속함으로 바꿨다. 지나친 선물교환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부모는 옷감 한 벌, 형제자매는 간단한 기념품만 주고 고반도복 하의 중고품은 건달하지 않도록 했다. 현금은 5백달러 이상 주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은 방한복, 내의 등 생필품을 위주로 준비했다. 이산가족들에 대한 업계의 시계와 양말 등 무료선물 공세도 사라졌다. 2차 상봉을 계기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점차 정례적 일상적 행사로 정착될 전망이다.

사회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평양 안개가 짙다...출발 늦춰달라"

도착 왜 늦어졌나

인망스러운 안개였다. 당초 30일 오전 9시에 김포공항을 이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 815 특별기는 평양 순안공항의 짙은 안개 때문에 당초보다 3시간30분 이상 늦어진 오후 12시47분에야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이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은 당초 예정보다 3시간씩 일정이 지체됐다. 이날 이집 순안공항은 짙은 안개로 화보단 시야가 1~2m에 불과했다. 북측은 오전 9시에 "짙은 안개로 항공기 출발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춰줄 것"을 남측에 요청해 왔다.

남측 이산가족 1백명과 수행인 등 1백51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오전 8시10분에 김포공항 국제선 2층사에 도착.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치고 항공기 탑승구 앞에 모였으나 이륙지연소식에 발을 뚫뚫했다. 50여년만의 만남을 기대하며 탄금같이 삼기된 이산가족

들에게 이륙이 지연된 3시간30분은 50년 세월보다 지루한 시간이었다.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자 대한항공측은 상봉단을 출국장내 통과여객라운지로 이동시킨 뒤 간단한 디너를 제공했다. 남측 상봉단은 오전 10시30분부터 특별기에 타기 시작해 오전 11시에 탑승을 완료했다. 드디어 12시30분께 북측이 이륙가능하다는 통보를 보냈고 대한항공기는 47분 합쳐 김포공항을 떠났다.

평양에 오후 1시50분에 도착한 특별기는 방문단을 내린후 북측 방문단을 대위 4시에 출발, 김포에 1시간만에 도착했다. 대한직심지사는 비행기에서 곧바로 단체상봉장인 센트럴시티로 옮겨 일정을 단축하러 했으나 방문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 오후 6시 40분에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 여장을 풀게 했다. 감각적인 상봉은 이날 오후 8시25분에 이뤄졌다.

rumba@hankyung.com

서울경제

2000. 12. 1 (금)

텔런트 김영옥씨도 오빠 만나

'오빠, 오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더니 왜 50년이 지나 온거야...'

30일 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남측 상봉단의 한 사람인 중견 텔런트 김영옥(63·여·사진)씨는 50년만에 만나는 오빠 영환(70)씨를 뵈었고 그동안 사무친 그리움의 눈물을 쏟았다.

1950년 7월 연세대 영문과 2학년에 다니던 영환씨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는 말만 남긴채 반세기가 지나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김씨는 "우리들은 오빠가 전쟁중에 죽은줄로만 알았어요"라며 울먹이며 영환씨의 손을 꼭 잡았다. 영환씨도



13살 철부지서 한갑이 넘은 할머니가 된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오빠는 동네에서 최고 멋쟁이여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샀다"고 어린시절의 영환씨를 회고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좀더 오래 사셔서 생전에 그리던 오빠를 봐야 하는데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운보 오늘 동생과 '병상상봉' 할듯

4년 동안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운보 김기창(88·사진) 화백이 입원해 있는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북측의 동생 기만(71)씨와 1일 극적인 상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훈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30일 김 화백과 동생 기만씨의 상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측 방문단이 오면 긴밀히 협의해 서울 체류기간 중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김 화백의 상태가 위중해 상봉은 빨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해 놓어도 1일 중에는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상봉 때도 향환상(69)씨가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 어머니 김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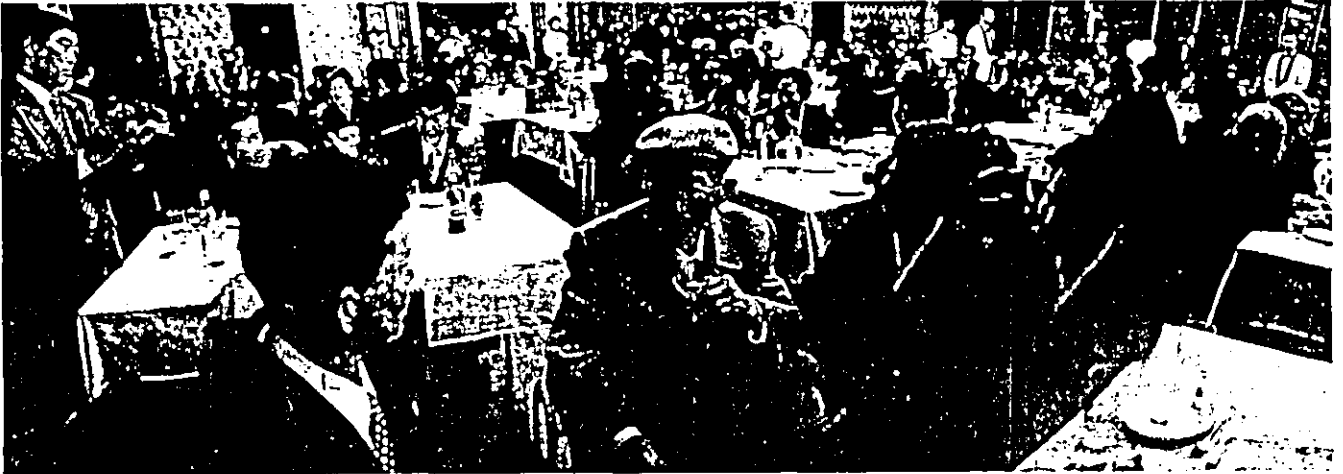
(87)씨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극적 상봉한 전례가 있어 이번 상봉은 이번이 없는 한 성사될 전망이다.

김씨는 동생과의 상봉을 앞두고 지난 17일 지병인 폐결핵과 고혈압에 시달리다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하다.

운보의 동생 기만씨는 조선화(한국화)의 대가로 현재 북한에서 공민화가 청호를 받고 있어 남북 거물 화백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비사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오늘을 보려고 반세기를 기다렸다”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이 30일 오후 평양 고리호텔 23층에 마련된 상봉장에서 북측 가족들과 만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차분한 평양 상봉장



북측 방문단의 확대석사가 30일 서울 빈모동 선트랄시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재회와 기쁨에 물먹이는 누나 박수영씨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측 방문단 김은환씨가 30일 선트랄시티 호텔 집단상봉장에서 50년만에 만난 누나 김은숙씨 등 가족들과 함께 건배하여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밖에서... 남북자 송환 외침 6.25 전쟁 당시의 남북자 가족들이 30일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과 남북 가족들이 상봉하는 서울 빈모동 선트랄시티 집단상봉장에서 조숙한 남북자 송환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후 상봉장인 서울 빈포동 센트럴시티에서 북측 안중국씨(가)가 남측 여동생 중순씨(중)와 사촌동생 중수씨(를) 만나 기쁨의 눈물샘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의심촌...

권영준 기자

서울 롯데월드호텔 로비에서 북에서 온 의심촌 니도서씨(오른쪽)가 남쪽의 조카 이준섭씨를 업싸인으며 기뻐하고 있다.

2000. 12. 1 (금)



"언나... 속회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30일 평양에 도착한 유족회씨가 고려호텔에서 북의 동생 숙회씨를 만나 얼싸안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보... 황해도 출신으로 남측방문단중 가장 많은 9명의 북남가족들 중 양철영씨(81)가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아내 우순애씨(73)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오빠... 경북 영변출신의 김경문씨(74)가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1·4후퇴때 헤어진 여동생 관암씨(65)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큰집 북측 방문자인 홍세원씨가 어머니 박간례씨가 내보인 아버지 영정에 큰 집을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열 서울을 방문한 안중국씨(오른쪽)가 남측의 여동생 중순씨와 시촌동생 중수씨를 만나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감격 샌프란시스코와 상봉장에서 김성진씨(오른쪽 첫번째)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기" 북측 방문단 최고령자인 신운대씨(왼쪽)가 미국에서 온 어머니 최영순씨를 만나 감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림던 얼굴이" 30일 북한을 방문한 남측의 안철영씨가 고려호텔에서 북측의 아내 우순애씨를 50년만에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살이있었구나"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의 현서욱씨가 여동생 순애, 정옥씨를 만나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꿈인지 생시인지"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의 김광문(75)씨가 북측의 여동생 김광림(65)씨를 상봉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라도"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의 박해수(왼쪽)씨가 동생 해조, 해범씨를 만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
2000. 12. 1 (금)

100세 노모 '평생의恨' 아들만났다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100세의 유두희 할머니가 30일 오후 휠체어를 탄 채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아들 신동길씨(75)를 만나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0. 12. 1 (금)



“살아 있었구나” 50년의 긴긴 세월도 뜻밖의 모진 정은 갈라놓지 못했다.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방문단 류복희씨(77·왼쪽)가 동생 숙희씨를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3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류북희 씨(왼쪽)가 북에 사는 동생 숙희 씨와 상봉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30일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상봉장에서 북측 상봉단 안종국 씨(오른쪽)가 동생 중순 씨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후 센트럴시티 상봉장에서 북측 상봉단 김중현 씨가 남쪽에 살고 있는 부인 유순이 씨를 만나 반세기만에 손을 다시 잡았다.



▶ 사진속 50년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박해수씨(왼쪽)가 30일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동생 해조, 해범씨와 만나 가족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측 방문단 황새현씨(69)가 30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이미 숨진 아버지의 영정을 든 채 황해도에 앉은 노모 박진례씨(86)에게 50년만에 고통을 풀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보 이것 좀...” 반세기 만에 재회한 남북의 부모. 시간의 장벽을 이미 뛰어넘은 듯 부부가 나누는 정은 여윌 없다. 북측 방문단의 김중현씨가 1일 오전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서 개별상봉 시간을 가진 뒤 오찬장에서 아내 유순이씨에게 정겹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이산상봉 정례화 추진

남북 방문단 어제 '개별 만남'- 오늘 귀환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1일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 숙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가족들과 개별상봉했다.
(관련기사 4·5·22·23면, 화보 9면)
북측 방문단은 개별상봉을 마친 뒤 서울 롯데월드 민속관을 방문하

고 박재규(朴在圭)방문부 장관이 주최한 관중만찬에 참석했다. 남측 방문단도 평양의 민강내 회생소년궁전 등을 둘러본 뒤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북한직접자와 중앙위기 마련한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장부는 1·2차 이산가족 상봉이 무

사히 이뤄짐에 따라 만화소 등 이산가족 만남을 정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장부는 오는 1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직접자회담에서 3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과 함께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확대, 만화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2일 오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만난 뒤 북한 국외의 고려항공편으로 각각 귀환한다.
고승욱기자 swko@kmb.co.kr

◀ ◀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韓國日報
2000. 12. 2 (토)

● **東亞日報**
2000. 12. 2 (토)



雲甫형제 '병실 상봉'

사진공통취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문보 김기창 화백이 1일 병실로 찾아온 북의 동생 김기만 교수에게 평소 아끼던 소품 '승무'를 건네주고 김희여러 눈길로 김교수를 바라보고 있다.

“만나자 이별...”

어제 가족단위 개별상봉
상봉단 오늘 각각 귀환

반세기 만에 그리던 협육을 만나 뜬눈으로 하룻밤을 지낸 남북 이산가족들은 1일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족단위로 개별 상봉의 시간을 갖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A29·30·31면에 관련기사)

이들은 전날 첫 만남의 긴장과 흥분이 다소 가라앉은 듯 한결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추억과 따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화제로 얘기꽃을 피우고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다.

장재연(張在彦)북한직접자회 중앙위원장이 이끄는 북측이산가족 100명은 이날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남측 가족들과 개별적으로 만났다.

양측 방문단은 2일 오전 숙소에서 마지막 송별상봉을 한 뒤 북측 국외기인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한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靈甫형제 병실상봉 1일 오후 서울 삼성의료원을 찾은 북의 동생 기만(71)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형 운보 김기창(88) 회백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49년 만의 김격적인 재회를 하고 있다. >기사 19면
 <사진공동취재단

혈육 손잡고 애뜻한 情 나뉘

이산가족 두차례 개별상봉... 오늘 귀환

고향에서 뜬눈으로 상봉 첫날밤을 지낸 남북 이산가족들은 1일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가족단위로 오묘한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관련기사 5·19면

첫 만남때의 흥분을 다스려야만 듯 방문단은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 꽃을 피웠고 짐짓 작별 준비를 하고 있는 등 50년 간 가슴에 붙어둔 애뜻한 정을 쏟아냈다. 서울에 온 북한 공훈예술가인 김기만(71)씨는 이날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인 형 운보 김기창(88) 회백과 '병실 상봉'을 하는 등 방문단 모두 헤어졌던 부모형제와 배우자, 친지를 만났다.

평양에 간 남측 방문단도 최고령인 유우희(100) 할머니가 아들 신동길씨(75)로부터 '백동상'을 받는 등 방북단 진원이 숙소인 고려호텔 객실에서 북측 가족들과 따로 만나 친분하게 옛 일을 회고하며 잠시나마 이산의 한을 잊었다.

남북한 방문단은 이날 고향방에서 이튿날 밤을 또 뜬눈으로 지새운 뒤 2일 오전 3차 '로비상봉'을 끝으로 각각 평양과 서울로 아쉬운 작별길에 오른다.
 >이석우기자 평양공동취재단 swlee@kdaily.com



◇靈甫형제 병실 상봉 운보 김기창 회백이 1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병상에 누운 재 북에서 온 동생 기만씨와 김격의 재회를 한 뒤, 평소 아끼던 자신의 작품 '숨무'를 선물로 건네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 南으로 北으로 “언제 다시 만나나”

2차상봉 일정 마쳐

반세기 동안 그리던 서울과 평양에서 하룻밤을 뜬눈으로 지낸 남북 이산가족들은 1일 숙소인 서울의 롯데월드호텔과 평양의 고려호텔 객실에서 가족단위로 상봉, 쌓인 한을 달랬다.

>관련기사 4·33·34·35면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2일 오전 30분간의 짧은 '작별 상봉'을 끝으로 다시 기약없이 헤어지게 된다.

평양을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고려호텔 객실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북측 가족과 만났고, 점심식사도 함께 하면서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그러나 고려호텔에서 공동으로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북측의 한 가족이 “우리 모두 위대한 장군님(김정일·金正日)을 위해 만세를 부르자”고 제안, 북측 가족들이 만세를 부르는 동안 남측 가족이 지켜보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平壤=공동취재단
 /崔東默기자 bnmhol@chosun.com



以心傳心

반세기만에 평양에서 서울로 달려온 운보 김기창 회백의 동생 김기만씨가 1일 지방으로 거동하지 못한 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인 형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혈액의 정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짧은 만남... 또 기약없는 이별

이산가족 6시간 개별상봉... 오늘 귀환

제2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1일 뒤과 북의 이산가족 방문단은 평양과 서울에서 가족단위로 개별 상봉을 갖고 예쁜 혈액의 정을 나눴다.

이산가족들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개별상봉과 오찬 등 모두 6시간 동안 재회의 기쁨과 이산의 시련을 함께 나누며 기약없는 재회를 약속했다. (관련기사 5-22-23면)

가족들은 이날 호텔 객실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 사진을 보거나 녹음테이프를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선물을 나누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은 그러나 이날 상봉이 마지막 만남임을 의식한 탓인지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살아 또 만나자"라며 이별을 안타까워했다. 상봉장 곳곳에는 헤어지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울음으로 가득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인 운보 김기창(金基昶·88) 회백이 50년만에 서울을 찾아온 동생 기만(71·북한 공훈화가) 씨와 병상에서 극적으로 만났다.

이날 북측 방문단은 숙소인 서울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개별상봉을 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잠실롯데월드 민속관을 둘러보았으며, 남측 방문단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별 상봉과 점심식사를 한 뒤 민경태희생소년궁

전을 참관했다. 양측 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2일 오전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편으로 각각 귀환한다.

한편 남북한이 5일부터 2박3일간 개척기로 합의했던 3차 이산가족 상봉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방문단 최승철 부단장 등에게 3차 상봉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지만 응답을 얻지 못했다"며 "북측의 사정을 고려할 때 빨리야 연초에나 3차 상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심한·권민영기자 shyoon@sgt.co.kr

2차 남북이산상봉
아름다운
현유

'깃류은 하니' 회보



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오찬장에서 북측의 김중철씨가 50년 동안 수절하며 살아온 남측의 아내 유순이씨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웃김' 선물 1일 롯데월드호텔에서 진행된 개별상봉에서 북측 방문단 통영표 평양직물거래소 지매인(오른쪽)이 동남 양순씨를 만나 선물로 가져온 웃감을 며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짧은 만남 뒤로 하고...

이산방문단 오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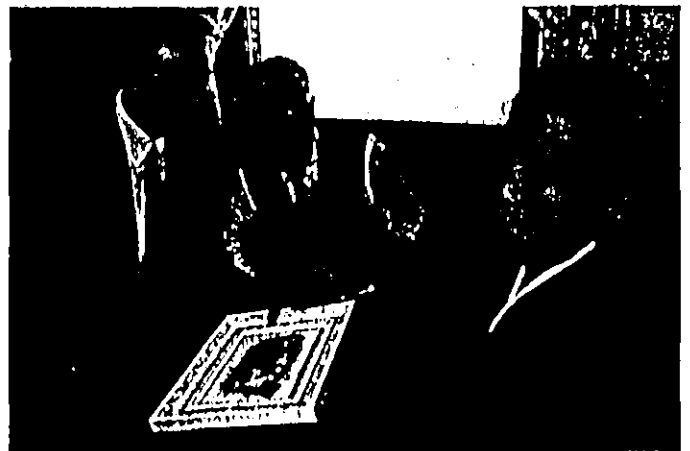
2차 이산가족 교향방문단 2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마치고 2일 오전 귀환한다.
<관계기사 5. 9. 30. 31면>
이산가족들은 방문 이튿날인 1일 숙소인 고려호텔과 롯데월드호텔에서

각각 두차례의 개별상봉과 가족동반 오찬을 했으며 '짧은 만남과 기억없는 이별'의 안타까움으로 북변(거북)의 밤을 보냈다.

이영중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yjlee@joongang.co.kr>

외면한 부인

◆ 북측 방문단 영웅여씨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백진 개별상봉에서 이를 영근씨와 함께 옛날 결혼사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이백진씨는 이를 외면한 채 희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건배..." 다들달에 술을 마시는 북측 방문단 이영중씨(가운데)와 상임을 축하하기 위해 남측 영근씨가 1일 롯데월드호텔 3층 크레스탈홀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지 마우...' 가슴친 두번째 이산

김영우씨 가족 동행취재 셋째날

"역시 맛을 못숙이능가 합니다. 멀리서 보는 순간 50년간 한번도 밥지 못했는데도 바로 '아버지구나' 했어요"

1일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둘째날을 맞은 영우씨는 개별상봉에서 아버지 김경연씨(69)가 "복에서 가져왔다"며 돌죽술을 건네자 조심스럽게 잔을 받았다.

"술은 아버지나 어른에게 배워주고 했는데 이제가... 부자기간에 처음으로 나누는 50년 세월을 담은 술잔. 아버지 김씨가 먼저 실타래 풀듯 살아온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유순이 할머니(71) 이름이 "알마" 전까지만 해도 유순이름을 알았다"며 농담을 건넨 아버지는 조금은 민망한 표정으로 "함경남도에 살고있는데 2년3년을 두었다"고 복쪽 가족의 소식을 전했다.

따내같은 간호연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사로 지내고 있다. 더러 사건을 내보이자 영우씨 입가에 웃모를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를 베고는 열혈단신인 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아버지에게다 동생이 다섯명이나 생겼다니, 내 할육이 또 있다니, "혹시 복에서 작은 어머니가 생겼으면 어찌지요" 하고 물었을 때 "어찌까지 결혼안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했. 내가 엄청난 거지, 남자가 수줍하면 더 불쌍하잖아" 하면서도 내심은 기대했던 어머니...

50년 수줍은 아내에게 미안했던지 아버지가 술을 건네자 어머니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대 이레 술을 잘하네" 하는 소리에 어머니는 신은 첫날은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겸성을 담아 술을 들켰다. 6개월만 서색시를 두고 외출근으로 가면서도 아버지는 "전편에 가 있어, 꼭 데리러 갈게" 했지만 어머니는 차마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따르자겠다"며 방 안에서 호느게 울었다는 얘기도 아들은 이날 처음 알았다.

"당신이 떠나고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지요. 아버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항주 선산에 내려가 인사물리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면 좋으련만"



1일 오후한양에서 북의 남편 김경연씨가 남의 아내 유순이씨의 입에 돌죽술을 넣어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들 영우씨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행복 하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새 할머니를 세번씩이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스갯소리에도 아버지의 얼굴은 아내의 50년 세월을 거슬러가느라 피하지 않았다. 스무살에 혼자인 며느리가 두살 허물고 시어머니를 3명씩이나 모셔야 했을 때 그 속은 얼마나 했을까. "당신도 고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로. 고생 많았지. 고생 안했을 뿐이 있다. 예뻐 데리고 이데까지 살아왔는데..."

**'술은 어른에 배워야'
돌죽술 나누며 회포
'함께 살날은 언제...'
입술 깨물며 눈물만**

고고큰 말은 알아도 차아 없이 떨려지 않고 입술을 깨물어도 끝내 흘러내리는 눈물.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은 되레 말을 잊어갔다. 서로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손을 부여잡고, 이제는 다시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바라보느라, 유달어리는 "조금이나마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게 소원이지" 하고 말해듯처럼 말했지만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흐느꼈다.

"가지 마우, 3년만 있다고 온다고 해놓고 50년이 걸렸을우, 어찌까지 잘 살아왔지만 이런 자신없습. 영우야, 아버지와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라. 아버지, 다시는 집 떠나지 못하게 해다오"

그래도 헤어질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정유미기자 youme@kx.kunghwang.com

경향신문
2000. 12. 2 (토)

'부디 살아서 다시 ...'

남북 이산방문단 '마지막 밤'...오늘 귀환

남북 이산가족 200명은 교편방문 2일째인 1일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과 경양 고려호텔에서 2차례의 개별상봉과 공동식사 등 3차례 만난 뒤 마지막 밤을 준비으로 지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번째 개별상봉이 끝나자 눈앞에 다가온 이별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듯 겁있는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에서 눈길을 때지 못한 채 다시 만남 것을 약속했다.

북한 공훈예술가인 김기만씨(71)는 상성서울병원에 입원, 차르중인 형은 보 김기창(金基昌) 화백을 찾아 딸감을 나누며 '장록의 별실 상봉'을 했다. 또 아들과 딸을 각각 만난 유우희 할머니(100)와 권오술씨(88)는 자녀들로부터 '백불상'과 '떡갈(米壽)상'을 받았다. / 관련기사 4-5-10-19면

서울방문단의 홍세연씨(69)는 노모 박간례씨(86)와 동생들이 준비한 조부와 부친 영정을 객실 내 탁자에 올려놓고 뒤늦은 제사를 올렸다. 정재갑씨(66)는 "어릴 때 심부름 간 적이 이제야 나타나다니..."라고 정편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안준옥씨(88)를 끌어안으며 "오래 사시라"고 당부했다.

남측방문단의 석만길씨(84)는 북측 아내 김보부씨(85)와 아들, 딸에게 "어떻게 만났으니 여한이 없다"며 거듭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양측 방문단은 2일 오전 뽕송 상봉을 한 뒤 2박3일간의 교편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과 경양으로 귀환한다.

최재영기자 chyoung@kx.kunghwang.com



윤보 병상상봉

1일 오후 상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윤보 김기창 화백을 찾아가 북의 동생 김안씨가 형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각분야 실력자 상당수

2차 남북이산상봉

• 알려지지 않은 유명인사

서울을 찾은 2차 북측 이산방문단은 당초 알려졌던 김영환 김일성종합대 교수 등 10여명 외에도 각 분야 유명인사가 적지 않다. 군 중심 출신을 비롯해 학계, 과학계, 관계, 언론계, 당, 기업쪽 인물이 망라돼 있다.

김성진씨(69)는 '조선내백괴사전'에 나와 만큼 북측에서 널리 알려진 '강화국 영웅'. 의용군으로 북무중 1953년 1월9일 강원 고성의 '565.7고지' 전투에서 11명의 총탄을 맞아 기어 중대 필격로를 얻었다. 이에 김일성 주석은 아산병원으로 의료진을 급파해 김씨를 살려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했으며 인민군 장령(장성)을 거쳐 현재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광로해심원'으로 일하고 있다.

軍장성출신 '영웅' 김성진씨
의사·공훈과학자 황병렬씨
黨·官 간부지낸 서성희씨도



사진공동취재단

"어머니 선물"

1일 롯데호텔호텔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북측 정재갑씨가 선물로 가지고 온 옷감을 어머니 인준옥씨에게 보여주고 있다.

최영식씨(64)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로 70년대 중반 김일성종합대 역사학부 강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개천집에 열린 '단군 및 고조선 학술토론회'에서 "고조선 이래 한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는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예술학박사인 김재홍씨(68)는 평양예술대학 강좌장으로, 안필영씨(70)는 대학 교원으로 각각에 사고 있다.

서울의대 부속병원 의사였던 황병렬씨(71)는 의학박사로 공훈과학자

이며 정재갑씨(66)는 평양김형직군 의대와 생리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윤수옥씨(69)는 농업부 관리직, 이몽호씨(68)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처장(남쪽의 국장급)을 지냈다.

서성희씨(65·여)는 다양한 당직을 거쳐 72년부터 98년까지 함흥시 여맹위원장으로서 일했다. 최영식씨(68)는 김책공업대학을 나와 사리원

의 경공업공장 기술부 기사장으로 근무중이다. 홍세완씨(69)는 지강도 안포시에서 금·철·석탄 등을 찾아내는 지질탐사기업소 지배인이다.

언론계 인사로는 김영환 양강일보 편집부국장(70)과 개성신문사 편집국장, 남철위원을 역임한 황영규씨(76)가 눈에 띄었다.

최재영기자 chyoung@yonghyang.com

서울선 '냉랭' 평양선 '따뜻'

• 北 2중적태도 진의 꿰까

'북측의 진의는 꿰까', 서울을 찾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정재연(鄭在彦)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의 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북측의 적극적인 보도와 달리 서울방문단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단장은 지난달 30일 김포공항에 도착 직후 남측이 꽃다발을 건네자 냉담한 반응이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꽃다발을 받지 거의 냉랭 개치듯 수행원에게 건네 단축시켰다"고 전했다. 남북 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를 겸하고 있는 최승철 단장장 등은 또 이날 공항에서 사진기자들이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랫치게 손을 뿌리쳤다.

張 단장 남측 환영에 시큰둥

北 TV는 상세보도 적극적

한적총재 행보 비판여론에
묵시적 항의 '양동직진' 구사

북측의 '경례'는 1일 공동오찬 때도 재현됐다. 정재연 단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 잠시 모습을 나타냈다가 곧바로 자리를 뒀다.

자리를 함께 했던 한적 관계자들이 만류했으니 "우리끼리 밥상을 차려졌으니 그리 기쁘다. 공동오찬장에 왜 우리가 참석하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

반면 북한 언론들은 지난달 30일과 1일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신속하고 상세히 보도해 대조를 이뤘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날 동안 북측 '들어간 가족·친척방문단'의 평양 출발과 남측 방문단의 도착, 남북 방문단의 단체상봉 소식을 전했다. 또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일 오전 6시와 오후 6시 보도를 통해, 노동신문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각각 4면에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1차 상봉 때는 하루 늦게 보도했다.

정부는 북측이 상봉사업과 관련해 일종의 '양동직진'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잠수식 한적 총재의 일본행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북측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산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떠돌이 짓은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인요기자 hhd06@yonghyang.com

못다룬 사연 '야속한 시간...'

2차 남북이산상봉

서울·평양 이모저모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1000' 상

남북 이산방문단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유두희 할머니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 당국이 마련한 '백돌' 상 앞에서 50년 만에 만난 아들 신동길씨와 며느리의 도움을 받으며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가족이야'

1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개별상봉에서 김영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남쪽의 누나 김옥인씨에게 북쪽 가족들의 사진앨범을 보여주고 있다.

"내아들 찾아온다. 밤에 미루 등불 끄지 말아라"던 어머니. 신촌 단공 속에 떠났던 남편. 북소리만 기억나는 오펜·동방이 '반세기의 회포'를 쫓아온 허투였다. 손을 맞잡고 옛날 얘기하고, 비비고 쓰다듬고 울먹이며 그리웠던 마음을 달랠 서울과 평양의 핏줄들은 반가움에 북소리를 높여 노래도 불렀다.

그리움 삭인詩에 '눈물바다'

서울 ○...이번 상봉에서는 이산의 그리움을 삭인사가 여럿 발표돼 주위엔 숙연해 했다. 북에서 온 신현문씨는 북에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아중역·84년 작고)의 심정을 담은 '등불 보고 찾아오너라'라는 시 한편을 받았다.

이 시는 신씨의 마태동생 현성씨(61)의 부인이 시여버니의 심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읊던 것이다.

큰덕 지붕미루에 밤마다 등불 켜놓아라/그 등불 끄지 말아라/어둠속으로 그 아들 찾아온다/등불 끄지 말아라...

30년간 개성감찰소의 감사로 일했던 현문씨는 이 시를 읽은 뒤 "어머니"를 부르며 퐁퐁, 울음바다가 됐다.

○...이날 롯데월드호텔에서는 때마침 '달려 진돈바꾸기 전장'이 벌어졌다. 이는 "북에서는 100달러도 큰 돈이라서 바꾸기 어렵다더라. 이에 진돈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이산가족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다. 50달러, 100달러 등 고액권을 준비했던 남측 가족들이 진돈으로 바꾸려고 몰려들어 롯데마그넷 5층의 현진소가 북새풍을 이뤘다.

눈길끈 '남북 언론가족의 만남'

○...북측의 김영환씨(70)와 여동생인 평린트 김영옥씨(64) 가족은 형육상봉을 넘어 '남북 언론가족의 만남'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왕강일보 편집부국장이며 남쪽의 동생 순환씨(68)는 전주 문화방송 편성국장 출신이다. 또 순환씨의 아들 정원씨(37)는 침주방송(CJB) 프로듀서로, 평린트 김영옥씨의 여동생 영자씨(59)의 남편 이광훈씨(59)는 경향신문 논설고문으로 각각 활동중이다.

○...이번 상봉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참배'가 이뤄져 남측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케했다. 한 북측 이산가족은 지난달 30일 샌드립 시티에서 있던 단체상봉 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얼굴사진이 담긴 액자를 펴 놓고 '참배'를 요구, 가족들이 목례를 하기도 했다. 북측 가족들은 이 장면은 입암이 촬영했다. 지난 1차 상봉 때도 북 이산가족이 녹음기를 열어놓고 남측 가족에게 '장군님 은덕'을 칭송하도록 요구했으나 남측 가족이 이를 거부했었다. 남측 관계자는 "북측이 1차 때 '장군님 은덕'을 말해도 재지하지 않자 이번엔 수위를 높이는 것 같다"며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여기까지 와서도 못보다니...

평양 ○...한중은씨(81)는 북측의 여동생 일삼씨(72)가 장신분열증류 앓고 있어 1일 개별상봉 때도 세 초키만 만나게 되자 그만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한씨는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죽는 일밖에 안남았다"면서 "어무리 오지 못할 병이라도 앓으면 보게 해달라"고 거듭 하소연해 주위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남측의 김진옥씨(80·여)도 사숙인 차현규씨(81)가 거

동이 불가능해 결국 나오지 못하자 "염뻔스려도 타고 와 꼭 한번 보게 해달라"고 읊소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전정봉에 갇혀진 아내의 처녀때 사진을 평생 간직해온 홍대중씨(79)는 손때 묻은 사진을 펴놓고 주름진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어루만졌다. 홍씨는 "내가 없어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두 이들과 딸을 키우며 평생 수절해온 아내의 등을 두드렸고, 아내 박신비씨(74)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마치 꿈속 꾸고 있는 것 같다"며 허연없이 눈물을 흘렸다. 홍씨 가족은 즉석에서 50년만에 가족사진을 찍었고, 아들 영주씨(54)는 왼쪽 신경 일부가 마비된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 듯 "오래 시시라"며 연신, 아버지의 손과 발을 주물렀다.

통일되면 2세끼리라도 만나야

○...남측의 박재수씨(71)는 객사로 찾아온 동생들에게 족보 요약본을 꺼내놓고 "부리를 일러고 적어왔다"며 가게를 설명했다. "누 안의 여동생이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최효순씨(71·여)는 가족의 생일이 कै일 같이 적힌 가게도를 펼쳐놓고 "다음에 통일이 되면 2세들끼리라도 꼭 만나게 하자"고 다짐했다.

○...고려호텔 3층에서 열린 공동오찬에서는 즉석 노래 지킴이 벌어졌다. 북측 가족 한 명이 '사디럼'을 부르자 곳곳에서 할머니들이 일어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쳤다. '우리의 소원' 합창 때는 모든 가족이 일어나 어깨동무할 하거나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북측의 한 가족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50년 만에 정말 보고픈 사람을 만났다'며 만세삼창을 제안, 잠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북측 가족들은 엄격한 만세를 외쳤으나 남측 가족들은 지켜보기만 했다.

서울 / 권재현·이호승·조현철기자
인호기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반백년 이은 예술혼 '핏줄은 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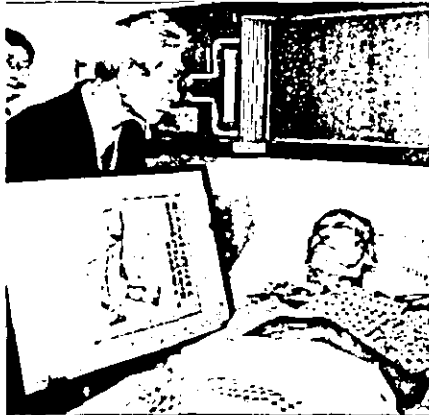
• 운보 김기창 - 김기만 화백

마침내 겨안은 南北 예술가형제

• 김한 화백 - 김철 시인

50년 세월을 동양에 살았으나 지병 때문에 만나지 못한 인연과 국을 두루본 운보 김기창 화백(87)과 북의 동양 기만세(71)가 1일 병실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191호실, 병실로 들어온 김기창은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눈동자 빛이 서 있었다. "그르륵 보고 싶었던 형님인데... 별새가 잡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심한 일은 몰랐는데" 하는 듯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인 운보 김기창 화백을 찾아간 북의 동생 기만세가 할이 선명한 그림을 손에 든 채 형을 보고 있다. / 사진제공:김한

"형님 내래 왔시요" 병실 극적상봉 필담·그림 교환하며 아쉬움 달래

문보도 호젓한 병 속으로 반세기 전에 헤어졌던 동생과 형제가 어촌 거리자 금세 알아보고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 터져 나오지 않았다.

"병실 상봉을 위해 오전에 잠깐씩 살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노숙객은 동생을 만난 길에서 여객이 되지 않는 듯 요소를 찾아내는 특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들 한세(62)가 "50년 만에 삼촌이 오셨다"고 귀에 대고 말하자 노숙객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동생을 가리켰다.

기만세가 이어 환자에게 들을 수 없는 말을 위해 수업을 꺼내 "기만세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라며 필담으로 인사말을 건네자 투병으로 지칠 대로 지친 형제 얼굴이 모처럼 환해졌다.

"형, 나 기~만이에요. 형이 가장 애써서 보낸 동생 기만이에요. 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이제야 왔어요 죄송합니다", 동생 기만세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문보는 그런 동생과 마음을 다 이해했다는 듯 얼굴 미소를 띠며 동생의 손을 연방 어루만졌다.

기만세는 병상에 있는 누나 기운세(72)와 면지도 인부도 전했다. 기운세는 14살 때 눈이 멀었으나 문보가 백방으로 돌아다니 끝내 눈물 뜨게 해준 누이였다.

기만세는 "기운이 누나가 늘 기운으로 때문에 눈을 되찾았다고 없애 오처럼 알았나"면서 "이 때문에 외사가 됐어요"라고 전했다.

기만세는 자신이 직접 그린 조선의 '태양을 따르는 한아름'을 형에게 걸어보였고 문보는 아들 한세를 통해 평소 가장 애써진 작품 '승구'(1971년작)와 전작도록(全作圖庫) 1권을 동생에게 선물로 건넸다.

대형화와 고릴라로 4년에 투병 중인 문보는 서울방문단 후원 명단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7일 다시 쓰려졌다.

김한기·일영주기자
hp@k.hunghyang.com

"어... 핏줄에는 밤내 너와 불려다던 꿈을 봤던 날" 1일 중앙 고려호텔 170호. 남의 사랑화가 김한세(73)와 북의 공화시인 김철(67)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머리카락이 한결 검은 형제는 이미 지난년부터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대회는 어느덧 남북과 형이 아산의 아들과 그림을 달래느라 그르륵 들기 차게 그려낸 명화 술을 요구 고향과 가족들과 얘기를 이어갔다. 형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꿈에서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생과 가족들까지 병실로 모든 소리를 들었다"며 웃음지었다. 하지만 동생이 자작시 '누이에게 보내는 시'에서 그르륵 여객이 왔던 누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형이 전하는 순간에는 가족 모두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말을 잊지 못했다. 동생은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하...?"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형은 어머니가 아흔을 넘고 있는 자신의 그림을 동생에게 선물로 건넸다. 동생으로 떠나기 전 경향신문 1면에 동생과 시와 함께 실린 그림과 신문을 보여주며 고향을 잃은 자신의 한을 풀어줬다. 형은 시 많이 쓰려라. 잘 팔고 돈이 되면 동생이도 좀 내보냈다. 동생은 북은 그림 7점과 도자기 3점을 형님에게 선물했다.

"동생 내외를 위해서라도 내외와 함께 좀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50년 전의 기억에 기대어 여객이면 형이 그림, 술과 요구 연작은 더욱 그리



1일 중앙에서 개별상봉을 가진 화가 김한세와 북의 동생 김철에게 자신이 가져온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한세

"이젯밤 꿈속서 밤새 함께 놀았다" '지상 시화전' 本紙 퍼놓고 얘기꽃

다. 내일이면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형제는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서로 "살아 있어 줘 고맙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굳게 약속했다. 언젠가는 형이 그림을 그리고 동생은 시를 지어 통일을 노래하는 공중시화전을 갖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약속된 시간은 너무 짧았다. 예고된 이별은 형편상으로 다가왔다. 50년 전의 기억에 기대어 여객이면 형이 그림, 술과 요구 연작은 더욱 그리

으로 제책을 갖는다. 동생과 가족을 그리는 시도 이렇게 만남을 갖는 데도 어불수없이 헤어져야 하는 아픔으로 신음할지도 모른다. 6.25 때 월남한 김한세는 월북지에서 서양화를 전공, 1995년에 이종삼 미술상을 수상한 원로화가이다. 시인 김철은 북한 최고의 명적인 공화시인으로 시 '여객'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암송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안호기기자·광양/공공취재단
hnc00@k.hunghyang.com

2000. 12. 2 (토)

世界日報

"張 총재 초청한적 없다"

日 적십자관계자 밝혀

일본 적십자사는 장총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오는 4일 만나 양국 적십자사의 공평과 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임정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일적 국제부 관계자는 1일 "장 총재 임행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일본 적십자사를 방문. (사할린 동포 귀국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인박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적의 설립 목적은 달라 "일적이 장 총재를 초청한 사실은 없다"며 "장 총재와 한적 관계자 수명이 현재 도쿄에 머무르고 있으나 장 총재측의 양해가 없는 한 그 인력치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 총재가 일적을 방문한 경우 후지모리 쇼이치(藤森昭一) 사장(총재)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

대한매일

2000. 12. 2 (토)

國民日報

2000. 12. 2 (토)

"장총석총재 4일 면담" 日赤 방문일정등 조정

일본적십자사는 1일 장총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4일 만나 양국 적십자사의 공평과 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임정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일적 관계자는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설립과 달리 "일본 적십자사가 장총재를 초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장총재의 한적 관계자 수명이 현재 도쿄에 머무르고 있으나 장총재측의 양해가 없는 한 인력치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

"張 한적총재 발언 北 비판소지 있다"

梁 통일차관 국회 답변

임영식 통일부 차관은 1일 장총석 한적총재의 월간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심호준총재의 원칙에 한 의한 점에서 북한이 비판할 소지가 있다"면서 "공인의 입장에서 말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차관은 이같은 발언은 이산가족 방문을 앞두고 틀연한 일본으로 간 장총재에 대한 정부당국의 공식위정중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대북지자세 외교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차관은 이날 국회 여권위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국군포로나 남북 어부 문제는 이산가족에 포함시키 조용히 해결할 방침"이라면서 "상봉하는 방안도 있고, 기회가 모이진다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 재결합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홍식기자 jsch@kmb.co.kr

기약없는 이별이 더 서러워라

'등불끄지 말아라' 모정詩에 통곡

서울방문단 이모저모

오찬장서 손맞잡고 '등실' 민속관 참관 감탄사 연발

50년 뉘인 전통 향에대하여 2차11명은 너무도 좋았다. 첫날 단체차편에 이어 1일 개별성격과 오찬을 함께 한 이산가족들은 한시도 가족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들간 심봉살결을 마친 북측 방문단 일행은 새 옷차림 이산가족들을 가슴에 품은 채 숙소인 북대위드호텔에서 야식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또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앞둔 이들은 기약으로부터 간에 받은 사진과 꺼내보며 뜯어 눈물 짓기나 인형과 장난감 이야기 나누는 등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북측 방문단은 1일 개별차편에서 이산의 현을 품고 먼저 세상을 뜬 가족들을 애도하며 사진 앞에서 큰 절을 올리거나 가족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등 지난날 마치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와 관련해 감정을 앗는 북측 황준우씨(67) 가족들은 케이크와 생일선물 준비, 차임이사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생일축하 잔치까지 열었다. 황씨의 아들인 종명씨(58)는 "한번도 오빠를 위해 생일선물을 마련해준 적이 없다"면서 "이제 또 언제 오빠에게 생일선물

을 해줄 수 있을지...라며 눈물짓었다.

북측 신현우씨(69)는 마네동생 현성씨(61)의 차가 북에 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시 어머니의 심정을 대신 돌은 시를 읽고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해 격심 안은 한동안 눈물 바다를 이었다. 시는 "근래 지붕머우에 밤마다 등불 켜놓아라. 그 등불 끄지 말아라/아들속으로 그 아들은 찾아온다/.../어머니 어머니는 병을 받지 못하고/시승 우는 울음으로 삼으시나 눈을 감으셨네"라고 이들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모정을 표현했다.

신현우씨는 또 초등학교 5학년인 종순녀 동화 양으로부터 "허수무령과 혼양이 돼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작은 편지를 전해받기도 했다.

오찬장에서 이산가족들은 서로 음식물 입에 넣어주거나 복을 읽어주는 등 조그마라도 더 애절한 정을 나누려는 모습이었다.

북측 방문단 중 최고령자이자 음악교사 출신인 신동우씨(81)는 오찬장에서 구상진 북측 소리로 노래를 불러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진 노래가락에 일부 가족들은 일어나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도 하는 등 오찬은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오후 개별식별이 끝난 후 민속관 참관에 나선 북측 방문단은 "이주 짐 꾸미었구만"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거나 민속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였다.

정재용 순병호기자 jwjeong@kmb.co.kr

"파마 보기 싫어" 수절아내에 투정

평양방문단 이모저모

백돌상 받고 "한 다물었어" "지병동생 데려와라" 애원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움으로 지낸 남측 방문단은 기약없는 헤어짐을 또 감내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다. 전날 있었던 개별식별은 서로 가져온 가족사진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만찬도 즐겁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이별의 아픔이 가는 이별이나 남는 아들 모두의 눈시울을 적었다.

△개별식별 = 아들 둘과 딸을 키우며 수절한 아내 박신비씨(74)를 만난 홍대중씨(79)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파마했구먼" 하고는 불만 어린 투정을 해 반세기만에 만난 아내를 미숙하게 하기도 했다. 홍씨는 "알마리아에 흰머리가 나도 파마하는 것은 보기 싫어"라고 말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그대도 아들 현주씨(54)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꺼내는 모습을 잘못 쳐다보기만 하고 아내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1차 상봉 당시 "이름다운 양보"를 했던 우원형씨(67)는 가족사진과 단양 우씨 죽보통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오찬장에서 북측 가족들이 "우리 모두 위

대한 장군님을 위해 인세를 부르자"며 민세 심정을 재인하는 불법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측 가족들은 엄밀히 민세를 외쳤으나 남측 가족들은 차분히 지켜보기만 했다.

△백돌-많은 잔칫상 받은 부모=유두화 할머니(100)와 권오술 할아버지(88)는 오찬에서 북측이 풍덩과 과일 절편 순대 등으로 마련한 백돌상과 팔순상을 각각 받았다. 백돌상을 받은 유두화씨는 "절망 기백. 이제 한을 삼킬 줄이야"라며 이들의 동물을 다독거렸다. 아들 신동갑씨는 "통일이 돼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데..."라며 앓을 엮지 못했다. 권할아버지의 윗형씨(66)는 "아버지 필경상 받으시라"라며 축하 술잔과 선물을 건넸다. 노년으로 딸을 못하는 권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게 한 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불법일 심봉 =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북측 가족들이 많이 주위를 인디곶게 했다. 한중은씨(82)는 동생 일성씨(72)가 지방으로 상봉장에 오지 못하고 조카 세 명만 만나게 되자 "5남녀 중 태내에서 하나뿐인 딸이어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는데..."라며 딸을 잊지 못했다. 한씨는 동생이 없지 않은 곳에 있다는 딸을 듣자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김진복씨(80)도 시승 차인규씨(81)가 거머쥔 불면해 나오지 못하자 "구급차에 타고 올 수는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최현수기자 평양=공동취재단



평양 고려호텔 판매장이 1일 지난 8-15 1차 이산가족상봉을 기념, 북측이 제작한 은화를 선보이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취재단

北 '이산상봉 기념주화' 판다

'모자모음' 금·은에 새겨 10원짜리 은화 약17달러

북한이 제1차 이산가족 교환행문(8월15-18일) 이후 이쪽 기념주화는 금화 및 은화 등 기념 주화류 제작, 판매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속소인 평양 고려호텔 1차 기념품 판매장에서 집현된 기념 주화에는 '북한 휴여친 가족 친서 편지 생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남북의 이산가족 모자(母子)가

다정히 포옹하는 모습이 도안돼 있다. 북측이 10원 짜리로 만든 기념 은화의 판매 가격은 37원(약 17달러). 북측이 영문으로 만든 재봉 모음서에 따르면 99.9% 순도에 무게 31.1g의 금화와 은화가 모두 3000개씩 제작됐고 북경무역회사에서 생산했다.

앞서 북한은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하는 주화도 제작했으며 해외 공개상을 통해 남한 흥분 독일 등지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밝혔다.

민인수기자·평양=공동취재단

그리움 담은 앨범... 머리카락...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나

"살림에 보탬" 금·달러 인기 北보따리 사상서 많아 눈길

남북의 가족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을까. 50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리움의 깊이 만큼이나 선물꾸러미에 정성을 들며 답았다.

남측 가족들은 단골 선물인 시계와 금반지는 물론 북남방의 특산물 추위를 고려해 시인자 방한복을 많이 준비했다. 조병권씨(67) 가족들은 "오리탕 피카 2벌과 내복 5벌, 유자차와 커피 각각 5봉 등을 건넸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것 외에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가족 사진이나 앨범, 책보 등의 선물도 많았다. 박영익씨(54-여)는 처음 만난 윤계 문경순씨(72)에게 윤씨의 유년시절 모습을 담은 앨범과 가족사진을, 김은순씨(64-여)는 오빠 김기호씨(71)에게 50년 전 오빠의 군사진을 담은 앨범을 표구로 만들어 선물했다.

리석근씨(71) 가족은 리씨의 어머니 유영

덕씨가 워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들을 그리며 쓴 대하노트 27권 분량의 편지와 머리 카락들, 문보 김기창 회백(87)의 아들 원씨(51)는 삼촌 김기만씨(71)에게 김해 김씨 죽보통 건넸다.

정부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과 달러는 여전히 최고의 인기 선물이었다. A씨는 "언제나 시 값이 오른 물건으로 비칠 수 있도록 금 12돈을 몰려들려 보내 건넸다"고 말했다. B씨는 "북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에게 재한된 500달러만 줄 수 없어 여웃돈을 모두 달러로 바꿔 건넸다"고 귀띔했다.

한편 북측 인사들은 1차 상봉때와 마찬가지로 떡볶이와 떡볶이 보드카인 워트키 등 주류와 리드담배를 선물로 건넸다. 또 북한에 원래 몸어단인 보천보전지단과 영재선경음악단이 연주한 카세트 테이프, 북한 시사잡지인 동대, 진흥농이 풍경 등을 담은 그림 달력 등 문화 관련 물품도 많았다.

1차 상봉때와 달리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인 3대 장군 위인전 같은 사상서와 조선노동당 정전칙을 다룬 비디오테이프가 진폭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조수진 순병호기자 sjcho@kmb.co.kr

北에서 온 상봉단 달라졌다



출주는 老母와 아들

50년만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만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없다. 북측 방문단의 경제감사기 1일 오전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서 개별상봉중 노모 인준옥씨와 정경계 손을 맞잡고 출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의 생각·가족 안부·남한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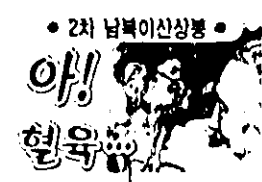
거침없이 묻고, 답하고...

느긋하고 자유로운 표정과 대화. 남한정세에 대한 독특한 시각. 사실적으로 뒤는 행동... 가족 이산가족방문단의 표정과 행동은 1차 방문단의 경직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과는 달리 무척 자연스러웠다.

이들은 집단체담장에서 취재진에게 거리낌없이 술을 권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침없이 얘기하는 등 1차상봉 때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밤알 때마다 드러내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표시만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방문 첫날인 30일 롯데월드호텔에 도착한 상봉단은 대부분 뜬눈과 웃음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취재진과 행동이 싸 세련됐다는 느낌도 짚는다. 상봉단은 취재진에게 "기본이 더 이상 줄을 수가 없지요"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일부는 방콕은 시간에 호텔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샌프란시스코 집단체담장에서도 방문단은 입상생활에서 얘기하듯 밝고 자유롭게 가족들의 안부뿐만 아니라 취재진의 질문에도 기침없



이 답했다. 김해경 대외경제협력(65)은 기자가 다가가지 "내가 술은 잘 못하는데 아들 같은 기자에게 술 헌장 따라주고 싶다"면서 술을 건넨 뒤 기자가 돌려주는 술잔을

복장·행동 세련되고 표정도 느긋

'장군님 은덕' 거론은 전혀 안변해

받아 버시기도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봉희 교수(68)는 기자들과 안내원들을 일제인은 채 어깨동무하며 하고 '우리의 소원'을 두차례 부른 뒤 '고향의 봄'까지 열창했다. 일부는 만찬장 중앙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남한정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침착하고 기침없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해경 김희정장은 "부도났다는 대우자동차 간판이 보이길

래 물어보니까 한재 매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대우나 삼성 현대가 모두 조선기업인데 해외에 팔리다니 이겁다. 김우중 회장이 도망갔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박정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내중 대통령령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는 모두 축하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성대 김영환 교수(70)는 "노벨상 수상은 남북이 모두 축하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공동선언으로 수상한건데 잠반은 장군님의 은덕"이라 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요즘 남쪽에서 현지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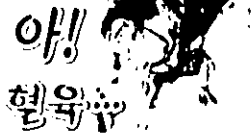
발안 등으로 남북한 교류가 트인지 1년도 안돼 잠음이 생기 안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방문단은 "북한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한"은 질문에 "김정일 장군님의 은덕으로 인민들이 잠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집단상봉과 1일 개별상봉에서도 말할 때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돌렸다.

노석출 이송철 김영수기자 schroh@kmb.co.kr

박사형제의 “형... 아우야...”

• 2차 남북이산성봉 •



“미음 속으로만 그리던 가족들을 이렇게 모두 만나게 돼 너무나 기쁘어 뽀짝 웃습니다”

1일 개별성봉이 진행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김석공(왼쪽)과 김희경(73)의 조카 윤지훈(41) 등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방재기가 함께 가지 않던 이산가족의 이복을 담았다.

서울 중앙중학교를 다니던 하교수가 가족들과 헤어진 것은 지난 50년 7월 의용군에 자원입대하면서부터다. 하교수는 “무려 50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살아왔다”며 “이제라도 한 번 가족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돼 너무

남한남 만남 北 하재경 교수

의용군 입대로 생이별 사진·편지 나누며 정담

나 기쁘다”며 힘 재인씨와 굳게 포옹했다.

지난 기쁜 첫 만남의 흥분은 다소 가라앉힌 하교수는 2시간 동안의 개별성봉에서 “북에서 박사 학위도 따고 교수까지 됐다”며 과학기술공로자 훈장과 박사학위 훈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가족과 헤어져 살아온 50년의 인생시를 차분히 얘기했다.

이에 힘 재인씨는 “나도 (의하)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박사학제”라며 “하지만 나는 훈장이 없어 조금 아쉽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하교수는 사진첩 ‘희망의 창산 백두산 해돋이’와 북의 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잡지 ‘등대’를 남쪽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북한에 있



북측 방문단의 하재경 김희경대 김희정(오른쪽)이 1일 오전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서 개별성봉도중 힘 재인씨에게 박사학위공로자 김일성 주석 사진이 들어있는 잡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는 아내와 2남1녀의 가족사진과 편지첩 보여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하교수는 “형님이 오래오래 사서야

봉일이 되면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백두산 탐험수첩 형에게 선물했다. 김영수기자 nomad@kmb.co.kr

하재경 교수의 힘 재인씨 北동창생 극적 상봉

반세기만에 찾은 ‘학창시절’

경성의전 44학번 김용씨 첫눈에 악수

학한 동기생”이라며 “외대시절 서로 전공이 달라 접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50년만에 동기생들 대하니 학창시절이 새삼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안개를 건넌 재인씨가 기억하는 김씨는 서울대 의대 전신인 경

성의전에 44년 입학, 세균학을 전공했으며 해방이후 삼청동 방역연구소에서 뇌염백신을 만든 주인공. 김씨의 동생. 윤원씨(68)도 “형님이 지난 49년 뇌염백신을 만들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50년 복원으로 넘어간 뒤 단국으로부터 세균학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막내 동생 윤원씨(62)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으로 재직중인 ‘의사 집안’이다.

재인씨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준 김씨도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동기생 얼굴은 바로 생각이 나질 않지만 하재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왔다”면서 “동기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남북성기자 hsnam@kmb.co.kr

형은 이중섭상·동생은 김일성상... ‘예술형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방재기를 보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술혼 받은 형제들 갈라놓지 못했다.

시와화가 김한씨(73)는 1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유병 시인이 되어 다니던 동생 김한씨(67)를 따라오면서 문득 아버지의 옛 제집을 찾았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모퉁이 방은 구다”라며 형과 동생의 추억을 이듬해 지난 김씨는 가족 사진첩을 형에게 선물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기억없는 약속을 되뇌었다.

동생이 북한에서 유망한 시인이 됐다는 소식에 김씨는 필기공부와 수필을 선물로 준비했지만 예상치 않았던 조카들까지 창작작에 나서자 오글러이 될까 우려한 선물로 준비하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었다.

김씨는 “여러서부터 나는 그림공부를 하고 동생은 글 재주가 있었다”고 되뇌면서 “시인이 됐다고 하니 그

‘南화가 北시인’ 형제

화가 김한씨 동생 만나 아버지 회상으로 눈물

방문으로 임집하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6년전 재미교포를 통해 시로의 생사할 아버지 확인하고 동생의 시에 김씨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문예지 상으로 상봉한 적이 있는 이들 형제는 짧은 상봉시간이 아쉬울 뿐이었다.

남쪽의 큰아버지를 만나게 된 조카 김씨는 “아버지는 92년 4월 ‘아버니’라는 시로 최애 연애인 김일성 상을 수상했다”면서 “북의 주민들이 이 시를 암송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했다.

김한씨도 상잔에 살다가 왔던 형



남측 서양화가 김한씨(그림 든 사람)가 1일 북측 공훈시인인 동생 김희씨에게 자신이 그린 ‘이복’을 얻고 있는 어머니’ 작품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김씨는 홍익대에서 시인회를 전공하고 95년에는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

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채훈기자·평양 = 공동취재단

“살아서 다시 만날까...” 석별의 마지막 밤

2차 이산상봉단 오늘 귀환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상봉 첫날 비록 눈으로 세운 뒤 방문 이첩체인 1일에는 숙소에서 가족단위로 개별 상봉을 하며 50년만의 재회의 감격을 이어갔다.

북측 이산가족 100명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개별상봉과 이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의 오전 등 모두 6시간에 동안 남측 가족들과 만나 이산의 한을 풀었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도 평양 고려호텔 숙소에서 두차례 가족단위 상봉시간을 갖고 잠실을 한꺼번에 떠났다. ★관련기사 4-5-26-27면

양측 이산가족들은 오후 상봉이 끝난 뒤 각각 롯데월드 민속관과 평양 만수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고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과 북측 중앙회기 주최한 만찬에 참석, 서울과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2일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각각 귀환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50년간 쌓인 모자간의 한을 풀리는 듯 북에서 온 장재갑씨가 1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호텔 개별상봉에서 어머니 안준옥씨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웃으며 손을 주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國民日報

THE KUMIN DAILY GORBEE

2000. 12. 2 (토)

“형님” “...” 눈물어린 ‘手話상봉’

· 2차 남북이산상봉 ·



김기창-기만 화백

“형님...”

반세기만에 이뤄진 두 회가 한재의 만남. 함으로 고내해왔던 상봉이었지만 명칭의 차은 동생의

가슴 터지도록 묻어온 반세기 그리움
병상에 누워 소리내어 부르지 못해
손짓 눈짓 섞으며 “또 만날수 있길”
각자 그림 나누며 “백세까지 사세요”

목소리에 소리들 내 대답할 수 없었다. 동생도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형님을 바라만 보았다. 50년 희년의 세월을 20분만에 31천해대기엔 너무도 짧았기 때문일까.

1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삼성의 료원 1902호실에 입원해 있던 운보 김기창 화백(88)이 동생 기만씨(71·평양미술대학 교수)를 극적으로 만났다. 기만씨는 조카 완씨

(51)로부터 이버님이 말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떨어서자마자 곧장 잠 속에서 수침을 꺼내 “형님 저 기만씨가 왔어요. 개선장군이 돼 왔답니다”라고 써 보여줬고 이후는 수화로 이뤄졌다.

김화백은 무슨 말을 계속 하는 듯했으나 목에 쫓은 음식물 주입관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몸짓과 손짓만 할 뿐이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기만씨는 그런 운보가 안타까운지 앙상해진 혀와 손을 어루만지며 “나를 다 키워주신 큰형님이 이렇게 병약해지시디나.

이어 두 사람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교환했다. 기만씨는 ‘태양을 따르는 한바람’이라는 조선희화 진달렸고 김화백은 평소 애자중지 하던 작품 ‘승무’를 주었다.

지방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온 김화백은 앞서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입원중인 운보 김기창 화백이 1일 오후 북한에서 온 동생 기만씨를 50년만에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10시30분쯤 병실상봉을 위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운보의 상태는 진남보다 좋아졌고 이침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동생을 만나고 싶다는 사수를 청하기도 했다.

이탈 원씨는 “못말리보실꺼봐 걱정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가 주어져 자식으로서 참 기쁘다”라며 감격스러워했다.

민태원기자 twrwin@kmb.co.kr

첫날 치수재고 둘째날 양복 선물

어떤 선물 주고받았나

어제는 치수 재고, 오늘은 양복 사고... 이안호씨(79)는 1일 아침 일찍 양복집에 가서 북에서 온 동생 용호씨(60)에게 신물함 양복을 샀다. 오전 10시 개별 상봉장인 서울 롯데월드호텔에 히잡지갑 양복을 들고 나타난 이안호씨는 "내년 1월이 동생 칠순이라 어제 단체 상봉때 몸 치수를 재서 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별 상봉때 남쪽의 이산가족들은 짐 상이 담긴 갖가지 선물을 주고받았다. 남쪽 가족들은 북에서 온 가족에게 한복 내의 양말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시계 카메라 등 생활 용품을 주로 선물했다. 반자 귀고리 등 귀금속이나 영양제 반창고 등 의약품도 건네기도 했다. 북쪽 이산가족들은 주로 북한산 술과 담배 과자 등을 남쪽 가족에 선물했다. 구월산 전경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진통민요 음

南 생활용품·北 술·담배 주종 손목시계 족석에서 바뀌치기도

와 테이프, 북한 담배, 잡지, 김일성 배지 등을 갖고 온 가족도 있었다.

특히 평양시 평양시 직물도매소 지배인(64)은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 특별 주문한 비단 3필과 딸(미술장작사에 근무)이 그린 금강산 전도를 남쪽 누나 양순씨(74)에게 전해 눈길을 끌었다.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선물 이산 선물도 눈에 띄었다. 평린트 김영옥씨(63)의 북쪽 오빠 영환씨(70)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의 목걸이 스카터 등을 전해 받고 오열했다. 일부 가족들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족석에서 서로 바꿔 치는 등 뜻다한 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daily.com



오래 사세요 남북 방문단을 뚝뚝이 최고령인 남측 유두희 할머니가 1일 북측이 차려 '백돌상' 앞에서 아들 신동길씨가 권하는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평양 사진공통취재단

평양선 기념주화도 판매 1차 상봉 기념 3,000개 제작

북한이 지난 8-15 1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기념하는 금화·은화 등 기념 주화(시전) 3,000개를 제작, 판매하고 있음이 1일 확인됐다.

방북단 소속인 고려호텔 1층 기념품 판매장에 진열된 기념 주화에는 '북남 출이전 가족친척 평양 상봉'이라는 글과 함께 어머니와 아들이 다정히 포옹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북측이 10원짜리로 만든 기



남 은화의 반짝이 격은 37원(미화 17달러)이다. 북측이 영문으로 만든 '재봉보증서'에는 순도 99.9%, 무게 31.1g의 금화와 은화가 3,000개 제작됐으며 부강 무역회사가 제품을 생산했다고 쓰여 있다.

●평양 공통취재단

100세 老母 '백돌상' 받고 "이제 恨 풀었다"

서울·평양 스케치

1일 서울과 평양의 숙소에서 이산가족들은 개별상봉과 시대 참관 등 남북 상호방문 이틀째 일정을 보냈다.

●서울 조현 봉일장책 명화봉일장책자문위원이 북측 시성희씨(65)에게 "가족들을 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자 시씨는 "어 동생이 나팔 보고 많이 울어서 내가 울지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령님 모시고 풍일이 되면 함께 삼지요" 라고 대답.

그러나 남의 아내를 찾아온 권태성씨(75)는 끝내 남녘의 아내 김영희씨(72)를 만나지

● 서울 北혈육에 선물로 주자 때이던 '달려환전 전쟁'

못해 주위랑 안티감게 했다. 아내 김씨가 재혼에 대한 죄책감으로 상봉을 꺼리는 데다 북내정도로 앓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권씨는 지난 서울 센트럴시티 말레니엄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장에서 만난 여동생 태분씨(74·경기 의왕시)에게 "아내는 왜 만나왔느냐"며 아내부터 찾았

● 평양 50년 수절 北부인에 "내가 죄인..." 한탄

지만 "올게가 늑내장을 앓고 있어 앓을 볼 수 없어 도저히 나올 수 없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롯데월드호텔에서는 때이던 '달려 환전바꾸기 전쟁' 이 벌어졌다. 남측 이산가족들이 북의 혈육들에게 선물로 달려볼 제공하기 위해 대거 환전에 나선 데다가 50달러,

100달러 등 고액제패를 준비했던 이산가족들도 1.5달러짜리 진돈으로 바꾸려고 몰려들었기 때문.

●평양 평양방문 이불제패 맞은 남측 방문단은 1일 오전 고려호텔 객실에서 개별상봉을 통해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석만길씨(84·충남 천안시)와 흥대중씨(73·서울 상동구 옥수동)는 부부 상봉의 기쁨에 들뜨지만 북의 아내 장보부씨(86)와 박신비씨(74)가 50년 동안 수절해온 것에 대해 "내가 죄인"이라며 미안해했다. 이날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인 100세 유두희 할머니는 아들 신동길씨(75)가 차려준 '백돌상'을 받고 "짐할 기예, 이제야 한을 풀었어"라면서 칠순이 넘은 아들의 등을 다독거리 주위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울릉상·평양공통취재단

“50년 恨이 50분도 못돼 풀리다니...”

2차 남북이산상봉

해피아이 田永采희장

“지난해 북에 갔어요. 형이 형님에게 누가 될까봐 말하지 않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돌아오기 전날 부락을 찾지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젠 언제 만나느냐 이제 여한 없습니다”

임영후씨(60)를 만난 친영채(田永采·51·해피아이 회장)씨의 소감이다. 친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5일까

의용군 끌려간 뉘과 해후 옛사진 같이보며 웃음꽃 “내일 또 헤어지니 답답”

지 MBC가 방영 분화예속단에서 개최한 한 민족통일음악회 부단장 자격으로 방양을 방문했다. 7년 전 조선족을 통해 형이 원산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방양 체류기간 내내 형 소식은 물어보지 못했다.

김원도 농촌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맞은 친 은퇴한 영후씨는 6·25전쟁때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의용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다. 살아 생전 장남을 어머니께 기다리던 어머니는 80년 돌아가셨다. 당시 형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어찌

니가 죽고 나사야 사망신고할 뻔했다. 지금은 복원 신청을 한 상태.

서울에 온 영후씨는 이번 상봉에서 친회장 외에도 누나 임희씨, 동생 양세·영기·영득씨와 조카들을 만나 50년 恨을 풀었다. 친씨는 “만나서 반갑기는 한데 내일이면 헤어진다 생각은 하니 벌써 겁겹해진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영후씨의 고향학교 2학년 당시 학생증 사진을 갖고 있던 가족들은 “막상 만나보니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이어 “괜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신고했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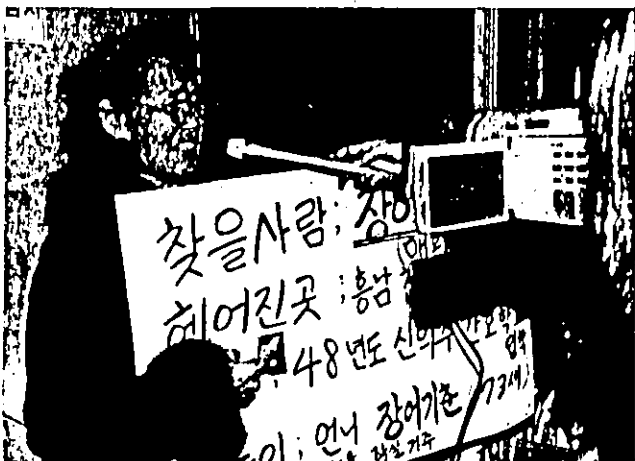
친척 가족들은 영후씨를 위해 고향 모습과 부모·형제·조카들 사진이 때려야 담긴 가족사진첩을 들고 왔다. 또 부모 기일, 가족의 생일을 적은 종이의 호치등만까지 준비했다. 친분은 낯설고 먼 곳에 낯선사람 같았다. 영후씨가 바다와 가까운 원산에 살기 때문이다.

“단체 상봉때 물어보니까 이틀 3취체 다장기갔다군요. 형수남하고 조카, 조카며느리들 주려고 김바 한박스, 스웨터도 두벌씩 준비했습니다”고 영채씨는 내일이면 북으로 갈 형을 보며 아쉬운 듯 말했다.

●친경희기자 lark30@kdaily.com



어보니를 용서해줘 1일 중앙 고려호텔에서 6·25전쟁때 헤어진 아내 박산비씨(74)를 만난 불대중씨(79)가 고이 간직해왔던 박씨의 치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50년간 수습해 온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중앙 사진공통취재단



내동생 모르세요 1일 이산가족 개별 상봉장의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에서 빈북단에 까지 못한 한 실행민이 동생을 찾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kdaily.com

“옛모습 간데없고 사람만 그대로네”

■ 북측 방문객 서울 인상기

북측 방문단은 반세기 만에 만난 친유의 모습은 그대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 옛 서울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100명의 방문단 중 20명은 고향인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일 개별 상봉을 마친 남측 가족들은 북에서 온 가족들이 서울의 변화상에 놀라워 하면서도 배양 등 공해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유 나타냈다고 전했다.

서울 김명중학교에 다녔던 장재기씨(66·방양 김경기 군의대내 부교수)는 “이런 시절 상동구 신남동 장충단공원 인근에 살았던 기억이 난다”면서 “어제만 상봉장으로 이동하면서 잠깐 본 서울 가리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기 탁하고 너무나 현란 김치맛 그대로 남아 위안

하재경씨(65·김책공업종합대학 김자정)는 “서울은 공기가 탁해 머리가 아파왔다”면서 “기리에 반짝거리는 불빛이 많아 어지러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북측 방문단은 “서울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면서도 “장신려민들은 볼품 못친 우려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한 음식 중에서 김치 맛은 그대로라는 게 북측 방문단의 평이다.

종로에서 태어난 홍성표씨(67)는 “여시 김치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남조선 음식은 된고 기름지고 북조선 음식들은 기름이 없는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조현석 통일상기기자

내실있는 만남... 정례화 길 열어

■ 성숙한 모습의 2차 이산상봉

2차 이산가족 상봉은 1차 때와는 여러가지로 달랐다. 남북·방문단 모두 차분하게 남북의 가족들을 만났고 국민들도 조용히 이를 지켜봤다. 2차 상봉이 이뤄짐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토대도 마련됐다.

●차분한 모습 2차 방문단은 단계·개별 상봉에서 1차와는 달리 훨씬 여유있고 성숙한 모습이 었다.

남북 가족들은 상봉에서 이산의 한을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일관하기보다 간간히 웃음을 지어가며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나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북측 방문단의 경우 1차 때보다 부모를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 흥분의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내실 있는 상봉'에 중점을 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차보다 하루 줄어든 일정 속에서 상봉시간도 2시간30분 줄었으나 오히려 '만남의 맛'은 높았다는 게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 설명이다.

●경비도 절반 상봉 분위기가 이처럼 크게 바뀐 데는 행사를 준비한 대한적십자사의 정부가 '적은 비용, 의미 있는 상봉'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비적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측 차분...국민도 조용히 지켜봐

남비적 요소 없애 경비 절반줄여

생사 확인·서신 교환 실천 할 때

1차 때 18억7,000만원(남측)에 달했던 비용을 9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참관 횟수도 줄여 이산가족들이 상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상봉의 내실화에 기여했다.

북측이 1차 때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며 선물과 현금제공 액수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인 점도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는 2차 상봉이 예정보다 한달 늦게 이뤄지긴 했어도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환송만찬에서 "두 차례의 방문단 교환이 이뤄짐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점진적으로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남북간에 합의된 가족과 친척들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면회소 설치 등 남북이 실천하는 것을 비롯,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보다 진지하게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희기자 berk3@kdaily.com

대한매일

2000. 12. 2 (토)

“형님 저 좀 보세요...들리세요”

2차 이산가족 상봉

병상 김기창화백·北동생 '20분 대면'

“형님, 저 기만이에요 제가 왔어요 일어나서 저 좀 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산소호흡기를 단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昌·88) 화백은 힘겹게 눈을 떴다. 청력을 잃어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 동생의 얼굴이었다.

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삼성의료원 19층, 북의 화가 동생 기만(基萬·71)씨의 오일에 남의 형 김화백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맞았다. 49년만이었다.

병실에 들어선 기만씨는 “못난 동생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뉘었다. 김화백이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북에서 개선장군이 되어 왔습니다’ 라고 수첩에 써 보여줬다.

병상에 누운 김화백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 못하는 雲甫 연신 고개 끄덕이며 눈물만 동생 기만씨도 화가... 圖錄·수묵화 주고 받아

동생을 바라봤다. 몸이 불편해 거동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려웠지만 서로 꼭 움켜잡은 손으로 마음과 마음은 전해지고 있었다. 반세기 동안 쌓인 그리움과 한은 눈물이 되어 그치지 않고 흘렀다.

지난 4년간 패혈증과 고혈압에 시달리던 김화백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지난달 17일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중환자실에서는 면회가 어려워 1일 오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기만씨는 김화백의 셋째 동생, 서울시립미술연구소 연구생으로 있다가 51년 월북했다. 김화백은 85년 이산가족 상봉 당시까지 동생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다. 당시 북에 다녀온 사람이 소식을 전해준 뒤 동생들이 북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기만씨는 북의 누이 기옥씨(72)가 오빠에게 전해달라며 쓴 편지를 김화백의 손에 쥐어줬다. ‘어렸을 때 영양실조로 눈이 멀었던 적이 있는데 큰오빠(김화백)가 업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녀 눈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화백의 아들 완씨(51)는 족보와 사진 등을 작은아버지에게 보이며 형제상봉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김화백은 71년작 ‘승무’와 ‘자’... 작품 5,000점 모두가 담긴 전작도록(全作圖錄)을, 기만씨는 ‘태양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수묵화 4점을 선물로 주고받았다.

남과 북을 달리하며 유명 화가가 된 형제의 상봉은 허무할 만큼 짧은 20분만에 끝났다.

●이승희기자 songhe@kdaily.com



“옛날엔 이랬지...”

사진공동취재단

북측에서 받은 훈장을 자랑스레 목에 건 김영환 김일성종합대 교수가 1일 오전 옛 앨범을 들추며 남북 가족과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雲甫형제 ‘눈물의 筆談-手話’

기만씨와 병실 상봉

병든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김기만씨(71·평양미술대학교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누운 채 꿈쩍 못하던 운보 김기창(雲甫 金基昶·88) 화백은 입가를 움찔거리며 손가락을 쳐들어 50년만에 본 막내동생을 가리켰다.

사흘전부터 병세 좋아져

한동안 징적이 흐른 뒤 기만씨가 수집을 꺼내 ‘개신장군이 되어 왔습니다’라고 써서 보이자 운보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어루만졌다. 남한의 ‘국보급 동양화가’와 북한 ‘공훈예술인’ 형제의 만남은 고요했기에 더욱 애절했다.

당초 성사가 불투명했던 형제의 병상상봉은 운보와 기만씨의 강력한 희망과 남북한 당국의 협

조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병실에서 약 20분간 이루어졌다.

운보는 7년 전부터 폐활증과 고혈압으로 수없이 사경을 헤매 병원측이 “상봉 때까지 기밀코 샐리겠다”고 할 정도로 위독했다.

하지만 상봉 사흘 전부터 거짓말같이 병세가 호전돼 1일에는 산소호흡기를 뺀 채 상봉에 임할 수 있었다.

이날 상봉은 운보가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인 데다 목에 음식물 주입관을 끼워 의사소통이 힘들고 기만씨도 석달 전 찾아든 중풍으로 언어장애가 있어 주로 필담과 수화로 이뤄졌다.

“형님과 전시회 열려했는데-”

지난달 30일 상봉장에서도 조카와 사촌에게 “형님이 우리들 다 키웠다.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던 기만씨는 이날 “형님

과 함께 전시회를 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신 줄은 서울에 와서야 알았다”며 울먹였다.

이날 만남에서 운보는 자신이 아끼던 소품 ‘승무(僧舞·71년 작)’를, 기만씨는 ‘참공을 비상하는 새들 그린 수묵화 ‘태양을 따르는 한마음’ 등 4점을 선물로 건네며 서로의 예술혼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만씨는 ‘작품설명을 하며 “장군님을 찬양하는 그림”이라고 말해 한때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운보의 아들 완(完·51)씨는 “부친께서 평소 병환으로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상봉 때 유난히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며 “병세가 엄려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생의 방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기에 반드시 만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



“조국을 사랑하자”

중앙-사진공통취재단

명암을 방명한 조희완 할아버지(79)가 1일 민경여성소년학생공연을 관람하다 이곳 서예반 학생으로부터 '사랑하자 나와 조국'이라고 쓴 글씨를 받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



“많이 드세요”

중앙-사진공통취재단

몸에 100세로 남측 방문단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유우희 할머니가 1일 명암 고려호텔 공동오찬장에서 아들 신동길씨(75)와 며느리로부터 '백돌상'을 받고 있다.



김수환추기경



장재안단장

“안타깝네요”

김수환추기경·장재안北단장
일정 안맞아 만남 결국 무산

대한적십자사와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산가족 상봉단의 북측대표단장 자격으로 서울을 찾은 장재안(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김수환(金壽煥)추기경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김추기경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추기경이 1일 오후 5시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왔다”며 “그러나 김추기경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이취임식 행사 등으로 1일 오후 9시경에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uger@donga.com

“또 보게 200세까지 사세요”

개별상봉 이모지모

○...“큰데 지붕마루에 밤마다 등불 켜놓아라/그 등불 끄지 말아라/어둠 속으로 그 아들은 찾아온다/등불을 끄지 말아라...”

“아들 찾아오게 등불 켜줘라”

북측 방문단의 신용문씨(69)는 평소 북의 아들을 그리워하던 어머니 이중덕씨(84년 작고·당시 84세)가 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남측 가족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다 돌아가셨다니...”라며 회한의 눈물.

○...어머니 박천례씨(92)를 만난 홍세완씨는 이날 개별상봉에서 식탁에 마련된 백세주를 어머니에게 따라주며 “이 술을 마시고 100살까지 사셔야 합니다”고 간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응시.

박씨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많이 먹어라”며 권하자 홍씨는 “왜 마지막입니까. 이 술 드시고 1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 사세요”라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전날 집단상봉 때 50년 만에 북에서 찾아온 아들 정재갑씨(66)를 만나 못는 얼굴로 반기던 안준옥씨(88)도 1일 개별상봉에서 서는 결국 눈물을 터뜨려 ‘모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안씨는 이날도 “당실명실 음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아 눈물도 안난다”며 아들 손을 붙잡고 한참 음을 추었으나 한 순간 그동안 참았던 실증이 폭발한 듯 “50년 만에 만나 내 아들이”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씨 역시 “하룻밤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갈 수만 있다면...”하고 눈물을 글썽.

칠순 오빠에 즉석 생일잔치

○...북측 방문단의 이용희씨(70) 가족은 음력 12월14일인 이



씨의 칠순을 미리 기념해 케이크 삼페인 와인용 점심시간에 가져와 즉석에서 조촐한 생일잔치를 열었다.

여동생 선호씨는 “오빠의 생일상을 꼭 차려주고 싶었는데 이번엔 소원을 풀었다”며 “말년 때도 꼭 보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이씨는 “7남매가 모두 살아 있다는 소식을 가장 큰喜讯 선물로 안고 돌아간다”며 건배를 제의한 뒤 단숨에 와인 한잔을 비웠다.

<서정보·민동용기자> suhchoi@donga.com



老母와 덩실덩실 춤추고-

사진공동취재단

북의 아들 정재길씨는 노모 민준옥씨와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상봉의 기쁨을 만끽했다.



말은 속으로 울고-

사진공동취재단

구소의 아버지 권경태씨(왼쪽)가 눈물을 흘리자 여고시생 서울을 떠나 빈세기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딸 순호씨도 허공을 응시하며 슬픔을 달래고 있다.

'100人만의 잔치' 언제까지...



□1000만 이산가족 시름- 상봉 제도화 열망

탈락 노인들 "내돈 내고라도..." 향의 상봉 가족들 "한번 만나고 끝" 허탈

"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내 돈 들여서라도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2차 상봉(83·서울 중랑구 중화동)"

"처음에는 이별이 들어있기에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적십자에서 시 못 건다는 거야." (백광만·82·서울 송파구 가여동)

2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200명 가운데 2차 탈락자들이 현재 진행중인 2차 상봉장면을 지켜보는 현은 아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 70~90대인 이들은 가내가 산것 부분이 없었기 때문인지 더 큰 시름에 잠겨 있다.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국

히 재한된 인원에 한해서만, 그것도 다음 상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안한 이벤트' 행사가 되면서 대다수 이산가족에선 상봉행사가 '그들만의 잔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요즘 대한적십자사엔 이런 하소연과 항의, 나아가 분노가 담긴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적 남북 교류팀 관계자는 "북한출신 또는 방북신청 탈락자들이 '왜 나는 못가느냐'고 호소하는 전화가 연일 쏟아진다"며 "매일 걸려오는 수백 통의 전화 대부분이 이런 항의전화"라고 전했다.

'비닐구멍' 같은 상봉기회를 누리던 이산가족들도 아픔은 마찬가지. '너무 짧은 만남으로 끝나버리면

...'이라는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북에서 온 동생을 만난 김소백씨(70·경북 포항시)는 "이렇게 힘겹고 답이 없어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앞으로 소식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정부는 13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 등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2차 상봉과정에서 나타난 북측의 태도로 보면 비관적인 전망이 앞선다.

남측은 기회있을 때마다 △생사 확인 △사신교환 △면회소설치 등 상봉절차와 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

하다. 오히려 북측 관계자들은 두 차례 교환방문이 '장군님의 따뜻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방문단 교환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남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지자세' 논란과 맞물리며 우리 사회에 냉소적인 기류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북측의 '시해'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산가족 행사는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북측에 돌아오는 꼴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전문기자는 교환방문 항의의 "고비용 저효율" 상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전성인(全相仁·사회학)교수는 "북측이 안심하고 내려보낼 수 있는 전망이 이산가족이 그리 많지 않아 교환방문은 10번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생사 확인 사신교환 전화통화 등 '저강도 교류'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이동영·김승집기자〉
klimt@donga.com

이번 2차 북측 방문단 가운데 교수 학자 등 오피니언리더층이 1차 교환방문 이후 남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공식매체는 물론 1차 방문 인사 등 개별적인 '정보 라인'을 통해서도 남한 사정을 집었다고 전했다.

김일성종합대 조선어문학부 후보원사(석좌교수에 해남)인 김영환씨는 "1차 상봉단원이던 국어학자 유영 선생을 만났더니 남측의 '굴 쓰임새'를 잘 보려고 했다"며 "들단 내로 안이름 넣음하는 경향

□北 2차상봉단 南사정에 해박

"信保사전-황장엽과문 잘 안다"

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간데 상봉장인 '샌프란시스코'도 "중의회관"이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

김씨는 또 "박지진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과문으로 두달이 전 장관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은 북에서도 널리 알고 있다"며 "그 때는 한나라당

의 정치공세가 조금 지나쳤다"고 총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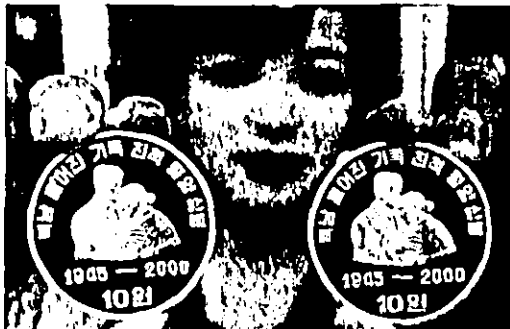
필리프 김영욱씨의 오빠이자 양강일보 편집부국장인 김영환씨는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이후 노동신문의 대남 논조 변화를 보면 남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1일 오전 몇몇 조간신문을 읽어봤는데

입장이 지어졌음에도 소식을 재빨리 전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황장엽 사건'에 대해선 "알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김일성종합대 역사학부 교수인 최영식씨도 "역사적인 시각에서 남측을 보고 오겠다고 동료 학자들 함께 얘기했다"며 "외래어 남용 등을 볼 때 '조선의 알'이 북측만 못한 것은 남측 사람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기자〉
ddr@donga.com



北제작 기념주화

북한이 제작한 제1차 이산가족교류행동 기념주화를 1일 평양 고려호텔의 여자 판매원이 보여주고 있다.



"선물 받으세요"

북에서 온 노승덕씨(오른쪽)가 1일 개별성별에서 누나 노승애씨에게 백두산 돌묵술 등 선물을 전하며 인일이 설명하고 있다.

50년만의 잔칫상 "이제 여한없구나"



평양에서



이산상봉



서울에서

심장의 감기가 침수족 '내외의 이별'이 너무도 가슴 아픈 하루였다.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방문단 100명은 북측 가족과 개별 성별을 갖고 이산의 이별을 당했지만 너무도 짧은 성별이 아쉽기만 해 가슴은 다시 비어졌다.

○...이머니, 한길 잔칫상도 못재드었는데 '백두상'을 읊습니다.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柳斗熙·100) 할머니는 이날 평양 고려호텔 공동오찬장에서 50년만에 만난 이국 신동길씨(75)가 마련한 '백두상'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 할머니는 이국의 잔치를 반오반년도 불친한 푼 때문에 고개만 언산 푼듯 한 금방 잊을 양지 못했다.

동감씨가 "어머니 가버지요"라며 자주 말을 건네자 유 할머니는 "잠깐 가버, 이제 한을 찾았 쓰았어"라며 이들의 통을 나눴다. 유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북측 여자내원원은 "할머니는 종종 '죽어도 잔이 없다'는 말을 하시네요"고 말했다.

한편 88세인 권오순(權五淳)씨도 같은 자리에서 북측 딸 인희(仁熙)로부터 뉘엿뉘엿 80년을 기념하는 잔칫상을 받았다. 인희씨는 "아버지, '백두상' 받으시라요"라며 손간을 권하듯 권하듯 가리켰다. 그러나 노환으로 말을 못하는 권씨는 반대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우물만 돌리며 북측 가족들의 마음을 안아내게 했다.

아침 10여가지 음식준비

○...고려호텔측은 1일 아침 식사로 시냇물조개국, 조개젓고추찌개, 반숙 달걀찜, 산유(유유를 볶아서 만든 음식), 김치나래떡, 쉬음버(숙아), 참

관짓 등 10여 가지의 음식물 준비했다.

호텔 관계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진중 민족음식을 마련했다"며 "깨니마다 음식 종류를 바꿔가며 고추고추 맛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침식사를 마친 남측 방문단은 각자 호텔방에서 개별 성별 때 북측 가족에게 전할 선물과 사진 등을 꺼내보거나 일부는 고려호텔 1층 매점에 들러 남측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만세상창에 잠시 어색

○...이날 평양 고려호텔 2, 3층의 공동오찬 시간은 노래자랑과 시 낭송 등이 이루어지 시종 흥기는 축제분위기였다. 북측 가족 상당수가 만세상창을 하는 등 '김정일(金正日)장군'에게 찬사를 보내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으나 남측 방문단은 이를 차분히 지켜보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김진욱(金鎭玉·78)씨의 북측 가족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시작한 뒤 노래와 박수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북측의 한 가족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배려로 50년 만에 장마 보고한 사람을 만났다'며 '장군님'을 위한 만세상창을 제안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북측 가족들은 일례히 만세를 외쳤고 이어서 '구름 넘어 그리운 장군님에게' '장군님 믿고 갑니다' 등의 찬가를 불렀다.

<부형권기자·평양=공동취재단> bookum90@donga.com

1일에는 서울을 찾은 북한측 이산가족 상봉단원들이 남측의 가족들과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를서 개별성별 기회를 가졌다. 서로 잊고 있었던 옛 기억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가며 '50년의 반쯤'을 헤어나간 이들은 짧은 만남에 긴 이별을 여감한 듯 대부분 울음으로 만남을 마무리했다.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개별성별에서 재남 가족들에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명의의 동일한 선물세트를 전달. 선물세트는 백두산 돌묵술 2병, 2001년 새해 달력 2개, 보드카 3병, 침대 시트 1벌과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건축 동별행진 녹화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꾸며졌다.

남측 "위하여" 北선"축배"
○...북측 방문단은 1일 밤 만찬에서 남측 인사들이 건배를 제의하며 "위하여"라고 외치는 데 대해 다양한 반응들. 북측 대표 가운데 나운석씨는 '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축배'라고 외친다"고 대답. 또 임현식씨는 "무엇을 위하지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조국통일을 위하여'라고 하겠다"며 건배를 제의하기도.

○...지희 할아버지께 이 편지를 전해드릴 분 없으신가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호텔 32층 식당 '리세느'의 지배인 손시우씨(40)는 아버지 산주씨(67)가 북에 살아 계시지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시우씨의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 한 통을 들고 이날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북측 방문단원들에게 입 읽어 호소. 편지에는 북에 남기고 온 부모



홍일진

북측방문단 가운데 홍일진(洪日鎭)씨. 그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었다.

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집중한 사과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산상봉 브로커' 등장

○...1일 개별성별이 이뤄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는 이산가족을 찾아주겠다는 40대 중반의 여성 '이산상봉 브로커'가 출현해 눈길.

자신을 리시아 국적의 조선족 여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이렇게 정부를 통해 만나는 것보다 사할린에 있는 우리 회사를 찾으면 더 쉽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며 상봉 현장 부근의 남측 이산가족들에게 접근.

그는 "북측도 남측 정부보다는 나쁠 더 신뢰할 것"이라며 자신의 한국 연락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리기도.

<서정호·이훈·최효원기자> suhchoi@donga.com

“北가족얼굴 떠올라 가슴아파”



‘1차상봉’ 특의 감춰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보는 1차 상봉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지난 8월 남과 북에서 그토록 그리던 가족들과 상봉. 50여년간 쌓였던 한을 풀었던 이들 ‘상봉신배’들은 너무나 할것없이 TV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우기 일쑤다.

100일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던 이들은 상봉을 정리회해 보다 많은 이산

100일 지났지만 어제만난것처럼 생생 TV상봉장면 보여 눈물·밤잠 못이뤄

가족들이 상봉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에서 내려온 딸을 30년만에 단났던 임연환(84세)은 “오늘 새벽까지 TV를 보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 딸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무척 괴롭다”고 말했다.

같은 실랑민인 임씨의 부인 채두숙(79세)도 “남편과 상봉신청을 같이 했지만 이번엔 남편만 선정됐었다”며 “이번에는 내가 고향집을 알고 있었는데 탈락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에서 아들 러은봉(66세)을 반세기만에 상봉한 지 한달만인 지난 9월 세상을 떠났던 박성녀(여씨)의 가족들은 이번 2차 상봉을 보면서 1차 상봉 당시와 어머니가 임종하던 순간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다. 박씨를 휠체어를 태워 상봉장으로 모셨던 러씨의

동생 온원(63세)은 “이번 상봉을 볼 때마다 형님이 어머니께 큰절을 하는 모습이 자주 떠올라 눈물이 난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형님을 생각하던 마음이 미르다”고 울먹였다. 온원씨는 “하루속히 이산가족들간의 서신왕래가 이뤄져 우리와 같은 가족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인 아버지 류결(82세)을 만났던 유인자(59·여씨)는 요즘 TV를 켜는 것이 두렵다. 손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1차상봉 당시 자로화면이 TV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괴롭다”는 유씨는 “이산가족상봉이 하루속히 정례화돼 통일외의 물꼬가 터지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산형기자 shon@sgt.co.kr

50년만에 지운 ‘유복자 설움’

北아버지 상봉 김영우씨

평범한 보일러공인 김영우(49·서울 강서구신월7동·사진)씨가 자신에게 붙은 ‘유복자(遺腹子)’라는 낙인을 지우는 데 반세기가 걸렸다.



6·25전쟁은 김씨의 아버지 김중현(66세)을 의용군에 입대시키면서 임신 4개월이던 21살의 아내

부친 의용군 입대한뒤 출생 아들 ‘소식몰라 20년 제사’

유순이(70세)와 헤어지게 만들었다. 영우씨가 태어난 것은 6개월 뒤인 1951년 1월. 그는 아버지의 상사조차 모른 채 충북 청원군 남일면 진송리 한 초가집에서 행상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초·중학교때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행상을 하는 유씨 혼자 양육한 아들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는 16살이던 67년 상경해 트럭조수가 됐고 77년 중매를 통해 윤명숙(43세)과 결혼, 창수(21세)와 혜진(22세)을 낳았다.

어머니는 80년부터 남편의 생존 가능성을 포기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이 한가닥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1차 이산상봉에 이어 제2차 이산상봉 접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상봉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짧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전날 첫 상봉때 아버지께 큰절을 한 뒤 “장하다. 내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만나 50년 한을 풀었다.

/김용술·김준모기자 kimgja@sgt.co.kr

가슴 친 ‘北韓의 아름다운 양보’

김희락씨 서울오기 닷새전 형님사망 1차때 딸찾는 92세 할머니에 기회넘겨



취종일-北 장제연단장 견배 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만찬에서 박재규통일부장관이 북한 장제연단장과 견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산의 한을 풀 기회였지만 더 절박한 사람에게 양보를 한 사람이 북한에도 있었다.

남한에서는 109세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방북할락 위기에 놓인 장이은(72세)에게 우형원(67세)씨가 방북길을 양보했는데 북한에서는 김희락(69세)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김씨의 경우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5일전인 지난 25일 상봉대상자인 미국의 영 주락(73)씨가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1월 2차에 걸쳐 여동생 귀연(64)·조카 재모(43세) 등 남한의 가족

들을 만났다. 김씨는 이들 남한의 피붙이들을 1차 상봉때인 지난 8월에 이미 만날 수 있었지만 이번 예야 만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차 상봉 당시 대상지에서 활약한 92세의 한 노모가 남한에 있는 딸을 찾는다느니 식을 들고 ‘자신은 아직 젊으니 양보하겠다고 북 당국에 알려 결국 노모가 서울에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서울에 도착, 주락씨를 가장 먼저 찾았다. 하지만 가족들로부터 형이 5일 전에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심없이 쏟아냈다.

“6살 터울로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1차 방문때 김씨가 대상자에 빠졌다는 소식에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가 가족들과 헤어진 것은 1950년 7월초 경북 군위군에서 방위군으로 활동하다 밀려오는 인민군에 잡혀 포로로 북에 끌려갔다고 한다.

/김용술기자 kimgja@sgt.co.kr

“등불끄지마라... 아들이 온다”



서울에서

반백년 회한 詩로 담은 母情

‘큰덕 지붕 마루에/ 밤마다 등불 켜놓아라/ 그 등불 끄지 말아라/ 어둠 속으로 그 아들은 찾아온다/ 등불을 끄지 말아라’

봉한의 세월을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반백년 둘러앉던 회한을 아름다운 시구

北 신현문씨 제수통해 전해받은 목놓아 통곡
南조카 ‘작은 아버님 보세요’ 쪽지詩로 화답

로 표출해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1994년 작고한 노모 유영택씨가 북에 두고 온 아들 리석균(72)씨에게 남긴 ‘내 울어 너 울 수 있다면’이란 유시가 공개된 데 이어 북쪽의 시아주머니 신현문(69)씨를 만난 강현정(60)씨와 노모 박간례(86)씨를 서울에서 상봉한 북쪽의 홍세완(69)씨의 조카 홍석봉씨도 피를 토해내는 듯한 시구를 각각 읊으며 통곡과 회한의 감정을 풀었다.

30여년간 북한 개성검찰소에서 검사로 재직해온 신현문씨의 제수 강현정씨는 ‘등불 보고 찾아오너라’라는 시를 통해 둘째아들 신씨를 목놓아 부르다 84년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중덕씨의 애절한 심정을 대신 표현했다.

‘마당을 뒤돌며 부르시던 아들 이름/ 십년 이십년 삼십년 사십년 오십년/ 아

버지 어머니는 병을 풀지 못하고/ 사슴우는 울음으로 살으시다가/ 눈을 감으셨네’

평소 ‘눈을 감아도 작은아들을 보고 죽어야겠다’던 시어머니의 한을 이번 상봉에서 풀어드리고 싶어 시 한 ‘준비했다는 감씨는 “어머니께서는 선생가는 아들이 꼭 돌아올 거라며 밤에도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흐느꼈다.

홍세완씨의 조카 홍석봉씨는 사진앨범에 담은 ‘작은 아버님 보세요’라는 제목의 쪽지에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그곳의 예쁘고 건강한 소식도 하늘을 넘나드는 산제비에게나마 가끔씩 전해주세요”라고 혈육의 정을 표시했다.

/김형구기자
julyend@sgt.co.kr

가족간 대화-특산품교류..통일 산교육

동질성회복 시너지효과 ‘복복’

“직물도매소 지배인은 뭐하는 건가요” “생일축하 송(노래)은 난생 처음이라요”

이산가족 상봉이 반세기 이산가족들의 한만 달래주는 것은 아니다. 가족간 대화를 통해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선물로 가져온 남북의 특산품 교류도 이런 분위기에 북북히 한류하고 있다.

1일 오전 개별상봉에서 남쪽의 누나

홍양순(73)씨를 만난 옹표(64)씨의 직업은 평양 ‘직물도매소 지배인’. 남쪽 가족에게 홍씨의 직업이 생소했다. 홍씨는 선물로 가져온 평양 직물도매소의 견직물을 누나에게 건네주며 “남쪽에서는

서로 몰랐던 사회·문화적 차이 자연스럽게 이해할수있는 통로로

도매상이야”라며 “생산지에서 만든 물건은 소비자인 인민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중간에서 수집, 배분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홍씨는 일을 잘했다고 상으로 받았다는 북한산 최고급 ‘조남(朝南시계)

를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 북측 취재진에 따르면 조남시계는 인민들의 성취 의욕을 높이기 위해 ‘수령남’ 상으로 주는 것. 북한에 대해 별다른 시식이 없던 가족들에게 통일을 대비한 산교육이 되는 순간이었다.

북쪽 가족도 낯선 남쪽 분위기에 친철히 적응해 가는 눈치였다. 이날 오전 북쪽 리용호(70)씨와 남쪽 가족의 오찬. 남쪽 가족들이 리씨의 칠순 생일 잔치를 기념해 생크림 케이크와 삼페인, 와인을 들고 와 “생일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생일축하노래를 들려주자 처음 듣는 노래에 리씨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곧 박수를 치며 흥겨워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북쪽 가족이 ‘수령’, ‘장군’이라는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크게 어색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천중기자 skylee@sgt.co.kr

“살아 다시 만나자” 두손모아

평양에서

南화가·北시인 형제

“어젯밤 너와 밤새 놀러다니는 꿈을 간다.”

1일 평양 고려호텔 1704호에서 서양가 김한(金漢·73)씨는 북에서 유명한 시인이 된 동생 김철(67)씨를 만나자 두 줄 덩석 잡으며 50년만에 회한의 첫기를 던졌다. 그는 동생과 만난다는 밤에 평양의 첫 밤을 뜬눈으로 지새다.

김한씨는 함께 찾아온 동생 부인과 카툰의 손을 일일이 부여잡고는 연신 “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되뇌며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다.

김한씨는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가져다”며 자신이 직접 그린 ‘어머니가 아

이를 업고 있는’ 그림을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다.

가족 사진을 꺼내 동생과 조카들에게도 일일이 설명하자 조카 김욱씨는 “아버지와 똑같네”라며 마냥 즐거워했다.

북한의 김철씨는 남한의 형에게 1993년 10월 북한 작가 20명과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꺼냈고 김 주석이 그날 특별히 자신에게 따라왔다는 유리잔도 자랑삼아 내보였다.

그는 “형님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다”고 했다.

김철씨 아들 석씨는 “아버지는 92년 4월 ‘어머니’라는 시를 써 시인으로선 최대 영예인 ‘김일성 상’을 받았다”며 상장과 훈장을 큰아버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50년만에 두손을 잡은 ‘남의 화가와 북의 시인’ 형제는 서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평양=공동취재단

그 곱던 얼굴에 주름만 남았구려

南남편 北아내

○...“처녀 때 그 곱던 얼굴이 이제는 주름으로...” 6·25전쟁 때 헤어진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묻어온 홍대중(洪大仲·79·서울성동구옥수동)씨는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손때 묻은 사진을 꺼내놓고 세월의 깊이가 아로새겨진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내가 없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평생 수절해온 아내의 등을 두드렸고 아내 박선비(74)씨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홍씨는 “나는 팔손이라도 주름이 별로 없는데 당신은 적은 나이에도 주름이 많은 걸 보니 내가 고생을 너무 시킨 게지. 내가 죄인이야”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측의 아내 이덕실씨와 아들 영근씨를 만난 명용덕(明用德·83)씨도 50여년만에 회한의 눈물을 토해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들 영근씨는 “아버지,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라며 울부짖었고 아버지 명씨는 “영근아, 50년동안 너 생각만 했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명씨는 이날 그동안 간직해온 이씨와의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고 이씨는 사진 보기를 외면하다 가슴에 흉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명씨는 그런 아내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남측의 4남매가 500만원을 모아 장만한 코트와 숙유훈 건네주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름도 못지어주고 떠났는데” 울먹

새로찾은 가족들

2차 이산가족 상봉 방북단 가운데는 1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새로 찾은 족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전쟁통에 내의 뱃속에 든 채로 헤어졌던 ‘전쟁아들’ 50년만에 맞이하게 된 부모들은 “정보를 새로 쓰게 됐다”며 감회어린 정이었다.

직계가족 최다 생존 확인자인 석만길(4)씨는 지난달 30일 난생 처음으로 딸 화(49)씨를 만났다.

딸은 1·4후퇴 당시 아내 정보부(86)씨 뱃속에 있던 유복자였다. 석씨는 “이도 못 지은 막내딸이구나. 뱃속에 있

는 걸 보고 헤어졌는데... 내가 죄가 많다”고 되뇌이며 마냥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여동생 2명과 함께 생면부지의 딸 춘옥(51)씨를 맞이하게 된 이순구(83)씨도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뱃속에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라며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듯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씨는 인민군에 징집돼 도망나오다 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졌다. 이밖에 현 서욱(80)씨도 난리통에 태어난 아들 현중만(50)씨를 처음 만났고 황사집(89)씨도 둘째딸 황성실(52)씨를 새로 얻게 됐다.

/평양=공동취재단

“24살 내아들도 백발 보이리”

825 때였다. 서울대 군내에 재학 중이던 큰 아들 석균이 거행장병병 됐다는 소식을 어머니는 고향(진남순천)에서 전해 들었다. 공부 잘하고 효심이 지극해 집안 자랑이던 아들, '곧 돌아올거야. 그럼, **꽃(花)**이든 꼭 돌아올거야.' 헤어질 때 아들의 나이는 스물넷. 그 이후 어머니는 이튿날 가슴에 꽂고 지냈다.



“꽃같은 그 마음에 마음 떠난지/ 그 뒤로 그 마음씨 알기 나 할까/ 떠날 때 스물네 살/ 금년 미혼남/ 지금은 그 머리도 백발 보이리.” (석균이)

94년 숨진 유명택씨 그리움 가득한 시집 北아들이 안고 오yle

유영택(94년 사망·당시 90세) 할머니는 흰색 시(詩)를 쓴다. 세상을 떠났다. 문학수업을 받거나, 시단(詩壇)을 통해 등단을 하지도 않았다.

전쟁 때 행방불명된 큰 아들, 사상범 혐의로 평생 영애(靈애)의 몸으로 살아 사위, 전쟁중에 싸우며 끌려갔다 가 반을 잃어 20대에 운명을 달리 한 둘째 딸... 눈물과 한숨으로 90여년을 보낸 할머니에게 시(詩)는 달콤구했다. 세련되지 않았지만 시어를 통해 할머니의 한(恨)과 눈물을 쏟아냈다.

“침실밖에 늙은 이마 빛지고 글 쓰고/ 낮으는 글도 없고 밤으로는 불빛 없고/ (중략) 안고 보면 돌도 아녀 돌덩이도 희도 아녀/ 향음없는 흰

뭉치 쌓았다가 터져나와...”(터져나와 글자된 것)

10여년 전 넷째 아들 식춘씨는 순천 어머니 집에 갔다가 빛바랜 내하노트 30여권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지난 40여년간 써내려간 시 300여편, 노트 군데군데 어머니의 눈물자국과 잉크에 번져 흐트러진 시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슬프고 애절한 가족이야기가 다 담겨 있었다.

지난 94년 출판사 편찬 문화사는 한 문학잡지에 실린 할머니의 시를 보고 식춘씨에게 책을 만들자고 재언을 했다. 그해 봄, 출판사 사람들이 순천의 할머니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마침 큰 아들에게 보내는 글을 붓글씨로 쓰고 있었다.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만든 붓으로.

그러나 시집(詩集)이 한창 인쇄되고 있을 때, '출판 기원회'를 며칠 앞두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한(恨)과 슬픔으로 쏟아낸 언어들이 세상으로 나오기 직전에.

그로부터 6년 후, 2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북에서 온 아들 석균(71)씨는 지난 30일 밤 동생들을 만나 어머니의 시집과 '백발(白髮)뿔'을 전해받았다. 자정 넘어 숙소로 돌아온 석균씨는 '어머니 시'를 읽으며 밤새 베갯잇을 적셨다. /안보특기자 sbahn@chosun.com



◇덤으로... 북에서 온 배족석씨가 1일 점심부터 호텔 호텔에서 개별성별한 후, 오찬장으로 옮기면서 상봉자 명단에 없는 다른 가족을 만나 얼씨보고 있다. /황주특기자 choish@chosun.com

화백 형제가 그린 '눈물 풍경'

“...”
50년 만에 이뤄진 '오보(吳浦) 형제'의 상봉은 밤없이 시작됐다. 취직은 한동안 계속됐다.

“개신정교인으로 재가 돌아왔습니다.” 북(北)의 동생이 수첩을 꺼내 이렇게 지었고, 남(南)의 형은 “이게 생사인가”라는 표정으로 동생들 맞이했다. 형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무명 중인 운보 김기찬(金基燾·88) 화백과 북의 동생 기만(基萬·71·평양미술대 교수)씨는 1일 오후 3시30분 삼상사출판회 병실에서 1시간으로 상봉했다.

중점으로 인한 언어장애에 시달리는 기만씨가 언어를 기하는 방음으로

'50년 한(恨)'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순간, 북에 올 선물 주위호스트 김재민씨에 누워있던 운보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차례된 형의 두 손을 부여잡은 기만씨는 반세기 재단이 사라진 듯 눈물을 흘렸다. “오네. 어서 일어나서 100일까지 사세요. 그애야 북에 있는 가족이 돌아도 만날 것 아니니까.”

운보의 아들 원(元·51·천가정애인 복지회장)씨가 귀가 한 뒤에는 아버지를 위해 작은아버지 밭을 갈고 직이 직(직)에서 오면 무명생활로 무표

정해진 운보도 회미한 마소로 회미했다.

운보는 배양중에 고향임과 허반신 마비증세가 겹쳐 지난달 5일'부터 삼상사출판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보는 이산가족 상봉일이 다가오자 병세가 차츰 호전돼 지난 28일 산소호흡기부터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상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

운보의 딸 김 아니임(속명 김영·44) 수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상봉기회가 주어져 정말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동생인 운보의 사촌형 기중(77)씨와 기락 중친의 김인소(52)씨도 이들 '화백 형제'의 극적 상봉에 감격해 했다.

운보는 71년 직공인 수목당채와 '승부'를 동생에게 선물로 줬고, 동생은 '대양읍 따르는 한마음'이란 6쪽짜리 병풍용 직포 등 '조선화' 4점을 단례로 내놓았다.

이날 '병실 상봉'은 운보 가족들과 기만씨가 “반백년 만에 온 상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남북직접상봉에 긴장하게 요구한 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20여분 만에 끝났다.

/송재특기자 callin-u@chosun.com



◇北서 생일상 이산가족 방문단 중 최고령인 유두희 할머니(100)가 북의 아들 신동길씨 부부가 차려준 생일상 앞에서 머리로부터 입맞춤을 받고 있다. /평양=시진공동취재단

南北 2차 교환방문

서울·平壤 이산 상봉

北가족 '장군님 만세' 제의로 잠시 긴장

北측 대표단 상봉 마친뒤 40분간 교육

북한 대표단은 30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에서 단체 상봉을 마치고 숙소인 호텔 롯데워드에 도착한 뒤 갑자기 호텔 측에 '지체 교육' 공고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교육장 요구에 당황한 호텔측은 확실히 다음날 오전장으로 준비했던 크리스탈 뷔페를 내렸고, 북측 임팩트 진원이 이곳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객실 입실前에도 5분간

한 호텔 관계자는 "북한 방문단이 자체적으로 40분 동안 교육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남측 관계자는 "북한 방문단이 자정쯤 모여 상봉가족을 대상으로 1시간 남짓 교육용 했으며,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약 5분 동안 호텔 측으로 한 줄로 서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벽 1시 넘어서 잠들어

다음 남측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 위행은 오전 1시가 넘어서 잠 들었다"며 "수행원들은 자제 회의 및 교육 등으로 늦게 잠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 상봉단 수행원은 1일 "우리들은 새벽 4시쯤 잠자리에 들었다"며 "노인들 건강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지 않겠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9기자 roakrunner@chosun.com



평양

상봉 둘째날인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남측 방문단과 북측 가족들이 2·3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정겨움을 나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북측의 한 가족이 '장군님(김정일·金正日) 만세'를 제의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오찬 도중 한 북측 가족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50여년 만에 정말 보고픈 사람을 만났다"며 "우리 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만세를 부르자"고 만세삼창을 제안한 것. 북측 가족들은 엄밀히 만세를 외쳤으나 남측 가족들은 지켜보기만 해 침착사는 없었다.

그러나 권이여 북측 가족 중 한 사람이 '세타일'을 부르면서 분위기는 바뀌었고, 이코너인 반주에 맞춰 노래자랑과 북측의 개관사인 김철(67)씨의 '웃으며 삼시디'라는 자작시 낭송 등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고조됐다. 특히 "빨리 통일이 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고 10여분간 노래를 계속, 오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노래가 끝난 뒤 상봉가족들은 '조국통일 만세'를 삼창하기도 했다.

남측 가족들 차분히 지키지만

北계관사인 김철 자작詩 낭독

분위기 고조... '통일' 삼창도

큰 박수를 받았다.

오찬이 끝난 마지막 일정은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허재경 조선적십자와 부위원장 주최 환송민간. 허위원장은 "남북의 여려분들이 북과 남 사이에 쌓인 오해를 풀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북두원(奉天) 남측단장은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방문단 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선연회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煥源기자 jhyoon@chosun.com /평양=공동취재단

"서울공기 탁해 머리 아파"

'오빠 칠순' 미리 축하하며 눈물



서울

서울 방문 이틀째인 북측 이산가족들은 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숙소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한 뒤 롯데월드 민속관을 관람했다.

오찬이 끝난 후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민속공연 관람을 마치고, 민속관 입구에서 소빙과 등 선물품을 나눠주는 환영의 박수에 입일이 손뼉 치는 분위기가 일어났다.

김백정(김정일)씨(65)는 "인형과 모형을 우리 여자들 선물하니 위로 재미있다"며 "공동의 문화유산인 가산 민속관 관람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 주유 시대를 둘러본 허재경씨는 "서울 공기가 탁한지 머리가 조금 아파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찬이 끝난 후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민속공연 관람을 마치고, 민속관 입구에서 소빙과 등 선물품을 나눠주는 환영의 박수에 입일이 손뼉 치는 분위기가 일어났다. 김백정(김정일)씨(65)는 "인형과 모형을 우리 여자들 선물하니 위로 재미있다"며 "공동의 문화유산인 가산 민속관 관람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盧漢源기자 jrho@chosun.com



◇"난 이렇게 살았어" 허재경(오른쪽) 김백정(왼쪽)이 1일 호텔에서 북에서 위대한 박시희위 용사들과 김일성 시인이 삼천 백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머이 보라우아" 1일 평양 고려호텔 이산가족 오찬장에서 북의 남한(66)씨가 남측의 아내 유순이씨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사진숙 여자가 남측 아내야" 석민길(가운데)씨가 1일 평양 호텔에서 북의 아내 이철 열을 만났을 때 사진숙을 보여줌에 재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병석 雲甫 눈물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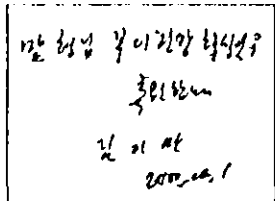
다시만남 南北

동생 김기만씨와 상봉

"형님..."
"아아..."

1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입원동 삼성서울병원 1902호, 노환의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昌·88)회백과 북에서 온 동생 기만(71·화가)씨가 머금내 만났다.

최근 의식이 회복되었던 운보사



김기만씨가 형인 김기창 회백의 건강을 축원하며 본사에 써준 글. 수전증 때문에 필체가 흔들린다.



혼정을 복에 걸고 나온 회영씨씨가 남측 가족들에게 자신의 박사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재경 김책공대 김좌장이 자신이 저술한 책자를 보여주고 있다.

"오빠 정성에
앞을 보게 됐는데"
北누이 편지 받아

만 동생의 인사에 눈을 크게 뜨며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해 한눈에 알아 보는 모습이었다. 운보는 애써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동생의 손을 잡고 비비며 눈물범벅이 됐다.

동료 화가인 우항 박래천과 결혼한 1951년 이념의 차이로 자신은 전북 군산의 처가로 피난가고 동생들은 월북한 뒤 첫 만남이었다.

중풍증세가 있어 말이 어눌한 기만씨가 병상의 운보에게 '개선장군이 돼 돌아왔습니다'라고 적은 쪽지를 내밀었다. 덜덜 떨리는 손은 수전증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부모가 일찍 끊어가서 사실상 아버지 노릇을 했던 민형 운보. 비록 귀가 안들리는 장애인이지만 해도 기만씨에게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형이었다.

기만씨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통을 꺼냈다. 북의 누이동생 기옥(74·의사)씨가 운보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보고 싶은 큰오리바님께, 누이동생 김기옥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보고 싶은 마음 끝이 없으며 입과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글이 큰오리바님께 직접 닿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열네살때 제가 일을 보지 못하게 되자 큰오리바님이 나를 업고 인과병원이며 한약방을 찾아다니면서 장삼껏 치료해주신 결과 정신이 지극하면 뜰에도 꽃이 핀다고 다시 밝은 세



1일 오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북측 동생 김기만씨가 형 운보 김기창 회백을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상을 보게 된 입을 죽은물 잇을 수 있었습니까..."

운보는 스물다섯 이리따운 누이의 지대를 회상하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화여대 의대에 다니다 월북 후 평양의대에서 정학생으로 공부한 누이동생이 의사가 됐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다.

기만씨는 참새를 그린 조선화 등 자신의 작품 4점을 선물했다. 운보도 71년작 '승무(僧舞)'를 줬다. "형님, 건강하세요. 기옥이 만날 때까지 오래 사셔야지요..."

기만씨가 운보에게 던진 눈물 섞인 마지막 이별사였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

"北에서 성공했어요" 훈장·박사증·김일성賞 南협육에 자랑

"북조선에서 성공했습니다."

1일 오전 10시 남측 개별 상봉장인 롯데호텔 1002호, 북한 생리학 전문가 정재갑(66)씨는 노모 안준옥(88)씨와 남측 가족들에게 교수증과 북쪽에서 낳은 두 아들의 학사증을 내밀었다.

그는 "빈 손으로 북조선에 갔지만 집안 모두 과학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번 2차상봉에서 50년 만에 남측 가족들을 만난 북측 인사 상당수는 교수·공훈장 등이다.

상봉장에 나온 남측 가족들에게 한 겹같이 훈장이나 학위증, 김일성 주석과 찍은 사진 등을 내보이며 성공

담을 늘어냈다.

하재경(65)김책공대 김좌장도 형 재인(73)씨를 만난 자리에서 과학 기술분야 발전공로 등으로 받은 훈장 두개를 자랑했다.

재인씨는 "나도 의학박사지만 훈장은 못받았다"며 동생을 치켜세웠다.

김영환(69)김일성대 교수는 누나 옥인(81)씨를 만나며 아예 복에 메달을 걸고 나타났다.

술씨는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해 준 환간치료를 녹화한 테이프도 가져왔는데 NTSC 방식이 아니라서 못보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범양직물도매소 지배인인 홍용표

(64)씨는 누나 안순(73)씨에게 "북한 언론에 내가 크게 보도됐다"며 '조선일보' 란 잡지를 펼쳐보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 평양 고려호텔 1704호, 남측 서양화가 김한(金漢·73)씨를 만난 북의 시인 동생 김철(67)씨는 "1993년 10월 13일 김일성 주석이 내게 직접 술을 따리웠다"며 당시 찍은 사진과 술잔을 보여줬다.

김철씨와 같이 나온 아들 석씨는 "아버지가 92년 4월 '어머니'란 시로 최고 영예인 '김일성상'을 받았다"며 심장과 혼장을 내렸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다시만남 南北

“만나자 또 이별” 안타까운 마지막 밤



상봉 이튿날인 1일 북측 방문단과 남측의 가족들은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두 차례의 개별상봉과 집단식사를 하며 쌓인 회포를 풀고 이류제 방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이들은 지난 1차 상봉 때보다 하루 줄어든 2박 3일의 일정에도 도착 지점으로 짧아진 상봉시간을 탓하며 “만나자 이별”이라고 아쉬워했다.

○북측 방문단에 포함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막판에 오지 못한 손석기(69)씨의 남측 가족들은 슬피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진을 들고 롯데월드호텔을 찾아 주위의 눈시울을 뜨리게 했다. 어동생 부인(66)씨는 “오빠, 어디가 없애니 어른자, 어떻게 어른지, 빨리 회복해서서 다음에는 꼭 뽀뽀할 거예요”라며 편지를 읽어내려가 눈물을 흘렸다.

○전남 김단상병에서 애제지 인상에 큰집을 유린 북측의 홍세안(69)씨는 노모 박간재(85)씨의 동생들이 준비한 약아비지·애제지 인장과 제수용품으로 제사를 지냈다. 박간재에게 액세주류 따르던 아들 홍세안씨는 “아비, 이 술 드셨으니 1백세, 2백세까지 사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김윤환(69)씨도 누나 윤숙(73)씨가 마련한 부모님 인장과 묘소 사진을 창문가에 올려놓고 큰집을 올렸다.

○김원성총합내 어문학부 송영희(70)교수는 누나 옥인(81)씨 등 가족들에게 북에서 촬영한 생일잔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려 했으나 북측의 비디오

재생 방식이 우리의 달라 재생이 안되자 무척 사운 해 했다. 대신 송교수는 열반을 펼쳐 보이며 “누님께 드리기 위해 손수 만들었습니다”라며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해 히니히니 설명했다.

○조선기독교총연합회 송영희(62)씨 등 북측 기자단 15명은 남북 행사 때마다 단골로 내려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북씨는 “1차 상봉에 비해 남측과 워신 취재진 모두 줄어든 것 같다”며 “합기 대신 차분한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통일에 대한 열정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 주최 환송민간에서 참석한 한나라당 신경식(우당)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목욕탕 입으셨다. 우의원은 북측의 비성실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와 얘기하던 중 “남한에서는 여자들 미니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다고들 하는데 거기도 그런 말이 있지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한기자가 당황하고 우리 기자들이 항의하자 “저역시 북한 본위기를 피우기 위한 동양이었다”고 즉시 해명했다.

○북측 기자들은 “개별상봉 취재에 들어가는 남측 기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취재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남측 취재 인원을 줄였다.

○북측 방문단 신현문(69)씨는 아내 현성(61)씨의 부인이 북에 간 이들을 그리워하던 사이머니(작고)의 심정을 전해주고 지었다는 ‘동별 보고 찾아오너라’라는 시 한편을 선물로 받고는 “어머니가 그리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태공대 김희정 하재경(65)씨는 형 재인(74)씨가 준비해온 내외의 잔기면 도기·화대경·돌보기 등을 받으면서 어땀적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북측 기자들은 “개별상봉 취재에 들어가는 남측 기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취재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남측 취재 인원을 줄였다.

○북측 방문단 신현문(69)씨는 아내 현성(61)씨의 부인이 북에 간 이들을 그리워하던 사이머니(작고)의 심정을 전해주고 지었다는 ‘동별 보고 찾아오너라’라는 시 한편을 선물로 받고는 “어머니가 그리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태공대 김희정 하재경(65)씨는 형 재인(74)씨가 준비해온 내외의 잔기면 도기·화대경·돌보기 등을 받으면서 어땀적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북측 기자들은 “개별상봉 취재에 들어가는 남측 기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취재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남측 취재 인원을 줄였다.

○북측 방문단 신현문(69)씨는 아내 현성(61)씨의 부인이 북에 간 이들을 그리워하던 사이머니(작고)의 심정을 전해주고 지었다는 ‘동별 보고 찾아오너라’라는 시 한편을 선물로 받고는 “어머니가 그리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태공대 김희정 하재경(65)씨는 형 재인(74)씨가 준비해온 내외의 잔기면 도기·화대경·돌보기 등을 받으면서 어땀적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부모 묘소 사진 놓고 큰절도 北 “남측기자 너무 많아” 불만



북측 임형식씨의 남한 가족들이 선물로 받은 북한의 새해 달력을 들여보이고 있다. 김진석 기자

2차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김원일

지난 8월의 1차 상봉 이후 두번 제로 남북 200명 이산가족이 50년 만에 서울과 평양에서 만났다. 그들은 눈을 맞추는 순간 한결같이, 마치 북풍이 터지듯 서로를 부르며 뜨겁게 껴안고 울기부터 했다. 소식이 두달전 지난 세월 동안의 안부·말에 앞서 짙어진 울음부터 쏟아져 나와 50년 땀의 심마리가 풀리는 모양이다. 비행기 타고 서울을 건너면 몇 시간만에 만날 수 있는 열육을 긴긴 밤새기 동안 꿈에도 잊지 못해 혼자 울었고, 막상 마주서고 보니 두 눈물부터 만났다. 이념이 무엇인지 핏줄이 무엇인지 그런 것 따지지 전에 우선 실을 맞대고 울음부터 짙히게 쏟고 봐야 했다. 기쁨으로든 서러움으로든, 울음이야말로 인간 본능의 원초적 한결이다. 그러나 이번 상봉 역시 남북 1,000만 이산가족 중에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의기 지켜지지 않는다. 남측이 무조건 끌려다니는 수모를 언제까지 견디어야 되느냐의 여부도 비동하다. 이념의 짐이아 일색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50년 동안 한쪽은 그럭저럭 버는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 또 한쪽은 벌이는 사업이아 되는 일이 없어 기근의 애육살이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잘 사는 쪽이 못사는 쪽에 배우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하고, 그런 너그러운이런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됨이 세상의 일반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행복의 조건이 꼭 물질적·속측에만 있지는 않을진대 우리 쪽이 천민지본주의의

다시 부등킨 남과 북 아직은 ‘선택된 행운’ 눈빛도록 함께 울밖에...

행운이었다. 그 소수나마 2박3일의 일정으로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고통으로, 오장육부에 뒤재이는 눈물을 참았어 쏟아내게 했다. 가족이 해분화시대를 맞은 오늘과 깊은 세대에게는 일제하의 이만과 징용, 전쟁의 포화 속의 민족대이동, 6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 집중화의 속도물 기차며 농촌공동체가 해체된 근대의 과정이 체면적으로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 상인이 되면 가족의 일원이 독립하여 옮겨져 사는 게 당연하고, 협육이 자주 만나면 좋지만 서로 비쁘다 보니 만나도 그만이고, 내 친구나 보듬으며 살아보면 된다. 그러나 회면에 나타난 겹겹이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 씨족사와 형대로 뭉쳐온 우리 민족의 열연의식이 얼마나 짙긴가름 한눈에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상봉은 1차 때보다 민남의 일정에 하루가 줄었고, 통일이 된 고난까지 열육 찾기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생생 사진 교환, 항구적인 민남의 정소로서 민회소 설치에 대한 합의도 못본 채 몇 차례 연기 끝에 이루어졌다. 이리다 전시효과를 위한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말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부터, 상호주

행복을 넘어 북측 가족에게 열육감을 심어주어서는 안되리라 본다. 1차 상봉 때 때때비면 회면이 생방의 신원 교환을 예세 같이내려는 치홍심에 나 많고도 눈살을 찌푸린 시청자가 많았을 것이다.

나 역시 이산가족 중 일원이기에 2차 상봉 장면의 회면을 보며 지난번처럼 눈이 붓도록 그들과 함께 울었다. 50년 그 세 사람이 인공지하였던 허 님, 부친은 서울에서 사담 재정부 부부장이었다고, 9·28 서울 수복 때 미처 가족을 찾지 못하곤 단신 일복했다. 소식을 두달전 군 반세기, 98년야아 인연을 통해 북에서의 단신 행복을 수소문할 수 있었다. 54년 개성 출신 여성과 재혼, 그 사이에서 남매를 낳고, 실권과 복권을 되풀이하던 끝에 76년 동해안 서경시 요양소에서 폐경적으로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나는 살아 생전에 만나야 할 기정 가까운 열육을 알고 얼굴도 모르는 세 어머니와 이복동생 남매를 알게 된 셈이다. 북한 어디에서 그들도 이산가족 상봉 회면을 보며 남쪽 땅 아버의 고향과, 가느다랗게 이어진 핏줄을 그리며 짙히게 눈물을 흘릴 모습이 회면에 어땀었다.

/소설가



'안녕히 가세요' 북으로 간 신채동 할머니가 1일 민경대 소년학생공전에서 공연을 구경하고 나온다 "잘 가시고 몸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북측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50년만의 생일상 '눈시울'

남쪽딸 北아버지위해 가족잔치 '장수기원'

"아버지, 딸이 처음 차례 드리는 생일상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개발상봉이 진행된 잠실 롯데월드호텔 1510호는 가족잔치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3살배기 딸을 두고 외음근에 갇힌 채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하게 된 북의 통일규석(77)가 1일 뜻깊은 생일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이들은 30일 첫 대면한 오빠에게 "이번이 아니면 언제 오빠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겠느냐"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생일상을 꼭 받고 올라갈 것을 부탁했다.

"무슨 생일상이냐"며 완강히 반대하던 통씨는 결국 3살 코를 리개에서 어느덧 중년이 된 딸 성예씨(53)의 부침에 붙은 녹두이 무너졌다. 그토록 눈에 밟혀 먼 딸의 '음식 아닌 음식'에 잔

치상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동생 영금씨(72)는 헤어지기 전 장남으로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오빠를 위해 아재 밥부터 부자런히 생일음식을 장만했고 통씨의 조카들도 외삼촌의 생일상 마련에 한 몫 했다.

딸이 결혼을 할까 남긴 아버지 나이만큼의 초에 불을 붙이며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다시 볼 때까지 꼭 살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살아서 돌아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누이들은 통씨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고 미국과 국산밥을 수북이 담아 잔해주자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누이들이 해준 음식은 모두 먹고 말겠다"고 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조현철기자
cho1972@yonghyang.com



이산상봉 기념주화 북한, 3,000개 시판

북한이 제1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8월15~18일) 행사 이후 이를 기념하는 금화과 은화 등 기념주화 3,000개를 제작해 판매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고려호텔 1층 기념품 판매점에 진열된 기념주화에는 '북남 통어진 가족친화 평양 심봉'이라는 글과 함께 모자(母子)가 다정히 포옹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북측이 역면가 10원으로 표기된 기념은화의 판매가격은 북한화화로 37원(약 17달러)이다. 평양 / 공동취재단



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2차상봉단 오찬장에서 남측 아들 신문제씨(3)가 북측 아버지 신문대(81)씨에게 술을 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0살 유복자 만난 세 아버지

"나없이 잘 자랐구나"

다시만남 南北

꿈에서만 보던 아버지를 현실에서 만난 세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품안에서 부친과 생이별해야 했던 세 아들은 50살이 다 돼서야 "아버지"를 불러 볼 수 있었다.

북측 상봉단 김종현(69)씨가 1950년 9월 평주에서 인민군에 입대해 집을 떠났을 때 아들 영욱(50)씨는 7개월짜리 태아였다.

50년을 수절하며 갖은 풍파를 헤쳐온 어머니 유순이(71)씨와 함께 상봉장에 나온 영욱씨는 실었던 살음이 복받았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던 영욱이예요." "내가 죄인이다."

처음 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중헌씨는 이미 중년이 된 아들이 대전스럽다는 표정이었다.

북에서 온 아버지 조민기(65)씨를 만난 유복자 규석(50)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환한 기분이다.

어머니 김길화(68)씨가 규석씨를 임신 중이던 6·25 직후 외음근에 갇혀 아

버지가 몇달 후 원주에서 교전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부친 재산을 지내온 규석씨는 아버지가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네가 내 아들이 맞나? 이름이 규석이냐고, 나없어도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주저주저하던 규석씨의 입에서도 "아버지"하는 의미가 터져 나왔다.

서울 명성여고 음악교사를 하다가 외음근에 입대한 신문대(81·전 평양 음악무용대학 교수)씨의 아들 문재(50·미국 거주)씨는 아버지가 북으로 갔을 때 생후 2개월이었다.

"너를 따듯이 안아보지도 못하고 급히 떠나는 바람에 평생 눈이 밟혔다." "저는 미국 LA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1일 다시 만난 세 부자는 살아온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그러나 50년 세월을 보살받기엔 이들이 너무 짧았다.

"아버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럼, 꼭 다시 만나자." ...
김종현·박현선 기자

경향신문

서울·평양 개별상봉 표정



1일 고려호텔 오찬장에서 북한의 시인 김철씨가 상봉을 축하하는 시를 낭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꿈꾸고 있는듯” 守節아내 눈물만

평양

평양을 찾은 남측 방문단은 1일 오전·오후 차례씩 가족별 개별상봉과 공동오찬으로 합류의 정을 이어갔다. 이어 만경대 회생소년공단을 참관하고 북측 주최 만찬에 참가한 것을 끝으로 만나는 평양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가득 하소인해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50년 만에 만난 부부들의 애절한 사연이 이틀째 이어졌다. 전쟁통에 헤어진 아내의 처녀 때 사진 유 간직해 온 홍대중(洪大仲·79·서울)씨는 손때 묻은 사진을 꺼놓고 주름진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어루만졌다.

끼에는 “임정동안 내가 없어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평생 수절해 온 아내의 등을 두드렸고, 아내 박신미(74)씨는 “이제 꿈인지 생사인지 모르겠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허연눈 눈물을 흘렸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함께 모인 고려호텔에서의 공동오찬 시간은 노래자랑과 시낭송이 어우러져 시종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 김진숙씨 가족들이 ‘교향의 밤’을 부른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으며 황급히 나타난 여성 의대원(홍임원)들이 아꼈던 만주콜을 곁들였다.

그러나 북측 한 가족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 만세를 부르자”며 만세창성을 제안하는 돌발상황이 발생. 북측 가족들은 얼얼히 만세를 외쳤으나 남측 방문단은 차분히 지켜보기만 해 대비를 이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북측 사는 시인 김철(67)씨의 시낭송과 남의 화가 김한(72)씨의 화단 노래.

동행이 “웃으며 삼시디!”라는 지적사항 통해 “황남이새 움용을 그치시요. 어떻게 좋은 날 우리 뜻이 때문에 울기만 하겠지요”라며 거한 동작을 섞어 사회를 표현하자 황은 “동무생각”을 구상자에게 불렀다.

○·오찬장에서 최고령자인 유두희(柳斗熙·100) 할머니는 50년 만에 만난 이들이 유리는 “백동상”을 받았다. 상에는 풍담구어·돼지갈비·순대·질펀 등이 차려져 있었다. 평양=공동취재단

비용은 18억원이 넘게 들었던 8·15 상봉 때와는 달리 그 절반(9억5천만원) 정도만 지출됐다.

○상봉 제도화 시급=다음날 상봉이 언제 이뤄질지가 초미(焦眉)의 관심. 남북한은 지난 9월 2차 적십자회담에서 3차 이산상봉(12월 5~7일)에 합의했지만 이번 2차 상봉이 뒤초 11월 2일에서 크게 지연돼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풍만한 ‘연애 두 차례 추가교향’을 북한당국이 지지하지 않겠다. 11월 중 실시하기로 했던 3백명 규모의 서신교환도 일정이 어긋나 시기표를 다시 짜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3차 적십자회담이 제대로 열릴지도 주목된다. 방문단 교환 하루 전인 지난날 20일 끝속으로 이뤄진 장충식(張忠植)한적 총재의 일방방문 파문은 이산가족 상봉시업을 주도해야 할 한적의 위상 장단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또 북한측이 8·15 때에 비해 북측 가족에게 ‘김정일 친양 법안’을 부력 늘리도록 한 점이나, 상봉장에서까지 북적(北赤)간부가 나서 한적 露露체를 비난한 점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해쳤다는 지적.

이산가족 문제 전문가인 이경남(李敬南)한국발전연구원장은 1일 “1985년 이후 15년 만에 성사됐던 8·15상봉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감동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으로 상봉이 계속될 것이라 희망을 보여줘야 이산가족 상봉시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yilee@joongang.co.kr>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제와 방안		
구분	내용	비고
이산가족상봉	상봉 정례화·규모 확대, 고향방문·성묘 동승 허용, 저비용 일석상봉, 북측 이산가족 치료 진상화	12월 5일 3차 상봉 합의(안기불가피) 추가 방문단교환 계속 협의
서신교환	우편물 교환소 설치운영, 생사확인·주소교환	11월중 3백명 서신교환(일정차질)
면회소 설치	만문점 등 설치장소 확대, 자유왕래·재결합 추진	2001년 초 논의
적십자회담	회담 정례화,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 협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추진	12월 13일 3차 회담 예정(회담일정 구체협의 필요)

상봉 정례화 걸렸지만 서신교환등 일정 차질

2차 이산방문이 남긴 것

2차 이산가족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1일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행사진행 개산과 상봉규모 확대, 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타목된 일정 속 강행군=8·15상봉(1차) 때보다 하루가 줄어든 일정이지만 상봉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특히 첫날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에서의 집단상봉은 평양 순안공항에 건 안개로 예정보다 크게 늦은 오후 8시20분에야 시작됐지만 예정 시간을 다 지켰다. 이때문에 한적(韓赤) 주최 만찬은 삼야에 이뤄졌다.

평양에 간 방북단은 2백35명의 북측 가족과 만났고, 서울에 온 방남단은 4백83명과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이같은 1일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오전 개별상봉(숙소)→공동오찬→오후 개별상봉 등 세 차례의 마라톤 상봉이 이어졌다. 참관은 롯데월드 민속관(서울)과 만경대회생소년공진(평양)으로만 간소화했다.

비용은 18억원이 넘게 들었던 8·15 상봉 때와는 달리 그 절반(9억5천만원) 정도만 지출됐다.

○상봉 제도화 시급=다음날 상봉이 언제 이뤄질지가 초미(焦眉)의 관심. 남북한은 지난 9월 2차 적십자회담에서 3차 이산상봉(12월 5~7일)에 합의했지만 이번 2차 상봉이 뒤초 11월 2일에서 크게 지연돼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풍만한 ‘연애 두 차례 추가교향’을 북한당국이 지지하지 않겠다. 11월 중 실시하기로 했던 3백명 규모의 서신교환도 일정이 어긋나 시기표를 다시 짜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3차 적십자회담이 제대로 열릴지도 주목된다. 방문단 교환 하루 전인 지난날 20일 끝속으로 이뤄진 장충식(張忠植)한적 총재의 일방방문 파문은 이산가족 상봉시업을 주도해야 할 한적의 위상 장단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또 북한측이 8·15 때에 비해 북측 가족에게 ‘김정일 친양 법안’을 부력 늘리도록 한 점이나, 상봉장에서까지 북적(北赤)간부가 나서 한적 露露체를 비난한 점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해쳤다는 지적.

이산가족 문제 전문가인 이경남(李敬南)한국발전연구원장은 1일 “1985년 이후 15년 만에 성사됐던 8·15상봉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감동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으로 상봉이 계속될 것이라 희망을 보여줘야 이산가족 상봉시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yilee@joongang.co.kr>

동생 시낭송에 형 노래로 화답
“뭇니은 혈육 얼굴이라도...” 호소

■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나 '이별 삶' 내력 담긴 유품·옛물건 많아

이번 2차 교환방문엔 나산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간년 선물엔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아온 삶의 내력을 집약해 보여주는 유품 등 기념품과 이렇 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옛 물건들이 1차 상봉 때보다 많았다. 금반지·시계·옷감 등 실용품이 주종을 이루기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문보 김기창(88) 화백의 동생인 '공운예술가' 기만(71)씨는 남녘의 조카 완(51)씨한테서 문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작품 《승무》와 '김해 김씨' 족보 2권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태양》 등 조선화 3점과 병풍 1점을 건넸다. 서울방문단의 이석란(71)씨는 어머니의 애타는 사람이 김계백 '선물'을 받았다. 1991년 숨진 어머니의 머리카라과 고인이 이들을 그리며 쓴 내하노트 27권 분량의 편지, 북녘씨 등을 남녘의 동생들에게서 건네받았다. 북녘에서 온 아들 정재갑(66)씨를 만난 어머니 안준옥(83)씨는 이들의 중학교 시집 빛바랜 흑백사진 2장과 문앞에 걸어놓았던 '김북중학교 정재갑'이라고 쓰인 명패를 내주었다.

서울방문단의 홍세인(69)씨는 노모 박간례(85)씨를 위

해 고은 옷감을 끊어왔다. 새천씨의 남뻘 동생 세희(67)씨는 대형 여행가방 2개에 선물을 가득 담아와서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준비하다 보니 너무 많아져 형님이 모두 가져 가실 수 없을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평양방문단은 대체로 내의·시계·반지·옷가지 등 실용품을 선물로 건넸다. 최고령자 유두희(100)씨는 내복과 시계를 아들 동갑씨 손에 꼭 쥐어주었고, 우원향(67)씨는 가족 사진과 북시한 '단양 우씨' 족보를 건넸다.

특별취재팀, 평양/공동취재팀 politics@hani.co.kr



1일 오후 숙소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북쪽방문단 권순호씨(오른쪽)가 이석란(왼쪽)과 동생 김씨(가운데)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팀 photo@hani.co.kr

남북 방문단 모두 철육 만났다

이번 평양방문단은 8·15이산가족 상봉 때와는 달리 북녘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남쪽에선 두 차례의 서울방문단 200명 전원이 남녘의 가족을 상봉했다.

8·15 때에는 김금자(60)씨가 휠체어에 의지해 평양까지 갔지만, 살아 있는 줄 알았던 오빠 어후씨가 "2년 전에 숨졌다"는 소식을 들곤 울었고, 김희조(73)씨도 북녘의 유일한 생존 가족으로 알고 있던 남동생 기조(67)씨가 역시 "2년 전에 숨졌다"는 남매락 소식에 탈락 주저앉은 바 있다.

이번엔 그런 비극적 장면은 재현되지 않았다. 한차례 상봉 경험이 북녘 관계자들의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된 듯했다.

그러나 모든 상봉의 꿈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권영애(74)씨 등 방북단 8명은 평양에서 만나지 못한 북녘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평양/공동취재팀 politics@hani.co.kr

● 東亞日報

“못 걸겠다” 100m거리 버스이동

北대표단 일정물만 표명 통일부만찬도 1시간반 지각

2차 이산가족 상봉에 임하는 북측 대표단의 태도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측 상봉단은 1일 오후 6시 반으로 예정된 통일부장관 주최 만찬에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이유로 한시간 반 늦은 8시 경여야 나타났다. 이날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허탈없이 한시간 반 동안 만찬장 입구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에 앞서 삼성서울병원 입원실에서 북측 동생을 만난 김기창 화백 취재 때도 북측은 약속했던 취재기자 9명을 갑자기 5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 관철했고 그나마 5분만에 병실에서 나오도록 했다.

그러나 북측 기자단은 남측 기자들이 병실을 나온 뒤에도 동생 기만씨가 선물로 가져온 그림 '태양을 따르는 한마음'을 형 김화백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관람 때도 100여m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겠다고 고집, 3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다. 숙소인 롯데월드호텔에서 아주 가까우니 걸어가지는 남측 제안에 북측은 "어디든 차량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고 버텼던 것.

박물관 관람중에도 북측 장재언 단장은 고구려관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로 고구려 비하 발언을 했다"고 다그쳤다. 적십자측 안내원이 "잘못 들으신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장단장은 "당신 도덕도 없다. 위원장한테 그런 말 해도 되나. 이름이 뭐냐"며 소리를 높였다.

한 행사진행 요원은 "1차 상봉 때와 달리 북측이 일방적이고 지나친 주장을 펴는 경향이 있다"며 "이산가족의 만남을 북측이 시혜처럼 생각하는 것같이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앗, 선물 잘못 가져왔네”

오리털파카 세탁어렵고 北비디오테이프 南선 못봐 상봉가족들 때늦은 후회

“아차, 이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꿈에도 못 잊던 가족을 만난 많은 이산가족들이 선뜻 내밀었던 선물 때문에 뒤늦은 후회를 해야 했다.

치약 양말 등 생필품은 8월의 1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물보따리의 인기종목.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추운 날씨 때문에 이번 상봉에서는 내복 등 방한의류가 신종 인기종목으로 자리잡았다. 1일 개별상봉을 위해 호텔에 모인 이산가족들은 한결같이 옷가지로 가득 찬 커다란 여행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볍고 따뜻한 오리털파카가 문제였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오리털파카의 특징.

북쪽의 세탁사정을 잘 모른 채 이를 준비한 이산가족들은 '편히 걱정거리만 늘려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찮았다.

큰아버지 김용용씨(61)에게 선물할 내의 12벌과 오리털파카 2벌을 준비한 조카 김유진씨(25)는 그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리나케 물빨래가 가능한 과카로 바꿔왔다.

그런 혼선은 북측도 마찬가지. 북한의 저명한 언어학자 김영환씨(69)는 누나 김옥인씨(81)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가져왔으나 남북한의 녹화방식이 틀려 짐작 내용을 함께 볼 수 없었다.

서울 가족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아 평양의 아들에게 보여주려던 한정서씨(79)도 같은 경우로 낭패를 봤다. 대북사업을 하는 사업가 이모씨(36)는 "북측에 보내는 선물은 유지보수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 창기자>

jeon@donga.com



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상봉장에서 남녘의 이산가족들이 북녘에서 온 혈육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40대 실직가장의 북 혈육맞이 사연

호텔방 구할 형편 안되고... 어머니 무릎은 성치않고...

이반(2차 서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 대해 폭 추산된 탓에 북의 혈육을 맞는 남쪽 가족들의 처지는 제각각이었다. 어머니와 한을 풀어드리는데 제 어려움쯤이야... 의환위기에 이혼, 실직생활을 하는 이규상(42·충북 제천시)씨는 1달 아 불째 어머니 손영순(60)씨와 북에서 온 외삼촌 상오(69)씨의 상봉을 위해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남들처럼 호텔방을 구하지도 못했다. 풀른 상봉 장소 가까이 사는 일가붙아도 없다. 이 때문에 이씨는 제천에서 올라온 어머니 손씨 등 9명의 집안어른을

임시거처 퇴계원서 서울상봉장 하루4번 왕복

경기 퇴계원에 마련된 임시거처에 모신 뒤 하루 4번씩 퇴계원과 서울 상봉장 사이를 오가고 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어하십니다. 다른 어른들도 몸이 온전히 건강한 분이 없습니다. 어른들을 편히 모시지 못하는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씨는 이날도 새벽 5시부터 퇴계원에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호텔까지 어른들을 실어날랐다. 그는 이날 새벽 호텔에 투숙한 다른 가족들을 보고는 가슴이 납덩이

처럼 무거워지더라고 했다. "단 며칠뿐인데 어른들을 한지붕 아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외삼촌께도 어머니께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이씨 가족들이 상오씨를 맞는 마음은 어느 가족 못지않았다. 가족들은 상오씨를 만날 때마다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파켓을 들고 곳곳에서 뜨겁게 환영하는 한편, 정성껏 마련한 옷가지 등을 선물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백발의 '신랑' "미안하구려..."

70살아내 잃어버린 시간 되돌리려 "내 나이 31살"

■ 북 아내 만난 남편들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자리에
들어선 것은 겹겹이 쌓인 주름살
뿐이었다. "행여나 살아 있을까"
눈물 지으며 이제나 저제나 보낸
세월이 벌써 50년이다.

1일 오전 10시 평양 고려호텔.
북쪽 아내 박선비(74)씨의 눈앞에
나타난 이는 남편 홍대중(79)씨가
불립이었다. 젊은시절 늙름하고
썩씩했던 얼굴에 세월의 그림자가
더해지기는 했지만 반세기를 놓지
않고 간직해온 희미한 기억 속의
'옛사랑'이 불립이었다.

인민군 징집을 피하려고 홀로
서울에 내려온 지도 50년. 부인과
두 남매를 돌보지 못한다. 1971
년 재혼을 해버린 데 대한 면목없
음 때문일까. 남편 홍씨는 손때 묻
은 부인 박씨의 사진을 앞에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은 나보다
5살 아래인데도 주름이 많은 것을

보나 내가 고생을 너무 시킨 게지
..."

"이게 다 아버지가 없어서 만든
주름살이에요." 아들 황주(54)씨
의 원망 섞인 한미다가 뒤따랐다.

형주씨가 땀없이 선물로 준비
한 백두산들쭉술을 꺼내놓자 홍
씨는 부인의 미려함 보고 "과마했
구먼"이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
지만 머쓱한 분위기가 가시는 데
는 시간이 필요했다.

같은 시각 옆방. "남쪽 아내가
자네한테 주라고 챙겨준 거야."
북쪽에서 재기한 '옛 아내' 김금
선(70)씨를 만난 조순표(76)씨는
정성스레 준비한 시계를 꺼냈다.
이날이 올 줄 알았다면 50년이 아
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렸을텐데.
70살이 맞다는 남편의 돌음에 "서
른한살이요"라는 김씨의 대답에
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
은 아쉬움이 짙게 배어 나왔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한국경제

2000. 12. 2 (토)

北으로...南으로...

이산방문단 오늘 귀환

제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서
울 및 평양방문 이틀째인 1일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두 차례의 개별상봉을 통해
전날 못다한 얘기를 털어놓으며 반세
기 동안 끊겼던 혈육의 정을 나눴
다. ▶ 관련기사 5.30.31면

남측 방문단은 2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북측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고려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오며
북측 방문단은 오전 8시30분부터 롯
데월드호텔에서 작별인사를 한 뒤 같
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
간다.

서희동 기자·평양·공동취재단
fireboy@hankyung.com



병상에 누워있는 운보 김기창씨를 만나기 위해 북한에서 온 동생 기만씨(왼쪽)가 운보의 작품 '승무'를 들고 형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형님 일어나세요” 흐느끼기 병상필담

겨레의 만남

2차 이산실종



기다려 주셨던 서울 강북구 일인동 삼성회를 인정받고 있는 두 형제가 50년 만에 만났다.

만남에 대해 웃습니다. 형님.

11월 30일 서울 강북구 일인동 삼성회에서 이복인 남쪽 윤보 김기찬과 북쪽 동생 기민세의 만남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결혼하는 은사를 위해 동생 기민세가 초혼이내에서 중이를 꺼내 개산동군 호반이다라고 짚은 뒤 보여주던 단골 갔다. 윤보는 형가를 간담건는 듯 입을 비껴 뿔지던 팔과 발을 댄채 나오지 않 노릇하는 동생의 손을 부여잡은 채 노릇노릇 울면서 있었다.

그날은 형에게 다가갔고 이내 두 형제 머리가 피어오른 얼굴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날은 봄이 오는 벼동날 겨울새와 자 돌들의 은빛을 포양으로 진뻐냈다. 이어

김기찬 화백·북 동생 기민씨
손 부여잡은채 끝없는 눈물
윤보·그림 선물받고 미소

자기가 그림 동양화 벽장을 다루는 한마을을 영여 진뻐냈다. 이때만큼의 세월보다 그칠 만큼 있고 있는 형의 얼굴은 50년만의 봄이 꽃이 한결같이 가난주 영복함으로 함께 변했다.

두 형제가 헤어져 한 것은 6·25전쟁 발발 직후였다. 윤보는 가난하게 지내던 화가들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혁명군산에 동원하자고 선택했으나 아내인 우향박래현씨의 반대 속에 군인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동생 기민세는 사당점으로 다들 길을 걸으며 복내 북평을 향해 향파의 길이 평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만남은 18년 만에 끝났 다. 50년 간의 만남치고는 너무나 짧은 듯 일까 형을 위로 하고 형리코를 나서던 기간 때는 다시 한번 이별을 타도려 했다.

보는 이들이 모두 눈시울을 불리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출판사: 사회사 society@shinil.co.kr

1월 윤보 윤보 김기찬 화백이 안락공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북에서 온 동생 김기찬씨를 만나고 있다. 사진:출판사: 사회사 society@shinil.co.kr

서울 예술기행지 뜨거운 사회 평요



그림 그릴때, 시 읊을때 한시도 잊은적 없었다

남쪽 서양화가 김한씨
북쪽 공훈시인 동생 김철씨
어린시절 희상하며 얘기꽃

이복남매의 만남은 늘려나가는 듯 느껴진다. 김한(72)씨가 1월 30일 중앙 회관 1107호에서 북쪽 동생 김철(67)씨 손을 잡은 순간부터 눈물 이다. 11월 30일 만났던 50년 만에 만난 동생들 모두 애사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김한씨는 그림 장단을 동양 양식으로 내렸 다. 어릴 적 삼강과 나고 펄서 가족이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는 그림이었다. 1965년 이종삼미술상을 받은 서양화가의 그가 동생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다. 김한씨는 남평에서 온 형 양에 9년 10월 13일 자신을 포획해 북 쪽 장가 갔었다. 김철씨 주석이 함께 찍은 기

념사건을 재발견하며 자랑했다. 김 이자 신에게 귀속했다는 무리전도 보여줬다. 내 평생 그림 재민 영공스런 정화를 봤어. 형 단 나년 후 보여주고 있었어! 김철씨는 50년 세월(여러)이라는 시로 김철씨상을 포함한 중 용사인. 아시는 북평 서양화의 김철씨의 동생 김다. 김한씨는 형 김철씨를 찾고 그림을 그려 한 해 그야 긴박했던 생활을 동기와 수백 점 기구를 신랄했다. 김한씨도 무리 전민한 그림 원과 도자기 3점을 용이하게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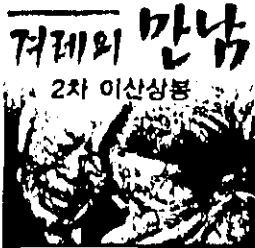
“어렸서 나는 그림 공부를 하고 년 공작주 가 있었지. 김한씨는 어느새 민사기 진동상 과 사이로 재민 정민 정민 시정리 불아가 있었 다. 두 형제는 6년 전 한 자리에서 양과 의 도움으로 생사를 확인한 뒤 북평 동양의 시와 단별 형 의 그림이 만나는 장면을 찍어 주었다. 형제 ‘상복’을 함께 취하여 오른쪽에 있다.

출판/출판사: 사회사 society@shinil.co.kr



남쪽 공훈시인 동생 김철씨(오른쪽)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이이를 받고 있는 어머니 윤보(왼쪽) 김한씨(가운데)가 동생 김철씨(오른쪽)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이이를 받고 있는 어머니 윤보의 그림을 진뻐하고 있다. 사진:출판사: 사회사 society@shinil.co.kr

'깜짝 생일상' 50년 한 눈속듯



평양 오찬장 '이색 선물'

반세기 만의 만남도 기쁘게 이틀 데 었는데 생일상까지 받다니... 북에 간 유두희 할머니와 권오술 할아버지는 1일 지식들로부터 50년유 건너된 생일상을 받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쪽 방문단 가운데 가장 어린인 유두희(100·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씨는 이날 평양 고려호텔 공동오찬장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깊은 시각 어르신인 권오술(경북 영덕군 영해면)씨도 50년 만에 만난 딸 원희(66)씨로부터 80품 기쁜 잔치상을 받았다.

"어머니, 한강도 진강도 못 챙긴 게 불효자가 '100품상'이나 올립니다." 아들 신동길(75)씨는 그렇게 간절히 찾아 해

유두희·권오술씨 100품·80품 잔치상받아 한동안 입 못다물다 "이제는 여한없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빙북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쪽이 지러온 100품 생일상을 받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photo@hani.co.kr

었던 잔 쯤에도 잘 다다나지 못한 이들이었다. 상에는 정성스레 마련한 톰뎀구이, 찹쌀, 돼지갈비, 순대, 닭갈비, 사탕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노환이 깊은 유 할머니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움직이긴 했지만 쉽게 말문이 터지지 않았다. 그저 손발과 머리를 언병 뻗고 있을 뿐이었다. 이들은 못내 안타까운듯 겨우 "어머니,

기쁘지요"라고 불렀고, 그제야 유 할머니는 울림듯 말뜻 한마디 대답을 했다. "정말 기쁘. 이제 한을 싹뺐어요!" 유씨는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린 이름의 등을 사람스럽게 다독였다. 앞에서 못내 안타까워하던 북쪽 안내원은 "이제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도 말을 못 하시면 할머니가 순간 입을 열더라. 좁은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씀을 되풀이 하신다"고 말했다.

유씨의 며느리 리화순(66)씨는 시어머니께 인사말을 따지며 "오래 사시라"고 축원하면서 식사를 도왔다. 상을 풀린 뒤 아들 신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나물을 이고 장에 가고, 남의 집 병상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남쪽 동생이 잘 살고 있다니 안심입니다."

노환으로 듣고 말하기가 불편한 권오술씨는 시종 어리둥절해했다. 원희씨는 아버지 품 속에서 생일상 앞에 있었다. 그러곤 가득 채운 술잔을 아버지의 입술에 갖다대면서 "아버지 8갑상 받으시지요"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술을 권했다. 원희씨는 또 "장군님의 배려로 마련한 옷감"이라며 옷값도 산물했다. 그러나 권씨는 별다른 말이 없이 둘러보지만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오빠 가기전에" 앞당겨 생일축가

서울 개별상봉·오찬 표정

개별상봉이 진행된 1일 또한엔 50년 만에 어린 그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 상봉중인 서울 잠실롯데호텔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오전 롯데월드호텔 1002호에서 이뤄진 개별상봉에선 아들유 만난 어머니 안준옥(88)씨가 "너무 기쁘게 간에서라도 덤실덤실 춤을 추고 싶다"며 주름진 아들의 손을 잡았다.

16살에 의용군으로 떠나 한강이 휘날리며 돌아온 아들 정재갑(66)씨도 이때 만큼은 다시 까까머리 소년으로 되돌아갔다.

두 팔로 들이 끌어 안아주는 딸들만 안씨는 "50년만에 돌아온 내 아들"이라며 흐느끼다 "둘째 손주가 할머니 드리라고 했다"며 짐짓 인심약을 건네자 "꿈에 좋다는 것 다 먹고 오라고 살아 우리 아들 다시 찾아왔다"며 반가워했다.

"부부 재회 기념" 술 건네

◇...개별상봉을 마친 이산가족들은 상봉중인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홀'에서 화기에 예찬 분위기 속에서 '반세기 만의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북쪽 북쪽 방문단 홍영수(63)씨는 앞쪽에 앉은 김중현(66)씨의 가족 테이블로 다가가 김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수줍은 유순이(70)씨에게 "할머니 기쁘십니까,

남편과 재회한 기념으로 친척하세요"라며 문배주를 건네기도 했다.

또 오는 4일이 생일인 리용호(68)씨는 여동생신호(63)씨 가족이 준비해온 케이크와 삼패인, 외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백이론" 생일상을 받기도 했다.

◇...50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은 10초간의 짧은 포옹으로 50년 세월 쌓인 정과 한을 달래왔다.

오후 5시 10분께 롯데월드민속박물관 앞, 김동욱(71)씨는 두 시간 넘게 서울방문단을 기다린 끝에 북에서 온 고향 친구 김영환(60)씨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외곽 달려 들었다. "살아 있었구나!" 뜻밖의 이야기 풀썩어낸 시간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시로의 새논이라도 간직하라는 듯 두 친구는 말이 부둥켜 안은 채 술을 빙겼다.

야 의원 여성비하 농담 '논살'

◇...지체 만찬에서 비재국 통일부 장관과 장애인 서울방문단장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신경식 의원(한나라당)이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건네 한때 분위기를 뜨겁게 했다. 장 단장이 "기간이 짧아 안타깝다. 하지만 앞으로 더 기회가 많이 있겠지요"라고 말하자, 신 의원은 "중이서 좋은 것도 있지요. 우리 남한에서 여자들 미니스커트 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북쪽취재단 society@hani.co.kr

노래·어깨춤 어울려 축제분위기

평양 상봉·오찬 이모저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1일 개별상봉이 이뤄진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선 온종일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밤이 다가올수록 다시 만남날을 기억할 수 없는 이별 앞에 웃음소리는 잦아들었다.

상봉가족 '조국통일 만세' 삼창

◇...고려호텔 3층 식사실에서 이뤄진 점심식사 자리를 곳곳에 친척상이 차려지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가 었다.

한 북쪽 가족이 "남쪽 가족들을 환영한다"며 노래를 시작한 뒤 10여명이 앞다퉈 나와 상봉사연을 소개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호텔 직원이 축석에서 아코디언 반주를 넣어주자 흥이 고조됐다.

박후진(70·함남)씨는 북쪽의 두 여동생과 함께 <고향의 봄>을 멋들어지게 불러 합창을 이끌어냈고, 한 북쪽 가족이 "우리 아버님을 만난 기쁜 날 노래 한곡 하겠다"며 <새타령>을 부르자 식사실 여가에서 할머니들이 일어나 어깨춤을 쳤다.

이어 20여명이 손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노래가 끝난 뒤 상봉 가족들은 "조국통일 만세"를 삼창하기도 했다.

한때 북쪽의 한 가족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50년 만에 정말 보고픈 시골을 만났다"며 민세상장을 재인해 머쓱한 분위기가 됐지만, 남북 가족들은 차분히 지켜보는 것으로 '돌발상황'을 넘겼다.

학생소년군전시 공연 관람

◇...남쪽 방문단은 개별상봉을 모두 마친 뒤 평양시내에 짙게 깔린 안개를 뚫고 민경대 학생소년군전을 찾아 환영 공연을 관람했다. 한 예술단원은 공연 시작 전 "우리 공연을 보고 나면 10년은 젊어진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20~30년 젊어져서 통일과 날을 앞당겨달라"고 말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후 6시 30분께 민수대 예술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적십자회가 주최하는 환송 만찬에 참석한 방문단들 일곱은 아쉬움이 역력히 자리잡았다. 이갑자(76·여·부산 수영구)씨는 "가족들을 만나 지식을 잘 키우는지 등 간단한 말밖에 하지 못했다"며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밤새 생각해 내일 아침 마지막 상봉 때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평양 거리의 아침에 이어 다시 깊은 안개가 끼어 속도로 돌아오는 방문단의 발길을 더디게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한겨레

2000. 12. 2 (토)

“우리 다시 만나야...” 긴 포옹

2차 이산방문단 오늘 귀환

남북의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1일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각각 가족단위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등 모두 6시간에 걸친 ‘긴 상봉’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 관련기사 4.5.18.19년
평양방문단은 253명의 북쪽 가족을 만났다. 전날 단체상봉에 이어 1일 숙소인 고려호텔 객실에서 오붓한 가족상봉의 기회를 누렸다. 특히 방북단 가운데 최고령인 유두희(100)씨는 호텔 2층 식당에서 치러진 공동중식 때 딸 아들 동길(75)씨와 며느리 리화순(66)씨가 차린 ‘백합상’을 받았다.

서울에선 ‘공훈예술가’ 김기만(71)씨가 이날 오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형 윤보 김기창(88) 화백을 찾아가 ‘병상상봉’을 하며 재회의 눈물을 쏟았다. 서울방문단은 483명의 남북 가족을 만났다. 남북의 방문단은 개별상봉을 마치고 각각 잠실롯데월드 민속관과 만수대소년학생공원을 참관하고 통일부와 북쪽 조선직업자회 중앙의 주최 환송만찬에 참석한 뒤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남북의 방문단은 2일 오전 각각 숙소 앞에서 가족들과 30분 남짓 환송상봉을 한 뒤 북한의 고려항공편으로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병마에 막힌 상봉’ 애끊는 슬픔

방북 한중은·박해수씨 동생 못 만나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니...”

1일 평양 고려호텔엔 이틀째 재회의 기쁨이 흘러넘치지만, 지난 1차 상봉 때처럼 남들과 북한의 눈물을 흘린 이들도 있었다.

방북단의 한중은(82·평남 감서군)씨는 생사확인 때 북녘의 막내 여동생 일심(72)씨가 정신병원 중을 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니 그래서 더 만나고 싶었다. 일심씨는 5남1녀 가운데 유일한 여동생으로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한씨는 평양의과대학생 신분으로 1·4후퇴 때 남녘에 온 뒤 평생을 의사로 지냈다. 행촌의원 병원장인 한씨는 ‘병마에 시달리는 동생도 돌보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의사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한씨는 동생이 고려호텔에서 60여리(24km) 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속이 타는 모험이었다. 북쪽 관계자들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탄환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다.”

“아무리 오지 못할 병이라도 가서 얼굴만 보게 해 달라.” 김바섯 민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도록 절규하는 한씨를, 북녘의 새 조기는 빙하니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김퓨터 교육강사로 유명해진 박해수(72·평남 신양군)씨도 동생 해조, 해범씨의 손을 부여잡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오지 못한 동생 해남(66)씨를 애타게 찾았다. 김진옥(80·여)씨 역시 “짐 달던 시숙” 차인규(81)씨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틀째 상봉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자 못내 아쉬워하며 눈물을 썩었다. “염병런스리도 다고 외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남쪽에선 8·15교환방문 때 란찬상씨가 입원중인 남녘의 어머니 김애란씨를 병실에서 상봉했고, 1일에도 ‘공훈예술가’ 김기만씨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 윤보 김기창 화백을 만났다. 그런데 북쪽에선 ‘병상상봉’은 물론, ‘염병런스리 상봉’도 아직은 안 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politics@hani.co.kr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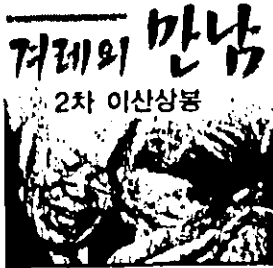
“오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1일 고려호텔 오찬장에서 북에 사는 딸 박영실(66)씨가 어머니 김덕희(88·서울 관악구)씨에게 50년간 살아두었던 정성을 담아 음식을 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photo@hani.co.kr

14살 철부지로 돌아간 동생

50년 세월 뛰어넘은 오누이 정겨운 애기꽃



겨레의 만남 2차 이산상봉

■ 남쪽누나 만난 홍응표씨

"이제 또 헤어지면 어쩌란 말이나." 겨우 하루를 넘겼지만 홍응표(64) 씨를 숙소에서 만난 누나 양순(73) 씨는 조바심잡았다.

"누님, 뭉일이 되면, 그런 돼." 동생은 누나의 손을 꼭 쥐고는 "나도 흥분이 돼서 밤새 잠을 설치어"라며 웃었다.

50년을 훌쩍 뛰어넘어 만난 오누이는 헤어지기 전 짐이었을 때로 돌아간 듯했다. 전남의 감격이 가지지 않은 듯 창가 탁자 주변에 나란히 앉아 선물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다.

누나가 손복시계를 채워주려 하자 응표씨는 "지금 것도 좋은데"라며 말을 내밀었다.

순진 부모의 환갑 때 찍은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건네자 응표씨는 "그

토록 보고 싶었는데, 사진밖에 없더니"라며 말라바라다시피 한 눈물을 흘렸다. 옷감 공장파 소매인을 잇는 평양직물도매소를 책임지고 있는 응표씨는 고운 비단 옷감을 꺼내 누님에게에 보였다.

"참 좋으네." "급소, 고와, 우리 누님 여전하군요." 그리고는 자신이 크게 보도된 <조선일보>라는 북한 잡지를 자랑스런 표정으로 펼쳐들었다.

"그래,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와주니 고맙구나." 누나 양순씨는 오랜만에 곁에 있는 자녀들이 보란 듯 칭찬을 던졌다.

응표씨는 북에서 1남4녀를 낳아 의사·연구사·미술가로 키웠으며, 미대를 나와 미술청자사에서 일하는 딸이 그렸다는 풍경화 <금강산전도>와 정물화를 건넸다.

이렇게 오누이가 덕담을 주고받으며 추억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던 두 시간엔 너무도 짧은 듯했다.

응표씨는 경기 고양시(지금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출신으로,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북한으로 간 뒤 김일성종합대학 나왔다. 그는 "6·15 선언도 나왔고 뭉일 전망도 활짝 열려가는 만큼 이제 하루빨리 한 자리에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북에서 온 선물 1일 북대오월의 남북이산가족 개별상봉에서 북측방문단인인 '별양직물도매소 지배인 홍응표(오른쪽)씨가 누나 양순씨를 만나 북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북 가족소식 알고싶어요" 상봉감격 언저리에 타는 혈육찾기

'...아시나요' 피켓 줄이어

"아머니를 찾아주세요." 상봉장 안에선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이들의 감격이 이쯤에 이어졌다. 만, 상봉장 밖에선 화육의 행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의 애대는 호소가 계속됐다.

택시 운전사 정양남(63·서울 중랑구 망우동)씨도 바쁜 워킹시큐 접었다. 그는 방북단이 지나는 김복바다 "어머니(이순봉(96), 어동생(기남(59), 김남(55))"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목이 쉬어라 도움을 청했다.

정씨는 "1차 이산가족 상봉 때 신청했지만 나이가 안돼 이번에는 포기

했다"며 "하지만"상봉이 다가올수록 깊어만 가는 어머니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해도 안백이 교향인 정씨는 아버지와 형이 일찍 세상을 떠 네 가족이 의지하며 지내다 1·4 후퇴 때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남가둔 채 남쪽으로 내려왔다. 눈 마주침새도 없이 방북단이 지나치면 한숨을 내쉬면서도 정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40년 고생 끝에 비릿이 키운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며 잔잔함으로 이들의 뒤를 쫓았다.

희망의 끝자락을 잡기 위해 방북단을 쫓은 이들은 정씨만이 아니었다. "홍남 시호·원 한지은, 홍남 내호·치남 이춘국·치형 이춘자, 서울·원치가 이춘옥"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방북단이 단 비스 침문에 내흔들어낸 한치기(66·서울 송파구 신천동)씨 등 상봉장 주변에선 북의 가족 소식을 알아보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힘이어졌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여동생을 찾습니다 1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심한민 장여기순(73)씨가, 북한에 있을 여동생 어금식씨를 찾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북쪽에서 온 이산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한번이라도 더 만나보자”

상봉단 가족 짧은만남에 애타는 마지막 밤

겨레의 만남 2차 이산상봉



이산가족 상봉장인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선 짧은 일정의 북녘 협육을 한번이라도 더 만나거나 목소리라도 들어보려는 남녘 피붙이들의 갖가지 노력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특히 일부 이산가족들은 친자 수신행이 집단 숙식을 하면서 공항과 호텔, 만찬장 등에 분산배치돼 적극적인 '뜸새 상봉'에 나서는데 등 군사 작전에 버금가는 '상봉 작전'을 벌이며 반세기 만의 짧은 만남을 안타까워했다.

또 일부 북의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전달한 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친지들과 전화상봉을 시도하는 등 이십기만 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라도씨(68)씨의 남쪽 가족들은 직계는 물론 조카사위까지 무려 40여명이 상봉을 위한 입체작전을 펼

휴대전화 전한뒤
은가족 밤새 통화

호텔·만찬장 주변
'눈맞춤' 갑작상봉

하루종일 입체작전

다. 이들은 상봉 전날인 지난달 29일 라씨의 둘째누나 도순(71·서울 용산구 이촌동)씨 집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라도씨의 외조카 봉균(49·서울 중구)씨는 "상봉 첫날 방남단의 일정에 따라 공항과 숙소, 만찬장 등에 5~6명씩 나눠 마중을 나가기로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이들은 라씨가 가는 곳마다 "라도서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끄는 방법으로 상봉을 했다.

이들은 또 개별상봉이 진행된 1일엔 상봉인원 제한(5명)을 피해 비표를 바꿔 다는 방법으로 한사람에 10~20분씩 릴레이 상봉에 나섰다.

조카 이준섭(44)씨는 "외삼촌께서도 '자손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흐뭇해하시더라"며 "남쪽 가족들의 우에도 매우 돈독해졌다"고 전했다.

북쪽 방남단 구재협(71)씨의 남쪽 형 재락(74)씨와 동생 재면(59)씨는 충남 서천의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일가붙이 30여명을 승합차 3대에 나눠 태우고 상경했다. 형 재락씨는 "직계와 사촌은 물론 조카사위들까지 데리고 왔다"며 "집안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마을 큰잔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남단 숙소인 롯데월드호텔 인근 여관에 방 3개를 잡고 숙식하면서 구세가 가는 곳마다 미리 진을 치고 구세와 눈맞춤을 시도하고 있다.

조카사위 박철선(48)씨는 "어젯밤엔 할아버지께 휴대전화를 전해드린 뒤 은가족이 밤새 돌아가며 통화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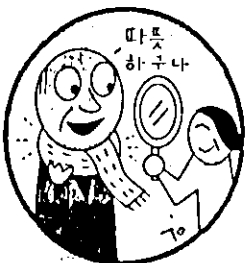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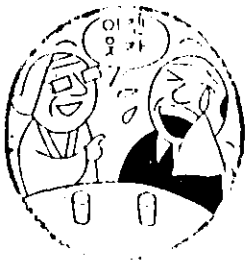
그러나 1차 상봉 때와 달리 '휴대폰 상봉'에 대한 북쪽의 강력한 자제 요청으로 밤샘 통화를 기대했던 많은 가족들이 애를 태웠다. 립현식(68)씨나 하재경(65·김해공업종합대 강좌장)씨 등의 가족들은 "휴대전화를 준비해 건네려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며 "혹 풀이익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 못 주고 말았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북쪽 방남단 라도서씨를 만나려고 라씨의 고함인 전남 나주 등 전국에서 모인 가족 40여명이 1일 오후 롯데호텔 18층 일반객실에 밤을 열어 라씨와 만난 기쁨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김중수 기자 jongsoo@hani.co.kr

“울긴 왜 우나”... 춤추고 노래... 긴장대신 여유... 선물은 검소



‘恨풀이 만남’서 ‘웃음의 場’으로

2차 이산상봉



재외하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흥분만이 배어있던 1차 상봉 때와 달리 웃음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술과 노래, 춤사위까지 등장했다. 선물마저 부족 가족에 대한 ‘감사회’에서 ‘감사회-추억회’로 바뀌고 있다.

교류진전 의식변화 반영

1차 상봉 때와 달리, “이젠 사다끼 아닌” 기쁨과 교감의 감으로 가까워진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가족의 비애를 견뎌주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물도 “이젠 애초에 남쪽에게서 전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8일(토) 서울 코엑스 1차 상봉 현장에서는 애절한 동요보다 2차 상봉에 어울린 민요와 전통 가요의 흥이 10분의 채 지나지 않아 1차 상봉 때와 달리 “이젠 애초에 남쪽에게서 전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반대편에서 “이젠 애초에 남쪽에게서 전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재간(66)씨와 남측 노모 임준옥(88)씨는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은 채 웃음 낄아주며 농담을 주고 받고 노려 주위와 뒀하게 했다. 리근삼(75)씨는 “음음음” 나르리는 남측의 동요를 제지하며 “울긴 왜 우냐. 이렇게 기쁜 날에”라며 크게 웃기도 했다.

오찬이나 민찬에도 축제의 분위기가 완연했다. 민찬에서는 북측 가족들이 술배우와 백세주 등에 기분 좋게 취해 노래를 부르며 아예 술을 한 주먹과도 놀라게 했다. 1일 낮에도 현재로써 오찬을 마친 뒤인 리(67)씨가 조카들을 위해 “고향의 봄”과 “우리들의 소원을 부른다” 등의 가요를까지 아예 함께했다.

선물도 부족 가족을 위한 웃기자와 간지제품, 김밥이 등에서 화보장과 가족사진, 앨범, 쪽보통이 주 선물로 등장했다. 북측 가족이 일개 된 비애나 걱정하미 연문 감동과 친선행위를 원대로 기대했다. 남측 가족들도 이번에는 오찬이 가족애기와 옛 기억을 불러오는 등 친목 기의 대우를 받고 있다.

측보-앨범등 ‘추억형 선물’

권지영을 받은 김일부의 김모(45) 조정은 “2차 상봉은 마치 명절 날 가족이랑 같았”고 말했다. 이 리의 반응은 “말안타 남쪽 김모가 원상화해서 이번 상봉이 내이션 ‘마지막 만남’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만남이 되었”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때에 정치외교와 양측(美



100세 생일상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에 있는 아들 신동갑씨 내외로부터 100회 생일상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勝斌) 교수는 “이산가족들이 아주 빠르게 남북화해에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1차 때보다 국민적 감정은 줄어들었지만, 오찬이나 기쁜 대외로 만드는 것이 발전적인 남북관계의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대(金榮大) 전 통일부 차관 “교류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이

신상봉은 이벤트가 아닌 생활이 될 것”이라며 “평양 주민들도 1차에 비해 많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남북관계가 민간부문에서 먼저 변화하는 것을 환영하게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고찬유기자 jtdac@hk.co.kr

■ 상봉장 안팎

“100달러 주면 北서 못바귀” 환전 소동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50년 이의 아픔 한꺼번에 달래기 위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북서와 진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차 상봉때보다 더욱 방문단의 비가 다양해졌다.

비디오 못말자 “아단났네

김영환(69) 김일성대 교수는 예시 책은 자신의 예술동상(환연)과 8월의 생일잔치 비디오테이프를 선물하며 우리측에 기계치출 요청했다가 송신방식이 라 불지 못하게 되자 “이기 이났구나” 하며 난감해 했다. 하지 누나 김옥인(81)씨 등 가족들도 도착하자 “이기 누나 드리는 이”라며 자신이 직접 만든 앨범 꺼내 사진 하나하나를 일일이 설명했다. 평양직할도매소 지배 홍중표(64)씨는 누나 양순(74)에게 “내가 크게 나왔다”며 김조선희보의 ‘금수강산’을 건네 뒤 가족들이 둘러보도록 했다. 씨는 미술창작사에 근무하는 ‘이그린’ 김금산선도의 정밀화 선물로 내놓기도 했다.

곳곳서 생일파티 열려

오찬 개별 상봉에 이어 진행 오찬장에서는 생일파티가 속출기도 했고 이산의 현을 끄고 놀기신 부모님들을 예도하며 영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가족 많았다.

한편 남측 이산가족들이 북측측에게 선물로 준비한 5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가 북한에서 사용하기 힘든 고액지폐로 입지려는 인근 은행에는 잔돈을 주려는 이산가족들이 몰려들기 했다. 한 이산가족은 “은행에서 권을 요구해 북측 가족에게 주고 한다고 시장채 돈을 버렸다”고 다시 환전소로 향했다.

/장계조기자 rajun@hk.co.kr
김세정기자 sejeong@hk.co.kr

“100돌상 올립니다”

2차 이산상봉



■ 평양에서

50년만에 재회한 이산가족들은 1일 흥분된 기리이던 채 이야기꽃을 피웠다. 남편과 아내, 이들과 딸을 만져보며 세월을 망각했고 '자주 만나자'는 기억없는 약속으로 짙은 만남을 위로했다.

○“어머니, 환갑·잔갑·8갑상도 못해 드었는데... '100돌상'을 올립니다.” 남측 방문단 최고령자인 유두희(柳斗熙·100·김원도 원주시 문막읍) 할머니가 고려호텔 공동오찬장에서 짙은 그리던 큰 아들(신동길·75)로부터 100세 생일상을 받았다. “어머니, 기쁘지요”를 연발하는 동길씨에게 유 할머니는 “이제 실컷 한을 풀었다”면서 칠순 아들의 등만 두드렸다.

○“그 곱던 얼굴에 주름이 가득 하구려. 어보 정말 미안하오” 흥대중(洪大仲·79·서울 성동구 옥수동)

오찬장서 유두희 할머니 생일상 받아
남편 품 안긴 수절아내 “이게 꿈인지...”
북측가족들 ‘장군님 찬가’ 부르기도

씨는 때론 검은사진을 펴놓으며 수절한 아내의 등을 어루만졌다. 아내 박선비(74)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흐느꼈다. 농사를 짓던 유씨는 1950년 9월 감제징집을 피해 부인과 두 아들, 딸 하나를 남겨놓고 유로 서울로 내려왔다.

○“아버지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영근이 50년 동안 내 생각만 했다.” 아내 이덕실씨와 아들 영근씨를 만난 명용덕(明用德·83)씨는 28세의 아내와 11세 딸, 7세 아들과 생이별한 후 쌓였던 한을 한꺼번에 쏟았다. 이씨는 명씨가 꺼낸 50년 전 검은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렸다. 명씨가 남측에서 재혼한 가족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이씨는 한동안 사진을 외면하다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해 명씨가 준비해간 우형침상한을 먹기도 했다.

○“고려호텔 공동오찬은 이산가족들의 노래와 시 낭송으로 흥겹게

진행됐다. 북측 가족중의 한 사람이 환영 노래를 부르자 모두들 앞다투어 나섰고, 할머니들은 어깨들까지 덩실덩실 추었다. 김진옥(金眞玉·81)씨의 북측 가족들이 나와 ‘고향의 봄’을 불렀고, 호텔 봉사원은 이코디인 반주를 곁들였다. 북측 가족들은 “장군님의 은덕으로 가족을 만났다”며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님께’ 등 찬가를 부르기도 했다.

○“환송민찬에서 허세품 복지 부위원장은 ‘남녀 여러분들이 북한의 불신을 풀고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봉두원 남측 단장은 ‘생사화인과 서신교환을 위해,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상설연회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길자(李吉子·76·부산 수영구 평안동)씨는 ‘할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라며 ‘예우고 싶은 말을 빙세 생각해서 내일 이집 한송 때 전해드리겠습니다’고 울먹였다.

/평양=공동취재단

“당신 기다리느라 술만 늘어...”

■ 서울에서

대부분 눈물로 밤을 지새 북측 방문단과 남편의 가족들은 1일 두 차례 개별상봉과 오찬을 통해 50년 지친 기억을 되살리며 협육의 정을 다시 확인했다.

“왜 이리 술을 잘해”

미움껏 투정부린 유순이씨

“50년 수절의 주인공 유순이(71)씨는 북에서 온 남편 김중현(69)씨에게 50년만에 미움껏 투정을 부렸다. 이날 오찬장에 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남편 옆에 다소곳이 앉은 유씨는 소주잔 마시려는 김씨에게 “긴장 생각해서 백세주첩 들리”며 손을 뉘었다. 이만엔 남편 김씨가 “당신도 한 잔 하구려”라며 권하자 유씨는 “난 못해요”라고 못이기는 척하니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김씨가 놀라며 “어유, 왜 이리 술을 잘해”하자 유씨는 “당신 기다리느라 건 술밖에 없더우...”라며 남편의 손을

살짝 꼬집었다.

‘금강산전도’ 전해

누나에게 딸 그림 선물 흥용표씨

평양직물도매소 지배인 흥용표(64)씨는 누나 양순(73)씨의 조카들이 개별 상봉 장소인 객실에 들어오자 디칭히 어깨를 입싸안았다. 양순씨가 부모님 한갑사진 등이 담긴 열범을 선물로 내놓으며 “이제, 같이 살면 안되냐”고 눈물을 흘리자 흥표씨는 “곧 통일이 돼 같이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위로했다. 흥표씨는 평양에서 특별 주문한 직물과 딸이 그린 ‘금강산전도’ 등 그림을 누이에게 선물로 건넸다.

“노트북 당국서 난색”

훈장 지방한 하재경씨

하재경(65) 김책공대 김지정의 형제(73)씨는 이날 개별 상봉장에서 동생이 과학자인 점을 고려해 과학자용 전자계산기, 확대경, 돋보기 안경, 전기면도기, 옷가지, 속옷 등을 선물

했다. 재인씨는 ‘노트북 컴퓨터를 주려고 했는데 당국에서 난색을 표명해 할 수 없이 전자계산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재경씨는 과학기술 발전 공로로 받은 훈장 2개를 내보였다.

뒤늦게 悲報 전달

죽보를 선물로 받은 최병대씨

“죽보를 보니 내 뿌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좋다.” 북에서 온 권형 최병대(71)씨는 동생 병현(59), 병민(52)씨가 상봉장에서 건넨 ‘경주 최씨 시전공파 보권지천’이라고 적힌 죽보 2권을 받아들고 “북에서도 죽보를 소중히 간직하고 뿌리를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 형제들은 권형 병대씨가 ‘돌제형은 6·25때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했다’며 전담 차마 힘어놓지 못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다.

/김훈기자 hoony@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형님, 기만이가 왔습니다...”



2차 이산상봉

雲甫형제 '병실상봉' 筆談으로 정 나눴

“형님, 반백년을 애태우다 이제 기만이가 왔습니다. 알아 보시겠어요?”

1일 오후 그토록 그리던 형님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88) 화백을 만난 북의 막내동생 기만(基萬·71·평양미술대 교수·화가)씨는 한동안 병상의 운보를 바라보다 오열하기 시작했다. 운보는 동생을 뵈기 어린 눈으로 응시하며 50년 한을 일그러진 표정으로 전달했다.

남과 북의 형제화백이 상봉한 곳은 삼성서울병원 1902호 운보의 병실. 운보가 폐혈증과 고혈압, 인이 장애 등으로 병상에 누워 상봉장에 오지 못하자 동생 기만씨는 남측과 북측방문단의 협의 끝에 동의를 얻어 이곳으로 달려왔다.

北, 상봉기념주화 제작



북한이 제 1차 이산 가족 교환 방문(8월 15-18일) 후 금화 은화 등

기념 주화 3,000개를 제작·판매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숙소인 고려호텔 1층 기념품 판매점에 진열된 기념 주화에는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 평양 상봉’이라는 글과 함께 모지(母子)의 표음 장면이 새겨져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화백형제는 동생이 글로 써서 형님에게 보여 주면 형님은 눈으로 밀하는 ‘빔담(筆談)’을 통해 50년 동안 커커이 쌓인 형제의 정을 나눴다.

기만씨가 “어서 어서 훌쩍 털고 일어나셔야죠”라며 병으로 아픈 형님의 발을 어루만지자 운보는 고개만 끄덕이며 연신 기만씨의 등을 짚어 내렸다. 기만씨도 3개월 전부터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몸이 불편한 상태. 그러나 기만씨는 “나를 다 키워주신 우리 큰형님이 이렇게 병약해지시디나. 100살까지 사십시오...”라며 형님 걱정에서 종한숨을 내쉬었다.

동생이 온다는 반세기만의 화소식이 운보의 기력을 회복시킨 것일까. 지병인 폐혈증과 고혈압으로 지난달 18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운보는 산소호흡기와 음식물 주입기까지 끼고 있어야 할 정도로 약화됐었지만 시흥 전 병세 호전으로 호흡기는 쉼 수 있었다. 밀을 못하는 운보는 이 날도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지만 동생을 보기 위해 일 반 병실로 옮겨졌다.

운보의 아들 완(完·51)씨는 “비록 병중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작은아버지를 볼 수 있게 돼 한을 푸셨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운보의 막내딸 김이나원(44·안산 사랑의 수녀원 원장) 수녀도 “작은아버님을 알아 보고 기뻐하시는



북측방문단인 김기만씨가 1일 오후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병실에 누워있는 형 김기창 화백의 얼굴을 만지며 흐느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겁 보니 눈물이 앞선다”며 감회에 젖었다.

이날 운보는 평소 아끼던 자신의 그림 ‘승무(僧舞·71년작)’와 작품 5,000점이 수록된 5권의 전작도록(全作圖錄)을 동생에게 전했다. 기만

씨도 ‘태양을 따르는 한마음’이란 제목의 6폭짜리 병풍과 난초 등을 그린 동양화 3점, 북에 있는 운보의 여동생의 편지 5통을 건네고 20여 분간의 짧은 재회를 마쳤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94년 ‘詩·畵상봉’ 화제 화가형-시인동생 만나

南 김 한·北 김 철씨 형제

“이제 밤 너와 밤새 놀러 다닌 꿈을 꿔간다.” 1일 평양 고려호텔 1704호에서 시암화가 김 한(金漢·73)씨는 북에서 유명한 시인이 된 동생 김 철(77)씨의 손을 덥서 잡고 전달 첫 상봉의 감회를 되새겼다.

형 김씨는 “어려서 나는 그림 공부 많이 하고 동생은 글 재주가

있었는데 동생이 시인이 됐다고 하니 그 방면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며 선물 보따리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꺼내 건넸다. 시인 동생도 1993년 10월 북측 작가 20명과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을 꺼내 “형님에게 보여 주고 싶이 가져왔다”며 자랑했다.

김 철씨의 아들 석씨도 “아버지는 92년 4월 ‘어머니’라는 시로 시인으

로서는 최고 영예인 김일성상을 수상했다”며 상징과 훈장을 큰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참 큰 일을 했다”며 동생을 한껏 치켜세운 형은 종이의 수첩, 빗자루 등 선물을 주면서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쓰라”고 격려했다. 동생도 그림 7점과 도자기 3점을 건네면서 “6년 전 살아계신 줄 알고 꿈이나 생시나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원을 풀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 형제는 94년 재미교포 도움으로 생시를 확인한 뒤 동생의 시에 형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문예지상을 통해 상봉, 화제롭 모 있었다. /평양=공동취재단

남북 이산가족 2차상봉

“죽기전에 다시 만나자”

가나간 이별 뒤에 이뤄진 243일의 짧은 만남. 하지만 기억 없는 긴 이별이 이산가족들의 비유를 곁에대리게 만든다. 1일 개별상봉, 가족과 함께 했던 집합식사 등 새 차례 만남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만남의 기쁨 속에 다시 헤어짐을 준비해야 했다.

‘찾아 생전 다시 한번 더 만나자’며 울부짖었고 그리울 때는 언제든 어디서든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자며 두손을 모았다.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은 2일 모든 일정을 끝내고 각각 서울과 평양을 출발할 예정이다.

손짓으로 나누는 형제애

□화가형제 김기창-기만씨 병상 상봉

50년 만에 이뤄진 형제의 만남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다. 1일 오후 삼천포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뤄진 오후 김기창 화백(88)과 북한 공훈예술가 기만 씨(71)의 감격적인 상봉 현상이다.

남북 양측 관계자들의 심부름 끝에 병실 방문이 진격 허용돼 기만 씨는 이날 오후 3시 25분 삼천포병원 1920호실로 들어섰다.

병상에 환자복 차림으로 누워 있던 운보는 동생의 보자 눈물 크게 뜨고 울던 위용 다분지 못했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 기만 씨는 조카 완 씨에게서 뱃지구를 뽀뽀하며 ‘개신장군이 돼 왔습시다’라고 작은 뱃지에게 보여줬다.

기만 씨는 금세 코끝이 빨개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운보도 말을 못할 채 눈물을 맞았다.

기만 씨 역시 중풍으로 대화가 곤란한 데다 백방지는 감정에 손짓으로 반가움을 전하려 했고 운보도 입

중환자실 24시간 동생 보자 한없이 눈물만

을 끄며왔지만 전상적인 대화는 오가지 못했다.

형제는 수화로 보이는 손짓 속에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계속 눈물만 흘렸다.

이어 운보는 자신이 가장 이끼는 작품인 ‘송무’를 아뵈 완 씨를 통해 동생에게 건넸고 기만 씨는 북에서 가져온 태양을 떠르는 한마음 2000년 5월 김기창’이라고 적힌 조선화 회합을 형에게 펼쳐보이며 전했다.

김 화백은 지병인 패혈증과 고혈압에 시달리다 최근 다리까지 붓는 등 병세가 악화돼 지난 17일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기만 씨는 김 화백의 셋째 동생으

로 북한에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유병화가.

서울 시립미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1년 월북했다. 월북 후 56년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65년 조선미술박물관 부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는 ‘고구려 인민들의 무술경기’ ‘구주상진부’ ‘소년선봉대’ ‘금강산풍경’ ‘홍경래 농민혁명’ ‘울음이’ 등이 있으며 북한 민족의 상을 소재로 한 50여 작품이 있다.

그의 회화화 1500여 점이 있는데 20여 점은 북한의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 사회1부 윤경호 팀장
- 고성훈 기자 최은수 기자
- 허진식 · 백철 ·
- 홍종성 ·
- 정취부 김인수 기자
- 시진부
- 김성중 기자 전용희 기자
- 박상선 · 김재훈 ·
- 명왕·전병희 기자

가족사진 놓고 이야기꽃

□화가 김한·시인 김철 형제

평양=공동취재단 **시인화가 김한 씨(73)는 1일 고려호텔 숙소에서 북한 공훈시인인 동생 김철 씨(67)를 만나지 손을 댄지 김으며 어제 단체상봉 후 감회담 이북개 받았다. 김한 씨는 형제 동생의 아들·딸과 부인 손을 잡고 그저 ‘찾아 있어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다. “앞으로 다시 만나자”며 기억 없는 약속도 했다.**

김한 씨는 “어쨌든 생각도 나고 해서 가져왔다”며 그가 직접 그린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그림을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다. 또 가족사진을 꺼내 동생과 조카들에게 인원이 설명했다.

김한 씨는 “죽은 시 많이 쓰리는 뜻”이라며 동생에게 친족은 조카와 수첩 뱃지구 등을 선물했고 김철 씨도 그림 7점과 도자기 3점을 선물로 형에게 줬다.

김철 씨의 이북 식 씨는 “어머지는 92년 4월 ‘어머니’라는 시로 시인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김일성상훈 수상했다”며 상장과 훈장을 큰아비에게 보여줬다.

김철 씨도 형에게 김일성 주석이 그날 특별히 자신에게 따라왔다는 유리잔을 보여주며 “형님께 보여 주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자랑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빠만난 탤런트 김영옥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1일 오전 10시 롯데월드호텔 1107호실. 탤런트 김영옥 씨(63)의 오빠 김영환 씨(70·북 양귀일보 편집국장)는 동생들이 가져 온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영환 씨는 이어 “50년 동안 생사를 모르던 너희(동생)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너무 기쁘다”며 동생 영옥 씨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안았다.

영옥 씨는 “오빠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고맙다”며 “이번 주말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오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꼭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영환 씨는 또 가족과 함께 한 점심식사 시간에 제수인 어육회 씨(59)에게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수고했다”며 감사말을 전했다.

또 남동생 순환 씨(67)를 비롯해 시춘과 매부 등이 모두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며 “우리 형제들이 남과 북에서 모두 출판·문화부문에 있어 함께 일하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조국 통일일 앞당기자”고 말했다.

“50년만에 만났는데 또 이별이라니...”

■ 2차 남북상봉

“하룻밤이라도 같이 잤으면...” “꼭 다시 만나요” 반세기동안 그리던 고향 땅에서 혈육들을 만난 이산가족들은 방문 이틀째인 1일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족단위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그러나 짧은 만남 끝에 다시 속절없는 이별을 눈앞에 둔 이산가족들은 끝없는 재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부엌같은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눈물로 재회를 약속했다.

평양 ○-제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1일 두차례 개별상봉과 50년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눈 공동공식으로 ‘젊은 만남’을 이루었다. 남북의 이산가족 253명은 전날 단체상봉에 이어 남북 이산가족의 숙소인 고려호텔 객실에서 오붓하게 만나 상봉의 기쁨

수질 아내 주름진 얼굴
말없이 쓰다듬기만

오찬도중 즉석 노래자랑
흥겨운 분위기 연출도

을 나눴다.
○-이날 4시30분 동안 진행된 개별상봉에서 홍대중(洪大仲·79·서울 청동구 옥수동)씨는 낯선 처녀시절 아내와 사진과 50년 수필로 맺게 된 지겨운 복녘의 아내 박선비(70)씨의 주름진 얼굴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특히 방북단 가운데 최고령인 유두희(柳斗熙·100·강원도 원주시 판곡읍) 할머니는 고려호텔 2층 식당의 공동오찬에서 할아버지 신동길(75)씨와 며느리 리화순(66)씨가 차린 ‘백두상’(백두상)을 받았다. 백두상을 마련한 복측의 아들 동길씨는 “통일이 돼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 야 하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려호텔 3층에서 진행된 공동오찬 시간에도 식사도중 즉석 ‘노래자랑’이 벌어져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북측 가족 한 사람이 남측 가족들을 환영한다며 노래를 시작한 이후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다부어 나와 자신의 상봉사연을 소개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호텔측 직원들이 즉석에서 어코디언 반주를 넣어주면서 흥을 돋웠고 노래를 듣는 가족들도 박수와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웠다. 특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서부터는 북



1일 오전 고려호텔에서 석만길씨 가족이 사진을 보며 그동안의 공중증을 풀고 있다. 석만길씨는 북한에 부인 정보부씨의 6남매를 두고 6·25동안 중 남쪽으로 왔었다. 평양=사진공공취재단

위가 최고조에 달해 오찬에 참석한 모든 가족들이 일어나 손을 맞잡기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10여분간 부르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노래가 끝난 후 상봉가족들은 ‘조국통일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가족 공동오찬은 닭고기, 연어구이, 편장찌개, 약밥, 과일 등이 주메뉴로 준비됐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정을 나눴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평양에 온지 하루가 지난 탓인지 가족을 만나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식사도 술을 곁들여 많이 먹는 편이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어 만경대 혁명소년공원을 참관, 공연을 관람한 뒤 북한적십자의 중앙위원회가 만수대에습극장에서 주최한 환송만찬에 참가했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지원인원 중 일부는 별도로 만수대합작사, 평양지하철 등을 돌아다녔으며, 봉두원(柳斗元) 단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평양의 장충성당에 둘러 미사를 올렸다.

남측 가족들은 이날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뒤 2일 오전 8시 고려호텔에서 북측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상봉을 하고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북측 고려호텔로 서울로 귀환한다. (평양=공공취재단)

(71)씨는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는 남측 김종현(63)씨의 약속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남측 동생 가족들이 미리 차려준 집순생 일상을 받은 리용호(63)씨는 남측 가족들과 돌아가며 사진을 찍고 남측 가족들이 전해준 사진첩을 어루만지며 이별의 슬픔을 달랬다.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북에서 온 라도사(68)씨는 첫 들이 체 지치지 않은 중손자를 반씩 들어올리며 ‘통일이 돼서 다시는 이런 아이에게 본업의 이름을 써서는 안된다’며 ‘머지 않아 그런 날이 오고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용용표(64)씨는 남측 누나 양순(74)씨에게 5·15 선언도 나왔고 통일이 전망도 활짝 열린 만큼 이제 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살게 될 것’이라고 재회를 다짐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기다려다 돌아가신 어머니
“불효 어떻게 셋나” 오열

“50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지다니...” “오머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만남의 기쁨도 잠시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1일 숙소인 서울 롯데호텔드오 호텔에서 가족들과 두번의 개별상봉을 끝내고 ‘내일이면 또 생이별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속 아픔을 토해내며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졌다.

한편 현역선이 서서히 얼리고 끊겨진 경의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남북이 손잡고 협력하며 자유롭게 오가는 그 날이 오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 보지만 하룻밤만 지나면 기억없는 헤어져야 한다는 서글픔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서울 ○-북의 아들 정재갑(66)씨가 큰절을 올리며 이별을 고하자 어머니 안준옥(88)씨는 “짧은 것 다 먹고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면서 “하룻밤이라도 끼고 자고 싶구나. 여기서 함께 살자”며 아들을 붙잡았다.

○-아흔을 넘긴 노모 박간례씨에게 백세주를 따르던 북의 아들 홍세만(69)씨는 “어머니, 이 술 드셨으니 100살, 200살까지 사세요”라고 말한 뒤 동생들에게도 “어머니를 200살까지 잘 모셔야 한다”며 노모 품으로 뛰어들었다.

○-50년동안 양부가를 부르며 꿈에도 그리던

○-북측 방문단의 신영문(69)씨는 아들을 예타게 그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동생 현성(61)씨의 시인 아내가 지은 시 한편을 받아 들고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 시를 지은 강현경(60)씨가 “시아머니께서 북으로 간 아들을 보고 피 안산을 자주 쳐다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항상 시아주머니를 생각해 집안에 등불을 꺼놓지 말라고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울었다. 현문씨는 “어머니께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예타게 기다리셨다 돌아가셨다니 이 불효를 어디서 씻을까라는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동생 명현식(63)씨를 단번에 알아 보았다는 임정식(70)씨는 “이게 피요 혈육이라는 겁니다”며 행태를 과시하면서도 또다시 기억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자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말없는 老화백...뜨거운 눈빛만



김기창화백 형제

병상의 창문은 너무나 맑았다. 편이나 밖으로 훑어볼 수 있는 눈빛만 건넌 반남에게 애절한 눈빛을 던졌다. 꺼져가는 생명을 일으키며 반세기 동안 뒤에에게 기다리던 동생

을 만났건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시계를 해마다 간신히 꺼어난 문보 김기창(87)화백이 동생 기만(71)씨를 만났다.

김 화백의 생애가 워낙 복잡 않아 기만씨가 김 화백이 입원중인 서울 삼성동 삼성시술병원 1902호 침로 찾아가 생명이 어둡았다.

기만씨가 병상에 도착한 것은 1월 15일 오후 3시25분. 동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김 화백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만아로구나..."라고 외치고 싶었던 자, 입을 벌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이었다. 지난 며칠동안은 그런데로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시립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수화(手話)로 어지간한 뜻은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은 손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기만씨는 말도 못하고 병상에 누

병상의 뒤, 알수없는 손짓 동생도 병실나서자 '엉엉'

워있는 형을 보자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형의 손을 부여잡고 "형님, 기만이 왔어요"라며 말없는 형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기만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개선장군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수첩을 형에게 보여 주자 김 화백은 그저 눈물만 흘렸다. 만나자마자 또 떠나보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듯 김 화백은 마치 막 힘을 내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기만씨는 자신이 떠난 뒤 형님의 옆에 두라며 '태양을 따르는 한마음'이라는 조선헌을 펼쳐 보았다. 김 화백의 이름 김안씨는 아버지가 가장 이끼는 직물 가운데 하나인 '솜무'를 기만씨에게 주었다. 반세기 만의 상봉은 불과 20분으로 끝났다. 김 화백의 건강상 오랫동안 건강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형님, 끈 다시 옮겨요. 그때까지 살아 있으리요" 자신없는 약속을 하는 기만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형이 너무 커져지지 않도록 울음소리를 참고 있던 기만씨는 병실을 나서자마자 그만 엉엉 소리를 내며 울어버렸다.

서울 시립미술연구소 연구생이던 기만씨는 지난 51년 월북했다. 전쟁이 터진 뒤 문보는 부인 박태현(76년 작고)씨와 함께 처가가 있는 전북 군산으로 피했고 기만씨와 막내 여동생 기옥(74)씨는 38선을 넘었다. 북으로 간 기만씨는 평양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공훈예술가로 명망을 얻고 있으며 기옥씨는 의사가 됐다. 정종호 기자

rumbe@hankyung.com



南누나 北동생 1일 롯데월드호텔 객실에서 누나 승애(74)씨 등을 다시 만난 북한의 토송복(69·북한자강도 입업연합 기업소 자재상시사장·오른쪽 두번째)씨가 가족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김기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세기 단절 이어준 사진첩

김영향 김일성대 교수

"누나 왜 이제 왔어" "그래, 그래... 나 이제 왔다"

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호텔, 북한 여문학계의 권위자인 김영향(60)김일성종합대 교수는 몇분 늦게 도착한 누나 옥인(81)씨에게 어리광 부린 원망의 발무릎 섞어가며 손을 번쩍 흔들며 보였다. 최순의 동생과 함께 손을 들어보이는 평송의 누나는 벌써 50년전 그 시대로 돌아가 있었다.

"누나 빨리 이제 왔어봐, 누나 주려고 이번에 내가 직접 만들어 온 거야"

새색시처럼 곱게 화장하고 정갈

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누나 옥인씨를 비롯 따지에 오손도손 둘러앉은 쌍둥이 동생 영우(63)·영진(63)씨, 형수 이상숙(74)씨와 큰 조카 우현(52)씨의 사진이 김 교수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사진첩에 꽂혔다.

"이게 내 백업 사진. 이거는 들사진, 이거사부리는 김 띠니사야" "이게 결혼식 사진이고 이거는 대학 영예사진, 이게 내 책사 환갑사진, 이들은 내 손자 손니구..."

일일이 부인살명을 덧붙인 사진 한장한장이 넘어갈 때마다 누나 옥인씨는 함께 하지 못한 동생의 반 평생 삶의 흔적을 조금씩 더듬으며 탄식을 연발했다. 쌍둥이 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기 위

해 돋보기 안경을 가까이 들이댔다. 동생을 주름진 노인으로 만들어 버린 세월이 무상하다는 듯 누나의 감회는 애절하기만 하다. 어제 만났던 뒤라 분위기는 한결 진정돼 있었다.

"이 사진속 내 뒤에 있는 책들은 지난 91년 당시 내가 저술한 책들이야. 그후로 10년동안 매년 책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

북한에서 손꼽히는 어문학자인 김 교수는 어재에 이어 목에 박사 매달을 메단 채 우리나라 고대사 및 언어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쏟아냈다. "고구려 중심의 조선말을 정립하는 박사논문으로 국가로 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힘주어 말하는 김 교수가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디는 듯 가족들은 흐뭇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김 교수는 예순돌상과 지난 8월의 생일상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도 '깜짝' 선물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비디오 재생시스템이 맞지 않아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특별취재팀



명암을 방문중인 서양화가 김한씨가 1일 숙소의 고려호텔에서 동생 김철씨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양·사진공동취재단



눈길끄는 만남



하재경(오른쪽) 김철공동 김좌장이 1일 오전 숙소의 롯데월드호텔에서 형 재인씨를 만나 박사학위증과 자신의 저서를 보여주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억담긴 그림 보며 '이야기 꽃'

김한·김철 예술가 형제

"어떻게 나와 밤새 놀러 다닌 꿈을 꾸었다" 1일 명암 고려호텔 1704호에서 서양화가 김한(73)씨는 북한에서 유명한 시인이 된 동생 김철(67)씨를 만나자 손을 얹어 감격의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이별의 아픔을 털어냈다. 김씨는 함께 찾아온 재수와 조카 아들·딸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그저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며 동생과 기약 없는 약속도 했다. 김한씨는 "어릴 적 생각도 나고 해서 가져왔

다"며 자신이 직접 그린,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내용의 그림을 동생에게 선물로 줬다. 또 함께 가져온 가족 사진을 꺼내 동생과 조카들에게도 일일이 설명했고 조카딸 옥씨도 "아버지와 똑같네"라며 연신 즐거워했다. 김철씨 아들 석씨는 "아버지는 92년 4월에 '어머니'라는 시로 시인으로서의 최대 영예인 김일성 상을 수상했다"며 상징과 훈장을 존아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김한씨는 "참 큰 일을 했다"며 이날 시인이 된 동생을 위해 준비한 질 좋은 종이와 수입 필기구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명암공동취재단

계산기등 선물주면서 우애 다져

하재인·하재경 박사형제

"형님..." "아우아..." 하재경(65) 김철공동 김좌장과 형 재인(74)씨 '박사형제'는 전날 단체상봉에서 북받치는 감동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날은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50년 만의 우애를 나눴다. 형 재인씨는 동남이 과학자인 점을 감안해 과학자용 전자계산기, 확대경, 돋보기 안경, 전기 연도기, 옷가지, 속옷 등을 선물했다. 형 재인씨는 "너를 주려고 노트북 컴퓨터도 알아보고

했는데 당국에서 난색을 표명해 전자계산기를 준비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경씨는 "형님 건강을 위해서 북한 명주를 가져왔다"며 백두산 들국화를 건넸고 과학기술 분야 발전 공로 등으로 받은 훈장 2개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어 형 재인씨는 "나도 의학박사 학위까지는 받았는데 훈장은 아직 못 받았다"며 동생이 대견한듯 활짝 웃었다. 청년과 소년으로 헤어져 노년의 길에 다시 만난 재인·재경 형제. 형은 남쪽에서 전 서술의 대 교수로, 동생은 김철공동 교수로 각각 성공했다. 임준영 기자 tetris@hankyung.com

"그 곱던 얼굴 이제는 주름만..."

수절아내 상봉 흥대중씨

"치니네 곱던 얼굴, 이제는 주름만..." 전경통에 헤어져 아내와 자녀를 평생 간직해온 흥대중(79·서울 상동구 옥수동)씨는 1일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손때 묻은 사진을 꺼내고 세월의 깊이가 얼굴에 박힌 아내 박선비(74)씨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어루만졌다. 흥씨는 "연년생 아들이 있어 전생통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정말 '귀한 일'이라서 '나보다 5년 아래인데도 주름이 많은 것을 보니 내가 고생을 너무 시킨

지..."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아내 박씨는 연신 눈물만 흘리며 50년 한결 사했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흥씨는 지난 50년 9월 공산당의 강제 집업을 피해 홀로 서울로 내려왔다. 북한에 남겨놓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홀로 지내던 흥씨는 헤어져 지 21년만인 71년 더이상 가족을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재혼했다. 연년생으로 남겨놓은 아들(형수·54, 철수·52)과 딸(형수·51)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니 그저 고마워 뿐이었다. /명암공동취재단

"하룻밤이라도 함께 자고싶구나"

안준옥 정재갑母子

1일 오전 롯데월드호텔 1002호, 북에서 온 정재갑(66)씨는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선물을 늘어놓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재갑씨가 가져온 선물은 워드카, 들국화, 백두산 김치가 담긴 내년도 달력, 자신의 부모수첩(광양 김형직 군의대학), 초복색과 푸른색의 옷감 등이었다. 어머니 안준옥(88)씨는 북에서 성공한 아들이 대견한 듯 아들의 교수증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이때만(8년전) 해도 어릴 때 모습이 남

아있다. 이걸 두고 가리"고 부러웠다. 그러자 재갑씨가 "이건 안되는데요"라고 난색을 표하자 어머니 안씨가 "장군님한테 붉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부탁해 보라"고 말해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안씨는 기쁨에 겨워 아들 손을 잡고 일어나 몸을 흔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50년만에 만난 내 아들이" 하며 참았던 눈물을 또 한번 쏟아냈다. "하룻밤이라도 끼고 자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금만 기다리세요. 뜻밖의 효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경호 기자 dolph@hankyung.com

경향신문

"미니스커트 째들수록 좋다" 신경쇠약의원 여성비하 물의 이산만찬장서 北기자에

○...한나라당 신경쇠약(辛敬植) 의원이 1일 통일부 박재규(朴在圭) 장관 주재 제2차 이산가족 서울방문단 환송 만찬에서 "미니스커트는 째들수록 좋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경쇠약은 이날 점심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박정관과 환영만찬에서 박정관이 "기간이 짧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기회가 많이 있겠지요"라고 말하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북측 박성철 기자

에게 "짧아서 좋은 것도 있지요. 우리 남한에서는 여자들 미니스커트는 째들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우스개 소리했었다. 뒤늦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신경쇠약은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빙글빙글 돌고 농담입니다. 저를 평정해 헌상하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분위기를 띄우려고 농담한 것입니다"라며 기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김형기기자 hgk@kyunghyang.com

"韓赤충재 발언 비판소지" 梁차관, 국회 출석 밝혀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중식(張忠植) 한적 총재의 발언이 언더타입 내용과 관련, "(남북이) 상호존중의 원칙에 합의한 만큼 북한이 비판할 소지가 있다"며 "공인의 입장에서 많은 신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차관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내년 초 방문 가능성에

대해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먼저 오고, 그 이후 적절한 이른 시기에 오도록 합의했다"며 "정부는 모든 시안을 김안해 임정계획을 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형님 건배 합시다" 1일 서울 잠원 롯데호텔의 이산가족 오찬장에서 다음날에 칠순을 맞는 리용호(가운데)씨와 남쪽의 형제들이 건배하고 있다. /김근구 기자 ekgang@hankyung.com



"어머니 드셔보세요"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가 북쪽이 고려호텔에 차려준 백설빙수에서 아들 신동길씨와 며느리가 권하는 음료를 들고 있다. /명양·공동취재단



"200세까지 사세요..." 백세주 건배

서울에서

백세가 만에 칠순을 맞은 북측 방문단은 "기약없는 이별"을 허투루 잊은 1일 숙소인 서울 롯데호텔호텔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개별상봉과 오찬을 갖고 가족들과 이여가뭇을 회유며 이산의 이별을 담았다.

○...평양 귀환도에는 새해인인 홍영희(66)씨는 누나 영순(77)씨와 나직히 이별을 나눴다. 영순씨가 "이제 뭐, 헤어지면 어쩔까 알아나"고 언더베일하자 영희씨는 "누나, 꿈과같은 만남이네요"라며 위로했다. 영희씨는 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초상화"와 "금수강산"을 누나에게 보이며 자랑한 뒤 선물로 거저온 차를 건넸다.

○...북측 김이화(70·양강말도 변검부국장)

"남가족 사진 찾아주세요" 호소 탤런트 김영옥 오빠 눈물 글썽

씨는 남측 동행들이 가져온 부모님 사진을 보며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며 눈물을 글썽했다. 김씨는 "50년간 생사불모로 보냈던 동생들이 건강할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동생 영옥(63·평양도)씨의 이별을 나직히 건넸다. 영옥씨는 "주말에 부모님 상소에 가서 오빠를 만난 사진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영희(66)씨는 숙소 오찬장에서 남측의 어머니 백향(72)씨에게 백세주를 따라주며 "이 일생동안 100살까지, 아니 200살까지 사시라"고 당부하며 어머니를 붙여안았다. 홍씨는 또 동행들에게 "너희들, 어머니를 200살까지 모셔야 한다"며 다짐을 받아놓고 어머니에게 "100살 술을 마시"며 인사를 건넸다. 홍씨는 "저는 50년간 어머니가 해 준 공짜 밥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바치는 아들의 입장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북측 홍영수(63)씨는 오찬장 앞쪽 테이블

위로 다가가 부부상봉의 기쁨을 맞은 북측 김중현(66)씨의 아내 유순이(77)씨에게 "어머니가 쓰신다"며 남편 만난 기념으로 한 잔 허심 사요"라며 문배주를 건넸다. 유순이씨가 다시 잔을 가득 채워 담주를 건네자 홍씨는 "건강하십시오"라며 대답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씨의 남편 김씨는 "어, 이리 술을 잘 마시나. 술 잘 마"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성진(68)씨의 남측 가족은 전날 단체 상봉 때 건넸던 북측 가족들의 사진을 잃어버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성진씨의 매제인 김영권(83)씨는 "어제 받은 사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고소했다. 여동생 성자(53)씨도 "어제만 집에 들어가 새벽까지 사진을 찾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평양에서... 개별상봉이 이루어진 평양 고려호텔에서 서는 밤마다 가족들의 애절한 정겨움이 묻어났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짐성껏 마련한 선물을 북측 가족들에게 건네며 따뜻한 가족애를 전했다.

○...이재지! 이제 오시면 어떤때까지?" 영근이! 50년 동안 내 생각만 했다" 북측의 아내 리너실(78)씨와 아들 영근(57)씨를 만난 영옥(83)씨는 50여년간 마음속에 고여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말았다.

1·4후회 직전 짐장을 피헤 대동강을 건넌다는 것이 인도교가 부지지는 바람에 형제 혼자 할당하게 된 것. 영씨는 1일 오전 고려호텔 숙소에서의 개별상봉에서 50년간 간직해 왔던 리씨와의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였고 부인 리씨는 18살 자신의 꽃다운 모습과 "물론 산 50년"이

교차되는 듯 눈물을 글썽하기도 했다.

○...남측 아내가 자녀한테 주려고 생각해가" 전평동에 헤어친 뒤 재기한 부인 김금(77)씨를 50년만에 만난 조순희(76)씨는 정스레 준비해온 시계를 건넸다. 조씨는 남측의 아내 상옥(66)씨에게 북측에 아내가 살아있는 얘기를 치마 깨닫지 못했고 이별 방북신청도 이렇듯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김씨가 이별을 김씨에게 선물을 준비토록 직접 당부한 것. 김씨는 비록 귀가 얇아 남편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아는 듯 환한 웃음을 지어냈다. 김씨와 함께 북에 남기었던 아들 등(50)씨도 남측에 있는 세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두신 들쭉술과 담배, 장대보름 내보냈다.

○...북측의 시동생 한규(72)씨와 영구(78)씨를 만난 김진숙(81)씨는 남편의 장례식 장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모저모 "어머니! 황강, 전강, 8김상도 못 드셨는데 '백설빙수'를 드립니다" 남측 방문단장, 최고령자인 유두희(1백) 할머니가 1일 평양 고려호텔 공동 오찬장에서 '백설빙수'를 받았다. '비록 평양 땅에서 준비된 삼이지만 50년만에 만난 아들이 마련한 백설빙수이어서인지 썬 할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기쁘지요"를 언발하는 동갑씨에게 유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유두희 할머니 "백설빙수" 받아
겨우 없었다. "생일 기념, 이제 한을 싣었" "리면서 할머니의 양이를 품을 다녔었다. 아들과 며느리 리희순(66)씨는 인상을 또 축하주를 올렸다. 백설빙수는 홍영규이와 함께이크, 꿀떡, 돼지갈비, 순대, 계란, 사탕 등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백설빙수를 차려드린 후 동갑씨는 김희애 씨를 찾은 등 "평일이 돼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데..."리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명양·공동취재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모저모 "어머니! 황강, 전강, 8김상도 못 드셨는데 '백설빙수'를 드립니다" 남측 방문단장, 최고령자인 유두희(1백) 할머니가 1일 평양 고려호텔 공동 오찬장에서 '백설빙수'를 받았다. '비록 평양 땅에서 준비된 삼이지만 50년만에 만난 아들이 마련한 백설빙수이어서인지 썬 할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기쁘지요"를 언발하는 동갑씨에게 유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유두희 할머니 "백설빙수" 받아
겨우 없었다. "생일 기념, 이제 한을 싣었" "리면서 할머니의 양이를 품을 다녔었다. 아들과 며느리 리희순(66)씨는 인상을 또 축하주를 올렸다. 백설빙수는 홍영규이와 함께이크, 꿀떡, 돼지갈비, 순대, 계란, 사탕 등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백설빙수를 차려드린 후 동갑씨는 김희애 씨를 찾은 등 "평일이 돼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데..."리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명양·공동취재단

**"남 아내가 전해주려" 시계 건네
형제들 사진보며 흐뭇한 웃음**

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적으로 감시 되어왔다.

김씨는 사진속에 모셔진 남편의 유골을 가까이 "남평양에 모신 유골을 고향 신산에 모"고 오는 일만 남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규씨는 "살아서 같이 여가 왔으면 얼마나 좋" "100살 술을 마시"며 인사를 건넸다. 홍씨는 "저는 50년간 어머니가 해 준 공짜 밥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바치는 아들의 입장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북측 홍영수(63)씨는 오찬장 앞쪽 테이블



“북에 가서 쓰렴” 1일 롯데월드호텔에서 이복진 개별상봉 도중 개성북도에서 남북 가족이 북측 방문단 조영권씨의 양복주머니에 달리가 든 편지를 넣어주고 있다. 호임수기자

참관일정 줄여 ‘간소’ 상봉횟수 같아 ‘실속’

• 2차 남북이산상봉 •



2413일 결산

고향방문 못해 아쉬움 3차일정등 정리화 과제

남북 이산 가족 2차 교환 방문은 지난 8·15 1차 상봉에 비해 외화(외부)를 줄이고 내화(내부)를 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방문 일정(4박 1일)보다 하루가 짧았지만 이산의 아픔을 달랠 틈에 시간을 쓰는 법 차이가 없었다. 단체 상봉 1회, 개별 상봉 2회로 상봉 횟수는 같고 간담 일정만 더욱 축소됐기 때문이다. 단 1초라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고향의 이산 가족들에게 ‘개별 상봉’으로까지 비추어 줄 수 있는 다수의 간담은 마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자유했다는 후문이다. 2차 방문에서는 단체에 인건 최소한 곳까지 1~2시간 돌아 보는 것으로 감축했다.

1차 방문은 한끼 식사 비용 1억5000만원(현지 공개 주최 반찬) 2박 2020인분, 연명 700달러 등 18억7000만원이 소요돼 ‘초호화’한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은 시적이 많았다. 이번엔 우리측 경비가 그 절반 수준인 9억원 정도에 그쳤다. 또 상할 보호 대상자, 의료 보호 대상자 등에게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급적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선례를 세웠다.

하지만 차분한 상봉이라는 후한 짐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산 가족들의 소망인 가족과의 동속(同宿)과 고향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계속 요구했지만 북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산 가족 방문이 두차례 연속해 열림으로써 향후 과제는 이산가족 교환 상봉의 정례화에 맞춰지고 있다. 봉두원 남측 단장은 30일 도착 성명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생사 확인과 편지 왕래, 고향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접촉 확대를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차 남북 직접자 회담에서 합의된 연내 3차 교환이 극적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올해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초로 넘어갈 공산이 크지만 남북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연내 오는 13~15일로 잡혀 있는 3차 직접자 회담에서 추가 교환 방문의 가늠을 감을 계획이다. 그래서 연내 상봉이 어려울 경우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성사시킨다는 것. 아울러 생사와 주소 확인, 시산 교환 확대와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도 집중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한민수 조수기자 mshan@kmb.co.kr

雲甫형제 ‘작품’ 주고받아 詩쓰는 동생엔 필기구 쥐

이색 선물

50여년 만에 만난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주고 받은 선물도 이들의 사연만큼 다양했다. 1차 교환방문 때는 옷 종류가 주류였으나 이번에는 독특한 선물이 많이 보였다.

시양화가 김한(金漢·73)씨는 북에서 유명한 시인이 된 동생 형(67)씨에게 “좋은 시를 많이 쓰라”며 질 좋은 종이의 수첩, 필기구 등을 선물로 전달했고, 동생은 형에게 그림 7점과 도자기 3점을 선물했다. 서울에서는 윤보(雲甫) 김기창(金基昌·88) 화백의 동생인 북측 기만(71)씨가 조카 완(完·51)씨로부터 윤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 ‘승무’(71년작·6호), 김해 김씨 족보 2권 등을 받아 자신의 작품 ‘태양을 따르는 마음’ 등 6폭짜리 병풍 1점과 조선화 3점 등을 선물로 건넸다.

북측 방문단의 용종표(64)씨는 ‘평양직물도매소 지배인’이란 직함대로 누나 영순(73)씨를 위해 북한의 직물과 함께 자신에 관한 기사가 실린 ‘조선화보’ 등 북한 잡지와 자신의 말이 그린 정물화도 준비했다. 김영환(69) 김일성종합대 교수는 지난 8월 자신의 생일잔치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선물로 내보냈지만 녹화방식(북한은 PAL방식)이 틀려 상영할 수 없어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남측 방문단인 우원현(禹元亨

·67)씨는 동생 옥희씨에게 단안 우씨 족보를, 박해수(朴海洙·71)씨는 북측의 두 동생을 만나 그간 수집해 온 일기 친척의 사진 50여장을 열풍별로 분류해 전달했다.

북에서 온 홍세안(69)씨의 노모 박천례(85)씨 등 일가족은 2개의 대형가방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재사할 위한 영정과 재수용품, 조카손자들을 위한 장난감 등을 가득 담아 오기도 했다.

반면 주고 싶은 선물을 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족도 있었다. 북에서 온 하재경(65)

노트북 컴퓨터 선물하려다 北당국 밀려 ‘인경’으로… 남가족에 받은 100弗지폐 사용편한 소액권 환전소등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희장의 형제인(74)씨는 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선물하려 했으나 당국이 난색을 표시, 과학자용 전자계산기와 확대경, 돋보기 안경 등을 선물했다.

한편 북측 방문단이 머물고 있는 롯데호텔 호텔에서는 태어난 날러잔돈 바꾸기 전경이 벌어졌다. 남측 가족들이 북의 열육들에게 선물로 주기위해 환전에 나선 데다 북한에서는 100달러짜리 교액권은 사용하기 힘들어 5달러, 1달러짜리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남측 기자 /남측 기자

年内 3차상봉 할까

20일쯤 北과 절충기로 합의 장관급·직접자회담등 신적 北의 ‘우선순위’선택에 달려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2일로 끝남에 따라, 원래 12월 초순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3차 교환방문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은 9월 제2차 직접자회담에서 2·3차 교환 방문에 합의했다. 그러나 울브라이프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으로 2차 교환방문이 당초의 11월 2~4일에서 11월 30일~12월 2일로 미뤄지면서 12월 5~7일로 의견을 모은 3차 교환방문의 연기는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재회의 시급성

을 감안해 12월 20일쯤으로 북한과 절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2월 중순에는 남·북한이 합의해놓은 다른 일정이 산적해있다. 제4차 장관급회담(12~15일), 제3차 직접자회담(13~15일)은 날짜까지 잡혀있고, 10월 중으로 하겠다던 북한 경제사담단의 남한 방문, 11월 중 열기로 했던 국방장관회담 등이 순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주 초 후보자 명단을 교환한다 해도 연내 성사가 벅하다.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한은 기간을 단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연내 3차 교환방문이 이뤄지느냐 여부는 북한측에 달려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측 기자 bmcchoi@chosun.com

가슴만 아픈 '1회성 눈물잔치' 이제 그만 '자유면회소' 빨리 만들자



본탈의 벽 넘어 이산가족 상봉

'상봉방식개선' 여론

남북한이 두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실시시킨 만큼 이번 수습업이 드는 이벤트성 행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이산가족이 빈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내실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집단면회소와 친척회는 게 마련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1월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따르면 현재의 이산가족 만남은 인원 한 차례에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한정해 이산가족들의 평생 숙원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비 소모도 적지 않다. 지난 10월말 현재 통일부의 대한 직접지사에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1세대만하더라도 10만9000여명에 달해 1년에 기껏해야 5~6회 정도 그 횟수만큼 같은 상호 방문 형식으로는 이들의 상봉을

이벤트성 행사로는 비용만 들고 실속없이 천방식-속도로 모두 만나려면 180년 걸려 수시만남-서신왕래등 제도적 뒷받침 시급

모두 이루어질 180년 걸린다는 계산이다. 대다수 이산가족은 언제라도 임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들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상봉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한꺼번에 합류하면 생사확인, 친화봉화, 서신왕래, 가족간 송금이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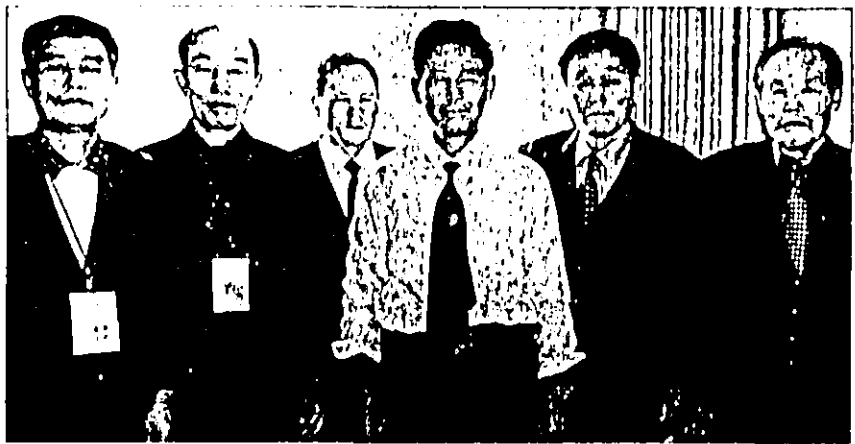
1차상봉 때 평양을 다녀온 조윤진(72)씨는 "너무 짧은 만남인데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약도 없어 일회성 상봉은 가슴만 아프고 아쉬웠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고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북5도민중양협의회 용상오

사무국장(71)은 "지금의 교환방문이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현재 방식을 고수하면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할 행사에 그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생사확인, 서신왕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성희 사무국장(36)은 "정부나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면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식상감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민회소를 설치, 자유롭게 만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교환방문도 이뤄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태-김영준기자
hitchoi@sgt.co.kr



기념촬영 1일 남북 가족들에게서 생일상을 받은 김현식씨(왼쪽에서 네번째)가 형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 마주잡은채 눈물만 '뚝뚝'

병상서 北부상맞은 露前

병마도 혐의의 정 앞에서는 부러웠다.

지난달 17일 자병의 폐원증과 고령암이 악화된 병원에 입원, 50년만의 현재상봉이 가족가족하던 윤보(71) 김기창(金基和·87) 화백이 1일 입원중인 시골 김남규 수시동 심상시유원원에 찾아온 동생 기만(基萬·71세)을 극적으로 만났다. 이날 오후 3시30분경 기만이 병상으로 돌아서자 병상에 누워 있던 윤보는 눈물 동그렇게 뜨고 빨간 입술 다물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정직도 잠시였다.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다. 북한 공산화기인 기만이 또한 3개월간 뇌일혈로 쓰러져 언어장애를 겪

언어장애 형제 수화통해 대화

서로 작품 선물하며 기쁨 나눠

고 있는 탓에 몸짓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자 윤보의 아들 완(完·52)씨가 수화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했다. 15분간의 짧은 상봉이었지만 윤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 '승무'(1971년작)를 완씨를 통해 건넸고 기만씨도 자신이 그린 조신화 3점과 병풍 1점을 형에게 팔쳐보낸 뒤 건넸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며 병실문을 나서는 기만씨에게 어떡하든 할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보는 윤보의 병상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성환-이성범기자 shon@sgt.co.kr

서울서 받은 '최고의 생일상'

7순빛은 北형님 '기념무비'

북의 이산상봉단인 김현식(68·지강도인포시)씨는 1일 개별상봉에서 의미있는 생일상을 받았다. 비록 케이크에 촛불을 켜는 게 의식의 전부였고 생일도 아니었지만 이 생일상엔 남한 가족들의 김씨에 대한 그리움이 담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1950년 8월 의용군에 들어갔으며 어머니 정홍자(67년 작고)씨는 김씨의 소식을 듣고 다녔지만 '남동강 전투에서 죽었음'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53년 어느날 집 근처 시장골에서 6·25때 폭격을 맞아 중군간호사였던 딸을 잃었다는 한 부인을 만났다.

현씨의 상처를 서로 비슷하게 간직한 이들은 총각 처녀였던

가족들 "엄혼결혼 시켰는데"

동생은 장문의 편지여 축하

김씨의 간호사 한모씨를 지송해서라도 한을 풀어주자고 의견을 모으고 김씨가 떠날 음력 7월12일 조촐한 엄혼결혼식을 올렸다. 또 어머니 김씨는 이날을 기념로 삼아 53년부터 제사를 지냈다. 김씨도 자신과 생일이 같은 어머니를 생각, 매년 음력 9월21일 밤과 새벽국을 준비해 먹으며 모정을 닦았다고 한다.

순씨씨는 이날 개별상봉에서 김씨를 위해 30일 상봉첫날 잠을 설치며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장문의 시 '50년만의 만남'을 읽어 건넸다.

/이창환-김영준기자
chang@sgt.co.kr

“행사성 만남보다 맘놓고 편지라도...”

北가족 만난 南쪽가족 6명 좌담

본지는 1일 북측 가족을 만나고 나온 남측 가족 6명과 현장에서 긴급 좌담을 마련, 상봉 과정에서 느낀 심정과 상봉제도의 개선점 등을 들어 보았다.

좌담에는 림순응(65·평양의극어대 연구사)씨의 동생 임순자(54·소설가)씨, 리석균(72·전자자동제어기 사장)씨의 동생 이석춘(51·전직 교사)씨, 정재갑(66·전 군장성)씨의 동생 정재국(57·침주)씨, 김기만(71·화가)씨의 조카 김완(51·운보 김기창 아들)씨, 이종원(71·전

고 여겨 그럴 때마다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김완:작은아버님이 ‘북한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형님(운보 김기창)도 북한에서 장군님 음덕을 입어야 하는데’라는 말씀을 자주 했어요. 처음엔 모른 착하다가 나중엔 억지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병풍의 그림도 체제 찬양 성격을 담은 것이라고 들었어요.

하재인:동생이 만나자마자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이 무의무탁한 사람을 교육시켜주고 대학교수



◇임순자씨



◇김완씨



◇이석춘씨



◇이종원씨



◇정재국씨



◇하재인씨

“北 찬양 이야기할땐 이상한 기분 상봉자수 늘리는게 무엇보다 중요”

김일성대 감좌장)씨의 동생 이종군(61)씨, 하재경(65·김책공업대 감좌장)씨의 형 하재인(73·서울 서초동)씨가 참여했다.

자연스레 5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을 본 첫 느낌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왔다.

이석춘:중2 때 찍은 형님 사진만 보다가 직접 보니 그 옛된 얼굴이 저렇게 변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세기나 헤어져 서 먹서먹하지 않을까 걱정도 없지 않았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재인:우리 동생은 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에 차 있고 활발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종군:94년 북경을 통해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편지도 3회 보냈지만, 진짜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고서야 살아계셨음을 실감했어요.

정재국: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선지 어쩐지 어색한 순간도 있었어요. 형님은 이따금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 쪽에서 50년을 사셨으니 당연한 일이라

까지 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는 말부터 꺼내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죠.

임순자:어쨌든 언제 다시 만나지는 기약도 없이 헤어지기엔 일정이 너무 짧아요. 게다가 그런 찰나 같은 만남에 체제 이야기로 분위기가 어색해져 울적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좀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정재국:두어 번 짧게 얼굴만 보고 다시 헤어져야 하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때 되면 오가며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까요?

하재인:함께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호텔보다도 집에서 만나면 좋을텐데...

이종군:일정 자체가 1차 상봉 때보다 하루 줄어든 데다, 비행기까지 늦게 와 첫날은 너무 빡빡했습니다. 방문자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석춘:상봉자 수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2차 상봉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아직 기약도 없는 이산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상봉 방식도 한정된 장소에서만 만

날 게 아니라, 친지 집에도 가고 산도 찾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요.

이종군:극소수만 참가하는 상봉은 무의미해요. 이벤트성 만남보다는 서신 교환이나 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마음대로 소식이라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崔擘禧기자

congchi@chosun.com

/金起弘기자 darma90@chosun.com

/金要九기자 roadrunner@chosun.com

기고

이벤트성 상봉 이제 그만
그냥 차분히 만나게 하자

지난번 남북 각각 100명씩의 1차 어신가족 교환방문에 지원인원의 한 사람으로 평양으로 들어가 적 50년 만에 누이동생을 만나고 돌아온 뒤 나에게서 알게 모르게 묘한 변화가 일어나 있었음을 스스로도 입말의 놀라움 섞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한 두마디로 털어 놓기는 배우 배우 어렵거나 가련 어린 식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두고 이렇게 짙은 글 하나를 쓰는 경우에도 요즘 외치는 지난번 평양에서 50년 만에 만났던 그 누이동생의 얼굴부터 우선 눈 앞에 숨그러나 떠오르곤 하는 것이다. 현 북한세대 안에서 누이동생이 어린 내 고향을 알게 된다는 만우화겠지만 실연 있게 된다면? 어린 아오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상상(臆想)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여 지금 내가 쓰는 이 글로 하여 북에 있는 누이동생이 곤혹스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보통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등등.

만나보면 모두 정겨운 이웃

시시 지니 50년간 휴전선 남에 북한이라는 땅은 아주 아주 먼 땅이어서 거기 남아 있는 친척들도 아예 마음 속 깊이깊이 묻고만 살아 왔었는데, 한때 별안간 남북간의 통로가 요만큼이나 뚫리고 북에 남아 있는 친척 상봉도 가능해지면서 시(時)적으로 부딪쳐 있는 이런 국민들이야말로 6·15선언 이후 우리 남북관계가 새 패러다임으로 들어섰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제 상황일 것이다.

이런 짧은 글 하나를 내놓는 경우에도 두 달여 전에 만났던 북의 누이동생부터 떠올리며 되돌아 그 누이동생에게 배가 안 되듯이, 혹은 지난번 방북 갈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내일 아예 낯 낯동생이나 기가 팔린 조카들 인장까지도 나뉠대로 헤어지며, 더 나아가 현 북쪽 당국의 내 이런 글에 대한 반응을 하나하나까지도 큰 풍으로 써안 듯이 내어놓게 되는 이것, 이런 마음 자세...

내에 이게 무엇까, 사실은 이런 것어떻게 일어난 사람 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을 안대어지 싶어진다. 그야, 보기에 따라서는 나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어느 한 구석의 마음 북한의 불모로 감혀 있는 활이 될지도 모른다. 26년 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1년 가까이 구치소에 갇혀 있던 나 자신부터가 우선 그 점을 민감하게 곤혹스럽게 의식하게 된다.

요즘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급류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여간이나 의식은 재래의 '불'에 그냥 그냥 간혀 있다. 이 어색한 괴리감! 온신의 불행함!

하지만 세상 따부러지게 밝히거나 나이는 아니 지금이나 결코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다만 이 땅에서 지난 50년 가까이 소설을 써온 사람으로서 모든 지혜와 정열을 쏟아부어 우리의 풍양에 뜨겁게 동감할 하고 싶은 것뿐이다. 따라서 현 북한의 누이동생이나 남동생, 조카들에게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궁



李浩浩 소설가·경명대 교수

극적으로 내 문화까지 재래되면서 내 문화적 양식에 배치(背馳)되면서까지 그북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동조할 생각은 없다. 북의 누이동생도 아오빠가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정으로 믿는다.

세상사 모든 일은 직립 다투고 나서야 알 일인 것이다. 2년 전 98년에 9·10회담 북한을 다녀올 때는 재북 가족 누구 하나 못 만났음에도, 아예 북쪽 신천이며, 몇 안되는 북한시립대학이며, 심지어는 공기 알갱이까지도 씨복씨복 뭉클하게 가슴에 다가들었다. 그때 훗날이니까 한해된 두어 사람은 저번 두 번째 방북 갈 때도 다시 만나 극히 짧은 시간 일말정 따뜻한 정년을 나누었다.

달모 전언가, 일본의 총연계 동모들이 처음으로 임강했을 때도 직접자사 지문위원 자격으로 위키위 반찬장에 동참했는데 그 분위기는 배우 배우 오순도순하고 시종 따뜻하였다. 어찌다가 일본 땅에서 살게 된 그남지방 자연인으로서의 70대, 80대 노인들, 어사 입말이 지니 50년간 뜬매에도 잊지 못할 고한 땅으로 여겨하여 올 수가 있었는지, 재산 의아할 뿐이었다. 짐작 만나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든 따뜻하게 정이 가는 것들, 심지어는 것이었다.

北노인도 "면회소 설치해야"

어제 지니 어신가족 교환방문으로 2차로 내려온 북쪽 손님들의 만찬 자리에서 같이 참석하여 필립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저번 1차때의 그 지나치게 극적인 분위기는 벌써 조금 가라앉아 보였는데, 응답 사람 사는 때 시가 그렇긴 할 것이었다. 같은 일이 거듭되면 어차피 명상의 감정으로 차츰 풀이되며 비로소 제대로 법연하게 티를 잡아가게 될 것이었다.

한때 놀림개도 같은 식탁의 바로 내 앞에 앉았던 북한에서 내려온 어신가족 60대 노인 한 분이 개구 입성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어서 사신 교환하고, 면회소 설치해달라는데 해가까지, 어찌어찌..."

이벤트성 행사로 한껏 흥분 분위기가 고조된 속에서 그 이의 어 한마디는 그 이상 신신할 수가 없었다. 나는 두 눈을 한껏 벌려 뚫어 뚫어 보았다. 남이나 북이나 사람이란 어떻게 똑같은 생각임을 세상 확인한 순간이었다.

"평양까지 왔는데 얼굴만이라도..."

거동불편 상봉불발 7명

"여기까지 와서도 못만나더니..."

반세기만의 가족상봉을 위해 평양에 갔으나 짐작 북측 가족들의 거동이 불편해 만나지 못하는 사태가 있더라 어신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때문에 애크런스 상봉이나 병원 방문 상봉 등을 확실하게 정신분열증 앓는 동생 못 만나 해달라"며 읍소 하용해 모든 상황에서 "애크런스·병원 상봉 허용"을 당초 북측이 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측 방문단의 한동은(82·형촌병원 원장)씨는 북측의 어동생 입심(72)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1월 개별상봉에서 영보(68)씨 등 조카 셋만 만나게 되자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입심씨는 5남1녀중 유일하게 생존한 막내 어동생으로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는 것. 한씨는 입심씨가 숙수인 고려호텔에서 6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죽는 일밖에 안남는다. 가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북측 관계자들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만 돌려줬다.

남측 방문단의 김진옥(80·어)씨도 심하게 지냈던 시동생 차한규(72)씨가 거동이 불가능해 결국 나오지 못하자 "애크런스라도 타고 와 꼭 한번 보게 해달라"며 읍소했다.

당초 북측이 거

동행편자로 통보해온 북측 가족은 모두 7명. 이중 김경희(81)씨의 두 어동생 영희(71), 영림(67)씨는 "거동불편"으로 통보됐으나 이날 상봉장에 나와 "뜻밖의 기쁨"을 안겨줬다.

반면 바다를 통보가 없었던 명용단(84)씨의 큰딸 영숙(61)씨는 김씨가 몸이 불편하다며 나오지 못해 회비가 교차했다. 북측 가족들은 "병을 인어 입원 치료할 병고 있어 못나왔다"고 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죽보...가족사진...손목시계등 갖가지

주고받은 선물은-

개뽕만남이 이뤄진 1일 서울 롯데월드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어신가족들이 반세기 생이법의 아픔을 배우려는 듯 갖가지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았다.

평양을 찾은 김덕희(88)할머니는 자신도 제대로 감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면서도 간염을 앓고 있는 북의 외손자 김인준(45)씨에게 "빨리 나이라"며 간암약을 두 손에 꼭 쥐어주었다.

북측 방문단의 홍용표(61) 병양 리동기래소 차예원은 누나 양순(74)씨에게 옷감을 선물로 건넸으며 평양 예술대학 강직자인 김재훈(68)씨도 자신의 뒤류 어미 미술을 전공한 이들의 작품 몇 점을 준비해 왔다.

북측 리동원(71)씨의 동생 증관(61)씨는 "이제 큰일이 부모님 재시금 모시지요"라며 부모님의 임장사건을 전했다.

또 선묘를 원하는 형을 위해 김기도 마서의 부모님 산소의 사진

을 찍어왔다. 북측 홍세안(69)씨를 만난 노모 박천례(85)씨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재시금 지내라며 임장과 재수용품들을 준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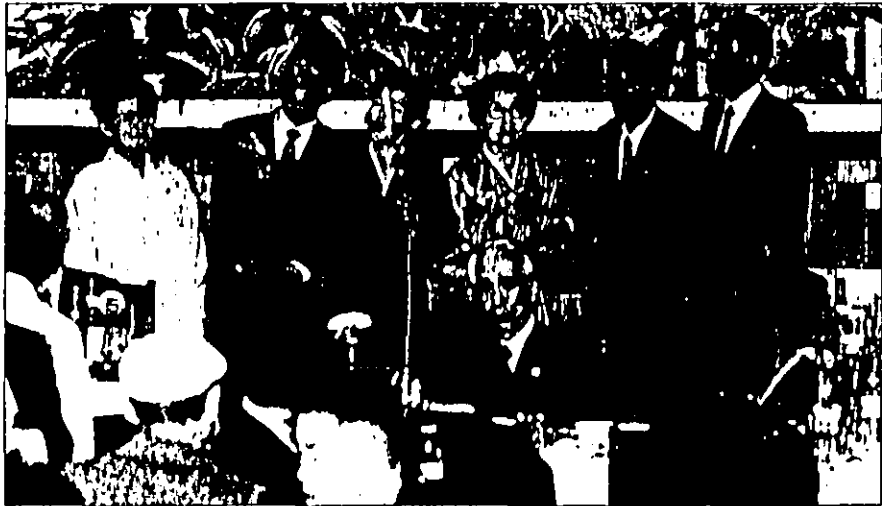
죽보 가족사진 손목시계 금반지 의약품 화장품 등도 선물로 오갔다.

한편 북측 김현식(68)씨의 동생 윤식(65)씨는 15돈종짜리 금목걸이를 전하려 했지만 형님이 한시교 시양태 김국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형이 형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으로 만족해 아 했다.

또 북측의 황인호(77)씨는 어동생 영현(66)씨가 준비해온 오리띠파카와 귀넨까지 등을 "북측에도 다 있다"면서 기뻐했다.

한편 북측 어신가족 방문단은 남의 가족들에게 배두산 들꽃술 2년 등이 든 김경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선물세트류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식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realist@hankyung.com



입상 남북 방문단 박후정씨(70)의 북측 가족들이 1일 평양 고리호텔 모친장에서 박씨의 상봉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건배 1일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이뤄진 50년만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흥겹게 건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또다른 가족이 비디오카메라에 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이 유연해졌다

■ 2차상봉 오늘 끝나

남북은 8·15 1차 이산가족 방문단 상봉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신속한 모습을 2차 상봉에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상봉 첫날인 30일 평양 상공의 짙은 안개로 방문단 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서울 상봉까지 지연되지만 양측은 이산가족의 열망을 심분 감안,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2시간의 단체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결 불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측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북은 병원에 옮겨 누워있는 윤보 김기창(金基煇·88) 화백과 북측 동생 기만(71)씨의 병원 상

봉에 쉽게 합의했다. 1차 상봉에서 북측은 1차례의 병원상봉을 허용했지만 당시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비공개 남북접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번에도 1차 상봉 때와 같은 기준으로 방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식(64) 김일성대 연구사, 황병렬(71) 공훈과학자 등 북측에서 '김중' 받은 인사들이 방문단의 다수를 차지했다. 또 북측 이산가족들이 훈장 상장 등을 자랑하고, 김일성(金日成) 주석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비슷했다.

한편 북측은 이번 행사결 불태

첫날만남 자정납게 진행
윤보 병상상봉 심개합의

3차상봉시기 입장안팎히
"김정일답방 직전 가능성"

적십자회담 및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시기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박기룡(朴基龍) 한척 사무총장은 1일 "북측 방문단 일원으로 서울에 온 최승철 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에게 이달 13일로 예정된 3차 적십자회담 등에 관한 입장을 타진했으나 최 단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직전에 3차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섭기자younglee@hk.co.kr



사진공동취재단

“오래오래 사세요”

1일 서울 롯데월드호텔 오찬장에서 북의 아들 홍세완씨(왼쪽)가 올해 86세인 노모 박간례씨에게 “장수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백세जू를 드리고 있다.



대한매일

2000. 12. 2 (토)



“임자 맞아” 1일 낮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상봉단 오찬장에서 유순이씨(오른쪽)가 북에서 온 남편 김중현씨(왼쪽)와 얼굴을 맞대고 50년동안 커커이 붙인 회한을 풀어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0. 12. 2 (토)

매일경제

2000. 12. 2 (토)



雲甫 병상상봉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북에서 온 김기만 씨가 1일 을삼상병원에서 외병 중인 형 김기량 회백을 만나 회외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관련기사 30면 <사진 공동취재단



北 할아버지와 대화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김규서 할아버지가 1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 민속촌 집안도중 소흥니은 경기도 부천 심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100돌 생일상

남측 방문단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가 1일 평양 고려호텔 기념식장에서 북측이 마련, 채리한 백색생일에서 이복 신동경씨와 함께 즐기려고 있다. 평양=사진공통취재단

Handwritten Korean text, likely a letter or message, written in cursive. It includes names like '김규서' and '김규서(아버지)' and discusses family matters and well-being.

애끓는 편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최흥영단에 모함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오지 못한 김석기씨에게 남측의 동생 부영씨가 보내는 애끓는 편지. 사진공통취재단



다시 맛보는 '부부의 정'

사진공동취재단

50년을 수절한 남쪽의 아내 유순이씨가 "당신 기다리느라 술만 놀았다"며 술잔을 비우자 북의 남편 김중현씨는 겸연쩍게 웃으며 인주를 집어 먹여주었다.

2000. 12. 2 (토)



아버지 손잡고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종택인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호텔 개업식장에서 북측 권순호(오른쪽)씨가 두손으로 남측의 아버지 경태씨의 손을 꼭 잡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잠수하세요 북측방문단 홍재인 씨가 노모 박진례(이)씨에게 잠수하라며 술을 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南화가 北시인 남측의 화가 김한씨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 동경 김철(오른쪽) 씨에게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치녀때 얼굴좀 봐" 남측의 흉대중씨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 아내 박선비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내의 치녀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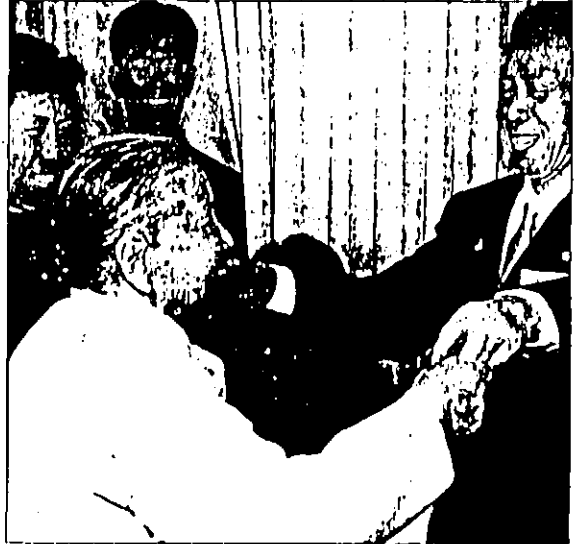


누나와 동생



위쪽부터 북에서 온 아버지 조민기(左)씨와 남쪽의 아들 규석씨, 서울을 방문한 어머니 안주옥 씨의 손녀들, 평양을 방문한 미경석씨와 누나 옥돌씨.

짧은 만남 긴 이별



남북 2차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북에서 온 정재갑 씨(오른쪽)가 1일 개별상봉에서 어머니 안주옥 씨의 손을 잡고 기쁨을 주고 있다.



필리프 김영옥 씨(가운데)가 1일 롯데월드호텔 숙소에서 북에서 온 오빠 김영환 씨를 만나 옛 사진을 펼쳐보며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서양화가 김한 씨(왼쪽에서 둘째)가 북한 공훈시인의 동생 김철 씨를 만나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시만남 南北

1천만의 恨 다 풀렸으면



숨주는 母子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이희찬 개별 상봉에서 북한 정재갑씨가 남은 어머니 안준옥씨의 손을 잡고 울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에 온 선물 북측 상봉단 노승덕씨가 누나 노승애씨를 만나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을 보여주고 있다.



北 기념주화 북한이 역사적인 제1차 이산가족 교황봉은(8월 15~18일)을 기념해 제작한 기념주화. 이산가족 방문단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 기념품 판매장에 진열된 기념주화에는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 평양 상봉'이라는 글귀와 모지가 다정히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10원짜리 기념 문화 판매가격은 북한돈 37원(약 2만원).



민찬 포옹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환송인선에서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정재언 북측 단장과 포옹하고 있다.

남북어부 가족도 만났다

김삼례씨 평양서 13년만에 모자상봉

1987년 1월15일 남북통일 27호의 김관장으로 일하던 아들 김희근씨(49)와 2차 이산가족 방문단인 김삼례(金三禮·73·인천 강화군·교동면) 할머니가 13년만에 상봉했다. 남북자가족이 북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방북, 평양 고려호텔에서 있는 단체상봉과 개별상봉에서 아들 김씨와, 김씨가 북한에서 결혼한 며느리 김용희씨, 손자 현민군을 만났다. / 관련기사 6·10·19면

김씨는 상봉장에서 김씨에게 북한 체류 경위에 대해 "공화국에 들어와 무상으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하는 곳에 영주하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좋은 데 살고 놀러오야

오며 두달 전에 (노동당) 당원이 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남치됐다 는 말은 낱조된 것"이라며 "우리는 38선을 넘어 (북한) 경비정에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공업용 천을 만드는 평북 동림군 직물공장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씨 모자의 상봉사실 사전공개시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언론에 보도도 요청을 했으나 북한 평양방송이 지난 2일 두사람의 상봉 소식을 전함에 따라 보도도 요청을 철회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남 북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최재영기자

chyoung@kyunghyang.com

“韓赤 張忠植총재는 죄에 죽고 再生해야

내가 오니까 일본行 물골이 가련하다”

北赤방문단장 회견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북측 단장인 장재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2일 “장충식(張忠植) 한적 총재는 죄에 죽고 올바르게 재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숙소인 롯데월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6·15 공동선언으로 통일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 총재가, 제(장재인 위원장 자신)가 오는 임박에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물골이야말로 가련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출발성명에서 “우리 모두를 혐오의 정으로 따 뜻이 맞지 않고 가족 친척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기울인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 한다”고 말했다. /尹植漢기자

한겨레

남북자 가족 첫 상봉

동진호 갑판장 김희근씨 평양은 어머니 만나

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2박3일 동안 상봉 일정을 마치고 2일 오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했다. > 관련기사 5·14·15면

특히 1987년 1월 서해상 조업중 나포된 동진27호 갑판장 김희근(49)씨는 방북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어머니 김삼례(73)씨와 13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이는 남북자 가족으로서는 첫 상봉 사례로서, 남북자·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평양방송>은 교환방문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동진호의 남치·남북

이라는 것은 허황한 낱조·거짓”이라며 김씨 모자의 상봉소식을 보도했다. 2차 교환방문 기간에 서울에선 방남단의 이석근씨가 어머니의 유품을 전해 받는 등 500여명의 남쪽 가족과 만났다. 평양에선 1차 때와 달리 가족을 만나지 못한 방문단원이 한명도 없었다.

한편, 북측이 평양상봉과 관련해 “김정일 장군 호칭 짓아 남쪽가족 머쓱”이라는 제목으로 나간 <조선일보> 기사(1일치)를 문제삼아 한때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방북단의 김포공항 도착 시각이 오후 3시50분께로 늦어져 남북 방문단의 귀환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중앙일보

평양서 남북자 가족 첫 상봉

前동진호 선원 老母 만나

1987년 1월 남북회담 북한에 살고 있는 ‘동진 27호’ 갑판장 김희근(49)씨가 2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방북한 어머니 김삼례(金三禮·73)씨와 지난 달 30일 만났다. <관계기사 5면>

남북자 가족이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상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단체상봉장에서 어머니를 만나 “동진호에서 일하다 공화국(북한)에 들어와 영주키로 결심했다”며 “우리는 38선을 넘어 (북한)경비정에 단속됐으며 ‘남치’라는 말은 낱조”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재혼했으며 두달 전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남북선원 가족 北서 첫 상봉

87년 1월 시해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남북선 동진27호 선원 12명 중 갑판장 김희근씨(49)가 제2차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어머니 김삼례(金三禮·73)씨와 13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A5·31면에 관련기사>

김씨 모자 상봉은 남북자 가족으로서 처음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친선이 없었던 487명의 남북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의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북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해태닷컴>
scoop@donga.com

조선일보 보도에 불만 北, 방북단 귀환 지연

북한측이 제2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문제삼아 평양에 간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서울 귀환을 3시간40분 기량 지연시킨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A2면으로 계속됩니다

北 남측연락관 사과 요구 다 시연에서 이어집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은 2일 조선일보 인터넷(1일)에 실린 '김정일(金正日)장군 호칭찾아 남가족이 머쓱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산가족교환방문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조선일보 또는 남측 연락관의 사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경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을 타고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고려항공기는 3시간40분 이상 늦어진 오후 2시42분에 이륙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전날 밤 11시 40분경 방북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조선일보 사진기자 김창준(金昌鎭)씨를 고려호텔 3층 남북연락관 접촉실로 불러 문제의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에 대해 16분 기량 위압적인 태도로 따져 물었으며, 이를 안 남측 연락관이 '감금이 아니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김씨를 내보냈다.

김씨는 당시 북측에 "나는 사진기자여서 기사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연락관 협의회에 김씨의 노트북PC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이를 압수한 뒤 평양 출발 직전에 돌려주었다.

世界日報

대한매일

2000. 12. 4 (월)

이산상봉 대상자에 남북자 5~10%로 정부서 추진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에는 일정 비율의 남북자 가족이 포함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5·23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남북자 둘 낚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규정, 3차 방문단을 구성할 때도 전체 대상자 100명 가운데 5~10% 이상을 남북자 가족들에게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이산가족 방문에서 김삼례씨(73·여)가 지난 87년 1월 남북선 동진27호의 갑판장이었던 아들 김희근씨(49)를 만나게 됨으로써 앞으로 남북자 가족들도 상봉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직십지회담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직십자사 관계자는 이날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3차 남북 직십자회담과 방문단 교환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서울에 온 북측 관계자들이 이러한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차 직십지회담은 내년초에, 3차 방문단의 교환방문은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 2차 이산가족 상봉단은 2일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고려항공편으로 서울로 직행로 향하며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했다.

● 이석우 전경희기자

남북자가족 첫 이산 상봉

평양서 87년피랍 동진호갑판장 南노모 만나

'2차방문단' 각각 귀환

2차 이산가족 남측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삼례(金三禮·73·인천 강화군 교동면)씨가 87년 1월 시해상에서 조업중 남북선 동진27호 갑판장인 아들 김희근(49)씨를 13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남북자 가족이 이산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삼례씨는 상봉기간중 아들 김씨와 북한에서 재혼한 며느리 김용화씨, 손자 김현민군도 함께 만났으며, 북측은 1일 공동오찬 때 김씨의 칠순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관련기사 5면>

김씨는 상봉한 자리에서 "동진호 갑판장으로 임하다가 공화국(북한)에 들어와 무상으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하는 곳에서 영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롯한 동진27호 선원 12명은 87년 1월15일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중 납북됐다. 김씨는 평안북도 동원군 직육공장에서

기계수리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차 이산가족 방북후 보자에 선정된 뒤 북측에서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정부는 그동안 김씨 모자의 상봉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상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언론에 비보도를 요청했다. 북한 평양방송은 2일 김씨의 상

봉소식을 전하면서 "동진호의 납치·납북이라는 것은 허황된 날조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은세상에 선언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2박3일간의 방문일정을 마친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2일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을 나누고 북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동진호 남북선원 일부 北서 교류"

김희근씨 "가끔 원래" 밝혀

지난 87년 납북됐던 동진27호 선원중 일부가 북한에서 서로 교류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간 평양을 방문. 남북선원인 아들 김희근(49)씨와 상봉했던 김삼례(73)씨는 3일 남북선원 일부가 김씨와 만나기도 한다는 말을 방북기간에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북측 인사가 최근 아들 생일(음력 9월 15일)에 동진호에서 함께 조업을 하다 납북된 선원 3명이 김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귀담했다"며 "남북선원들이 가끔 김씨에게 오간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선원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북측 인사가 '여기(북한)는 사람들이 일부로 대하지 않는다. 다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차상봉 공동취재단 일원 北, 本紙기자 3시간 억류

기사관련 사과 요구 취재장비 조사·필름 압수 남측 항의에도 안풀어줘 방문단 일정 3시간 지연

북한이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조선일보 사진부 김항중(金恒鍾) 기자를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3시간여 동안 억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측은 또 김 기자의 사진 전송용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도 조사하겠다고 김 기자로부터 넘겨받은 뒤 9시간여 동안 갖고 있으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3개에 남아있던 북한 관련 사진 200여 장 가운데 대부분 5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촬영한 네거티브 필름 1통도 압수했다.

▶관련기사 5면

북한측은 1일 밤 11시40분쯤 김 기자를 호텔 2층의 한 빈 방으로 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 협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일보에 좋지 않은 기사가 났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방에 있던 북측 안내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번갈아가며 사진기자인 김 기자에게

고압적 인사로 사과를 요구했다. 김 기자는 "어떤 기사인지도 모르며, 사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번 이산가족 교환 방문 행사의 관련기사는 대부분 공동취재단의 송고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남측 연락관은 15분쯤 뒤 우연히 이방에 들렀다가 사태를 알고, "어려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감금이나 인질이 아니고 무엇이나"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북측은 김 기자를 내보내지 않았다. 양측 관계자들 사이에 3시간 가량 임씨름이 계속되다가 북측은 김 기자의 노트북과 카메라 등 장비를 넘겨달라고 요구, 객실에 있던 장비들을 넘겨 받은 뒤 2일 새벽 3시쯤 김 기자를 객실로 보내줬다. 북측은 이들 장비를 2일 낮 12시30분쯤 돌려줬다.

한편 북측이 김 기자와 남측 대표단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측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의 평양 출발 일정까지 늦추는 바람에, 남측 가족들은 예정시간보다 3시간 정도 늦게 귀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북측은 남측이 사과를 거부하자 '지금까지의 노력을 사과로 간주하겠다'며 요구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불안의 '평양 5시간' | 北 '조선일보가사' 트집 남측방문단 귀환 지연

지난 제2차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평양출발이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북측이 국내 언론의 보도내용 문제점이 지적될 요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방문단은 북측으로부터 이 무렵 공식성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침침의사까지 기른 채 크게 불안해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측 관계자와 평양에서 취재한 남측 공동취재단측에 따르면 북한측은 지난 오후 조선일보 12월1일

지 4면 '김정일 장군 호칭 찾아 남가족 미북'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서울과 평양의 단체상봉장에서 북측 가족들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사례를 찌갑기한 내용. 북측은 제목을 '미색으로 뽑은 조선일보 태도에 불쾌해 하면서 1일 밤 11시40분께 방북 취재단의 일원인 이 신문 사진기자 김창중(金昌鍾)씨를 남북 연락관 접촉이 이뤄지는 방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안내원 10여명이 둘러싸고 따지는 등 상당히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연락관은 이에 대해 "감금이 아니라"며 북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북측은 김 기자의 노트북과 카메라 2대의 필름을 검사한 뒤 "전체 분위기가 정서에 맞지는 않지만 딱히 문제삼을 것은 없다"며 이튿날 새벽 김기자를 숙소로 돌려보냈다. 양측은 이후 계속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종결짓기로 힘으로

써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바람에 이튿 7시부터 로비에 내려와 있던 남측 방문단은 영문도 모른 채 허일없이 기다려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방문단이 숙소인 고려호텔을 나선 것은 예정보다 4시간 이상 지연된 낮 12시45분께. 결국 남측 방문단을 태운 고려항공 특별기는 예정시각을 5시간여 넘긴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했다.

/인준현기자 dcjvu@hk.co.kr

北, 조선일보 사진기자 3시간 감압 조사 평양 방문단 출발 지연

기사관련 사죄 요구

남측 이산가족 평양방문단의 2일 귀환일정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것은 조선일보의 상봉 관련 보도에 대한 북측의 항의와 사죄요구에 따른 진통 때문으로 드러났다. 북측은 조선일보 1일자 4면 기사(金正日장군 호칭 짓아 남가족 머쓱)를 문제삼아 조선일보 또는 남측 연락관의 사죄를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측이 사죄를 거부하자 북측은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작별상봉과 순안공항 출발을 지연시켰다.

북측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방북취재단의 김창종(金昌鍾)조선일보 사진부 기자를 남북연락관 접촉장소로 사용하던 고려호텔 2층 방으로 데리고 가 3시간 동안 위압적 분위기 속에 기사 게재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북측은 남측 연락관들이 "이런 행위는 연금에 해당한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금기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한 뒤 2일 오전 3시 금기자를 돌려 보냈으나 상당수 필름을 삭제한 카메라와 노트북은 출발 직전에야 돌려졌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남북어부 가족 첫 상봉

3차 이산상봉 내년초에

정부는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서 남북자의 어머니 김삼례(金三禮·73)씨가 남북자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서 아들 김희근(49·87년 남북 동진27호 김관장)씨를 상봉함에 따라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폭을 크게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35면

정부 당국자는 3일 "이번 남북자 모자 상봉을 계기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남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일반 이산가족들과 달리 독자적 범주에서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방문단 교환과 관련, 한적 관계자는 이날 "이 달 중으로 예정됐던 3차 남북 적십자회담(13~15일)과 방문단 교환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문단 일원으로 서울에 온 북측 관계자들이 이러한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혀 내년 초에야 3차 방문단 교환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남북자 가족 첫 상봉

동진호 강희근씨, 訪北 노모와 만나

3차교환 내년 봄 연기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내년 봄으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적십자회담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3일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왔던 최승철 북측 적십자회담 대표단장이 3차 적십자회담은 4차 장관급 회담과 겹쳐서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도 남씨가 추운 관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담은 이달말이나 내년 1월, 방문단 교환은 이르면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에나 가능할 것

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 남측 방북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김삼례씨(73·여)는 남북자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87년 동진27호 김관장으로 서해상에서 조업중 남북된 아들 김희근씨(49)와 13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관련기사 5·26면)

김씨는 방북 첫날인 지난달 30일과 12월1일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아들 김씨와 북한에서 재혼한 며느리 김용희씨, 손자 강현민군과도 상봉했으며 1일 공동오찬에서 70회 생일상을 받기도 했다.

남북자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상사된 이번 김합머나와 김씨의 모자 만남은 남북자 가족상봉의 물꼬를 튼 것으로 향후 남북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기자 jikim@kmb.co.kr

3차 이산가족 방문 내년으로 연기될듯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적십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박기룡(朴基崙) 사무총장은 2일 "당초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3차 교환방문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2차 방문단 일원으로 서울에 온 북측관계자들이 이러한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북측 방문단으로 서울을 찾은 최승철 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장은 이와 관련, "상급회담(장관급회담)이 있어서(적십자회담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날씨도 춥고해서 급년에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楨溟기자 jhyoon@chosun.com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귀환

50년동안 헤어졌던 협육을 만나 가슴속 울여리를 풀었던 남북이산가족들은 2일 2박3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또다시 남과 북으로 돌아갔다.

봉두완(奉斗完)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방문단 151명은 이날 오후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가족들의 작별헌송을 받은 뒤 평양순안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53분께 북측 고려항공편으로 서해직항로를 경유, 서울에 도착했다.

이어 장재연(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총임위원장이 이끄는 북측방문단 136명도 오전 상봉가족들의 환송을 받는데 이어 오찬을 한 뒤 버스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간단한 출국절차를 마치고 오후 5시께 같은 비행기로 평양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당초

오전 11시께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귀환하고 북측 방문단은 오후 1시께 김포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남측인원보다 내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남측 방문단의 귀환일정이 4시간여 지연됐다.

앞서 남측 방문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삼례(73·여)씨는 1일 고려호텔에서 지난 87년 1월 서해상에서 조업 중 남북원 당시 동진27호 김판장인 아들 김희근(49)씨를 13년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남북자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김 할머니와 김씨간 모자상봉은 남북자 가족상봉의 물꼬를 튼 것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487명에 이르는 남북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3차 이산가족 상봉 내년으로 연기될듯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5~7일)과 3차 남북적십자회담(13~15일)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철 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3차 회담은 장관급회담(12~15일)과 일정이 겹치고, 3차 교환방문은 날씨가 추우니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을 밝혔다고 3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 일정과 실행되지 않고 있는 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3차 적십자회담과 방문단 교환 일정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① 중앙일보

2000. 12. 4 (월)

매일경제

2000. 12. 4 (월)

1·2차상봉 탈락 이산가족 EBS. 인터넷서 만남 추진

"인터넷으로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차 이산가족 상봉단에서 모두 제외돼 실의에 빠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실행 1세대들이 직접 상봉에서 소외된 아쉬움을 인터넷 상봉 기대로 달라고 있다.

최근 EBS교육방송이 '커피인 920. 희망텔레이행시를 통해 대표적 실행민촌인 청호동을 정보시화하 마음로 지정하고 무료로 홈페이지(http://www.sichong.co.kr/sokcho/abai)를 개설, '사람찾기,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놓았다.

청호동과 속초시가 고향인 외지 거주 주민들이 간혹 방문할 정도로 아직 찾는 이가 적지만 이 코너에는 실행민 1세대들이 북에 두고 온 식구들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진과 인적사항, 찾는 가족의 이름 등을 올려 놓았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주민 5,800여명중 600여명이 실행 1세대이나 1, 2차 이산가족 상봉단에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김희원기자 hewk@sed.co.kr

3차 이산상봉 내년 연기

당초 오는 13일로 예정된 3차 남북 적십자 회담과 연내 실시할 예정이었던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차 지난달 30일 서울에 온 최승철 남북 적십자 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3차 적십자 회담을 내년으로 미루고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남측이 풀린 다음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 기자

<choinhoon@joongang.co.kr>

北 상봉단 이석균씨

친지에 自作詩 남겨

"23세의 꿈많은 시집/서울을 떠났던 이 형/할아버지가 되어/63년 전에 찍은/색 낚은 가족사진 가지고/동생들 앞에서 서 있다..메아리치는 그 날이 사진과 함께/오늘 찍은 사진도가 지고/나는 다시 오리라."

북측 방문단의 이석균(공학자·74)씨는 지난 2일 남측 가족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다시 만남 것을 기약하는 시를 친지들에게 전달하고 떠났다.

'색 낚은 가족사진'이라는 제목의 이 자작시는 지난달 30일 상봉장에서 어머니의 작고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읊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

李씨는 6·25 당시 월북했으며, 이번에 동생과 만났다. 李씨는 상봉 첫날 남측 동생으로부터 1990년 작고한 어머니가 남긴 백발(白髮)과 시집을 유품으로 받고 행복해 주변을 숙연케 했다. 장정훈 기자

<choon@joongang.co.kr>

3차 이산방문 내년 연기

제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를 위한 적십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3일 "2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온 북측 관계자들이 합의된 3차 방문단과 적십자회담을 연기하지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 방문단에 포함된 최승철 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3차 적십자회담(13~15일)은 4차 장관급회담과 일정이 겹치고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5~7일)은 날씨가 추운 만큼 연기하지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년 애태운 母情 꿈같은 '평양 사흘'

남북어부 아들 강희근씨 만난 김삼례 할머니

13년만에 만난 그리운 얼굴이었다.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에서 극적으로 아들 강희근씨(49)를 만난 김삼례씨(73)는 3일 아들을 만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희근씨는 지난 87년 1월15일 사해에서 남북단 동진호 김민정으로, 남북자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호텔 단체상봉장. 김씨는 취재진과 이산가족들로 붐비는 가운데 "어머니"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희근씨를 덩싹 안았다. 약간 마르고 까무잡잡해졌지만 고기 잡으러 간다며 집을 떠나던 13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김씨는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너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아들을 부둥켜 안은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희근씨가 북한에서 새로 맞은 아내 강영희씨와 아들 현민군(12)과 함께 13년만에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자 김씨는 "현민이가 남쪽에서 나와 살고 있는 형 현문이(16)를 꼭 뵈었다"며 즐거워했

다. 다음날인 1일 개별상봉에서 김씨는 아들 내외로부터 뒤늦은 침선 생일상을 받았다. 며느리는 수박씩 한박을 지어왔고 손지는 지팡이를 선물했다.

김씨는 "풍일되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며 "그때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 남쪽에 있는 아들

**남아들·딸 안부묻자
"다들 잘살고 있으니
꿈에라도 잊어라" 당부
"동진호 선원 모두 생존
가끔씩 서로 만나다더라"**

현문군과 딸 지선씨(20)의 안부묻는 아들에게 김씨는 "다들 잘 살고 있으니 남쪽일은 꿈에서라도 잊고 잘살아라"라고 당부했다.

짧은 아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2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씨는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온 동진호 선장 최종석씨의 딸 우영씨에게 "나 혼자만 아들을 만나고 돌아와 너무 미안하다"고 위



김삼례씨가 지난 1일 낮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측이 마련해준 침선 생일상을 받은 후 87년 남북단 동진호 김민정인 아들 강희근씨와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로했다.

김씨는 강화도까지 동행한 우영씨에게 "북쪽 시립들이 동진호 선원들은 모두 다 살아있고 가끔씩 서로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며 "다음에는 아버지들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

도 용음이 나와 아들에게 어머니라고 했느냐는 말 한마디 못해 너무 안타깝다"며 "또 보고싶지만 죽은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김영수기자
nomad@kmb.co.kr

한국일보

2000. 12. 4 (월)

남북 어부의 어머니 김삼례(金三禮·73)씨의 평양방문과 관련 정부는 엄격한 보안을 지키면서 언론에 보도도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다.

한척과 당국은 70세 이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문자 추적을 통해 김씨가 후보자 200명에 포함되고, 이들의 생존이 북측으로부터 확인돼 최종 방문자 100명의 명단에 들어간 직후인 11월 초 김씨의 방북 사실을 통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에 한국일보를 비롯한 신문·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못지않게 남북자 가족들의 상봉 권리를 중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남북자 가족들의 상봉을 위하여 문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 '동진호' 상봉 알려지기까지...

**北자극등 우려
南언론 비보도속
北방송 먼저 보도**

당시 정부 관계자는 "김씨와 김은 남북자 가족들의 상봉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사전에 이를 보도할 경우 북측을 자극해 남북자 가족

들의 상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남북자 가족들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양의 남측 공동취재단은 30일 단체상봉에서 김씨의 아들 강희근(49)씨가 상봉하는 장면, 1일 개별상봉을 통해 제외하는 장면, 1일 점심에 김씨가 진감상을 받은 장년들을 모두 취재했지만 보도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북측이 2일 오전 7시 평양방송을 통해 김씨 모자 상봉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이후 우리측 언론들도 김씨 모자의 상봉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통일될때까지 살아 기다리마”

“제 걱정말고 현문이 공부 좀...”

2차 남북이산상봉

금삼레씨 남북아들 강희근씨
13년만의 재회

“통일되면 오거라, 이 예미는 꼭 기다릴 테나...”

13년 만에 재회한 남북 아들에게 김삼레 (73) 할머니가 남긴 작별 인사였다. 2일 오후 남행 (南行)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눈물은 하염없이 흘렸다. 평양 땅을 언제 다시 밟을 것이며 아들 화근이가 언제 남으로 돌아올지 막막해서였다.

김 할머니가 조기갑이 이신 동진호 김반장이던 강희근씨(40)의 남북(87년 1월) 유인 것은 5박 1년 뒤였다. “인양어산을 타고 나갔다”며 가족들이 쉬쉬 했기 때문이다.

현의 세월을 보내던 지난 6월 27일 손자 현문(16·교동초고 1년)이가 “약주만 드시면

서럽게 우시는 할머니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보낼 때만해도 불가능처럼 여겨진 심봉이었다. 그런 탓인지 지난달 30일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만난 희근씨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붉은 첫 머디가 “현문이는 요”라는 남쪽 아들의 소식이었다.

손잡이 기다리던 재회의 2박3일간 김 할머니는 아들로부터 뜻다한 효도를 받았다. 북한에서 새로 맞은 며느리 김용희씨로부터 수백색 한복을 선물 받고 손자 현민(13)이도 만났다. 북의 손자가 짙을 하고 지팡이를 신봉할 때는 울컥 눈물도 쏟아졌다. 이를 때인 1월에는 생위상도 치러 받고 내 식구가



1일 낮 고려호텔에서 생일상을 받은 김삼레 할머니가 북의 며느리 김용희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아들 강희근씨로부터 술잔을 받고 있다. ●평양 시전공통취재단

北며느리·손자 절받고 생일상앞서 눈물 희근씨 “노동당원돼 팬잡아요”노모 위로 ‘2박3일 효도’ 뒤로한채 다시 생이별

오순도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보였다. 어떻게 지냈느냐는 어머니 말에 희근씨는 “혼잡, 시계도 받고 지금은 공업직물공장에 다니고 있다”며 “두달 전에는 노동당원도 됐다”고 철손의 노모를 안심시켰다. 김 할머니를 취재하던 북한 기자는 동진호사건이 ‘남치’가 이남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이윽고 이별의 날이 밝았다. 고려호텔을

떠나기 전 20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희근씨는 “현문이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아빠 걱정 말고요” “울지 말고 얼굴 한번 대보세요. 얼굴...”이라고 울먹이며 노모의 볼을 비비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김포공항에서 “아들을 만나 너무 좋았지만 우느라고 얘기를 제대로 나눌 수 못했다”며 못내 아쉬움을 털어놓고 허위취위 인천시 김희군 교동도 집으로 향했다. 차량 밖의 늦익은 풍경을 바라보며 남의는 짓고 엄마도 없는 손녀(20)와 손자를 키우며 살아온 13년이 그대도 잊혀지는 않았다. 이는 생각이 든 김 할머니였다.

●전경하 통일성기자 hark3@kldaily.com

“저도 아버지 만날 날 오겠지요”

■금삼레씨 손자 강현문군

“할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 2차 상봉에서 김삼레(73·강희군 교동면 남정리)할머니가 평양에서 87년 남북한 아들 강희근씨(40)를 만나고 돌아온 뒤 강씨의 아들 현문군(16·교동초고1년)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언젠가 저도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오겠지요”

3살때 아버지가 고깃배를 타고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남북된 이후 13년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해온 현문군은 “할머니와 누나

(지신·20) 등 우리 가족의 평생 소원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다”며 아버지와 할머니의 상봉을 기뻐했다.

현문군은 얼굴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는 편지를 쓴 뒤 북측에 전달해 달라며 우려속 대표단에 전달했다.

현문군은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와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김희준기자 kimhj@kldaily.com

고기 잡으러 간다더니 새며느리 얻어올 줄이야...

13년만에 남북아들 만난 김삼례 할머니

뒤늦은 칠순상에 한복감 선물받아
“北손자 남쪽 형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고기 많이 잡아 오겠다”며 바다로 떠났다가 남북된 아들을 노모는 13년 만에 만났다.

북에서 새 장가 간 아들(김희근·49)은 며느리·손자와 함께 어머니 칠순 생일상을 치러놓고 큰 절을 올렸고, 백발(白髮)의 어머니 김삼례(金三禮·73)씨는 “ 좋다”는 말만 반복하며 흐느꼈다.

지난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 들어서자 누군가 “어머니” 하고 달려왔다.

“희근이구나.” 아들을 품에 안은 김씨는 한참 흐느끼다가, 얼굴을 때고 천천히 아들 얼굴을 살폈다. 87년 조기잡이 어선 동진호에 뒀다가 남북된 지 13년 만이다. 옛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니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며느리와 손자를 보니 아들 본 것보다 더 좋다.”

“아직 그 집에 그냥 살아요?”

“다 합고 기쁨보일려 넣었다.”

모자(母子)가 상봉중인 테이블에는 북한 중앙TV 등 내·외신 기자들이 몰렸다. 북 기자가 아들에게 “선생은 낚치대 이곳에 온 것인가”하고 묻자, 아들은 “낚치는 낚조다. 우리는 38선을 넘어 (북한) 경비화에 단속됐고, 좋은데 살려고 놀러왔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두달 전에는 노동당원이 됐다”고 말했다.

아들 앞에는 손자가 임진히 앉아 있었다. 강현민(13), 남쪽에 있는 배다른 형 현문(16)이와 이렇게 닮을 수가... ‘현’자도 율림자로 쓴 것이란다.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 큰절을 하자, 갑자기 북받치는 시러움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남쪽의 새끼들은 어찌할거나...”

다음날인 1일, 김씨는 아들 내외로부터 뒤늦은 칠순상을 받았다. 며느리는 수박색 한복감을, 손자는 지팡이를 김씨에게 선물로 줬다. 현민이는 “할머니, 통일되면 꼭 오세요”라고 말했다.

아들 김씨가 남쪽의 가족 안부를 물었다.

“현문(아들)이는 졸업했어요? 지선(20·딸)이네요.”

“현문이는 고1이고, 지선은 컴퓨터 학원 다니다. 걱정마라.”

아들은 취재중인 TV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가더니 “현문아, 네 아비 보이냐”고 외쳤다. 김씨는 또 숨죽여 울었다.

떠나는 날(2일), 오전에 오겠다던 아들이 안보이자 김씨는 초조해졌다. 안내원은 남쪽으로 출발하는 시간도 연기됐다고 했다. 오후 1시, 허겁지겁 나타난 아들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원망하자, “집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20분, 김씨는 이때 아들과 무슨 얘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희근아...”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김씨는 참 너머 아들이 울먹이는 것을 보았다.

2일 김포공항으로 돌아온 김씨는 “북에서 아들과 단동이 있어보지 못했고, 아들과 만날 때마다 안내원과 북한 기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이 아들이 북에서 1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물어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安哲培기자 sbahn@chosun.com

/廉廣濬기자 ksyoum@chosun.com

/평양=공동취재단

동진호 선원들 北생존
서로 왕래하며 생활

87년 남북된 ‘동진호’ 선원들이 북에 생존해 있으며 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의 아들 김희근씨를 만나고 돌아온 김삼례씨는 2일 본보 기자와 만나 “동진호 선원들이 서로 왕래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북의 안내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廉廣濬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상봉장에서 김삼례 할머니가 87년 동진호 피랍 시간 때 남북된 아들 김희근씨를 13년 만에 만나 끼안은 채 흐느끼고 있다.

/平壤=사진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0. 12. 4 (월)

남북자 상봉 '물꼬' 최대성과

2차 남북이산상봉

접선 및 전망

물밑대화 결실... 확대여부가 과제 3차 가족방문·서신교환 내년으로

이번 2차 이산가족 방문에서는 남북자 가족 상봉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자·국군모로 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3년 전 남북한 아들 김희근씨(40)를 평양에서 만난 김상래씨(73·여)는 남북자 가족상봉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남북지도 이산가족에 넣어 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남북 주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향후 다른 남북지들의 가족상봉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남북지들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규정하고 상봉실현을 위해 특사집회, 장관급·직급자 회담 등 각종 회담과 이후 체납을 통해 북측과 협의해 왔다. 상봉 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다.

이번 북측은 김희근씨 경우를 포함, 남북지들을 '외거 입북자'라고 주장하며 "북측에 남북지는 한 사람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의 미묘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두차례 실현되고 남북자 가족의 첫 상봉도 이뤄진 만큼 상봉의 정례

화, 남북가족 상봉 확대는 남북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는 앞으로 추후 상봉이 어느 정도 시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갈 수 있을 지에 달려있다.

일련에 한두번 열려서는 정례화라고 할 수 없고 행사성 상봉에 그치지 때문에 최소 한두달에 1차례씩은 열려야 하고 명호소 설치, 생사확인 등의 서신교환 등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올해는 3차 상봉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

남북관계 향후 주요 일정표

주요이름	일자	장소	비고
4차 장관급회담	12월 12일 (3월 4일)	평양	9월말에서 연가
이산가족 3차 상봉	12월 5일 (2월 3일)	서울	연가 불가
고급자 3차 회담	12월 13일 (2월 13일)	평양	연가 불가
북방위권회담	11월 중순	북측지역	연가
서신교환	9~11월 중순	한양도	연가
	당국적으로	명호소	
	30대에	규도	교차
김대중 회고단 회담 및 통일위원회 서명식	연내 중순	내년 초	이통분과
			이통분과
			관향

이석우기자 swlee@kdsdaily.com

정부 정책적 고려 남북자 가족 포함

동진호 갑판장 상봉 전망

2차 이산가족 상봉에 남북자 가족이 포함된 것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장관급·직급자 등 공식회담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남북이 절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대한직업사자의 방문단 대상 선정 인선위원회에서 2명의 남북자 가족을 방북 후보자 200명에 포함시켰다.

남북지도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이라는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정책적 고려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0여명의 남북자 가족들 가운데 70% 이상 '외교 우산' 기준을 적용해 신청한 것. 이어 북측에 생사확인

남북한 각종 접촉 통해 접촉 국내언론도 보도 자체 협조

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동진호 갑판장으로 지난 87년 남북한 김희근씨의 어머니 김상래씨가 최종 선정됐다. 나머지 한사람의 생사확인은 북측이 알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자 가족상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 따로 공식 협조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각종 회담과 접촉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왔기 때문에 남북간에 공간대가 형성돼 있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김씨 보자의 상봉사실은 지난 9월 2차 방문단 인선 때부터 알고 있었으나 보도를 자제해 왔다. "보도되면 민란이 깨지고 다른 남북지들의 상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받아 언도주의적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보도를 자제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2일 아침 북한 평양방송이 이통분과에서 김희근씨 아들은 김정아 사자사자 보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석우기자



할아버지도 오실거죠 지난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호텔 앞에서 마지막 상봉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북측 방문단에 김희근씨 어머니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사진제공:북측자대

87년 백령도 근해서 피랍

이선 동진호 납북사건

지난 87년 1월 15일 발생한 '동진호 납북사건' 때 송신 인원은 김민정 김희근씨를 포함, 12명이다. 당시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중 남측에 13명이 지난 지금까지 붙어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정이 15일 오전 11시40분 경 우리나라 서해장산포서 북쪽 영해 깊어 불법침입한 남조선 선박 1척을 단속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 직설지지는 동진호가 납북된 지 6일만인 1월21일 "조사후 돌려보내겠다"는 송신 의사를 밝혔으나 김민정씨 열기가 남북, 귀순하는 바람에 송환이 취소됐다.

최여경기자 kid@kdsdaily.com

조선일보 기사 '꼬투리' 北 사과요구 '육신각신'

방북단 귀환 왜 늦어졌나

북한이 남한의 일부 언론보도를 문제삼아 2차 이산가족 상봉일정을 늦추는 등 '언론 깰들이기'에 나섰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2차 남북 이산가족의 귀환이 약 3시간 정도 지연됐다. 이유는 북측이 1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의 '김일성 장군 호칭 짓기 남북가족 비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북측은 1일 밤 11시40분쯤 공동취재단으로 평양에 가 있던 조선일보 사간기자를 남북연락관 접촉실로 데려가 3시간 정도 억류했다. 이 때 우연히 연락관실

조선일보기자 한때 억류 우리측 설득으로 마무리

에 들른 남측 연락관이 '김급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어물든 사간기자가 평양 연락관에게 '억압'을 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했다는 것.

북측은 남측 연락관 협에서 사간기자의 노트북과 카메라 2대를 직접 검사해 보기도 하고 새벽 3시쯤에 사간기자를 방으로 돌려보냈다. 북측은 "전체 분위기가 정서에 안 맞지만 딱히 문제삼을 것은 없다"면서 사간기자를 카메라에 파일로 저장했던 북한 시내 스케치 사진 등을 다 지우고 돌려줬다.

북측은 "1. 조선일보는 사죄하라. 2. 아니면 연락관이라도 사죄하라. 3.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 교환방문할 수 없다"는 세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 요구에 남측이 반대, 귀환 출발이 지연됐다. 남측이 화해협력 정신에 맞춰 일을 진행하자고 설득, 2일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2일 오전 9시부터 30년간에 정해진 한송상봉은 날 12시10분부터 시작돼 20여분에 그쳤고 서울 북측 방문단의 평양귀환도 늦춰졌다.

전경희기자 hark30@kdsdaily.com

남북자-軍포로 '해법' 기대감

조선일보 기자 사진

"인터넷 신문에 北 안 좋게 썼다" 사과요구 '감금'

북측이 2일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문제삼아 방북취재단의 김창종(金昌鍾)조선일보 사진부 기자를 '사실상 감금', 이로 인해 귀한 임종까지 치질염 및 등 병상사가 생겼다.

정부측과 김기자가 따르면 1일 밤 11시경 김기자는 서울 프레스센터로 사진 전송을 마친 뒤 북측 담당안내인 조희진씨에게 "그간 안내해줘 고맙는데 내일은 바쁘니 (숙소인 고려호텔 2층) '바'에서 잠시 얘기라도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조씨는 "집안 (다른 사람과) 의논할 것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했고, 김기자는 '바'에서 동료 사진기자들과 함께 조씨를 기다렸다. 밤 11시40분경 다른 안내인이 찾아와 김기자에게 "밖에서 전담안내인이 보자고 한다"며

"필요없는 사진 왜 찍나"

北 카메라-노트북 남기받아
취재내용 지운채 돌려줘

남북연락관 접촉실로 데려갔다. 김기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10여 명의 북측 관계자들이 "조선일보 기자가 방느냐, 남북 조선일보에 우리(북)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15분 가량 실랑이가 있었다.

이때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온 남측 연락관이 이를 보고 "어려서라도 한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감금이나 인질이 아니고 뭐냐, 문제가 있다면 적잖은 연락관을 통해 하는 것이 약속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김기자가 필요없는 사진을 찍는 것을 안내인이 보았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기자는 카메라와 노트북PC를 남기주었다.

김기자는 남측 방문단이 초대를 슬쩍받기 직전 장비들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 남아 있던 평양 시내 스케치 사진들은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남북자 첫상봉 의미-대해

남북자가족 상봉이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통해 처음 실현됨으로써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법에 새로운 진기가 마련됐다.

북측은 동진27호 김만장 강희근 씨(49)에 대한 북측기자의 질문을 통해 '남북이 아니라 의거남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남북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남북자가족 상봉에 대해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에 포함시켜 해결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특사집중과 정권교체당, 직선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비공개적으로 이를 제기해왔고, 2차 이산가족 방문후보자 200명 명단을 교환하면서 3명의 남북자가족을 포함시켰다.

결국 북측도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남측 요청에 남북자가족 1명의 생사확인과 상봉으로 '화답'해 주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남북자 현황

	남북(명)	역류(명)
어부	3,682	436
대한항공	51	12
12명	20	20
북경 803명	2	2
기타	25	17
계	3,790	487

2차 이산상봉 팀 남겼다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2일 끝났다. 이산의 현(현)과 상봉의 감격이 또 한번 모두의 가슴을 지리게 했지만 시신회과 생사확인,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향후 개최될 4차 장관급회담(12~14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직선자회담으로 넘겨졌다. 2차 교환방문을 결산해 본다.

▽일회성 행사의 지속=2차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 이번 2차 상봉이 1차보다 임정은 줄었고 상봉시간을 늘리는 국은 극히 일부 이산가족들의 한을 달래는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이번 상봉시 서울을 방문한 북측 방문단에는 북한 직선지회 장재인(張在仁)위원장과 최승철 직선지회 단대표 등 실무진도 내기 포함돼 있어서 3차 직선자회담 임정과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문제 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

'의거入北' 강조 北태도 불변

"한두명, 개워넣기식 행사"
근본적 해결책으로 함께"

정부 관계자는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같은 차원에서 남북자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남북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자 가족모임 대표 최우영씨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뒤통수부터 북에 요구해야 한다"

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한두명 끼워넣는 식으로 남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남북자 상봉 문제와 관련해 언론에 비비도 요청을 했다. 북측이 남북자가족의 생사를 확인했지만 '진의'를 알 수 없고, 언론이 남북자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경우 제한적이나마 남북자가족의 상봉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2일 오전 방송을 통해 남북자 가족 김상대씨의 방북을 보도함으로써 이 사실이 공개됐다.

〈한태원기자〉

scoop@donga.com



남북아들에게 받은 집순전첫상
김상대씨(오른쪽)가 1일 낮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이 미려한 집순 전첫상 앞에서 87년 남북연락관 김만장이었던 아들 김희근씨로부터 집순을 받고 있다.

가족상봉 제도화등 논의 끝내 불발 北 트집 여전- '對北 저 자세' 시비도

그러나 이산가족상봉 행사일점 지연과 장충식(張忠植)대한직선자 사총재의 발언 때문 등으로 인해 남북직선자 실무집중은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의 경직됨- 자세=북측의 고압적인 자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북측은 특히 조선일보 인터넷기사를 문제삼아 남북연락관 접촉도 없이 기자회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양공동취재단 소속 조선일보 사진기자를 '사실상 감금'하고 남측 방문단의 평양 출발을 지연시켰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언제든지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 인도적 사입인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미뤄놓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산상봉이 남북 정상들간의 합의 사항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변변한 합의 한번 못했다.

이산가족사업에 주관하는 대한직선자사, 장충재의 '북한 비하' 발언에 대한 북측의 항의로 인해 장충재가 상봉행사에 참석하지도 못한 것은 '對北 저 자세'의 진형이라는 지적들이다. 장재인 위원장은 2일 귀환상명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장충재를 겨냥해 "그 꼴꼴이 가련하다"며 "죄에 죽고 울바르게 재성하라"고 비아냥대까지 했다.

1일의 장관행사에서는 북측 방문단은 100여m 거리의 집순 툃대월드 민속관을 방문하면서 당초 도로로 가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남측이 예를 먹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마치 북측이 남측에 베푸는 일종의 '시혜'같은 인상을 준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한태원기자〉
spear@donga.com

南北 사소한 신경전... '3차 상봉' 늦춰질듯

'2차이산방문' 이후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적십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3일 "당초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내년 초로, 3차 방문단 교환은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온 북측 관계자가 이러한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와 회담이 이같이 연기된 것은 2차 이산가족 상봉기간 내내 남북 양측 실무자들이 사소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서 이미 나타났다. 각종 남북간 교류와 회담에서 서로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잘해보자는 2차상봉 직전까지의 화해무드와는 달랐던 형국이다. 또 정부는 언론의 협조를 얻어 비공개로 남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해버려 향후 북측의 대응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북측은 조선일보 1일자 "김정일 장군' 호칭이 잦아 남쪽 가족이 머쓱했다"는 기사를 문제삼아 2일 평양에서 남측방문단의 귀환을 3시간여 지체시켰다.

앞서 1일 지정부터 3시간동안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조선일보 사진기자를 격리하기도 했다.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를 받았다.

평양에 간 2차 방북단에 남북자 가족이 포함된 사실을 공개한 것도 문제다. 당초 통일부는 북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남북자 가족 김삼례(金三禮)씨의 상봉을 언론에 비보도 요청했다. 언론은 인도적 차원에 비공개원칙을 충실히 시켰지만, 양영식(梁榮植) 통일부차관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산

조선일보 보도 문제삼아 南방문단 귀환 지연

北단장 "張총재 죄에죽고 재생해야" 극언

향후 적십자회담-방문교환등 연속차질 우려

가족 상봉단에 남북어부 1명의 가족이 포함돼 있다는데 사실이나"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도 부인

도 할 수 없다"며 시인해 버려 비공개원칙을 깬다. 그렇기 않아도 현재 이산가족 3차 교환상봉을 비롯,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조치들은 담보상태인 실정이다. 12일 열리는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조치 등 해결방안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받았지만 남측방문단은 한때 불안에 떨기도 했다.

서울을 찾은 북측방문단은 장충식(張忠植) 한적 총재의 '북한 자극발언'에 대해 수시로 비난을 쏟아냈으며, 장재언(張在彦) 북측단장은 2일 기자회견장에서 "그(장충식) 똥골이야말로 가련하다. 죄에 죽고 올바르게 재생해야 한다"고 극언했다. 롯데월드 민속관 참관때도 고성읍 지르고 만찬에 별다른 이유없이 늦게 나타나는 등 '외교적 결례'

경향신문 2000. 12. 4 (월)

3차상봉 내년 2월말까지

北단장 "12월은 너무 추워" 연기 요청

3차 이산가족 상봉은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남북 적십자회담도 내년 1월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2차 상봉 때 서울에 온 최승철 남북 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이 3차 상봉에 대해 '우리는 협의사대로 하겠지만 12월은 너무 추워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되니 내년 2

월 말이나 그 직후에 하면 될 것'이라고 재언했다"고 전했다.

최단장은 또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12월에 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해 내년 1월 실시 가능성을 시사한 뒤 "12월부터 열리는 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날짜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번 상봉에 북측의 서울방문단 단

장을 맡은 장재언(張在彦) 북한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지난 1일 대한 적십자사 주최 만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상봉사업은 계속해야 하며 우리는 3차, 4차 상봉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3차 상봉과 적십자회담을 빨리 하지는 입장이었지만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북측의 재의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남북은 당초 3차 상봉은 이달 5~7일, 3차 적십자회담은 13~15일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조호연기자 dh@kvnrfjvng.com

남북자-국군포로 해결 '첫걸음'

동진호가족 첫 가족상봉 의미

남북자 가족의 '심봉감'이 일었다.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때 남북자 가족 중 처음으로 김삼태씨가 1987년 시혜산에서 납북된 동진호 김관장인 아들 김희근씨를 국적으로 상봉한 것이다.

'남치'- '의거입북' 논란

김씨 모자의 상봉은 남북자 가족을 이산가족에 포함시키겠다는 길을 연 것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측이 남북자들에 대해 '의거 입북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남치'나 '의거입북'이라는 놓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북한 평양방송은 2일 "김씨는 찾아온 어머니에게 자기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고 싶어 스스로 이곳에 인생의 닻을 내리었다"며 "동진호 남치 남북이라는 것은 허황된 남조이며 거짓"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몰밀접촉 노력 결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자들을 '이산동기' 불문의 원칙에 따른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규정, 일반 이산가족의 상봉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자 가족들의 상봉 요구를 장려금회담, 직접지회담 등 각종 공식회담을 비롯해 몰밀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해 왔고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2차 방북단 후보자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남북자 가족을 후보자속에 포함시키 조정한 해결을 추진했다. 특히 언론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북측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비보도류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 방송이 2일 이례적으로 남북자 가족의 상봉을 보도함에 따라 비보도 요청이 지체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부선 '이산포함'에 불만

그러나 일각에선 국군포로의 함께 남북자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호텔에서 공회로 향하는 버스를 탄 북측 상봉단 김삼태씨가 남측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음 만남을 기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를 일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남북자의 경우 일반적인 이산가족이 아니라 '피랍자'로 규정, 송환을 통해 분재할 근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재검한 요구 등의 남북자 해결방식은 오히려 상봉의 기회까지 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상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상환기자 shyoon@sgt.co.kr

'일회성 만남' 땀 역효과 우려

남북자가족-전문가 반추

김삼태(76)씨가 1987년 납북된 아들 김희근(49·당시 동진호, 현위)씨를 2차 이산가족상봉에 평양에서 만난 것이 알려지자 3일 남북자 가족과 전문가들은 "심봉감만 신봉의 앞에 돌보일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이 남북자문제를 이산가족 범위안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다"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남북자 가족들=남북자가족모임 최상윤(50) 대표는 "이번 김씨의 아들상봉은 '시작'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만남으로 남북자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일회성 만남'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자 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일부 가족들의 일회성 상봉이 아닌 모두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북자문제를 이산가족 틀안에서만

'실날갈던 상봉희망 물꼬' 일단 환영

'이산틀'서 해결땀 송환등 걸림돌뚫듯

해결하려는 것은 자칫 송환 등 근원적 해결의 길을 막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남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31) 회장은 "북측이 남북자들에 대해 원복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재는 강제이유"라며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킬 경우 '일회성 만남'에 그칠 뿐 송환

등 근본적 해결은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문가 견해=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상봉이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동용승(37) 팀장은 "남북 당국간 남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했으며, 세종연구소 이종석 연구위원도 "남북자-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해온 북한의 입장에 미뤄 이번 만남은 남북한이 합의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인세대 중앙연구원 강규형(37) 교수는 "남북자 상봉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는 '남북'이 아니라 '원복'이 된다"며 "남북자문제를 이산가족들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기자 kimgi@sgt.co.kr

“죽은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북한 조영근씨 만남 老母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봤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1987년 1월 조업중 납북된 아들 김희근(49)씨를 만나고 2일 김포공항을 통해 돌아온 김삼례(73) 할머니는 마음 풀이여 산 지난날의 고통을 이제는 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과 함께 평양에서 보낸 29년3일이 꿈만 같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는 돌아온지 하루만에 또다시

유모로 아들을 반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둘째남인 1일엔 아들과 복합의 머느리 손자로부터 뒤늦은 칠순 생일상을 받았다. 한복 지팡이 등쪽을 등의 선물도 받았다. “할머니, 통일되면 꼭 오세요”라고 생일축하를 대신하는 손자 현민(13)씨가 남쪽에 있는 손자 현문(16)씨와 너무 닮아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현문이의 손녀 지신(20)씨의 안부를 묻는 아들의 질문에 또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린 자식들과 헤어

“어머니” 외치며 달려오는 아들에 할말있어
北머느리-손자로부터 칠순 생일상도 받아

이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

아들에 대한 모성과 그리움 때문에 평양에서의 짧은 만남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한다.

북북 첫남인 지난달 30일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제에는 아들이 왔다”고 전하는 북측 안내원의 말을 김 할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느 때처럼 “고기잡으러 간다”고 나간 후 소식이 끊긴지 14년만에 “어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사립을 보고 한동안 빙하니 서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 앞에 정말로 나타난 것이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기뻐서 한하게 웃으려고, 웃

을까. 아들의 얼굴을 부비대며 한참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고생하느냐”고는 묻지도 않았다.

마지막남인 2일 김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난 것이다. “올지 마세요. 그리고 현문에게 이해 격정을 하지 말고 공부 잘 하라고 했다고 전해주세요.” 헤어지는 순간 아들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그 래야 통일 후 다시 만날 수 있죠”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버스는 공항으로 ‘무심하게’ 출발해버렸다.

/이상현기자 shon@sgt.co.kr

6·25이후 억류자 모두 487명

납북자 현황은

정부가 공식 집계한 6·25 이후 납북억류자는 모두 487명이다. 여부가 436명으로 가장 많고 △대한항공 승무원-승객 12명 △해군방송선 1·2명 승선 해군 20명 △해경 863함 승선 해군 2명 △고교생 5명 △해외납북자 10명 등이다.

납북억류자 가운데 귀환한 사람은 지난 7월 제3국을 통해 귀환한 이재근(62)씨가 유일하다. 이씨는 지난 1970년 4월20일 부산 22호 선원 2명과 함께 납북됐다가 북한에서 결혼한 처와 아들과 함께 귀환했다. 이씨는 직후 납북여부 20명이 현지에서 기장 유 이무고 정착해 살고 있다고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농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며 일부는 대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씨는 증언했다.

여부 436명 가장 많아
KAL 승무원-승객 12명
귀환은 이재근씨가 유일

이번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노모 김삼례(73)씨를 만난 김희근(49)씨는 87년 1월15일 동진27호 선원 11명과 함께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중 ‘38선을 넘어었다’는 이유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사건 발생 6일 뒤 “조사 후 돌려 보내겠다”고 밝혔으나 김남철씨 암가 탈북사건이 발생, 송환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정부는 납북외국인(92년)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으나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입북한 ‘의거자’로 규정하는 북측 주장과 맞서 번번이 송환이 무산돼 왔다. /조인영기자 kwakgja@sgt.co.kr



김삼례 할머니가 지난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87년 납북된 아들 김희근 씨로부터 칠순잔치상과 함께 술잔을 받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납북자 가족상봉 물꼬

2차이산방문이 남긴것

제2차 납북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서울과 평양을 찾았던 이산가족들이 지난 2일 귀환했다. 이산반세기만의 만남을 즐기려는 293명이거나 풀었지만 이번 2차 상봉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상봉에서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납북 방문단의 김삼례(73·여)씨가 지난 87년 서해상에서 조업중 납북된 동진27호의 간판장이었던 아들 김희근(49)씨를 만난 것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없는 범주의 이산가족’ 축 언론들이 공개해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도 4백87명에 이르는 납북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모자의 상봉사실을 북측 언론들이 공개해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도 4백87명에 이르는 납북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첫날 단체상봉때 북에서 저온한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나온 김씨는 “어머니를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며 기뻐했다. 김씨는 그러나 “우리는 38선을 넘어 (북한)경비정에 탄속됐다”며 납북의 납북주장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1일 공동오찬때에는 어머니를 위해 ‘칠순상’을 차려주며 “통일되면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2차 상봉의 성과가 이산가족 만남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봉비용을 1차때의 절반 수준인 9억5천만원으로 줄이고 가족상봉 시간을 최대한 늘린 것도 성과다. 과도한 선물로 인한 갈등도 시정됐다. 그러나 북측의 ‘깨달스런’ 문제 제기에 따른 잦은 일정 지연과 차기상봉 일정 미정, 상봉장에서 북측 가족들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친왕발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북측이 납북 이산가족 방문에 대한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류 문제 제기가 평양을 취재중인 당시 기지를 4시간 가량 사실상 억류한 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희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장관급회담등 다시 활기떨듯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제2차 납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대과없이 마무리됨으로써 지난 10월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납북은 이미 지난달 28일 경의선 복원 관련 제1차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본격 재가동을 예고했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3백4일간의 평양에서 있을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이룩위한 구체적 계획표를 짜는 자리

가 될 전망이다. 이번회담에선 그간 지연돼온 남북관계의 여러 일정이 재조정된다. 3차 적십자회담의 연기 여부, 북측 경제시찰단과 한라산 관광단의 남한 방문,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이 조정 대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3차 적십자회담은 연내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남북간에 일정 조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남북 합의 사항의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拉北과 離散은 엄연히 달라 일회성 만남보다 송환 나서라”

‘남북자 평양 상봉’ 가족들 반응

87년 남북된 동진27호의 김판장 김희근(40)씨와 어머니 김삼례(金三禮·73·인천 강화군 교동면) 할머니의 ‘평양 상봉’ 소식을 접한 남북자 가족들은 “내 일 같이 기쁘다”면서도,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며 규탄 시위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崔宗錫·56)씨의 만딸 우영(吳英·30·남북자가족협의회)씨는 “김 할머니의 아들 상봉은 ‘시작’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회성 상봉’은 남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자의(自意)에 반해 남치된 국민을 구해줄 책임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자 문제를 진담할 정부 내 특별기구 설치, 남북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로 북측의 억지주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67년 남치된 풍복호 전주 최원모(崔元模·90)씨의 아들 성환(成煥·50·남북자가족모임 대표)씨는 “지난 9월 초 ‘남북자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김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남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는 8-9일 남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화하려는 정부에 대한 규탄집회를 벌이

겠다”고 밝혔다.

동진호 선원 중 최고령자인 추영수(秋永守·70)씨의 막내 아들 석봉(秋錫奉·30·인천 동구 송림동)씨도 “남북으로 인한 이산(離散)과 실향민들의 이산은 엄연히 다르다”며 “감재로 남치된 남북여부를 이산가족 문제로 다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全及補기자 callin-u@choon.com



○남북자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일본 남북자구출단체와 함께 남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일보 DB사진

87년 1월15일 서해 조업중 피랍 김민철씨 귀순하자 北서 송환거부

동진호 사건 15일 서해 배령도 서북쪽 28마일 공해상에서 선원 12명을 태우고 조기잠이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남치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남 여수선적 41t 저인망어선 제27동진호와 선장 김순근(金順根·당시 46세)씨 등 선원 12명이 남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은 “동진호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정탐행위를 했다”며 선장 김씨와 어로장 최종석씨를 간첩으로 지목했다. 그후 국내의에서 송환 여론이 들끓자 북한은 송환을 약속했으나, 동진호가 남치된 그날 북한 청진항을 탈출한 김민철씨 일가족 11명이 일본과 대만을 거쳐 2월 8일 남한에 귀순하자 김씨 가족과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동진호 선원을 계속 억류했다.

93년 김영삼 정부는 비전환 장기수 이인도 노인의 북한의 송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동진호 선원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韓在實기자 rookie@choon.com

경향신문

“6·25남북자는 상봉 안되나요”

·‘가족회’ 결성한 이미일회장

“우라도 상봉의 벽한 감각을 누리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사람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6·25사면 남북자 가족회’를 결성한 이미일(李美一·51·사진) 회장.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그는 “6·25사면 남북자 가족들은 가족이 남치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더욱 서럽다”는 말부터 꺼냈다.

“남북화해의 불씨가 넘치는 지금까지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세대 남북자의 생사확인조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자 가족 대부분이 80~90대로 노령화됐기 때문에 더이상 기다릴 수도 없

정전후 남북지만 실태파악
‘1세대’는 생사확인조치 없어
‘50년 그리움’ 이전 풀이줘야

고, 해당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도 계속 무관심할 것이기 때문에 밝혔고 나섰다며 모임의 설립이유를 밝혔다.

“방송의 남북 특별회관에서 대통령이 ‘남북자 수가 300~400명 정도’라고 말하실 때 정말 억울이 무너졌습니다. 이 숫자는 정전 이후의 남북지만 계산한 것이지 8만5천~9만명에 달하는 6·25 당시 남북자는 제외한 것입니다”

가족 중 일부가 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공이대로되기 통치시킬 수없는 가슴앓이를 했다는 그는 앞으로 대통령에게 편염서



● 보내고 남북자에 대한 자료를 담은 웹사이트(www.survive625.or.kr)를 운영하며 남북자 가족들의 요구와 실태를 알리겠다고 했다. /박재현기자 parkj@kyunghyang.com

“잠깐 보자” 호텔 빈방 데려가 10여명이 高壓的 질문 공세

本紙 金昌錫기자 억류사건 전방

조선일보 사진부 김정중(金正中) 기자는 1월 밤 11시30분쯤 고려호텔 2층 로비에 있던 자신의 친방 안내원을 만나, “그간 안내도 해주고 고매운대 내일(2일) 헤어지기 전에 바(bar)에서 잠시 이야기나 하자”고 했고, 안내원은 “잠깐 의논할 것이 있다”며 사라졌다.

11시40분쯤 다른 안내원이 따로 찾아와 남측의 다른 사진기자들과 함께 있던 김 기자에게 “바에서 전방 안내원이 보지고 한다”고 말했다. 그럼 따라 나선 김 기자가 안내된 곳은 호텔 2층 기자회견관에 있는 빈 방이었다. 방에는 다른 안내원과 책임자로 보이는 북측 인사 등 10여명이 일부는 앉아서, 일부는 서서 있었다. 타자 맞은편 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가 맞느냐”고 묻은 뒤, “남측에서 조선일보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사진기자...기사가 보낸적 없다” 해명에 “어쨌든 조선일보기자... 사과하라”
남연락관 들어와 “감금아니냐” 강력함의 압수했던 카메라 저장사진 대부분 지워져

남측 연락관들은 “양측 연락관끼리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신변안전보장 각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김 기자를 빨리 내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사과하기 전에 못내보내라”며 버디. 양측에서 침묵이 계속됐다. 2일 새벽 1시30분쯤 북측 책임자가 방에서 나왔다. 돌아와 “조선일보가 사과하라”고 남측 연락관이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①만약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다”며 계속 사과를 요구했다. 남측 연락관이 “할대 할 수 없다. 왜 사과하느냐”고 맞섰다.

새벽 2시30분쯤 북측의 고위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남측 연락관이 “이러는 것은 언급이고 인질이다. 빨리 내보내라”고 하자, 그는 “‘언급’이나 ‘인질’이란 표현 쓰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에서도 지금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김 기자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사진 찍는 것을 안내원들이 다 보았다”고 새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 기자가 “문제된 사진은 없다. 정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하자, 북측 관계자 3명이 김 기자와 함께 김 기자들의 객실로 올라가 카메라와 사진전송용 노트북 등을 들고 함께 되돌아왔다. 이때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30대 1명도 기다리고 있었다. 북측은 장비들을 가지고 나간 뒤 김 기자를 객실로 돌려보냈다. 김 기자가 나온 뒤에도 남측의 두 연락관은 북측과 계속 “사과” 여부를 놓고 청문회를 벌이다가, 서울과의 회의를 위해 그 방을 나왔다.

2일 오전 계속된 남북 연락관 협상에서 남측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고 북측은 나중에 “좋다. ‘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사건이 오전 11시50분쯤 일단락됐다. 이때문에 당초 9시로 예정됐던 이산가족들의 ‘직접상봉’도 늦춰져 12시10분쯤에 이뤄졌다.

김 기자는 직별 상봉에 끝나고 방문단 전체가 호텔을 떠나기 15분쯤 전인 12시30분쯤 북측으로부터 장비를 되돌려받았으나, 김 기자가 북에서 찍은 사진은 대부분 지워졌고, 촬영한 필름 1봉은 돌려받지 못했다. /송진희기자 jinh@chosun.com

北, 조선일보 기자 ‘감금’ 소동

‘김정일 보도’ 사죄 요구 방북단 귀환 3시간 지연

지난 2일 남측 이산가족방문단의 평양 출발이 지연된 것은 북측이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삼아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방북단귀환에 따르면 북측은 ‘김정일 정권 호칭 찾아 남 기자 미숙’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2일자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 또는 남측 연락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이에 앞서 1일 밤 11시40분쯤 북측은 문제의 기사에 불만을 표고 남측 공동취재단 일원인 조선일보 김모 사진기자를 고려호텔 2층 남북연락관 객실로 불러냈다. 김 기자는 이날 밤 연락관 객실에 들어섰을 때 북측 관계자 10여명이 포진해 있어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김 기자에게 다짜고짜 “기사를 써서 서울로 보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런 기사가 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고 김 기자는 “나는 기사를 써서 보낸 적이 아니라 사진만 취재해서 전송했을 뿐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버티었다. 김 기자가 언락관 객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15분쯤 뒤 객실에 나타난 남측 연락관은 상황을 파악한 뒤 북측에 “감금이 아니다”며 입중 함의하고 북측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었다. 북측의 ‘사죄요구’와 남측의 ‘수용불가’로 양측은 팽팽히 맞섰고 남측 연락관은 북측 고위인사와 협의한 후 북측이 김 기자의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취재장비를 가져갔고 김 기자는 2일 새벽 3시쯤 풀려나 속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북 양측은 남측 방문단이 귀환을 위해 고려호텔을 출발하기 직전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고 취재장비를 김 기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김 기자가 평양 시내에 여러군데, 시민, 군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필름 1봉은 북측에서 보관하겠다고 돌려주지 않았고 풀려진 필름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삭제됐다. 결국 조선일보 기사를 돌려받은 김동은 2일 송별상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호텔 출발시간도 3시간 가량 지연됐다. 김재홍기자

북한 억류자 상봉 ‘물꼬’

이산상봉 향후 일정 적십자 회담 중순께나 4차장관급서 정리할듯

이번 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2월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북 200명의 이산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헤어질 기쁨과 상봉했다. 전에서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남북자 가족이, 처음으로 방문단에 포함된 가족들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북측의 남측 언론부도 내용을 문제삼아 방북단 귀환이 늦어지는 등 일정이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자 가족상봉=지난 87년 서해상에서 남북편 동진호 김민장 김희근씨(49)와 어머니 김상례씨(73), 가 2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된 평양에서 13년전 헤어진 이들을 극적으로 만나 70회 생일상까지 받았다.

다. 물론 북측이 방문 마지막날인 2일 평양방송을 통해 감격이 남북이 아닌 외가 입북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상례씨 모자의 만남을 체제선언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북측이 방문 마지막날인 2일 평양방송을 통해 감격이 남북이 아닌 외가 입북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상례씨 모자의 만남을 체제선언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기는 당초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자 가족들은 이미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체 모임을 결성, 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위해 당국이 한층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자들을 넓은 범주의 이산가족으로 규정, 장래의 교환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측을 설득하고 이러한 꾸준한 노력 이 이번에도 결실을 보게 된다.

○향후 일정=3차 방문단 교환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상봉준비에 한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3차 적십자회담도 12일부터 3일4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4차장관급회담과 겹쳐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9월과 10월 각각 100명씩 생사확인 및 11월중 사진 교환하기로 했던 일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4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사업 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뒤 3차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홍기자 jrh@kmb.co.kr

날짜	일정	장소
12월5-7일	3차 방문단 교환	연기(북측)
12월12-15일	4차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사업일정 전반적인 재조정
12월13-15일	3차 적십자회담	연기(북측)

*9, 10월 생사확인 및 11월 사진교환은 발표중이다.
*연례소식지는 내년 봄 중순경에

‘장군님 호칭에 남가족 머쓱’ 題下 ‘머쓱’ 표현 문제 삼은듯

무슨 기사로 사과 요구하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북측은 조선일보 12월11일자 4면에 실린 <김정일 장군> 호칭 찾아, 남 가족 “머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머쓱”이란 표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 표현이 “성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11월30일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 이

산가족 단체상봉에 관해 남한의 ‘신동공동취재단’이 작성한 풀(pool) 기사들 가운데, 북측 가족들이 ‘장군님 언덕’이라고 밝힌 사례들 일부만 모은 것 북측이 문제삼은 제목과 기사 제목의 “머쓱”이란 표현은, 북측 이산가족들의 ‘장군님 언덕’ 언급에 대해 남측 가족들이 다소 어색해 하는 표정을 표현한 것이다.

북한에서도 “머쓱하다”는 말은 남한에서와 비슷하게 “어색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평양에서 출간된 ‘조선일보 대사전’에 실려있다.

북한 출신 학생 지원 천일장학회 김익진 이사장

“탈북인들 잘 살아야 통일도 빨라”

북에서 온 젊은이들이 남한의 대학문을 씩씩하게 뚫어내고 있다. 금년에는 인세대와 고려대에만 이미 20명에 가까운 북년 출신 학생들의 특례 입학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 어느 때보다 바빠진다. 장학금을 줄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공부할 계속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씩이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학생은 100명이 넘는다.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인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지원한 총액은 2억원에 달한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전에도 몇년 동안 개인적으로 탈북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성공 모습 보면 北동포들 민주체제 따를 것 2년간 중·고·대 100여명에 장학금 2억원 7세대 월남 어렵게 공부... “지원 늘리겠다”

“남한에도 이러한 학생들이 많지만 북에서 온 학생들의 고백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만 도움을 주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돈은 쪼개고 쪼개 생활비로 보태줍니다.”

이 합니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자가 된다면 무슨 방법으로 북한 동포들을 우리 체제로 끌어들이겠습니까. 남한 사회의 하수인이나 되는 통일이라면 북한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張忠植 韓赤총재 오늘 귀국

2차 이산가족상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일본으로 출국했던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한다. 한적 관계자는 3일 이같이 전하

고 “장총재가 워간지 인터뷰 기사 파문과 관련해 ‘나로 인해 적십자사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귀국 후 장총재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현장기자



이승철 사회부

이렇게 만나다간 200년도 모자란다

“내 아들이 어디가니” “어머니 살아만 계시지요” 2일 오전 북측 방문단의 숙소였던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 앞. 출발 시간이 되자 억눌려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차가운 버스 유리창 너머로나마 마지막 오해의 운기름 느껴보려는 동생의 간절한. 처음 본 할아버지 손을 껴잡고 하루만 더 있나 가시라는 손녀의 애절함. 떠나는 버스앞에 끝내 주저앉고 만 가슴 미어지는 어미의 안타까움. 회한과 눈물의 2억3천이였다. 50년 세월을 기다려진 한미당 꿈을 꾸듯 시간은 금방 흘러가 버렸다. 첫 집단 심봉자인 사육 반포 센터캠프에서 대부분 이산가족들은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 해야 할 지 모르겠어. 도무지 품안 같아”라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8시간에 걸친 다섯번의 짧은 만남. 기속 속에 담이두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욱이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그들에게는 언제 다시 뵈지 못할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다. 1차 심봉에서 형을 만났던 안문환씨(58·경기 하남시)는 “말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형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인다끼워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심봉 신청 이산가족 14세대만 10만7000여명. 그러나 지금까지 합육의 손을 만져본 사람은 심봉행사 2번에 남북에서 각각 20명. 1년에 5~6회 만나다해도 산술적으로 200년은 걸린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많은 정치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만날 수 없다면 편지에 시연을 담을 수도 있다. 참도도 높다는데 면회 소실치는 왜 그리 어려운지. 또다른 이별의 이픔을 인거 주기를 반복하는 건 너무 기속하다. 방송이나 신문에 시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이산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구체화해야 한다. neelee@kmb.co.kr

北체제 선전용 남북자 상봉 근본대책 시급

① 중앙일보

2000. 12. 4 (월)

동진호 가족 재회 의미

남북남한 동진호 선원 김희근씨가 2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방북한 어머니 김삼례씨와 13년 만에 첫 상봉함으로써 남북자 가족들이 이산의 한 (恨)을 풀 수 있는 절호가 되었다.

앞으로 이산가족 방문단의 추가교 환은 물론 서신교환이나 면회소 설치 때 남북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방문단 후보에 오른 김씨 이들의 생사·주소표 확 인해 주었다. 남북지간 사실을 알고도 가족과의 만남을 처음으로 공식 허용 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자·국군포로 가족의 상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상봉' 자체보다 남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남은 것'이란 점을 보여주며 재자연화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양방송이 지난 2일 "꽃씨가 동진호의 납치·납북이라는 것은 허황한 낚초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몇몇 정도의 '사범 상봉'이라면 월 리도 4백87명에 이르는 남북자나 1만9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문제를 북한 체제가 잠깐 풀기에는 우리가 따를 것이란 얘기다.

꽃씨가 불과 두달 전 노동당에 입당 한 사실에서 북한 당국이 부라부라 상봉에 대비했음을 엿볼 수 있다.

평양부는 지난 9월 말 김삼례씨의 방문단 포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요청했다. 상봉이 성사 되기 전에 문제가 불거지면 북측이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남북자·국군포로 가족들간의 의견 차이도 만만치 않다. 일부 가족은 "남북자·국군포로를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남북	국군
이부	3,692	436
KAL기	51	12
1·2명	20	20
평균 863명	2	2
가년	25	17
계	3,790	487

* 국군포로: 19,000여명 추정 (6,255살상 41,971)
 * 월출 전사 8,231명 22,562명 4,930
 * 귀환 국군포로 17명의 용연으로 명단 확인된 생존 국군포로 351명

“동진호 선원들 서로 왕래”

남북 아들 만난 김삼례씨



사건공통특파원

“건강함 모양이니 마음이 놓여, 세 머리와 손지까지 나와서 정신이 없었어. 시간이 짧은디다 우느리고 이야기할 말이 못함”
 어머니 아쉬운지

동진호 김삼례씨(73)는 “그런, 너무 좋았지”라면서도 짧은 입침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동진호 선원들이 서로 왕래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북의 안내원이 ‘평양 평안북도의 아들 김씨 집을 찾아갔을 때 낯선 사람 3, 4명을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동진호 선원들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씨의 상봉을 지켜본 남북자 가족들 가운데에는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송환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남북자가족협의회 대표 최우영(30·여)은 “김삼례씨의 상봉은 남북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지만 이 문제가 별도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된 것

남북남한 동진호 김삼례씨였던 아들 김희근씨를 평양에서 만나고 돌아온 김삼례씨가 2일 김포공항에서 가족들의 고통에 답하고 있다.

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냈다.

최씨는 “남북자 문제는 이산가족과는 성격이 다르고 ‘상봉’보다 ‘송환’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북자 박동순씨의 부인 임희순씨(65)는 “김삼례씨의 아들이 북에서 결혼해 지내도 두 딸이 북에서 결혼해 지내도 두 딸이 남한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며 불안함을 표시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우리형제가 9남매였을줄...”

‘1차방북’ 양보 우원영씨



사건공통특파원

“우리 형제가 5남매인줄 알았는데 9남매가 됐더라고요.”

1차 방북단에 포함됐으나 109세 노모가 숨진 장이영씨에게 기회를 양보했던 우원영(禹元亨·67·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씨는 이번 방북에서, 자신의 월남 이후 4명의 동생이 더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씨는 상봉 첫날인 지난달 30일 고려호텔에서 훈장 17개를 자랑스럽게 달고 나온 동생 인형씨(61)와 옥희씨(84·여)를 만나 얼굴을 비비며 형제의 정을 나눴다.

9남매가 된 형제들과 그 지손들 이야기를 듣고 이뿐 생일 등 족보에 기록할 내용들 적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일본, 일초가 아까웠지만 번성할 ‘지손들’이름 적는 게 마냥 신이 났다. 고향 가정에서 서울 간다는 고모에게 계란 한 줄을 전해 주리 집을 나선 게 50년 생일을 넘었던 기억도 새뜰게 떠올랐다.

동계남 상봉에서도 지난 날 나 직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방북 기회를 양보했던 우원영씨가 2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중니은 손지를 안아주고 있다.

지 못한 북한 ‘거주’ 형제의 지손들 14명의 이름과 나이를 정리했다.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인형씨로부터 “형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장남’ 노릇을 해 왔는데 이전 고만 ‘했어’였다”는 농담을 듣고는 50년전 계구쟁이 동생 얼굴을 자연스레 떠올려보기도 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북 경직된 태도 변해야 갈등 키우는 남 언론도 문제”

겨레의 만남

2차 이산상봉



■ 상봉자들이 느낀 아쉬움

반세기만의 상봉을 마친 이산가족들은 아쉬움도 컸고, 얘기치 않은 불미스런 해프닝에 마음속 짝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은 상봉의 감격과 석별의 아픔 속에서도 갈라진 모든 이산의 혈육들이 만나 함께 사는 “그날”을 위한 조건과 의견도 앓다뉘 쏟아냈다.

우선 가족들은 상봉 일정을 하루 줄인 만큼 전화로라도 혈육의 목소리 듣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이번 상봉에선 휴대전화 통화 통제가 1차 상봉 때보다 되레 강화됐다.

40여명의 가족·친척들이 ‘상봉 직전’까지 뵈던 라도서(68)씨의 조카 봉근(49)씨는 “끝내 휴대전화를 건네지 못해 통화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또 이산가족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던 정치적 갈등이 불거져 불안과 걱정 등에 휩싸였던 일을 안타까워했다.

직접 혈육상봉을 한 상당수 이산가족들은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나치게 문제삼은 ‘북쪽의 태도나, ‘지꾸만 북을 자극하는’ 남쪽의 언론 모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이산가족들의 의견은 뜻밖으로 차분했다.



제2차 이산가족상봉 마지막 날인 2일 평양 고려호텔 앞에서 남쪽의 이순구(84·왼쪽)씨가 북쪽의 딸 리은옥(51·가운데)씨, 여동생 리영구(77)씨와 직별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휴대전화 통제로 못다한말 가슴에 “TV엔 화제얼굴만” 못본가족 서운

어머니 최승녀(77)씨가 방북했던 채원병(47)씨는 “혈육 상봉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느냐”며 “작은 문제에 집착해 갈등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방북자 한종은(82)씨의 아내 이병원(73)씨는 “남북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만날 기회를 늘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이산가족들도 “우리말과 다른 이산가족들도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젠 서둘러 면회소를 두거나 편지교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화제의 얼굴들에만 쫓린 언론 보도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평양에 다녀온 홍양국(85·인천 서구)씨는 “6·25 때 헤어진 두 아들을 아내와 함께 보고 싶었으나, 한 명밖에 갈 수 없어 나만 다녀왔다”며 “텔레비전 중계라도 실행만 마다 말고 했으면 아내와 남쪽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아내 김명선(79)씨는 “몇 명은 거듭 나오는데, 두 아들은 안나와 서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동생을 만나고 온 이경철(74)씨의 아내 배순악(65)씨는 “텔레비전을 끼고 지냈는데 남편이나 시동생은 한번도 만나왔다”며 “대한적십자사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수협 기자 kjsb@hani.co.kr

50년 만에 밤따온 형님

피난길 이별 ‘거짓말’

매년 모은 50불 선물

“자, 밥 여기 있다. 내가 밥 따러 간다고 했지?”

서울에 온 김용용(61)씨는 50년 전 동생 대용(59)씨와 명숙(1998년 사망)씨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용용씨는 피난가는 자신과 헤어지지 않으려던 동생들에게 “뒷산에 밥 따러 가는 거야”라고 돌려뒀던 ‘핑계’를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삼으며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용용씨 부모는 용용씨만을 데리고 인천 강화군 내기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면서 집 근처 외갓집에 어린 두 남매를 맡겼다.

동생들이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용용씨는 잠시 몸을 피했다가 돌아오면 될 것으로 여기고 동생들에게 밥을 따다 주겠다고 안심시켰던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려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기른 밤나무에서 1년에 한 톨씩 50불을 따다 모았다가 이번에 선물로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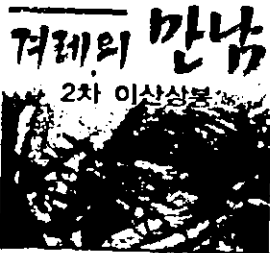
대용씨는 “어렸을 땐 형이 야속하기도 했는데, 다 씻겨간 것 같다”며 “형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았구나 싶어 고맙지만 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용씨는 집 짝에 밤나무를 심어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형이 생 각날 때마다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호텔 앞에서 다시 헤어지면서 대용씨는 형이 준 밥 다섯 톨을 손에 쥘 채 외쳤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키운 밤나무에서 밥 따다 줄게요.” 용용씨는 충만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에 올랐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아들때민 바다 이젠 푸근”



겨레의 만남
2차 이상삼봉

13년 전 아들이 떠나간 검푸른 바다는 여전히 아무일 없다는 듯 슬림 거렸지만, 아들의 체취라도 가슴에 담은 어머니에선 한결 푸근하게 다가왔다.

‘남북단’ 동진호 김판장인 아들 김희근(49)씨를 만나고 돌아온 김삼봉(73·인천 강화군 교동도)씨가 2일 저녁 민강이 교차하는 듯 서해를 바라봤다. 집이 있는 서해의 작은 섬 교동도로 가는 배편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였다.

남북 어부의 어머니 북에서도 손자 얻어 “다른 선원들도 잘있대”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호텔. “어머니! 너를 다시 만날 줄이야!” 13년의 서러움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3남2녀 가운데 둘째, 바닷바람과 어미의 땀으로 키운 아들은 1987년 1월15일 어느 때처럼 ‘고기잡으러 간다’고 나간 뒤 소식이 없었다.

“네가 사라진 뒤 북쪽 바다를 보며 못남며칠을 숨죽여 울었다.”

“이 애가 손자 현민(12)입니다. 재치고요.” 북의 손자는 아들이 남쪽에 남긴 큰 손자를 꼭 닮았다.

김 할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뒤 며느리마저 떠나버려 몸을 팔며 현민군과 7살이던 손녀 지선(20)씨를 홀로 키웠다. 언젠가부터 아버지 사장을 어렴풋이 알게 된 손자들은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도 자제했다.

상봉 중엔 느닷없이 북의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자가 아들에게 “선생께서 남치와 이곳에 온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들은 “남치는 남치”라며 “나는 좋은 데 살려고 놀러왔었고, 두달 전(노동당) 당원이 됐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를 만나니 좋다”고만 답했다.

이튿날 기별상봉에서 김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차려준 뒤늦은 칠순 생일상을 받았다. 들쭉술을 올리던 아들이 현민이의 근황을 물었다. 김 할머니는 “다 잘 있다. 남쪽 일은 꿈에서도 잊으라”고 했지만, 아들 앞에선 꼭 참았다던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 건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통일되면 오셔야죠.” “현민이에선 아빠 걱정 말라고 해요. 몸지 마세요. 얼굴 한번 대보세요. 얼굴...” “내 걱정은 마라. 나는 이제 걱정 없다.” 말을 맺기도 전에 아들의 모습은 차츰 밖으로 멀어져 갔다.

해는 지고 바닷바람이 차가워졌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켜 김 할머니는 나즈막히 뇌켜졌다. “잘 산다니 댜지. 그거면 된거야.”

김 할머니는 다른 남북자 가족들이 희망을 다시 지킬만한 소식도 전했다. “한 북쪽 안내원이 ‘(다른 선원들도) 다들 잘 있다.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9월 아들 생일 때는 서너 사람 다녀갔다는 방도 하데...”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한겨레

2000. 12. 4 (월)

그리움 등지고 다시 분단속으로

짧은 만남, 그리고 기약없는 건이...

서울과 평양은 헤어짐의 고통 앞에 또다시 몸부림쳤다.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단은 꿈에 그리던 피붙이들과 2박3일의 짧은 재회를 뒤로 한 채, 또 다시 북으로 남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북의 가족들을 떠나 보낸 지난 2일 아침 서울 롯데월드호텔 앞 주차장은 빈세기 기다림보다 더 큰 이별의 고통으로 눈물이 감을 이었다.

남쪽 가족들은 꼭 떨어진 기운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영원히 사랑해요”라고 쓴 플래카드를 손에 손에 들고 순항으로

떠날 버스 앞에 들어서 눈물로 환승했다.

휠체어를 타고 환승장에 나온 박간례(86)씨는 아들 홍세완(69)씨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자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조민기(65)씨는 아들 규석(51)씨와 함께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른 뒤, 자신을 기다리며 수절한 아내 김필화(69)씨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건강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손상오(69)씨의 조카손녀 이서영(12)안은 버스 창문 밖으로 내민 손씨의 손을 잡고 “통일이 되면 반드시 찾아가겠다”며 울먹였다.

전날 운보 김기창(88) 화백과 ‘필담 상봉’을 나눈 동생 기단(71)씨는 조카 양(51)씨에게 “형님을 잘 부탁한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보였으니 눈가의 이슬을 감추지 못했다.

평양의 고려호텔 로비와 주차장에서 서로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 이어졌다. 남쪽 박복단 양철영(82)씨는 “통일돼서 다시 만날 날까지 모두 건강하라”며 꼭 껴안은 아내와 아들의 발을 연신 비벼댔다. 종재 눈물을 보이지 않던 리덕실(78)씨는 남편 명용덕(84)씨가 버스에 오르자 “오래 살아 꼭 다시 만나자”며 명씨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하늘도 이들의 이별이 안타까웠을까? 이날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출발 일정이 3시간 가량 지연돼 예상보다 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오후 늦게 김포공항에 도착한 박복단은 감격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우원형(67)씨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울남한 뒤 새로 동생네 명이 태어나 동생이 모두 여섯 명이 됐다”며 감격해했다.

최고령 방북자 유두희(100) 할머니는 마중나온 아들 신중순(63)씨를 “네가 동길이나”며 북에서 만나고 온 첫째 아들 동길씨와 혼동하기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희송 기자 honesty@hani.co.kr

북 비비며 “오래살자” 출발지연 되려 반겨 노모, 남북아들 혼동

한겨레

2000. 12. 4 (월)

남북자 문제 일단 '과란불'

동진호 갑판장 어머니 평양상봉 의미

2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인 김삼래(73) 씨와 '남북어부'인 아들 김희근(49) 씨의 평양 상봉으로 남북간 숙제중의 하나인 남북자 문제 해결에 일단 정진호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과안하고 있는 휴전 이후 남북자는 어부 436명을 포함해 모두 487명이다. 남북자 문제에 대해 북측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와 남북자는 없으며) 있다. 지난 시기 공화국 품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의거해 온 이전 괴뢰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확인 상봉이 우선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즉 이산동거 불문 원칙에 따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해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해왔다. 각종 당국회담을 통해 북측에 이런 방침을 줄기차게 일러온 정부는 북측이 최근 진과 달리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도되면 일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에 '비보도'를 요청했다. 언론은 사실비보도도 중요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상봉 성사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측의 보도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앞으로 상봉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어쨌든 북측이 남북자 가족의 상봉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의지를 앞서온 대북 압박·비판보다 조율해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남북 내부의 여론 향방이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은 '역거침불'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라당과 보수층의 비판이 격화한다면, '조율한 해결'에 난기류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남북자 가족들 "희망이 생겼어요"

■ 숯씨 상봉소식에 환호

이번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때 김삼래씨(73·여)가 평양에서 남북 선원인 아들 김희근씨(40)와 만났다는 소식에 남북자 가족들은 자기 일치된 기뻐하면서 "우리도 빨리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87년 백령도 앞바다에서 남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崔宗錫·55) 씨의 딸 우영(吳英·30·남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씨는 "민남의 불효를 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남북자 이산가족 범주에 넣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7년 백령도 앞바다에서 남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崔宗錫·55) 씨의 딸 우영(吳英·30·남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씨는 "민남의 불효를 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남북자 이산가족 범주에 넣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71년 1월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 중 남북된 위영37호 어부 박동순

(朴東淳·68) 씨의 딸 박연옥(朴蓮玉·44) 씨도 "김 할머니의 아들 상봉소식에 새삼 희망을 가지게 됐다"면서 "남북자를 이산가족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자세에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생사 확인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자 문제에 대해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등 실질적인 각도에 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의거 입북자나 자원 진류자는 있으나 남북자는 없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차원에서 접근, 서로에게 부담이 덜 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전 이후 북측에 억류중인 남북자는 남북어부 436명을 포함, 모두 48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영우기자 ywchun@kdsaily.com

張忠植 한적총재 남을까... 떠날까...

오늘 귀국... 거취 주목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자리할 피한 장중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6시36분 대한항공 002편으로 일본에서 돌아올 예정이다. 상봉이 시작되기 전날인 22일 급하게 떠난 장중재의 공식 일본방문 이유는 '일본 적십자측과 사할린 동포문제 협의'였다.

했다. 장 총재의 거취문제와 관련, 한 고위 관계자는 "적십자 총재 선출은 총회 결정이 거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총재가 남북간 적십자회담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한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교가 트이는 초심스런 시기에 장 총재가 '상대를 자극하는' 북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장 총재의 사퇴를 비라는 측의 주장이다.

●전경희기자

엇갈리는 남북가족 반응

"속히할 일이지만 더 이상 남북자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안된다."

지난 2일 북한에서 동진호 갑판장인 김희근씨와 남북어 어머니가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북자 가족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동진호 선장 김순근(59) 씨의 부인 이수영(53) 씨는 "남북자 가족들이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인생가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1972년 남북된 이용섭(63) 씨의 아들 재호(宰昊) 씨는 "정부가 엄

"우리도 언젠가는..." 환영 "송환노력 안하고..." 섭섭

연히 납치된 우리 국민에 대해 담당하 송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끝날 징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단에 포함시켜 만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崔宗錫·55) 씨의 딸 최우영(崔英英) 씨는 "정부가 남북자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방식으로

남북자 문제 해결을 도모하신 인연"이라고 밝혔다.

남북가족모임도 "정부가 남북자 문제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오는 8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정부에 상의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식·정효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이산’ 차원 남북자 해결 첫걸음

■ 동진호 선원 가족상봉 ‘조용한 해결’추진해온 정부해법 일단은 유효

남북자 가족이 2차 이산가족 방문단 일원으로 뒀음을 방문, 위유과 상봉함으로써 남북자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1987년 남북된 동진호 선원 김희근(49)씨의 어머니 김삼례(73)씨가 이들과 만났다는 사실은 현재 487명으로 알려진 다른 남북자 가족들에게도 잠에 그리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준다. 동시에 아권의 효린 비방을 받고 있는 남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유효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남북자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고,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북측이 남북자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일가에서 주장하듯 무조건 송환을 요구할 경우 해결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사 회담과 정관계 회담 등 각종 채널을 통해 ‘헤이저 동기와 방문

하고 모든 이산가족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만나도록 하자’는 논리로 꾸준히 북측을 설득해 왔다.

북측도 처음에는 남북자 문제에 대해 ‘북조선에 그런 사람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차츰 ‘나중에 논의하자’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틈을 비집고 정부는 2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김씨를 포함하여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낸 남북자 가족 50여명을 교환 방문단 추첨에 포함시키 북측의 진의를 확인코자 했던 것이다.

북측은 1일 평양방송을 통해 먼저 김씨의 아들 상봉 사실을 전하면서 아들 김씨의 입을 통해 ‘(남측의) 남북 주장은 남조이며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정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자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자도 이산가족 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측 해법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북측에 한꺼번에 많은 요구를 할 경우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남북자 문제들 계속 조용히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나도 사랑”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 홍성표씨가 2일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버스 창을 사이에 두고 조카 홍보민씨와 왼쪽 손바닥을 맞댄 채 손가락으로 “나도 사랑”이라고 써 보이고 있다. /박서강기자

“상봉아닌 송환을” 남북자 가족들 “선별만남 반대”

남북자 가족들은 김삼례(金三禮·73) 할머니와 남북자인 아들 김희근(49)씨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이 만남이 남북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한편같이 ‘남북자 문제는 일반 이산가족과는 별개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7년 1월 남북된 동진호 이로장 최홍식(55)씨의 딸로 남북자 가족협의회장인 최우영(崔佑英·30)씨는 “지금처럼 이산가족과 섞어서 만나면 우리가 주장하던 송환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만남은 사실상 귀환을 포기하는 일가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남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崔成龍·50) 대표는 “김 할머니의 상봉이 개인적으로 기쁘고 귀족적인 일이지만 북한이 ‘남북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윅된다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남북자 문제를 공분화하고 남북 당국간 공식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간 피랍자 가족 모임인 ‘6·25사범 남북자 가족회’의 이미 일(李美一·51·여) 대표도 “선법적인 만남이론 남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남북자 문제를 일괄적으로 묶어 하나의 시안으로 상봉과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53년 휴전 이후 북한에 남치돼 억류중인 남북자는 모두 487명. 이중 이주가 436명으로 가장 많고 대한항공 승무원 및 승객 12명, 해외체류중 남북자 12명, 해안기에서 납치된 고교생 5명 등이다. 생존 국군포로도 351명으로 집계돼 있다.

/정복용기자 itrees@hk.co.kr
김용식기자 jwahn@hk.co.kr

'2차 이산가족 상봉' 평양을 다녀와서

평양.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는 마음
살아 생전 갈수 있을까
조바심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눈물 감아야만 꿈속에서 할수 있던 곳
평양
그리운 고향에
통일 염원을 안고
오늘 이렇게 서다니...
50년 동안
기습속 깊이 묻고 살아온 그리움의 땅에
이렇게 서다니...
이게 꿈인가? 생사인가요
한강에서 내동강까지
한시간 거리쯤
50여년이 걸리다니...
신천은 의곡하네
옛 친구가 소식조차 없고
무심한 세월에
이토록 아름다운 만남
그 손수의 꽃을 피우듯
함유어 만나 용이리진 한이 풀리는곳에
사립고 돌출리도록 아름다운 만남
그리운 평양이야!



봉 두 완
한적 부총재
제2차 이산가족
상봉단 남측
대표단장

한데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표단장이 100명의 가족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번 분수지 완~) 나는 혼자 줄았거렸다.

"이봐, 그나지나 왜 이렇게 늦게 떠나는 거야? 거 이데 신문에 뭐가 잘못났더냐?"

"할아버지 그게 밥이죠 사실은..."

"아니 내가 알아. 아대사 들었어. 내가 어대사 들었더라... 무슨 신문이지? 본래 그 신문하고 지기하고 사이가 안좋지!"

"그것보다도 '맛' 이산가족들이 장군님 티셔츠...하는 바람에...쑤..."

"그런 3차는 지장없을까?"

"... ~!?" (원, 아시는 것도 많고 관심도 대단하시네)

90이 남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릿한 지력과 관찰력을 갖고 계신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2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특징은 80세 90세 10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대한 의욕으로 평양행을 결행했다는 것이다. 다녀와서 더욱 밝고 깨끗한 음성으로 '지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랐다. 그

그날(지난달 30일) 우리가 떠날날. 허망이 평양에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세 시간이나 늦게 김포공항을 떠났다.

올해 100살의 유두희 할머니는 내소를 잡고 돌아가며, '이제 정말 떠나지'가야?' 하고 반신반의한 채 머리를 흔들며 흔들고 있었

아, 평양, 그리운 고향이여...

나. 평양 고려호텔에서 6-25대 인민군에 전용했던 아들 신동갑(75)씨가, 기둥 큰 소리로 "어머니, 날 모르겠어" 하며 울부짖다시피 했지만 할머니는 별다른 표정 없이 이들의 위공민 뿐히 차다의 모두를 안다치게 했다. 그러나 한참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둥켜 안고 할머니는 늙은 아들의 손을 놓을 줄 몰랐다.

토요일 오후 평양을 떠나 서울로 오는 고려호텔 아가씨가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는 예정시간보다도 세시간이나 지체된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서울 다 있어? 이제 내리아 돼? 해커 안전행정을 푸는 것이었다. "이제 그만 떠나시 쪽으세요?"

"응, 좋아. 아주 좋아. 난네 밥은 언제 준대?"

예정보다 늦게 떠나는 바람에 정신 인계를 거둔 셈이다. 50년 만의 상봉을 끝낸뒤 강원 원주시로 돌아온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면서 신천이나 다 떨어진 왕천신식육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서울 청동구 김동욱 씨는 김영식(90)할아버지의 경우는 좀 달랐다. 앞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아직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복에는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냥 조카만 보고왔어. 잘 사나봐 어떡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애가 어떤 내내나고 했지?" (아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 조카 어떤 나나는 잘 나

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많은 이산가족들의 인을 풀어 주기위해 방문단 교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실 면회소환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나는 왕건할 평양 인민위원장이 배후 만찬회장에서 그리고 허혜경 북한 적십자의 부위원장 주희 만찬에서도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은 도도한 시대흐름과 함께 계속된 것인 만큼 우리 모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역사적 과업을 차분히 전진시켜 나가자"고 여쭙었다.

나는 이번에 찾구치는 우리 거래의 힘을 보았다. 이 입장을 분담을 허물고 평화를 가꾸며 통일과 앞날을 앞당기는 힘의 원천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김동욱인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 다짐해야 하는 것은, 지난 50년과 같은 냉전의 분단시절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겁다. 위에 평정하다.

"할아버지, 꼭 다시 오셔야 해요. 다시 만니오 할아버지. 약속해요. 여기 새끼 손가락으로 우리 약속해요. 할아버지!"

차창에 매달리며 영영 뒤편이 울며 소리치는 어린 손녀의 목소리가 지금도 7000만의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지 않은가. 아, 혈육간의 애절한 정. 그 무엇으로 감을 수 있으랴! 오늘은 혼자서 '우리의 소원은' 노래라도 크게 불러야지...



"여보... 나요!" 휴대폰 상봉

2일 북측 방문단의 공명행 버스 안에서 50년 전 헤어진 부부간의 극적인 휴대폰 상봉이 이뤄졌다. 북에서 형과 여동생을 만나러 온 김희라(69·시진)씨는 지난 아침 전쟁 때 헤어진 전부인 허모(71·64년 재기)씨의 전화번호를 뒤늦게 알고, 한적 직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요!" 50년만에 아내를 부르는 김씨나 원망어린 목소리로 대답하는 허씨나 모두 목이 메었다. 허씨는 14년 기다린 끝에 재기, 3형제를 두었으나 얼마

남아내 "왜 찾지않았소"
북남편 "재기한줄 알고..."
마지막날에 극적 통화

전 남측의 남편과 시범한 상태, "상봉신청때 왜 니를 먼저 찾지 않았소. 그랬으면 얼굴이나마 봤을 걸. 얼마나 고생하며 당신을 기다렸었는데..." "미안하오. 당신이 재기했을 것 같아 신청을 못했소. 지금이라도 공함으로 나의 주요 끝던 당신 얼굴을 죽기 전에 꼭 보고싶소."

그러나 허씨는 '인문에 얼굴이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들에게 충격을 줘지 못한다. 다음에 오면 만나 잔치를 열어 주겠다'고 고사했다.

김동 김씨는 비통한 어조로 "죽기전에 꼭 다시 만나자"며 전화를 끊고는 "상봉을 불과 다섯 일두고 형님이 세상을 떠드니 아내마저 못보고 떠난다"며 떠날 때까지 회한의 눈물을 내내 그치지 못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현장클릭

대물림돼선 안될 '이산의恨'

2박3일간의 남북 2차상봉 마지막날인 2일.

마지막 환송일정이 예정된 잠실 롯데호텔 뒤편 차도에는 '고향의 봄'과 '우리의 소원'이 계속 울려 퍼졌다. 이산 반세기만에 겨우 8시간씩 만난 남북의 가족들은 서로 밥을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핏줄이 파랗게 선 앙상한 손으로 부모·형제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산 1세대들의 표정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의 얼굴보다 더 처절했다. 그러나 그들 틈바구니에서 이번에 처음 얼굴을 본 삼촌과 할아버지 등을 보내는 이산 2·3세대들의 슬픔도 그에 못지 않았다.

홍성표씨(67)의 손녀인 보민씨(23)는 "여기로만 들던 할아버지의 허투박에 지내지 않았는데, 왜 이리 슬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상오씨(69)의 외손녀 이서영양(11)은 "할아버지, 제발 하루만 더 있다가요. 우리랑 살면 안돼요"라며 고사리같은 손을 뻗었지만 떠나는 할아버지의 발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황병철씨(71)의 손자, 재용군(10)도 할아버지의 '몸에' 얼굴을 묻고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북측의 한 할아버지가 남쪽 형제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고향의 봄'을 부르다 울음을 터뜨리며 "너희 대엔 꼭 통일을 이루리우"라고 말하자 손자는 "나도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앙양 읊었다.

서울서 노모를 만난 삼촌을 떠나보낸 홍석봉씨(45)는 "이산가족이 없고 있는 유전병인 '이산의 한'이 더이상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① 중앙일보

"남북자 추가상봉 귀땀"

동진호 선원 아들 상봉 김삼례씨

"선원 12명 전원 생존... 서로 왕래"

"남북자 가족에게도 상봉기회가 온 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1987년 납북된 동진호의 갑판장이었던 아들 쫓희군(49)씨를 평양에서 극적으로 만난 김삼례(73)할머니와, 상봉 소식을 들은 쫓씨의 남쪽 아들 현문(16·강화군 교동종합고1)군은 또 한번의 기약없는 헤어짐에 말을 잊지 못했다.

"네 아버지는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며 손자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할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던 손자의 13년 세월이 한순간에 눈 녹듯 했다. 이번 상봉에서 집순 생일상까지 받은 쫓씨는 "아들이 88년 북한에서 결혼해 예쁜 며느리애다 손자(12)까지 두고 있어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봉에서 쫓씨는 동진호 다른 피랍자의 근황도 확인하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가져왔다.

쫓씨는 "상봉기간 중에 북측 인사가 동진호 선원들(12명)이 서로 왕래하며 잘 살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납북자들을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날 수 있

을 것"이라고 귀띔했다"고 밝혔다.

쫓씨에 따르면 다른 선원들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북측 인사가 "여기는 사람 생명을 함부로 하는 데가 아니다. 다들 살아 있다"며 "지난 9월 아들 쫓희군씨의 생일 때 평북 동림군 소재 집에 선원 동료들이 다녀갔다"고 근황을 전했다는 것.

그러나 쫓씨는 "북측 안내원들에게 늘 둘러싸여 아들에게 다른 선원들의 이름이나 사는 곳을 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쫓씨의 아들 현문군은 "북한에서 결혼해 지식까지 두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없이 지란 13년 세월이 십십했다"면서도 "덕분에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사셨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는다"고 기뻐했다.

쫓씨가 87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납북될 당시 세살배기였던 현문군과, 재가한 며느리 대신 손자·손녀를 길러야 했던 쫓씨.

이들은 매달 20만원이 채 안되는 정부보조금과 쫓씨의 동네 농사 품값으로 근근이 생활해왔다. 현문군은 "아버지에게 혼나는 친구들을 보면 내게도 꾸중해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며 "그럴 때면 집에 돌아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그리움을 달랬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강희도=진진배·박현선 기자

<allonsy@joonigang.co.kr>

한겨레

北단장 '張 총재 물밑 가련'

이산가족 방문단 북측 단장인 장재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2일 '장총재(張總裁) 인직 총재는 죄에 죽고 을 빠르게 재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 공동선언으로 통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 총재는 재가 오는 (시기에) 임박해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물밑이야말로 가련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일 북적 중앙위 성명을 통해 장 총재의 월간 조선 인터넷기사를 문제 삼은 뒤 장 총재가 방문단 시연의 찬면에 나시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장 총재는 지난달 2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고기잡이 길이 13년길... 내아들 희근아”

김삼례할머니 ‘남북 동진호’ 아들 상봉 “다른 남북자들 소식 못 물어봐 아쉬움”

“그저 옮기만 허느라 정작 다른 남북자들이 어찌될 지내는지 못 물어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13년전 남북된 아들 김희근(49·당시 동진27호 갑판장)씨를 만난 김삼례(金三禮·73·인천 강화군 교동면) 할머니는 3일에도 평양에서의 지난 3일을 수없이 되새기며 감격과 안타까움으로 웃고 또 울었다.

“어머니!” 내 아들이, 너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동일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호텔 집단 상봉장에서 열린 첫 만남. 모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울었다. 아들이 새로 얻은 며느리(김용화)와 손자 현민(13)이를 소개했다.

손자는 3세 때 아버지를 잃은 남쪽의 손자 현문(16)이와 너무도 닮았다. 이름의 ‘현’도 현문이 이름에서 딴 것이라고 했다. 아들 셋이 큰 할을 할 때 김씨는 또 활짝 눈물을

쏟았다. 곧 북한 기자 20여명이 몰려들어 이것 저것을 물었다. 아들은 “동진호 갑판장으로 일하다 공화국(북한)에 들어왔다. 무상으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는 이곳에 영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아들은 특히 “남치했다는 건 남조”라며 “우리는 38선을 넘어(북한)경비장에 단속됐다”며 “좋은 데 살려고 놀러 왔은 것이고 두 달 전에는(노동)당원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둘째 날 공동오찬 때는 칠순상을 받았다. 새 며느리는 반죽이가 뿌려진 수박색 한복을, 손자는 지방이불 선물을 했다.

아들은 술을 올리면서 “통일되는 날 진갑상(짧은 생일상을 잘못 말한 듯)을 꼭 모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손자에게 “이해, 얼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아들에게는 “애기(며느리) 고생하지 않게 사랑해라”고 당부했다.

아들은 남쪽에 남겨진 자식 현민

이와 지선(20)이의 인부를 물었다. “지선은 졸업해서 컴퓨터학원 다니고, 현민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남쪽 일은 다 있어라. 아무 문제 없다”고 달래 주었다. 아들이 “장군님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해 “고생하느냐”는 예기는 묻지도 않았다. 북한 기지가 “장군님 고마우시죠.”라고 묻길래 “아 장군님, 그렇게 기뻐한 양반은 처음 봤다”고 말해 주었다. 아들도 웃다가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은 실컷 만졌다.

한편 김씨의 방북에 앞서 손자 현민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이번에 할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할머니는 아버지가 ‘칠순 잔치를 크게 치러드리겠다’고 말한 뒤 배 타러 떠난 뒷 모습을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평양=공동취재단

매일경제 2000. 12. 4 (월)

남북 아들 만난 김삼례 어머니

아들 내외에게 칠순 생일상 받아

평양취재단

지난 87년 1월 ‘고기잡이 길’이다’고 나간 아들 김희근 씨(49)를 만난 어머니 김삼례 씨(73)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한다.

김 어머니는 조금만 잠으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여정보다 4시간 늦게 평양에 도착했다.

“이렇게 가까운 길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와본 평양은 아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호텔에 도착해 짐짝 잠이 들었는데 안내원이 와서 ‘말에 아들이 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단상봉장에서 수많은 이산가족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고 있는데 한시도 못 있던 얼굴이 다가와 ‘어머니!’하고 나뉘 부르며 끌어안았다.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리며 낯선 여자와 남지이아들 며느리(김용화)와 손자(김현민·13)를 소개했다.

우느리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벌써 오늘 만남은 끝이라고 했다.

이튿날 아들 내외에게 뒤늦은 칠순 생일상을 받았다. 손자가 ‘할머니, 통일되자 오



남북가족으로는 처음으로 87년 남북된 동진호 갑판장인 아들 김희근 씨를 만난 어머니 김삼례 씨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래오와 앉아계시다 통일되면 죽으세요’란다. 아들이 술을 올리면서 “어머니 진갑상을 통일되는 날 꼭 드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뜻밖의 효도를 허락는 아들이 너무 고맙다.

아들은 남쪽의 아이들이 걱정되는지 “현민이는?”하고 물었다.

세살짜리 아들을 두고 갔으니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오늘도 웃다가 얘기는 제대로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은 실컷 만졌다.

아우고 돌아와야 하는 날이 됐다. 호텔에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됐다.

자꾸 뒤돌아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행기는 빨리도 서울에 내렸다.

그러도 살아있는 김 삼례 할머니 원도 없고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문제 금융기관 상시 퇴출” 陳재경

“記者역류 北에 항의할 것” 朴용일

장재식위원장 ‘박살’ 사과
국회 예결추 심의 속개

진남(陳南)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금고 사고와 관련, 금감원에서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며 검찰·국세청과 협조해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4, 5면>

陳장관은 공직자금 관리와 관련, “앞으로는 문제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은 되풀이하지 않고 상시적인 퇴출시스템을 도입해 그때 그때 정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직자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찍히 운영하겠다”며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를 분기마다 공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규(朴在圭)총입부장관은 북한 당국에 의해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조사 받은 일과 관련, “4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 장재식(張在植·민주당)위원장이 자신의 메모(“김용강 의원이 또 미친 발언을 하면 박살내리”) 사건을 공식사과함에 따라 속개됐다.

고정애·김정하 기자

<ockham@joongang.co.kr>

“北 조선일보기자 억류”
자유인론에 대한 폭거”
신문방송 편집인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남중구·南中九)는 4일 성명을 발표,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위재단의 위원으로 방임을 방문했던 조선일보 김창종(金昌鍾) 기자가 북한측에 의해 3시간이나 억류됐다”고 불려진 김은 유감스러움 앞이라며 “정부는 북측에 ‘사과’ 요구에 함께 개인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편집인협회는 “북한측 관계자 10여 명이 김 기자를 시험삼 김금한 상태에서 고압적 인신로 시켜준 요구하고 노릇하 컴퓨터의 디지털 카메라에 담긴 취재사진을 대부분 삭제한 것은 자유인론에 대한 폭거”라며 “지난 6월 특정 인신사의 보도내용과 논조를 문제삼아 그 소속사 기자의 금감상 방북 취재를 거부한 데 이어 다시 이런 형상사가 재연된 것은 북측의 ‘늑대인간 강탈이’라는 우려를 지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편집인협회는 “이같은 인권의 시대가 우리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宋東勳기자 dhsong@chosun.com

“北의 언론 길들이기
저자세 대북정책 탓”

野의원 예결추서 주장

4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심규철(沈圭澈) 의원은 북한측이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위재단의 위원으로 방임을 방문한 조선일보 사진부 김창종(金昌鍾) 기자를 억류한 사건에 대해 “더는 굴적인 우리 언론 길들이기”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관련기사 5면

심 의원은 “북한의 억지는 이산가족 상봉을 더이상 계속할 생각이 없기에, 적당한 트집을 쥐으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식의 저자세 때문에 이런 사

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희창(李希昌) 총재도 총재단회의에서 “트집잡이로 기자를 억류하는데 정부는 제대로 대처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오경운(吳慶勳)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양에선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인본사 기자를 일부로 언급시켰다”며 “정부는 북측에 대해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측 공동위재단의 감금 등 최근의 대북 저자세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斗燮기자 dspark@chosun.com

“北이 우리언론 검열
정부 강력한 대처를”

한나라·자민련·민국당 ‘本紙기자 억류’ 비난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위재단의 위원으로 방임을 방문한 조선일보 사진부 김창종(金昌鍾) 기자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사건의 4일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심규철(沈圭澈) 의원은 예산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북한측이 문제 삼은 내용은 조선일보 1일 자 4면의 ‘김지영 장관 호칭 짓이 남(南) 가족 미숙’이라는 기사 중 ‘미숙’이라는 용어 때문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면서, 이번 사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깨기 위한 트집을 쥐으려는 의도와 ▲우리 언론을 이에 김압하려는 태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규(朴在圭) 총입부 장관은 “우리 측 관계자가 북측의 인방적 주장에 항의하고 ‘우리 측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사실 확인과 사내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임. 북측이 ‘사

과로 빚어 들어왔다’며 입장을 진해한 것”이라며, “11일 주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오경운(吳慶勳)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측이 노골적으로 섹트림과 이지름 쓰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중단시키려는 것 아닌가”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은 “정부는 행이 북측의 신경을 건드리게끔 진전공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국당 김철(金哲) 대변인은 “북적(北赤) 방문단장은 대결완성인데, 남적(南赤) 총재는 도피생환을 하고, 언론의 취재 자유는 위협당하는 등 추대의 연속”이라며 이산가족 사업의 우리 측 고위관계자 전원 교체와 북측 관계자의 분별 요구를 촉구했다.

/차斗燮기자 dspark@chosun.com

북쪽언 대꾸할 기치없어

장충식 총재 귀국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했던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귀국했다.

장 총재는 귀국후 기자회견과 만나 "총재직을 북한에서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두고 있으려고 해서 있을 입장이 아니다"라며 북측의 쪽언에 대해서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장 총재의 거취는 자신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말해 굳이 민투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시흥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北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둘 입장 아니다"

귀국 韓赤 張총재 밝혀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던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대한항공 KE002편으로 입국했다.

장총재는 귀국직후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북한측에서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고 있으려고 해서 있을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총재는 또 일본에 간 이유에 대해 "자리잡 피하는 게 북측 사람들의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중기자 jikim@kmb.co.kr

"北이 그만두라고 그만두나"

韓赤총재 용퇴가능성 일축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앞두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7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장 총재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거취 문제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해 용퇴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장 총재는 일본행에 대해 "니로 인해 심황에 지장이 있거나 걸린 일이 될까봐, 내가 한발 물러서 긴장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2차 상봉이 이뤄진 걸 보면 북도 더 심한 얘기는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민영기자 kwakgjn@sgt.co.kr

중앙일보

"총재職 사퇴 말할 입장 아니다"

장충식 韓赤총재 귀국

이산가족 상봉용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일본으로 출국했던 대한적십자사 장충식(張忠植)총재가 4일 오후 6시15분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장총재는 "이산가족 상봉 무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떠났으며, 정부의 인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총재는 또 "총재직 사퇴 등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시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총재는 이어 "북측에서 ನೀ에 대해 심한 얘기를 해도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대한매일

4차 장관급 회담 올 남북교류 '총결산'

12일부터 평양서 개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시 열리는 4차 장관급 회담은 숨가쁘게 진행됐던 올해 남북관계 진전을 점검하고 새해 이행 사항을 협의하는 '총결산'의 자리다.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방안 등 남북 합의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한다.

특히 합의사항 중 민회소 설치 같은 미실천 사항을 실천하도록 북측에 적극 요구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

다. 또 빠질 것은 꼭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태도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정책실장은 4일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일부 나타났던 국민의 자존심을 거스르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선 4차 회담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기자의 업무시간한적 총재관련 발언 등을 의식한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북측이 급격한 남북관계의 진전으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 조급한 시행을 재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다.

이에 따라 회담에선 연내에 불가능하게 된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적십자회담 개최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실천기로 합의했던 생사확인·서신교환과 면회소 설치 등의 실천 방안도 중점 협의사항이다.

서울·평양 교환촉구대회와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의 상호교환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 방법도 가시화한다.

9월말 제주도 3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이 문 제들을 긍정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검열추진위'의 설치문제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병환 문제도 주요 의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앞선 사전담사 방문성격을 갖는 김 위원장의 방문은 당초 올해 내 실현이 기대됐으나 남북관계 일정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김 위원장의 방문연기에 대해서는 북측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기자 swlee@daily.com

“北이 그만두라고 그만두나”

‘북한 비핵’ 발안에 대한 북한 측의 항의로 인해 제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출국했던 장총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했다.

장총재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요구한다고 자리를 그만두거나 말고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해 당분간 시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장총재는 또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데 대해서도 “내가 남아 있을 경우 50년만의 상봉이 깨질 것 같은 생각이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장총재의 기치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김위아 이렇듯 장총재가 총재로 있는 한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다간 제2, 제3의 장총재가 나올 것”이란 반론도 있었다.

장총재가 이날 시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북 발미로 이산가족 교환방문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

도 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위할 것인가.

“그런 입장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북이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있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 북측이 우리의 인신권에까

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심한 이야기를 해도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다.”

- 일본으로 돌연 출국한 이유는...

“북한방송을 통해 나에 대해

張忠植총재 어제 日서 귀국

50년만의 이산상봉 깨질까 출국

北측 심한 얘기해도 수용할 생각

지 권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북관계는 특수성이 있다. 상대방의 문제점을 가지고 진퇴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용지 않다. 그간의 많은 여러 회담에서 북한이 누가 있고 남한에 누가 있다고 회담을 안한 것은 아니다.”

- 장재연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죄에 죽고 재생하라’는 등 폭언을 했는데...

“집지시외의 인터뷰에서 그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도 심형민의 한사람으로 이곳에 남아 있을 경우 50년만의 상봉이 깨질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 나 한사람이 희생할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 3, 4차 상봉 때도 계속 피할 것인가.

“2차 상봉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뤄진 것을 보면 북측도 더 이상 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까지 심심한



한성규기자

4일 일본에서 귀국한 장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내가 침은 것을 보면 저쪽도 더 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한태원기자>

scoop@donga.com

대한매일

2000. 12. 5 (화)

“北서 내 거취 결정하는것 아니다”

장재연 위원장 폭언 그냥 웃고 넘기겠다

귀국 張忠植총재 문답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일본으로 떠났던 장총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했다. 모 호텔 지하 대강당에서 북한 비핵발언을 해 북측과 갈등을 빚었던 장총재는 기취문제에 대해 “지금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북측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고,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이 문제 삼을 걸 예상했다. 북한이 방청에서 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니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헌장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사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물어가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했다. 자리부터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자의로 나갔다.

●북한이 남측 인신권까지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상대방 문제점 가지고 진퇴를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 회담에서 북측이 누가 있다고 우리가 회담을 안하거나 하지 않았다. 말은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문제로 진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장재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의 폭언은 아는가. 그냥 웃고 넘어갈 거다. 집지 인터뷰가 비위를 기슬러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한 이야기도 수용하고 싶다. 나 한사람 희생할 감수할 수 있다.

●이번 파동으로 끝난 것으로 보나. 두고 봐야 알겠다. 2차 상봉이 이뤄진 것을 보면 더 이상 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전경희기자 lark30@daily.com



지난 29일 일본으로 돌연 출국했던 장총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하고 있다.

●최범규기자 cbk91065@kdaily.com

한적 장총재 '거취' 도마에

日서귀국 사퇴여부 관심
남북관계 미묘 '진퇴양난'
4차 장관급회담서 풀듯

2차 이산가족 방문 기간 일본에 머물렀던 장총재(張忠樞)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함에 따라 향후 거취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총재는 귀국 직후 기자들에게 "총재직 사퇴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며 "하지만 복원이 나올 그만두라고 한다 해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퇴론(勇退論)'을 일축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민간 단체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어느 정도 교감에 있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산가족 방문 행사기간중 장총재가 자리를 비움으로써 남북간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를 바란지만 북측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 갈등의 골이 여전한다는 사실이 드러

난 만큼 장총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귀국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총재 본인은 한때 이산가족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으나 북측이 장총재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 자칫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당과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대북저지세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총재직 유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북측이 이번 2차 방문단 교환을 통해 문제를 정식 제기한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오는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4차 장관급회담에서 최종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당국자는 "4차 장관급회담에서 장총재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등 쟁점 과정에서 북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연스럽게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jikm@kmb.co.kr



'용퇴론' 일축 남북이산가족 상봉 기간중 북측인사들을 피해 일본을 방문했던 장총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동희기자

중앙일보

2000. 12. 5 (화)

"訪北 기자 억류 유감"

신문방송편집인협 성명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발생한 조선일보 사진기자(김창홍) 억류사건과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자유언론에 대한 폭기이자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무례"라고 지적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한겨레

2000. 12. 5 (화)

"이산상봉 지장안주려 출국"

장총재총재 어제 귀국

정부 당국자는 4일 장총재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 단체인 적십자사 총재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장총재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

는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장 총재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장 총재는 이날 저녁 6시45분 김포 공항을 거쳐 귀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있으면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중재하고, 나타나면 서로 어색할 수 있어 일본으로 갔다"며 "내가 이산가족 상봉의 걸림돌이 되면 안되겠다 싶었다"고 해명했다.

전종희기자 symbio@hani.co.kr

"용퇴할 생각 없다"

장총재 韓赤총재 귀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던 장총재(張忠樞)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귀국했다(사진). 장 총재는 김포공항에서 용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에서 그만두려고 해서 그만둘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장 총재가 물러날 경우 북측이 한적 총재 거취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장 총재는 도쿄(東京)에 체류하는 6일 동안 주일 한국대사관 등에 일일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일본적십자사에 들러 후지모리 쇼이치(藤森昭一) 사장과 사담한 동포 귀환 문제 등을 협의했다.

·북측이 우리의 인신권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과 북은 서로 다른 편이 있다. 상대방의 진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김재연(張在彦) 북적 위원장이 폭언을 했는데.

·"갑지(원간 조선 10당호) 인터뷰 기사 거슬러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북에서 심한 말을 해도 수용하고 싶다."



·일본에는 왜 갑자기 갔나.
·"니로 인해 50년만의 이산가족 상봉이 깨질까 염려됐다. 현장을 떠나 있는 것이 북측 마음도 편할 것 같아 지의로 갔다. (북측 방문단을 위한 민선) 현장에 내가 있어서 북측이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면 이산가족들의 충격이 클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 때 계속 자리를 피할 것인가.
·"내가 잠자코 있으면 어느 정도 (북측도) 수그러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측도 더 이상 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직책은 유지하되 2선 후퇴 가능성

귀국 장총식총재 거취관심

世界日報

2000. 12. 5 (화)

북한 지국 방문으로 분위기를 빚어 지난해 2월 동인 일본으로 출국했던 장총식(張忠植) 대한척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함에 따라 장 총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산가족지원의 주무기관인 친척의 책임자로 장 총재의 임명은 직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사퇴한 경우 '대부 지사세리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과 사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장 총재도 이란 유폐 이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총재는 4일 "북한 사람들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고 있으려면 있고 그만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장 총재는 또 앞으로 북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북의 죄송 장총식 대한척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상배기자

사퇴엔 '저자세' 비난 부담 韓赤 "마찰 피하려 일본행"

문제를 계속 풀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장 총재(張忠植) 북한 조선척십자회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장총식 총재는 회에 속고 올바르게 재생해야 할 것"이라며 "장 총재는 재가 오는 날에 임박해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용기가야 정말 대단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총재가 사퇴한 경우 북측이 남측 인사(人) 7명도 퇴직시켜야 하는 비판이 있어 부담 것이라는 점에서 사퇴를 권유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계속 총재직을 수행하고 내복직에 있어서는 이면사람 친민에 기대더라도 조항한 가능성이 높다.

이직을 장 총재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식 박기봉(朴基奉) 사무총장은 "이민에는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총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장관회의에서의 합의 등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전방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인영기자 kwakjin@spl.co.kr

가능성에 대해서는 "2차 심봉이 이뤄진 것을 보면 북도 이번엔 내가 참자고 있으려면 더 심한 얘기는 안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장부 담국자는 아와 관련, "장 총재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환후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기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장 총재는 "환후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기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장 총재는 "환후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기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0. 12. 5 (화)

"北측이 그만두라 해서 관두고 있으라 해서 있을입장 아니다"

장총식 韓赤총재 귀국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일본으로 갑자기 출국했던 장총식(張忠植) 대한척십자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기간 중 일본에 머물렀던 장총식 한적 총재가 4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회견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재영기자

사 총재가 4일 오후 인천공항 002번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장총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북측의 '반감'에 대해 "북측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고 있으라고 해서 있을 입장은 아니다"라며 "(나의) 권위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장총재는 심봉 기간 중 일본에 장재민(張在敏) 조선척십자회 중앙위원장의 비난발언에 대해선 "피자간에 많은 조심해야 한다"며 "북측에 대해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기간 중 일본에 간 데 대해 "북측 사람들과 여러가지 마찰을 빚고 심자 없었다"며 자의로 방일한 것임을 강조했다.

장총재는 북측이 2차 이산상봉을 앞두고 "장총재가 전면에 나서서 일이 있어야 한다"고 남측에 요구했으나 "상봉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일본으로 갔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

매일경제

2000. 12. 5 (화)

"北측과 마찰 빚기 싫어 訪日"

장총식 韓赤총재 회견

도쿄=전호림 특파원

일본류 방문 중인 장총식 대한척십자사 총재는 4일 자신의 갑작스런 방일에 대해 "북한측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일본척십자회를 비공식 방문한 장 총재는 이날 도쿄 특파원들에게 자신의 이번 방일이 자의임을 강조하면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바 없다고 말했다.

장 총재는 후지모리 쇼이치 일본척십자사 사장과 오전 11시부터 점심을 겸한 비공식 간담회를 한 뒤 오후 1시에 나라타공항으로 향했다.

다음은 일본일단 내용.

- 도쿄에 온 것은 자의인가 타의인가.
- 아닌에도 아니고... 내 뜻으로 왔다.
- 예정도 없이 그렇게 급하게 올 필요가 없었다.
- 오고 싶어서였다. 오기 전에 (한척척십자사) 찾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 왜 하필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때를 택했다.
- 북측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다.
- 북한대표단이 장 총재를 비난했다.
- 잘 모르겠다.
- 기회는 어떻게 되나.
- 자세히 들은 것이 없어 잘 모르겠다.

“訪北기자 억류사건 유감

정부 재발방지책 마련을”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성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남중구·南仲九)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 취재단의 위원으로 평양을 방문했

던 조선일보 김창종(金昌鍾) 기자가 북한측에 의해 3시간이나 억류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편집인협회는 “북한이 김 기자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시피를 요구하고 취재사진을 대부분 삭제한 것은 자유인론에 대한 폭기”라고 지적했다.

<허엽기자>

heo@donga.com

남북자 송환운동 ‘가속도’

가족協등 국제앰네스티에 진상조사 요청 유엔인권위에 北제소등 ‘압력’ 강화 나서

지난 87년 남북된 동진호 김판장 강희근씨(49)와 어머니 김삼례씨(73)의 극적 상봉 이후 남북자 가족들의 남북자 송환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남북자가족협의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4일 일본의 남북자송환운동 단체인 ‘피랍자구출운동’과 함께 한-일 남북자들의 생사 및 근황 확인을 위해 이달 중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 남북자들의 명단과 사건 경위서를 보내 진상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강씨가 남북당시 동진호의 선장과 항해사가 간첩으로 판명됐다고 말함에 따라 이들의 현재 근황에 대한 명확한 북측의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남북자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남북자-국군포로 송환특위의 함께 북한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우영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는 공식확인된 10여명의 남북자를 포함해 60여명에 이르는 남북추정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송환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제인권단체들과도 연대해 국제적인 송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자 가족모임도 오는 8일과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남북자 송환추구 집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단체대표 최성룡씨(50)는 “남북자문제들 단순히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남북자가 아니라 월북자라는 북한의 입장만 인정하는 꼴”이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단절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자 송환을 공식의제로 채택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수기자 nomad@kmb.co.kr

국정원 홈페이지 남북소식 ‘감감’

자료 제때 교체 안해 사망 이선실 버젓이 ‘생존’ 이산상봉도 “개최 예정”

지난달 3일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1992년 10월 발각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한 거물간첩 이선실의 사망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인터넷 홈페이지(nis.go.kr)에는 이선실이 여전히 ‘생존 인물’로 관리되고 있다.

국정원 인터넷의 북한관련 정보가 부실 무성인 데다 최신자료로 교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아 지난 10월 대장으로 승진한 북한군 작전국장 이명수는 ‘상장(上將)’으로 기록돼 있다.

또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의 10기 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된 사회안전성(경찰)이 이곳에는 아직도 예전 이름으로 나온다. ‘올들어 두 차례나 치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국정원 인터넷은 ‘6월 적십자 회담에서 8·15방문에 합의한 상태’라고만 밝히고 있다. 특히 ‘대남도

국정원 인터넷의 잘못된 북한정보

북한인구	각국 소기간 22만(북3)만명, 인구코너는 22만(北)만명으로 차이
이선실	생년 4월이전 평명명, 사회안전성(경찰)으로
인물	이선실 등 사망자 ‘생존인물’로 관리, 진급·직책이동 등 자료 보완 미흡
이산상봉	사상(1999년 6월) 등 관련 정보 부실
이산가족	8·15 등 두차례 상봉사실 언급미흡
대외관계	북한 군대통령(남북7월)·조선로동당(10월) 등

발’ 코너는 98년 12월 여수 앞바다 반잠수점 침투사건을 끝으로 북측이 대남 군사도발을 중단한 것으로 돼있고, 지난해 6월 서해교전(交戰)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북한의 대외관계 부문도 자료보완이 되지 않아 10월 조명록(趙明勅)특사의 워싱턴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빠져 있다.

‘앞서가는 국가정보, 새 천년의 희망’이란 모토 아래 99년 1월 22일 개칭한 국정원 사이트는 4일 현재 1백84만 4천여건의 접속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北서 그만두란다고 사퇴하지는 않을것”

張忠植총재 귀국

이산가족 2차 교환방문 행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일본으로 돌연 출국했던 장중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4일 오후 귀국,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의 사퇴주장에 대해 “북에서 그만 두려면 두고, 하려면 합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방송을 통해 비난발언이 나왔고, 이산상봉에 지장이 될까봐 스스로 결정했다”며 ‘외압설’에 대해서는 “내가 어린 애도 아닌데”라며 부인했다.

한편 정부·당국자는 장 총재 귀위와 관련,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언급하기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尹楨漢기자 jhyoon@chdsun.com

“부모·형제 벌써 눈앞에 아른 아무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 이산가족 상봉 후유증

50년만에 협육을 만난 2차 상봉가족들은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떠나보낸 부모형제가 눈앞에 아른거려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등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산가족들과 전문가들은 1차 상봉때에도 나타났던 이같은 후유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단발적인 만남이 아닌 면회소 설치, 서신교류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녘의 오빠 권대성씨(88)를 만난 남녘의 누이 태은씨(85·여)는 “오빠를 본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으나 막상 만나고 나니 모든 사람이 다 오빠 얼굴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은씨는 오빠를 만난 뒤 중풍이 더 심해졌다.

북녘의 조카 조성영씨(65)를 만난 고모 조성교씨(86·여)는 “언제 다시 볼지 기약도 없이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걱정만 앞산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카의 북쪽 주소첩 적어놓긴 했지만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석씨(78)는 북녘의 동생 득씨(69)를 만난 뒤 “마치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주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더이상 바랄 게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동생 성두원씨(70)를 만난 남녘의 누나 금원씨(76·여)는 “무사히 잘 갔는지, 고생스럽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 시간이 갈수록 심란하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서신교환·면회소 설치등

근본적 대책만이 해결책

신경과전문의 김정일씨(43)는 “1년 동안 기다리며 가슴속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던 대상을 막상 만나게 되자 심을 지탱해 주던 힘을 잃게 되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은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만남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면회소 설치와 편지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1,000만 이산가족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 박복심 이송하기자 youngtan@kdaily.com

한겨레

2000. 12. 5 (화)

상봉 ‘옥에 티’ ‘속도조절’ 부담 방어적 돌출행동...정부 “포괄 문제제기”

북 얼굴 붉힌 이유 뭘까

이산가족 2차 교환방문을 전후해 밝혀진 몇가지 ‘돌출행동’이 앞으로 남북의 이산가족 관련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선 유사한 ‘돌출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 내부의 조정과 함께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한 월간지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북쪽의 문제제기다. 이로 인해 2차 교환방문이 휘청거리기도 했으며 2차 교환방문 과정에서 북쪽은 잇따른 ‘돌출행동’을 보였다. 예컨대 방남단이 <새기어 더불어> <김일성 주석 자전적 회고록> <김정일 노적> 등 이념적 성향이 강한 출판물을 남쪽 가족에게 선물한 것이 그렇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나, 체제비판적인 발언·선물은 삼간다’는 남북의 합의정신에 어긋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또 장재연 방남단 대표단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장충식 총재의) 그 풀꽃이야말로 가련하다”며, 사실상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평양에서도 북쪽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남북 연락관 접촉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양 공동취재단의 일원이었던 <조선일보> 사진기자에게 ‘공식시과’를 요구해 방북단의 평양 출발이 4시간 남짓 지연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4차 장관급 회담(12~15일 예정)’에서 3차 교환방문과 생사확인·서신교환, 3차 적십자 회담 등 이산가족 관련 일정도 전반적으로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2차 교환방문과 관

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안별로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일련 정치공세로 보이는 북쪽의 돌출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공세라기보다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부담감이 낳은 방어적 행동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은 남북관계 유지·발전을 보증하는 핵심적 측면”이라며 “북쪽으로선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속도 조절의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nomad@hani.co.kr

‘상봉 증후군’ 심각

‘짧은 만남-다시 이별’ 고령자들 후유증 호소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 50년 만의 협육상봉 행사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경작 짧은 순간의 만남과 재(再)이별은 당시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겨주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봉보다는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산가족 자신과 그 주변의 정신스런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8·15 1차 상봉 이후 한 노인은 갑자기 차매를 잃기 시작해 가족들이 적십자병원에 “제발 살려달라”며 하소연해 오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정신적 충격에 지병 악화
불면증·우울증 겪기도
가족의 각별한 배려 필요**



2차 이산가족 상봉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간 적십자병원 의사 이수진씨가 심장이 약한 박정운(89)할아버지를 진찰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상봉 이후 적십자병원측이 상봉가족 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부는 건강상태가 호전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불면증·정신적 상실감 등 ‘상봉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유형의 병인 셈이다.

1·2차 상봉의 평양방문단 진료를 담당했던 적십자병원의 이수진(李珠眞·38) 심장내과 과장은 “상봉을 마친 고령 이산가족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는 허탈감·상실감이 시달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세대 의대 전우택(全宇澤·39·장신

과)교수는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가족들을 만난 뒤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재현되면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애도반응(哀悼反應·mourning process)’이 반복되는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마치 상봉했던 장면이 ‘뚝속의 장면’처럼 기억되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1~2년 뒤에는 가성 차매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상봉 당시자는 물론 가족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추과장은 “양측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자녀·직업 등 많은 성취를 이뤄냈다는 긍정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소교수는 이와 함께 “가족을 못 만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얼굴이나 보게 돼 기쁜 일이었다는 점을 주변에서 강조, 지적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평양을 찾았던 남측 이산가족 1백명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변비·설사·호흡곤란 등 각종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다. 채훈묵(81)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를 10바늘이나 꿰매는 증상을 입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적 충격에 수반되게 마련인 고혈압·당뇨·천식·심장병 등의 질병악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世界日報

2000. 12. 5 (화)

“남북자-국군포로도 이산가족 포함”

朴炳일 “상봉 계속추진”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4일 “남북지와 국군포로 가족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원칙하에 이들 가족을 지닌주 방북한 이산가족 상담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 남북을 통해 이같이 밀하고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이 원칙에 따라 남북지와 국군포로의 가족을 방북단에 포함시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8법구기자 hbk1004@sgl.co.kr

사 설 · 칼 럼

이산상봉과 한적총재의 출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두번째로 실현되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고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세기 만에 협육을 다시 만나게 된 이산가족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특히 이번 상봉은 추진과정에서 일정이 몇차례 흔들리고, 장종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공간지 인터뷰 내용을 둘러싼 북측의 취소위협 등 가슴 졸이는 진통 끝에 실현돼 여러가지 점들을 일깨워 준다. 결과적으로 북측이 아직은 이 사업을 진흥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것이어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당초 우리의 기대수준에 못미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증대시켰다.

특히 지난 9월 우리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후 양측이 진전시키기로 했던 면허소 설치문제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시범사업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북측의 '속도조절'이 이산가족 문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결과이고 앞으로도 철저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추진하려 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은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懷疑)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이 정례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상봉사업이 평화정착과 통일외의 기초가 될 것이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그두 최대한의 조심성과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한다. 한적 총재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그런 점에서 교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종재의 발언이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상봉사업의 책임자로서 조심스럽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북측의 반응 역시 상봉사업을 '정치적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었고 소리 안나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를 상봉사업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몰고간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2차 상봉을 하루 앞두고 일본으로 쫓겨가듯 출국하는 장종재의 모습은 우리를 낙담시켰다. 그가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측의 장종재 주체 만찬 참석 거부와 사가 정부로 하여금 그의 출국을 강요해왔건, 스스로 출국했건 이는 적십자 정신, 그리고 적십자회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장종재가 스스로 물러나기 어렵다면 한적이 나서서 그의 퇴진문제에 대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

한국일보 2000. 12. 1 (금)

社說

한적 총재의 돌연한 외유

이산가족 교환방문 사업을 주관해야 할 장종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갑작스런 출국은 한마디로 불쌍하다. 북한측 2차 방문단 서울도착을 하루 앞둔 29일 저녁 꼭 무었에 쫓기듯 허둥지둥 일본으로 탈러가는 장 총재의 모습은 아무리 신의로 받아들이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북측 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주최한다고 일찌기까지 밝혀지 않았던가. 저녁 출국장에서 "원래 출국은 예정됐던 일"이라고 둘러대는 그의 변명을 믿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번 장 총재의 돌연한 출국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측에게는 공격의 좋은 빌미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진전에 걸림돌을 실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이 보인다.

장 총재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곤경에 처한 점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장 총재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상봉'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장 총재 자신도 자신의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 북측에 사과표명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이와 결부시키려 하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

우리는 장 총재가 '상봉'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적총재라면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본행 등의 일시적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장 총재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인사가 반사'라는 경구말 새삼 되짚어 보게 된다.

사설

이산의恨 모두 풀자면

본단 반세기 동안 '이산의 한'을 품고 살아온 남북 이산가족 200명이 어제 꿈에 그리던 월육과 만났다. 100세나 된 남쪽의 어머니는 가슴속에 흥안의 청년으로 묻어두었던 북녘의 늙은 아들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이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풀어놓은, 하나같이 안타깝고 기막힌 가족사는 다시 은겨레의 가슴을 적셨다. 우리는 지난 8·15에 이어 두번째로 성사된 이번 2차 방문단 교환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데 안도한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정례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1차 방문단 교환 때만 해도 한차례 일과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열거는 1차 때에 비해 아무래도 못하듯 하지만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감격이야 매한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이나 정치적 잡음의 소지를 줄여 상봉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끼 만찬 비용에만 1억5백만원이 들었던 지난 8·15 서울 상봉 때의 전례가 되풀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나아가 장충식(張忠植) 한적 총재의 일간지 인터뷰와 같이 공연히 남북간 분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측이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는 바람에 장충재가 이번 상봉기간 중 해외출장을 떠나는 어색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하는 개기다.

상봉단 교환방식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행사에 드는 전체 비용을 1차 때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누차 지적한 것처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육로 방문 대신 굳이 서해 직항로를 선택한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평양 순안공항의 좁은 안개로 상봉단을 태운 비행기 출발이 4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지 않았는가.

앞으로 긴 환영행사 등 허례는 줄이고 가족들간 만남은 자연스럽게 밀도있게 하는 방

향으로 행사 방식을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 3차 때부터는 호텔 상봉 방식 보다는 고향방문을 하거나 상봉 가족을 동숙(同宿)하게 하는 등 한층 인도적인 방식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를 구축할 때라고 본다. 상호 방문을 통한 사법적 상봉은 그것대로 규모와 횟수를 늘려야 하겠지만 우편물 교환소와 상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남북이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쪽에 사는 이산1세대만 해도 123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이 단 한번이라도 북쪽의 피붙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100명씩 상봉시키더라도 천년이 걸린다. 북측은 상설 면회소라는 이산가족들을 위한 '민남의 오작교'를 놓는 데 적극성을 보이기를 바란다.

한겨레

사설

불쌍사나운 장 총재 일본행

이산가족 북쪽 방문단이 서울에 오기 전날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급히 일본으로 떠났다. 예정됐던 행사라고 둘러대지만, 한 월간지 인터뷰 내용문제로 북쪽에서 장 총재를 꺼리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불쌍사나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본인이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너그럽이 보아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정부가 북쪽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우리는 모양새가 이리 되도록 엉성하게 일을 추진한 정부와 적십자사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이 고약하게 꼬인 속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흐름을 보면 능히 짐작할 만하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사태를 봉합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크게 그르친 게 아닌가 싶다. 여러 상황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하지 않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북쪽 반발이 예상보다 크자 허겁지겁 최소한의 체면조차 내던진 꼴이 됐다. 북쪽 반발로 불미스러운 일이 우려된다면 환영만찬 주최 기관을 바꾸는 방안도 있었을 것 아

닌가. 일을 담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편법을 쓰니 북쪽에도 우습게 보이고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것이다.

북쪽의 거친 태도도 문제다. 장 총재 발언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그 문제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민족적 사업에 지장을 주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남쪽의 복잡한 사정을 뻔히 알 텐데도 약점이라도 잡은 듯 궁지로 모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속좁은 태도 때문에 가능한 한 북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북쪽을 비난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북쪽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로 미적거리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불신을 받으면 대북정책의 힘이 떨어진다. 앞으로 3차 이산가족 만남도 있고 편지교환이나 면회소 설치 등 풀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社說

張총재의 구차한 출국

제2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9일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장총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총재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주관해야 할 적십자사총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구차한 모습으로 서둘러 자리를 비워야 했는가.

본관은 북측이 장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문제삼아 시비할 건 것은 정당치 못하며, 또 유감서함을 북측에 보내놓고도 국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며 숱간 장총재 본인이나 관계당국의 태도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남북한이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런 논란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장총재가 이산가족 상봉단 전면에 나설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의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았고 급기야는 장총재가 이산가족을 위한 만찬을 주최한다면 자기들은 불참하겠다는 뜻까지 진했다고 한다. 북측의 이같은 '홍보'에 비탈 수 없어 결국 장총재가 갑작스럽게 출국한 모양이다.

장총재의 출국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상봉이라는 '민족적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한직(韓赤)측은 장총재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내에 없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주관하는 한직의 총재가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걸립돌이 되어 외국에 쫓기듯 나가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총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자세다. 장총재의 지난번 유감서한 전달이나 이번 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부는 우리의 체통이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고 미묘하다 해도 합당한 재대로 해야 한다.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체통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관계도 제대로 진전될 것이다.

社說

3流 코미디 '張총재 출국'

2차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두고 장총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출국하게 된 것은 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라는 게 한직(韓赤)측의 설명이다. 북한측이 장 총재의 월간지 인터뷰 내용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일본측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자신이 총재로 있는 것이 '이산상봉'에 차질을 준다면 당연히 총재직을 그만두는 것이 이치에 맞지, 일시적으로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직측의 그러한 설명은 궁색한 변명이자 궤변일 뿐이다. 한직 관계자들은 장 총재가 출국한 29일 오전까지만 해도 '30일 만찬 주최자는 장 총재'이며 북한의 위협에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행이 결정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예정된 것이라 했지만 장 총재는 일본에 가기도 일본측 적십자 관계자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주일 한국

대사관이 그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의 저질 코미디도 이 정도 수준은 넘을 것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이 "장 총재는 현장에 일선도 하지 말라"며 협박해왔고, 장 총재의 월간지 인터뷰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았을 때 관계당국이 몰래 사과성 밀서(密書)를 보냈던 전례로 보아 장 총재의 이번, 돌연출국도 '본인의 판단'이기보다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북한의 협박에 정부가 '헐여나 미움살까' 하라는 대로 응한 것이며 "대한민국 적십자사 총재직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산상봉과 대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이처럼 나라와 국민의 최소한의 체통과 원칙까지 내동댕이쳐가면서 '구걸'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장 총재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비굴함과 짚수는 역겨울 정도다.

사설

張忠植 총재는 왜 일본 갔나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북측 상봉단을 김포공항에서 맞이한 것은 적십자사 '부총재'였다. 장충식(張忠植)총재가 돌연 일본으로 떠나고 없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측은 "張총재가 서울을 비우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치러질까 봐 배려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張총재의 일본행은 북측이 그동안 張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사과와 교체를 요구하고, 심지어 그가 서울에 머물러 있는 한 2차 상봉을 인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치러지고 또 상봉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함을 거듭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이런 인도적 행사를 인질 삼아 남측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교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런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총재를 일본으로 떠나

보내는 것으로 대응하는 정부측의 끌러가는 저 자세에 대해 할 말을 잃는다. 그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성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의 선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이것이 주권을 가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張총재의 인터뷰 내용이 우리측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를 교체해 남북간에 화기(和氣)를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라 북측측 요구에 오해가 있었다면 설령 이산가족 상봉이 늦춰지더라도 북측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또 張총재의 출국이 아당측 주장대로 반강제적 피신이라면 누가 그런 조치를 취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합리하게 규명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포용도가 지나쳐 규인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저 자세로 일관하거나 무리

한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대북정책의 선후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최근 우리의 대북정책은 표면에서 교섭하거나 행사를 치르는 일은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 등이 맡고 사실상 뒤에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막후협상 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국정원이 전담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도 이런 창구 이원화 때문에 발생했다면 차제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하며 대북정책의 체계를 조정해야만 한다. 張총재의 '도피상' 출국을 두고 "다른 곳에서 요청이 없었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속이 편히 들여다 보이는 해명으로만 일관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런 식의 이산가족 상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할 것까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측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사설

장충식총재 출국 유감

제2차 이산가족 상봉과 때를 맞춰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돌연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정된' 일본 방문이라는 게 한적과 장총재 자신의 설명이지만 누가 봐도 '자리 피해주기'라는 혐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주체가 한적인 만큼 이는 마치 손님맞이를 해야 할 집주인이 손님에 트집을 못이겨 집을 비우고 주인 없이 잔치가 열리는 형국이다. 이 무슨 꼴사나운 모습인가.

우리는 먼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포용'이라는 명분 아래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어붙이기와 휘둘러온 결과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닌가. 물론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한 그것이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인도주의적 현안임은

틀림없다. 국민적 여망도 크다.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그렇게 북한의 의도대로만 진행된다면 남측 소망대로 면회소 설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일상화는 대체 언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과연 이뤄지거나 할 것인가.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나 우리 국민에 대해 담당한 자세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모든 일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리거나 무조건 국민의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 엄격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예기다. 장총재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의 장총재 배제 요구와는 별개로 장총재가 파문을 초래함으로써 우리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경질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물레 '사과문'을 북한에 보낸다거나 '자리 피해주기'같은, 북한의 '한심'도 시고 국민의 비판도 무마하려는 엄거주축한 자세로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남북관계 진전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거나 시간이 더 걸린다해도 당당한 정부의 자세야말로 확실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상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장총재는 어떤 선택이 됐든 담당하게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북한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잉반응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본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사소한 시냇거리는 언제든 볼거릴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이 민족의 운명을 결지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묶는다면 상생의 남북관계는 요원할 뿐이다.

사설

이산 상봉, '행사'에서 내실로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의 일방적인 일정 지연과 장총석 대한 직접자사 총재의 발언을 발미로 한 상봉사업 재검토 위협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고 보면 장총재의 '자리 피해주기' 식 출국 같은 뜬소문 모습으로나마 2차 상봉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로써 '단발성'이라는 우려에서는 벗어났다고 해도 '행사'의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은 미한 것이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떠돌이 행사가 아니라 차분한 일상의 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상봉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이 속출했다. 1차 상봉에 비해 관심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

한 '인간 드라마'가 펼쳐졌다. 국민적, 나아가 민족적 행사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봉은, 이산가족 직접 경험한 1세대만 100만 명이 넘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 만명을 헤아리는 이산가족 중에서 몇 백명만 선택된 데 불과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과시용 행사'로 진행되는 한 그 많은 사람이 언제 가족과 만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로서의 상봉이 아니라 누구든 언제든 '일상적으로'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면회소 설치 등 통한 상봉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의 태도변화가 관건이다. 당초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해왔으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인도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차 상봉 이후 다시 주춤

거리고 있다. 특히 면회소 설치는 장기주의 북한 송한 측시 직접자사총재에 시 화정짓기로 해놓고 감감 무소식이 다. 북한이 진정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공동선언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체없이 면회소 설치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합의된 3차 상봉을 포함해 면회소가 설치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돼야 할 '행사성' 상봉 역시 행사 자체보다 상봉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내실로 치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태만 너무 축박한 상봉 일정을 늘린다든지 반을 같이 보내게 한다든지 지정 상봉장소가 아닌 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상봉하는 것은 물론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은 무엇보다 이산가족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社說

또한번의 감격과 아픔

남북의 이산가족 200명이 지난 8월에 이어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빈세기만에 그리던 혈육들을 만나고 오늘 돌아간다. 이산상봉에 보내는 관심과 열기는 1차 상봉때만 못했지만 이산가족들마다 간직한 눈물어린 생이별의 시연, 그리고 바로 그 시연만큼의 감격스런 재회 광경은 다시한번 운거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100세의 남쪽 어머니를 한눈에 알아본 7순 아이들의 눈물, 50년만에 재회한 부부의 인타까운 정한(情恨). 그리던 오빠가 차매로 상봉장에 나타나지 못하자 발을 구르며 애태우는 누이동생의 모습 등은 우리에게 체재와 이념이 기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뼈아프게 되풀이했다. 북의 아들을 잊지 못해 백발(白髮)을 잘라 만든 붓으로 쓴 "떨리는 손에 다가 붓을 드나..."로 시작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지, 북한의 형과 들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남한의 동생이 필담(筆談)으로 장유 나누는 정경은 얼마나 많은 국민의 가슴을

지미게 했는가. 그러나 오늘 남과 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지나간 헤어짐의 아픔이 시작된다. 50년만의 재회가 감격적이었던 만큼 이들에게 또한번의 이산은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과 북의 당국은 2차 가족상봉이 실현된 이상 이산사업에 대해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산상봉을 시혜적인 행사가 아니라 상사화생활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면회소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 면회소는 이미 오래 전에 비전향장기수 북송직후 남북이 합의해 '확장'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만일 면회소 설치를 여러 시정으로 쉽게 성사시킬 수 없다면 상봉의 간격을 좁혀 최소한 매달 한번씩 이뤄지게 하거나, 대상을 넓혀 수백명 단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2차 상봉의 간격이 3개월이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이 넘는 상봉희망자의 한(恨)을 푸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산상봉사업에

대한 북한의 발상진화와 태도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한 2차 상봉이 한달 늦게 성사된 것도 아쉽지만 2차 이후의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것은 더 큰 문제다. 3차 이산상봉과 면회소설치등 논의하기 위한 남북직접자사총재가 이달 13일 예고되어 있지만 지난달말에 열렸어야 할 장관급회담을 이때로 연기함으로써 연내 이산논의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 더구나 장총석(張忠植) 한 직총재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이산상봉 사업의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해 결국 장 총재가 이산상봉의 현장에 나타나지도 못한 채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참으로 유감이다. 정정당당한 대처만이 북한의 과잉 요구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는 점을 우리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社說

북측의 무례한 언행

제2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또다시 가슴 벅찬 감동과 안타까움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번과 같은 1회성 행사로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여기에는 2박3일의 상봉과정에서 북측이 보여준 언행은 '상봉행사'가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우선 북측은 제1차상봉 때보다 더욱 '정치적 선전'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상봉장면을 보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측 이산가족들의 칭송과 체제선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서울에 온 북측 이산가족들은 남한 가족들에게 '김정일노작'과 '3대장군 위인상' 등 각종 선전용 책자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북측의 그같은 태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산가족문제에 정치성이 개입되면 만남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 당국도 일찌감치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합의까지 해 놓은 것이다.

북측이 남한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취한 태도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북측은 '장군님 민세' 요구에 남측 사람들이 '머쓱했다'는 조선일보 인터넷기사를 문제삼아 조선일보의 사죄를 요구하며 평양에 파견된

사진기자를 사실상 연금하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남북한 방문단의 귀환일정이 수시간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한마디로, 사실을 보도한 그 기사를 문제삼은 북측의 저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계속해 나갈 뜻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북측 이산가족방문단장인 장재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의 장충식(張忠植) 한적총재 비하 발언도 도를 넘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듣기가 곤란하다. 장충재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산가족을 인솔하고 내려 온 장위원장이 "장충재의 몸풀이 가련하다" "장충재는 죄여 죽고 올바르게 재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무례하고 오만하다.

이같은 북측의 행태에 대해 우리측은 변변한 항의 한번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북측의 원칙과 합의를 벗어난 언행에 대해 무조건 쉬쉬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전될 리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측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의 눈치만 살핀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없다.

한겨레

사설

남북자 가족의 '이산 상봉'

1987년 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된 동진호 김관장 강희근씨가 2차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어머니 김삼례씨와 만난 것으로 뒤늦게 보도됐다. 강씨는 북측에서 재혼했으며 아내 자식과 함께 어머니를 상봉했다. 강씨는 이 자리에서 남북을 부인하면서 "공화국에 들어와 무상으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하는 곳에 영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씨 모자의 만남을 지켜본 국민들이나 다른 남북자 가족들의 심사는 착잡할 것이다. 생사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상봉이 이루어진 것만도 한 걸음 진전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들의 복한 '정착'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상반된 느낌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남북어부와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간에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들의 송환을 주장해온 남측과, 납북된 민간인이나 강제로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없다는 북측의 주장이 맞서 왔다.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비전향 장기수 복송이 이루어진 뒤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조용히 해결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김삼례 할머니 방북이 이루어져 아들 강씨를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들 모자의 만남이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를 푸는 물꼬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떻게 헤어졌든 남과 북의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인도적 대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이들의 처지를 해석하는 남북의 견해가 맞서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거나 서둘러 다른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나친 요구가 상봉 기회마저 막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남북문제를 총체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社說

남북자의 첫 가족 상봉

13년 전 서해상에서 납북된 동진호 갑판장 김희근씨가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쪽의 어머니와 해후함으로써 마침내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리라는 희망을 낳고 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없다'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에 막혀 있었던 남북자 가족 상봉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성사된 것은 제2.3의 유사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론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본인의 자유의사 확인과 그에 따른 가족 재결합이다. 대부분 이산가족이 월북과 월남이라는 자의적 선택에 의한 이산인 반면 국군포로와 남북자는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귀환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다. 다만 국군포로-남북자 문제는 여전히 이념-논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미묘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인도적 해결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일용 합리적이다.

'납북자나, 월북자나' '국군포로나, 귀순자나'라는 논란에 갇힌 이들의 생사확인과 상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얼마안한 비극인가. 우리 당국이 북한 입장을 고려해 이산가족 차원에서 국군포로-남북자 문제에 접근한 결과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이런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북한 체

재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자 가족상봉을 우선한 태도 역시 남북관계의 진척을 위한 성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희근씨의 경우에서 우리는 본단이 상징하는 비극의 심연을 거듭 확인하면서 칙칙한 심경을 어쩔 수 없다. 남한에 두 자녀를 둔 채 납북된 강씨는 북한 기자들이 물려둘지 "스스로 북한에 닦을 내렸고 동진호의 납북은 허위된 날조이자 거짓"이라고 '자진월북'을 주장했다고 한다. '납북은 날조'라는 강씨의 주장을 전해들은 남한의 이들과 법은 오염을 참지 못하고 말았다는 보도다. 강씨 가족의 비극적인 생이별에 연민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1만90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351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휴전 이후 납북자는 모두 487명이고 상당수가 살아있다고 한다. 북한의 태도로 봐 이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송환될 기미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번의 상봉을 계기로 이들에게도 남한가족들과의 상봉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송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가 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이상 남쪽에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역시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들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은 기본이다.

중앙일보

사설

남북자 상봉과 정치쇼

동진호가 납북된 지 13년 만에 당시 갑판장이었던 아들이 남쪽에서 간 어머니를 평양에서 만났다. 갑판장 아들은 북측 기자회견에서 '납치는 날조'라며 "우리는 38선을 넘어 (북한)경비함에 단속됐다"며 "공화국에 들어와 무상으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하는 곳에 영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남북자 가족의 최초 만남이라 할 이번 상봉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접근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는 단초로 만들었다. 지금껏 동진호는 '납북'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 입장을 북측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12명 남북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납치는 남측의 날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 만남이 정치적 공세로 바뀌는 질적 변화다. 이런 상봉을 남측 대표단이 알고도 수락했다면 이는 상봉장 자체를 북의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데 기여한 셈이 된다.

갑판장 주장대로 동진호가 납치 아닌 '의거 월북'이었다면 왜 당시 북측은 간단한 조사만 끝내고 선

원 전원을 남쪽으로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남측에 통보했는가. 또 뒤이은 김민철씨 가족의 남한 망명 후 동진호 선원과의 맞교환을 왜 우리측에 제안했던 것인가. 또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북측에서 결혼한 아내와 자식까지 동원해 북측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정치쇼로 만들어가는 이 장면을 두고 이산가족의 한을 풀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자는 전쟁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전쟁 후 북한 합정과 남과공작원에 의한 납북자가 아직도 4백80여명에 가깝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남북자 가족들은 오늘도 눈물로 정부에 탄원서를 올리고 있다. 남북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들의 송환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기본책무다. 북측에 비전향 장기수들 돌려주듯 별도의 협상을 통해 이들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납북자의 의거월북에 동조하는 정치선전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대북정책인가 하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2차상봉'의 문제점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북측이 1차 때 보다 정치선전을 하거나 트집을 잡는 일이 많았다. 북의 가족들은 서울이나 평양 가릴 것 없이 남한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개 '장군님 은덕'을 들먹였으며 만찬이나 환영 행사에서도 판에 박은 '통일 선전'이나 '체제 자랑'을 늘어놓았다.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남한에서 올라간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 느닷없이 '김정일 장군 만세 삼창'을 불러 분위기를 검색되기도 했으며,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아 평양에 간 본사 사진기자들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3시간 동안 꿀탕을 먹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서울로 온 이산가족들과 적십자회 관계자들은 정치선전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비를 거는 일이 많아 남측 가족과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북의 장재인 단장은 대수류잡은 일을 트집잡아 통일부장관 만찬에 1시간30분 동안 늦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민속관 관람 도중 100m 거리도 못갈겠다고 버스 승차할 요구하는 등 사소한 문제까지 걸고 넘어졌다. 심지어 북측 단장은 북으로 귀환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충식 한적(韓赤)총재의 갑작스러운 일본행에 대해 "뺨뺨이 가련하다"는 막말까지 했다. 장 총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문제를 두고 북측 단장이 것처럼 오만불손하게 치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2차 상봉에서 '이산의 한'을 풀겠다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정치선전을 하려는 이유를 우리로선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계속할 생각이 없어 깨기는 깨야겠는데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추론이 유력할 뿐이다. 북측이 서울에 온 이산가족들에게 행사 후 '단체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객실에 들어가자 진 북도에서 별도교육을 시킬 정도로 다잡는 것으로 봐야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단발성 행사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북한이 이번에 보인 계획적인 행동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냉철히 분석해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흐르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방문 등 제도화가 관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남측에 문제가 있다'며 이산상봉의 판을 깔 가능성에 유의해야겠다.

경향신문

사설

이산상봉 정치색 벗겨야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재회의 기쁨에 이어 또다시 생이별의 눈물 속에서 끝났다. 이번 상봉 역시 순변이, 안되어 혈육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프게 했다. 한정된 인원과 시간, 제한된 만남의 공간 등은 이산 50년의 한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재삼 다져야 한다.

이번 2차 상봉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건들은 이 사업이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발언을 둘러싼 갈등, 남북어부 동진호 김관장 강회근씨의 모친 상봉 모습, 그리고 취재기자 일시 감금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러

한 사건들은 북측이 이산상봉 사업을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남북어부인 감씨의 모친 상봉은 남북이 그동안 의견차를 보여온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현심적으로 해결하는 돌파구를 열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측은 상봉 도중 중앙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씨가 피랍된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했음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오히려 상봉을 허용한 북측의 선의(善意)마저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라는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측 입장을 감안해 그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상봉이라도 성사시키

려 해왔다. 그럼에도 북측은 감씨 모친 상봉을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것이다.

취재기자의 일시 억류도 마찬가지다. "장군님 만세를 부르자"는 제의에 남측 가족들이 머쓱해 했다는 공동취재기자단의 보도내용에 대해 북측이 "장군님의 위용을 낮춰 보였다"며 문제삼은 일은 정치적 시각에서 상봉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은 양측의 재채물인 정치는 전제야래 이뤄지고 있다. 모두가 할 말이 있어도 민족 차원의 당위적 사업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고 가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까지 정치적 색채를 가미하면 사업 자체는 물론 남북대화 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북측 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사설

북한의 안하무인, 지나치다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진후해 남한 내 이른바 대북 보수층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아니 보수층만이 아니다. 일반 여론도 대체로 북한에 부정적이다. 그럴 만도 하다. 북한의 행태가 이미 '포용'의 범주를 넘어섰다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지름 내세운 정치적 공세, 대한직접자사 총재를 거명한 북측 이산가족방문단장의 오만복손한 발언, 남한 기자 '김금' 등을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못 의심을 갖게 한다. 남북 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한반도의 대체로 자리잡은 회해와 협력 기초를 깔 의도가 아니라면 북한은 그래서 안된다.

사실 북한은 벌써부터 남한 국민을 자극할 만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일정을 연기하고 그에 따라 합의된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남측 인사들의 발언을 트집잡아 '위협'을 가하는 등 거의 안하무인 기으로 남한을 대해왔다. 남한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하나씩 협의해나가는 게 아니라 심하게 밀해 무조건 고개 숙이고 북한을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남한 사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더 나아가 단언히 정치색이 배제돼야 할 이산상봉장을 '정치적 무대'로 만들고 공식 발언으로 한직 총재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기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남한 기자를 사실상 긴급한 상태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현재의 '판'을 깨뜨려 남한을 자극해 그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북한을 책망하기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려 애쓰던 사람들이 저들을 돌리게 하는 처사 아닌가. 회해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북한은 생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생각해 할 것이 있다. 북한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누가 부추겼느냐 하는 점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포함해 남한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에 대해 제대로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아니 항변은커녕 미리 앞서서 북한의 미워맞추기에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일체 피문이라는 가 한직 총재 명의의 '사과문' 비밀 전달이 그에 아닌가. 결국 정부의 한 대 북정책이 북한의 '잘못된 비릇'을 키운 셈이다. 물론 우산은 북한을 달래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민적 반발이 초래된다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世界日報

2000. 12. 5 (화)

社說

북한은 '誤判'하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은 당초 11월중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다. 2차 상봉이 이뤄진 기간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한 3차 이산상봉이 이뤄졌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차 이산상봉을 내년봄으로 연기할 것을 사실상 '홍보'해 왔다. 동시에 12월 중순으로 합의된 직접자회담 기간에 장관급회담을 열시고 함으로써 직접자회담도 사실상 무산시켰다. 우리는 남북합의를 자의적으로 조장·연기하는 행태와 함께 2차 이산상봉기간중 보여 비인도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남북대화에 이성적으로 임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고자 한다.

정충식(鄭忠植) 한직총재의 상봉사업주관을 거부함으로써 장 총재가 외국으로 출국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재인(張在善) 북한직접자 회중앙위원장이 "장 총재 뉘굴이야말로 기린하다"며 "장 총재는 죄에 죽고 용마르게 재 생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을 패륜은 사실은 묵과하기 힘들다. 그는 우리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사전절영 없이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나는가 하면 공개된 행사장에서 사소한 일을 밝히삼아 고성을 지르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뿐만아. 북한측은 평양회제기자를 정시간 사실상 '이탈'한 채 회제정미판 검열하고 관람을 사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용 지

질렀다. 서울과 평양에서는 체제를 선전하는 '김장일 노자' 같은 책자를 남측가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산상봉사업을 정치선전장화하려는 의도도 드러났다. 정전 이후 남북된 487명의 남한주민 가운데 동진호 김판장 김희근씨 한사람을 내세워 마치 감씨가 지진원 북한 양 신진로록 한 것은 속이 들어다보이는 대남전략에 다름아니다.

누가 봐도 감씨의 모친상봉은 더 이상 남북자나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자작극의 범재가 뉘뉘는 난다. 이산가족사업에서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남과 북의 소중한 합의다. 북한은 인도적인 시위를 체제선전에 활용하면서 북한현실 유 있는 그대로 진한 남한의 직접자사총재의 사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의 관련해 남한내에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북한은 3차 이산상봉과 직접자 회담 인기류 공식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산가족들은 상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발을 구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공인해온 이산가족민회소 설치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제 겨우 남북한의 이산가족 400만명이 상봉했을 뿐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오만하지 말고 대화에 열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社說

‘남북’을 ‘이산’으로 다룰 수 없다

정부는 2차 이산가족 희망상봉에서 남북 선원과 남쪽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만난 것이 남북자문제를 이산가족문제 차원에서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남북자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식의 만남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면 모르되, 그것이 곧 남북과 이산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려는 태도라면 천부담 만부담하다. 남북이나 국군포로는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사람이며 이산가족은 전쟁이나 다른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에 따라 남북으로 헤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남북자 문제 등은 북한의 비진행 장기수 송환처럼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정면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동진호 김관장인 강희근씨를 만나고 돌아온 그의 어머니를 기자들과 분리시키려고 차에 태워 빼돌린 뒤 그나마 집에까지 데려다주지도 않고 김희대교 근처에 아무렇게나 내려주고 기버린 우리 당국의 행태로 보아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무망한가를 새삼 깨닫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노력을 여기서 접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도 남북가족의 염원을 풀이해주는 데 다시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정부는 북이 “북한에는 국군포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의거입북자는 있어도 남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문제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권력이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산가족 차원의 문제해결 방식은 이번엔 드러났듯이 북한의 정치산전에 휩쓸려 악용되고 지금까지의 북한주장을 합리화해줄 우려도 있다. 동진호 김관장 감씨는 어머니와의 상봉에서 ‘무상교육 무상치료’ 운운하면서 의거입북한 것처럼 말했다. 그것이 그의 자의인지, 감입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남북자 등의 생살어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차원의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의거 입북자’밖에 더 나오겠는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야 한다. 1차적으로 남북자 487명과 국군포로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50여명의 송환을 요구해야 하며 그것을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NGO들과도 협조해야 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세월이 너무 지나 북에서 기질을 이루고 있거나 북한체제에 순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쳐 자발적 선택에 맡기야 한다.

분수대

영원한 이별은 말게

지금 금강산은 풍악(楓嶽)도, 개골(峯骨)도 아니다. 온산을 붉게 물들이던 단풍도 버섯버섯 말라 떨어지고 아직 눈도 뿜뿜 내리지



않아 금강은 하얀 근육을 본디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울과 광양에서 이산가족들이 긴 이별 중의 짧은 만남을 갖고 있던 옛그제, 금강산은 가을산에서 겨울산으로 넘어가며 아무 것도 뽐내지 않고 있었다.

북측의 안내원마저 "가장 볼 것이 없을 때 왔습네다"며 속스러워했다. 그러나 금강산 벗길에 열린 2년 전에 비해 금강산에는 분명 흔쾌한 인정이 있었다. 남과 북 사람 사이의 따뜻한 통합 말이다. 2년 전 북측의 안내원들은 우리가 호기심으로 묻는 말에만 팔뚝하게 답변하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먼저 관광객들에게 말을 건네온다. 미국 대통령선거 등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느냐"는 등 제법 속깊은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한다. 관광객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안내하고 미끄러운 길에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한다.

가는 곳마다 안내원들의 자상한 태도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해 "2년 전하고

는 당신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며 솔직히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마음부터 솔직하게 열어놓아야 모든 것이 잘 통하지 않겠느냐"며 "동포의 정이 어디 다룰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솔직히 터놓고 만나 통일을 이루자는 말이다.

지난 1일 운보(雲浦) 김기창(金基昶) 화백은 병상에서 북에서 온 남동생을 만났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일을 죽은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여동생의 편지도 보았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헤어졌다.

"이별이게./그러나/아주 영 이별은 말고/어디 내생에서라도/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운보 형제의 상봉을 보며 문득 미당(未堂) 서경주(徐廷柱)시인의 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가 떠오른다. 남북으로 헤어진 그들 붉은 형제의 자상봉은 '돌에도 꽃이 핀다'는 불가능에 가깝고 또 '다음 세상에서의 만남'이 될 것 같기에 절절한 슬픔이다.

그러나 다시 찾은 금강산에서 여감할 수 있었다. 통일은 풀꽃이 피는 불가능성도, '연꽃 만나는 바람' 같은 시적 상상력 차원의 것도 아님을. 한번 열린 남북의 마음이 다시 닫힐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북측 금강산 안내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경철 문화부 차장

<bacchus@joongang.co.kr>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어의나루

통일부의 '對北 저자세 극치'

2차 이산가족 상봉이 무사히 끝났지만 최소한 우리측의 대북관계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북지원과 교류문제에 관한 한 친성이나 반대쪽 모두 일종의 선입관이 지배하고 있어 정치권이나 담당 부처는 물론 여론 주도층도 중립적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 왔다. 즉 우리 당국의 저 자세를 지적할 경우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동(反動)'이란 비난에 부닥쳐야 했고 반대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을 꺾어야만 한다고 주장할 경우 '보수의 역풍'을 직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부는 역풍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통일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된 남북이부 가족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이미 언론에 보도도 요청해놓고도 정치권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1일 밤 국회 여결위에서 임영식 차관은 이런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는 한나라당 이재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뽀

사실상 시인했다. 게다가 이런 발언에 대한 보도의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북한이나 외신에서 먼저 보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엄비고(보도금지)"라며 언론사에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바랐다. 이당의 한 인사는 "남북이부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국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2일 보도를 하자 이를 엄비고에서 해제했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망측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했다.

임차관은 더욱이 국회 보고에서 "현재 정중식 총재의 할간지 인터뷰 발언은 남북간에 협의된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볼 때 북한이 비판할 소지가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우리측의 잘못을 시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남측 방문단 정재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김총재는 제가 오는 시점에 맞춰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할말이아말로 기련하다"면서 "그는 죄에 죽고 을바르게 재생해야 할 것"이라고 고압적인 충고를 했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북한 방문단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3시간여 감금에 가까운 행중 제재를 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는 일언반구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북장기인 통일부가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 말더라도 주교도 뽀뽀고 잡히고도 설 설 가는 한심한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지 통일부는 답변해야 할 것이다.

서영석기자 du0280@kmb.co.kr

특파원코너

뉴욕의 南北상봉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나 눈물과 웃음으로 50년동안 맺힌 한을 어루만지던 지난 1일 오후 4시(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강당에서는 남북간 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상봉'이 이뤄졌다. 리청철 주(駐) 유엔북한대표부 대사가 이 학교 한인 총학생회가 주최한 코리아포럼 행사에 초청인사로 나와 강연을 한 것이다.

지난 83년부터 시작해 이날 80년째를 맞이한 코리아포럼에 북한측 인사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무대가 아닌 곳에서 '남한 사람'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학생들은 리 대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도 1시간동안의 강연과 30분간의 질의 응답에 시종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그는 우리말로 강연을 한 뒤 외국어나 우리말을 모르는 교포2세들을 위해 강연내용을 직접 영어로 간추려 다시 설명했다. 질의 응답은 아예 영어로 주고받았다.

"남조선 사람들에게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동포들을 나누러 왔다"며 말문을 연 리 대사는 '동포'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

이날 초청이 공화국 대표로서의 공식적인 사업과는 무관하지만 동포로서 심금을 나누고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학생들이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쁘다는 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민족 통일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은 "민족 자주 대단결을 통해 동포들끼리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나가는 능동한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리 대사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청년학생들이 통일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끝냈고 학생들은 컬럼비아대학 로고가 새겨진 운동복을 선물로 주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서울-평양의 상봉이 과거 이념의 차이였다면 뉴욕에서의 남북한 상봉은 미래의 하나됨을 예고해주는 것 같았다. 뉴욕=윤동민 특파원 dongjin@hankyung.com

기자메모

남측 기자 억류한 北

북측이 2차 상봉 때 기사 내용을 이유로 평양을 방문한 조선일보 사 진기자 1명을 3시간 넘게 '사실상 억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산상봉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기자는 지난 1일 밤 11시45분, 평양에서 10여명은 이곳에서 "조선일보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났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 왜 조선일보만 그런 기사가 나가느냐"고 따졌다. 이 날짜 조선일보에 실린 '김정일장군 호칭 갖아 남가족 머속'이란 제목의 기사를 거뒀던 듯했다. 지점 무렵 우연히 이 방에 들른 남측 연락관이 "김금"이라며 항의하고 격각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이 기자는 2일 새벽 3시경에 아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이 기자의 카메라 등도 검사했다. 나아가 2일 조선일보나 남측 연락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산가족들의 한송 상봉과 서울 출발을 지연시켰다. 사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북측이 요구를 철회하면서 대두되었다.

북측은 "그간 남측 인사나 언론이 북측 취재를 거론할 경우 일관되게 문제를 삼아왔다. 남북이 정상회담 후 상대편 취재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북측은 이번엔 자신들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남측이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점을 무시했다. 더욱이 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을 행사하며 풀려 한 것은 남측이 되지 않는다. 정상회담후 북측의 태도에 대해 이런 지적 없이 남측 내부에서 많지만 남측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북측은 인식해야 한다. 화해와 협력은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이뤄지는 법이다.

이 기자는 2일 새벽 3시경에 아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이 기자의 카메라 등도 검사했다. 나아가 2일 조선일보나 남측 연락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산가족들의 한송 상봉과 서울 출발을 지연시켰다. 사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북측이 요구를 철회하면서 대두되었다.

이 기자는 2일 새벽 3시경에 아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이 기자의 카메라 등도 검사했다. 나아가 2일 조선일보나 남측 연락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산가족들의 한송 상봉과 서울 출발을 지연시켰다. 사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북측이 요구를 철회하면서 대두되었다.

김치부 최재영 cjung@kwhngyang.com



朝鮮日報

기자수첩

2일 오후 3시50분 김포공항 국제선 2층사. 북측 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100명의 이산가족중 특히 김상례(73) 할머니에게 기자들이 물려들었다. 남북된 동진호의 갑판장이었던 아들 김희근(49)씨를 만나고 온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어떻게 산대요? 동진호 선원들이 아기는 물어보셨어요?"

"어플한테는 아무것도 못 물어 봤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돼." 5분여쯤 지났을까, 경찰관들이 물려와 할머니를 데려가 버렸다. 잠시후 "김 할머니가 경찰차를 타고 강화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기자들은 다투어 강화도로 달렸다. 기자들은 김희근과 못미친 지점 국도 위에 김 할머니와 최우영(남북자 가족 협의회 회장)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자회견 후 '택시 타고 가겠다'는 할머니를 정부 관계자들이 '차로 모시겠다'며 억지로 경찰차에 태웠어요. 한참을 달리다 강화도가 눈 앞에 보이자 경찰관들은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통일부

관계자는 '그러라'고 했어요." 할머니와 줄곧 동행했던 최씨는 흥분해 있었다.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할머니를 차에 태웠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할머니를 내려놓고 가버린거죠."

기자들의 취재차에 '구제'돼 강화도의 한 뒷집에 들어간 할머니는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글에 아들과 속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나가..."

"정부에서 '어떻게 지냈나' '얼마나 고생했나' 따위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어. 북한에서도 아들과 둘만 있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어. 물어볼 엄두가 안났어." 꿈에도 못꿨던 아들을 13년 만에 만나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남과 북의 정부, 그리고 기자들을 따돌리자 칠순 할머니를 국도위에 '버려놓고'간 경찰과 통일부 직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실재 상황'이었다.

/廣康 殊 시회부기자 kyoung@chosun.com



길에 버려진 '동진호 할머니'

시론



鄭承祖

남북정상회담 이후 날이 갈수록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는 오만방자해지고 마치 침령군처럼 안하무인적으로 실체대며 팔고 다닌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그러한 북한의 작태를 못 본 체하며 계속 비위맞추기에 여념이 없어 남북대화에서 정부는 속뜻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北측 '안하무인' 태도 목인

북한이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총재의 한 일간지 인터뷰 내용을 들먹이며 거부반응을 일으키자 정부는 시둘러 북한에 '해명서한'을 보냈는가 하면 장 총재가 알아야 할 이산가족 평양방문단 단장마저 한직 부총재로 일론 교체했다.

실상 북한이 장 총재를 거부하게 된 속내는 일간지 인터뷰 내용이 아니다. 장 총재가 10월 19일

지로 장재인(張在彦)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유감표명서한 내용이 그것이었다.

정부의 의도를 담은 이 시한은 북한측이 이산가족 추가상봉 후보지 명단 및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장 총재는 이 시한에서 북한의 무성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6·15공동선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신뢰와 회개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일난했다.

장 부총재로 교체해 주었고 장 총재를 돌연 일본으로 떠나게 했다.

북한은 남한의 무기력한 비위맞추기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 같은 행태는 북한측 이산가족들과 북한적십자회 간부들의 인정을 뽐내 드러났다.

지난 30일 밤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한직 주최 만찬장에 나온 북측 사람들은 이산의 아픔을 달래려 온 것이 아니라 해방구에 진입한 혁명군처럼 군림했다.

이들은 만찬 초반부터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등을 목청높여 노

압류하기도 했다.

저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트이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북측에 의해 북측 입맛대로 북측 방함과 목적으로 팔리고 있음을 실증했다.

이벤트성 행사 지양 돼야

남한은 북한에 엄청난 금강산관광비, 소매, 비료, 식량 등을 퍼주면서도 북한에 의해 행패를 당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선전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마치 북한측은 침령군이고 남한측은 판짜못하고 그들의 눈치나 실핀다는 감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아마도 김정일은 남한이 그의 손아귀 안에 들어 있다고 착각할는지 모른다. 그의 손아귀에서 남북관계가 지속될 때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무슨 짓을 자못케 할지 모른다.

정부는 북한이 오만한 행세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정부는 이벤트성 교류보다는 본질적인 제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당국은 김정일과 같은 1인 우상화 독재자에 대한 압보와 비위맞추기가 끝내 그를 더 한층 들뜨게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하길 바란다. /단국대학교수·정치학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北韓 비위만 맞추나

북한으로서는 이 대목이 6·15선언 당사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인사로 간주, 크게 흥분한 듯싶다. 북한은 보복구실을 찾던 중 장 총재의 일간지 인터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북한측 이산가족들의 웃메무새가 초라하다는 장 총재의 인터뷰는 북한이 그렇게 문제삼을 내용이 아니라는 데서 그렇다.

정부는 저와 같은 북한의 장 총재와 장부 길들이기 생트집과 관련해 잘못이 없다고 맞섰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덩당한 입장표명은 접어둔 채 북한 비위맞추기에만 급급했다.

시둘러 이산가족 평양방문단 단

래졌는가 하면 뭇번이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끌어내 손을 맞잡고 노래를 감요하기도 했다.

장재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은 만찬사에서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은덕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또 법 것도 아닌 일을 트집잡아 통일부장관 만찬에 1시간30분이나 늦게 나왔다.

그런가 하면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북한의 한 가족이 "장군님(김정일) 만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텔에서 북한요원들이 조선일보 거자를 빈방으로 데려가 3시간 동안이나 억류하고 기사발만을 토로하며 필통 등을

본수대

우리 문화에 비친 6·25의 최우대답·이산가족 문제는 거의가 정치색과는 무관한 민초(民草)들의, 치지와 생각에 초점이 맞춰졌다.



1978년 발표된 전상국(全相國)의 중편소설 '물길라 때사'의 무대는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강원도 홍천. 전쟁 위층에 국군과 인민군이 빈집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평화롭던 마을은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살육의 장(場)'으로 돌변한다.

이호철(李浩哲)의 단편 '민조(蔘草)'도 국군이 점령한 북한지역 마을이 배경이다. 공산정권에 협력했던 이들은 진전공공하고, 마을 이장은 국군·인민군을 오가는 행위에 대해 "다 그놈의 똥쓸 바람 탓"이라고 여겨 변호한다. 후자의 다른 단편

이산가족과 정치색

'나상(那相)'에서 죽을 고비를 겪으며 삼팔선을 넘어 왔던 형제는 전쟁이 터진 뒤 국군에 징집됐다기 전후 중 인민군의 모포가 되고 만다. 이중 지병이 있던 형은 북으로 끌려가던 중 디밭총에 맞아 희생된다. 이반신(李範信)의 '오발탄'에서 주인공의 노모가 두고 온 북의 고향친친을 그리며 '비치 땀작집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기제! 기제!"고 외쳐대는 장면은 요즘도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에게는 남의 일감지 않은 비극일 것이다.

물론 남이든 북이든 북정 정권이나 이데올로기에 확신을 품고 뛰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조정래(趙廷來)의 장편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엄장진 같은 인물형이다. 그러나 이런 이데올로기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민초상(像)의 원형(原型)에 얼마나 가까운지 의문이다.

지난 주말 끝난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은 북한측의 '정치공세'가 두드러진 행사였다. /남측 '적십자사' 총재를 초청해 '피해, 죽고 울바르게 재생하라' '물결이 기원하다' 등 안하무인적의 언사를 해낸 북측 책임자는 별도로 치더라도, 일반 상봉자들도 우리 국민이 보기엔 짙은 정치색을 풍겼다. "북에서 성공했어요"라며 희위원·훈장을 내보이고 하나같이 '장군님' 칭송을 반복하는 열육 앞에서 우리측 상봉자들은 인도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연민이 있었을까. 우리 정부의 이분한 자세부터 문제지만 북측도 자기네 이념과 기준만이 '한반도 표준'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밟아지던 상봉시업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려지는 것인지.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간다'는 6·15선언 문구기 무색해진다. 노재현 논설위원

<jaiken@joongang.co.kr>

한국일보

2000. 12. 5 (화)



이장운 국경부서장

편집국에서

'아 장군님이... 이렇게 기동한 양반은 처음 봤다.'

13년 전 남북된 동진 27호의 갑판장 김희근(49)씨의 어머니 김삼례(73)씨가 지난 1일 평양에서 이들을 상봉할 때 북한 기자들이 "장군님 고마우시죠"라고 물어보자 대꾸한 말이다. 바닷가에 사는 촌부인 김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진다.

지난 주 재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차 때와는 달리 '차분한'

로 기울어진 듯하다. 동진 27호가 나포된 수역인 백령도 근해는 지난해 6월 남북한 간에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다. 지난 11월 14일 북한 함정이 이 NLL을 침범해왔는데도 국방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함정 해상작전과정이 자신이 현장 보고를 목격했다고 책임을 떠맡기도 했다. NLL 수역에서 상함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이 명령계통

당국에 눈치만 보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서 화해와 협력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교과서에는 북한 당국이 한국 전쟁 때 지진해 일복했거나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다가 모두 처형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1,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통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서 어엿하게 박사도 되고 지배인도 된 사람들을 보면 북한 실상이 엇박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공을 위한 반공' 교육으로 잘못된 북한관을 갖게 된 것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불행했던 과거라고

'NO'라고 말할수 있는 대북정책

분위기에에서 진행됐다. 김 할머니처럼 남북한 이들을 상봉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듯하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감동과 함께 가슴속에 '여운'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난 탓일까. 정승식 한적 총재의 일본 도파 때문일까. 병이리가 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때문일까, 아니면 일부 언론의 북한 보도 때문일까.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할머니의 말대로 '기동한 양반'이 다스리는 북한을 보는 정부의 시각은 햇볕정책 이후 한 쪽으

를 통해 병력의 해군 2함대 사령부까지 보고한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2000년 국방백서의 제 3절 1항 국방목표에서 "우리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라는 대목을 주적(主敵)인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유엔통치' '벼랑끝 진술' 등을 삭제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포용'이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해 대북 포용 정책을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바꾸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은 물론 주적은 아니지만 북한군은 주적이다. 북한

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 정책만 고집한다면 우리 내부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햇볕정책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주적을 막는 국방부가 화해와 협력 시대를 맞아 유연한 대북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면 한다면 누가 주적을 말할 것인가. 너무 유연하면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마져 막는다면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더더욱 수 밖에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사라질 것이다. 'NO'라고 말할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다. truth21@hk.co.kr

제2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신문기사집

인 쇄 2001년 3월 15일
발 행 2001년 3월 15일

발행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 732-7950)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 2267-9795)

